

서울시 노인·고령 일자리 및 사회보장 정책 연구 - 점진적 은퇴와 퇴직자 노동시장 과제 -

2022. 12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서울시 노인·고령 일자리 및 사회보장 정책 연구

- 점진적 은퇴와 퇴직자 노동시장 과제 -

2022. 12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양경욱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주민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 신솔아 (중앙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목 차〉

| | |
|--|----|
| 1장. 문제인식 - 고령화 사회 대비 일자리 문제 | 1 |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
| 2. 연구 방법 및 구성 | 5 |
| 2장. 서울지역 장년·노인층 일자리 현황 분석 | 7 |
| 1. 서울지역 일자리 특성 | 8 |
| 1) 경제활동현황 | 8 |
| 2) 고용안정성 | 16 |
| 3) 사업장 및 직무 특성 | 24 |
| 2. 직업교육·훈련 및 구직활동 | 29 |
| 1) 직업교육·훈련 | 29 |
| 2) 구직활동 | 32 |
| 3. 사회보험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 | 39 |
| 1) 사회보험 | 39 |
| 2) 전반적 생활환경 | 42 |
| 4. 소결 | 46 |
| 3장. 서울지역 은퇴 및 경제활동 현황 분석 | 49 |
| 1. 은퇴 현황 | 49 |
| 2. 재취업 및 창업 | 55 |
| 1) 취업자의 재취업 및 창업 | 55 |
| 2) 미취업자의 재취업 및 창업 | 58 |
| 3. 소결 | 61 |
| 4장. 서울지역 고령·은퇴노동자 실태와 특징 : 실태조사 분석 | 63 |
| 1. 조사 개요 | 63 |
| 1) 설문조사 개요 | 63 |
| 2) 조사표본 특징 | 63 |
| 2. 서울 고령·은퇴노동자 과거 일자리 및 재취업 현황 | 68 |
| 1) 중장년 시기 주된 일자리 특성 | 68 |
| 2) 이직 및 재취업 현황 | 69 |
| 3. 서울 고령·은퇴자 현재 일자리 특징과 사회안전망 | 74 |

| | |
|--------------------------------------|------------|
| 1) 현재 일자리 현황 | 74 |
| 2) 사회안전망 현황 | 79 |
| 4. 정책 수요와 의견 | 83 |
| 5. 소결 | 89 |
| 5장. 정부 노인·고령 일자리 사업 현황 | 91 |
| 1. 중장년·노인 일자리 정책과 지원사업 현황 | 91 |
| 1) 중앙정부 중장년·고령 노동시장 정책 | 91 |
| 2) 중장년·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유형 | 97 |
| 3)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장년·노인일자리 지원사업 | 98 |
| 2. 서울시 중장년·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 100 |
| 1) 서울지역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문제 | 100 |
| 2) 서울시 자치구별 장년·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 107 |
| 6장. 결론 : 요약 및 정책방향 | 113 |
| 1. 결과요약 | 113 |
| 2. 정책방향 | 121 |
| <참고문헌> | 126 |
| <부록> | |
| 부록1.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장년·노인 일자리 현황 | 128 |
| 부록2. 서울지역 고령 은퇴 노동실태조사 통계표 | 142 |

〈표 및 그림 목차〉

| | |
|--|----|
| <표 1-1>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 | 2 |
| <표 1-2> 서울지역 고령·은퇴 노동실태조사 방법 개요 | 6 |
| <표 2-1> 장년·노인층 경제활동현황(지역 전체) | 9 |
| <표 2-2> 서울지역 중·고령자 경제활동현황 | 9 |
| <표 2-3> 취업자 종사상 지위(지역 전체) | 11 |
| <표 2-4> 서울지역 중·고령자 취업자 종사상 지위 | 11 |
| <표 2-5> 서울지역 산업별 취업자 종사자 지위 | 13 |
| <표 2-6> 서울지역 직업별 취업자 종사자 지위 | 14 |
| <표 2-7> 파견 및 용역근로자 여부(지역 전체) | 15 |
| <표 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 및 직종(지역 전체) | 15 |
| <표 2-9> 고용안정성 여부(임금근로자) | 16 |
| <표 2-10> 고용안정 이유(임금근로자) | 17 |
| <표 2-11> 고용불안정 이유(임금근로자) | 18 |
| <표 2-12> 좋은 일자리의 1순위 조건 | 18 |
| <표 2-13> 좋은 일자리 최소 임금·수입수준 | 19 |
| <표 2-14> 종사상 지위별 정규직 선호도 | 20 |
| <표 2-15> 종사자 지위별 현 고용형태 주된 이유 | 20 |
| <표 2-16> 고용형태 변경여부(상용직) | 21 |
| <표 2-17> 고용형태 변경여부(임시직) | 22 |
| <표 2-18> 고용형태 변경여부(일용직) | 22 |
| <표 2-19> 고용형태 변경여부(고용주/자영업자) | 23 |
| <표 2-20> 종사자 지위별 정규직 전환 기회 유무 및 전환 희망 여부 | 24 |
| <표 2-21> 서울지역 산업별 사업체 규모 | 24 |
| <표 2-22> 직장만족도 및 직무만족도 | 25 |
| <표 2-23> 요인별 직무만족도 , | 26 |
| <표 2-24> 직무-교육수준 적합도 | 27 |
| <표 2-25> 직무-기술(기능)수준 적합도 | 27 |
| <표 2-26> 기술·지식의 타 직장 유용성 | 28 |
| <표 2-27> 직업교육·훈련 유무 및 횟수 | 29 |
| <표 2-28> 직업교육·훈련 목적 | 30 |
| <표 2-29> 직업교육·훈련 분야 및 지원 형태 | 30 |
| <표 2-30> 정부지원훈련 유형 | 31 |

| | |
|---|----|
| <표 2-31> 자격증 취득 여부 및 목적 | 31 |
| <표 2-32> 미취업자 구직여부 | 32 |
| <표 2-33> 성별 지난 1개월 간 비구직 사유 | 33 |
| <표 2-34> 연령별 지난 1개월 간 비구직 사유 | 34 |
| <표 2-35> 주요 구직경로 | 34 |
| <표 2-36> 성별 구직희망 업종 | 35 |
| <표 2-37> 교육수준별 구직희망 업종 | 36 |
| <표 2-38> 희망 고용형태 | 37 |
| <표 2-39> 희망 근로시간제 | 37 |
| <표 2-40> 구직 시 어려움 | 38 |
| <표 2-41> 국민연금 납부 여부 및 가입 형태(비임금근로자) | 39 |
| <표 2-42> 고용보험 가입 여부(비임금근로자) | 40 |
| <표 2-43> 산업별 고용보험 가입률(비임금근로자) | 40 |
| <표 2-44> 사회보험 수급 여부 | 41 |
| <표 2-45> 연령별 수급 사회보험 유형 | 42 |
| <표 2-46> 요인별 생활만족도 | 43 |
| <표 2-47> 현재 건강상태 | 43 |
| <표 2-48> 감각기관 장애 및 육체적 활동 제약 여부 | 44 |
| <표 2-49>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 45 |
| <표 3-1> 은퇴 여부 | 49 |
| <표 3-2> 은퇴의 주된 이유 | 50 |
| <표 3-3> 은퇴의 자발성 여부 | 51 |
| <표 3-4> 은퇴 당시 종사상 지위 | 51 |
| <표 3-5> 은퇴 당시 근로시간 형태 | 52 |
| <표 3-6> 은퇴 당시 일자리 사업체 규모 | 53 |
| <표 3-7> 현재 일자리 및 주된 일자리 여부 | 53 |
| <표 3-8> 현 일자리의 정년제도 | 54 |
| <표 3-9> 퇴직 후 재취업·창업 계획 | 55 |
| <표 3-10> 퇴직 후 재취업·창업을 위한 준비 분야 | 56 |
| <표 3-11> 재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능·지식 수준 | 56 |
| <표 3-12> 재취업·창업을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 | 57 |
| <표 3-13> 재취업·창업 준비 | 58 |
| <표 3-14> 재취업 장애요인 | 58 |
| <표 3-15> 재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능·지식 수준 | 59 |
| <표 3-16> 재취업·창업을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 | 60 |

| | |
|--|-----|
| <표 4-1> 고령·은퇴노동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 63 |
| <표 4-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연령대 | 64 |
| <표 4-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교육 수준 | 64 |
| <표 4-4>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고용상태 | 65 |
| <표 4-5>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직종 | 65 |
| <표 4-6>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가구 형태 | 66 |
| <표 4-7>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거주 형태 | 66 |
| <표 4-8>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점유 형태 | 67 |
| <표 4-9>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거주 지역구 | 67 |
| <표 4-10> 중장년 시기 주된 일자리 특성 | 68 |
| <표 4-11> 은퇴 및 퇴직 방식 | 70 |
| <표 4-12> 재취업 일자리 특성 | 72 |
| <표 4-13> 현재 주된 일자리(세부) | 73 |
| <표 4-14> 주당 평균 근무 일수 | 74 |
| <표 4-15> 하루 평균 노동시간 | 75 |
| <표 4-16> 월평균 소득 - 항목별(..... | 75 |
| <표 4-17> 현재 및 향후 소득(연금/현재, 은퇴 후 생계비) | 78 |
| <표 4-18> 사회보험 가입 여부 | 79 |
| <표 4-19> 업무상 질환에 따른 병원 치료 경험 | 80 |
| <표 4-20> 몸 상태에 따른 결근(업센터즘) 여부(코로나19 제외) | 80 |
| <표 4-21> 질병으로 인한 결근에 따른 생활 어려움 | 81 |
| <표 4-22> 은퇴 이후 애로사항(1순위) | 83 |
| <표 4-23> 은퇴 이후 필요한 지자체 정책(1순위) | 85 |
| <표 4-24> 고령·은퇴자로서 일하면서 겪는 애로사항 | 87 |
| <표 4-25> 고령·은퇴자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 88 |
| <표 5-1> 중앙정부(고용노동부) 신중년 일자리 사업 개요 | 98 |
| <표 5-2> 서울시 일자리 지원센터 및 기관 현황 | 99 |
| <표 5-3> 서울시 중고령 및 어르신 일자리 사업 | 104 |
| <표 5-4> 서울지역 지자체 직접일자리 사업 유형 | 104 |
| <표 5-5> 서울지역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 및 규모(2021년 25개 자치구) | 107 |
| <표 5-6> 서울시 자치구별 장년·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및 규모 | 108 |
| <표 5-7> 서울시 자치구별 장년·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유형별 예산 | 110 |
| <표 6-1> 서울지역 중고령 노동자 은퇴 전후 노동시장 상황 요약(설문조사 결과) | 116 |
| <표 6-2> 주요 해외 국가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 영국,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 122 |
| <표 6-3> 서울지역 중고령 및 은퇴자 전후 고민과 정책 지향 요구도 | 124 |

| | |
|---|-----|
| [그림 1-1]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 2 |
| [그림 1-2] 50대와 60대 고령자의 고용률과 종사상 지위 변화 | 3 |
| [그림 4-1] 월평균 소득의 성별 차이 - 항목별 | 76 |
| [그림 4-2] 월평균 소득 합계 분포도 | 76 |
| [그림 4-3] 월평균 임금소득 분포도 | 77 |
| [그림 4-4] 월평균 소득 합계에서 임금소득 비중 | 77 |
| [그림 4-5] 일하는 과정의 산재 처리 여부 | 82 |
| [그림 4-6] 은퇴 이후 애로사항(1순위+2순위) | 83 |
| [그림 4-7] 은퇴 이후 필요한 지자체 정책(1순위+2순위) | 84 |
| [그림 5-1] 재취원 지원 의무화 내용(2022) | 93 |
| [그림 5-2] 재취원 지원 생애경력설계 ‘구직자 과정’ 프로그램 | 94 |
| [그림 5-3] 고용노동부 전직스쿨 프로그램 | 95 |
| [그림 5-4] 전국 및 서울지역 중장년 노후준비 유형 | 100 |
| [그림 5-5] 전국 및 서울지역 노후준비 지수 | 101 |
| [그림 5-6] 전국 및 서울지역 재무적, 비재무적 노후준비 지수 | 101 |
| [그림 5-7] 서울시 40+전직·이직을 위한 직업 훈련·역량 강화 | 103 |
| [그림 5-8] 서울시 50+ 경력 맞춤 일자리 확대와 디지털 역량 지원 | 103 |
| [그림 6-1] OECD 고용자 고용지원 정책 방향과 목표 | 121 |
| [그림 6-2] 서울시 중장년 노후준비, 중고령·은퇴자 일자리 지원 정책 방향 | 125 |

1장. 문제인식 - 고령화 사회 대비 일자리 문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임. 이미 고령화 추이는 미국을 앞질렀고, 10년 후면 프랑스와 독일을 추월할 상황임. 지난 10년 사이 55세 이상 고령인구 규모는 48만 명(2010년 989,000명 → 2021년 147만명)이나 증가했음.
-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는 아직 절반을 조금 상회(58%)하지만 취업자는 827,000명이나 됨. 그렇다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년을 모두 채우고 퇴직하지는 못함. 정년 이전 퇴직자들은 대개 사업부진이나 휴·폐업 그리고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조기 퇴직의 형태로 일터를 떠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일부를 제외하고 고용안정성이 낮은 한국의 현실임.

- 특히 개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직장을 떠나는 사람(18.8%)이 적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가 '과로 사회'임을 보여주는 단면임. 문제는 60세 및 65세 이후 은퇴/퇴직 이후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 고령·노인이 점차 증가(65세 고령 : 2004년 31만명 → 2021년 176만명)하고 있다는 것임.
- 이런 현실에서 고령·노인일자리에 재직할 때 저임금 및 사회보험 등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하여, 퇴직 이후 빈곤한 현실(2020년 40.4%)도 문제임. 공적 연금이나 이전 소득의 미흡으로 의료, 식비, 주거, 의식주 등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다수의 고령/노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현실임.

- 국내에서 학교를 떠난 이후 생애 동안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2개월에 불과함. 2013년 '60세 정년'이 법제화되어 2016년에 정착되었지만 오히려 지난 10년 전보다 평균 근속 기간은 단축되었음. 직장에 취직해 50대가 되면 절반 이상이 그만두는 상황임.
- 실제로 취업 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은 49.3세에 불과했고, 정년 퇴직자는 10명 중 1명이 고작임.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정착도(labor market attachment)는 통계적 수치가 객관적 사실을 증명해줌.

<표 1-1>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 (단위: 천 명, %)

| 근속기간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 | | | | 연령대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그만둔 연령 | | | |
|-------------|--------------------|--------------|---------|-------|---------------|----------------------|--------------|---------|-------|
| | 2010. 5 | | 2021. 5 | | | 2010. 5 | | 2021. 5 | |
|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 전 체 | 8,999 | 100.0 | 7,993 | 100.0 | 전 체 | 6,562 | 100.0 | 5,245 | 100.0 |
| · 5년 미만 | 1,222 | 13.6 | 1,287 | 16.1 | · 30세 미만 | 365 | 5.6 | 353 | 6.7 |
| · 5~10년 미만 | 1,257 | 14.0 | 1,509 | 18.9 | · 30~39세 | 336 | 5.1 | 455 | 8.7 |
| · 10~20년 미만 | 2,244 | 24.9 | 2,407 | 30.1 | · 40~49세 | 1,146 | 17.5 | 1,110 | 21.2 |
| · 20~30년 미만 | 1,785 | 19.8 | 1,511 | 18.9 | · 50~59세 | 2,831 | 43.1 | 2,669 | 50.9 |
| · 30년 이상 | 2,491 | 27.7 | 1,280 | 16.0 | · 60세~64세/79세 | 1,883 | 28.7 | 983 | 17.4 |
| 균 근속기간 | 19년 8개월 | | 15년 2개월 | | 평균 이직연령 | 53세 | | 49.3세 | |

주: * 현재 취업자와 취업경험 있는 현재 미취업자,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2010년 79세까지 조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각 연도(2010년 5월, 2021년 5월) 원자료 재구성.

[그림 1-1]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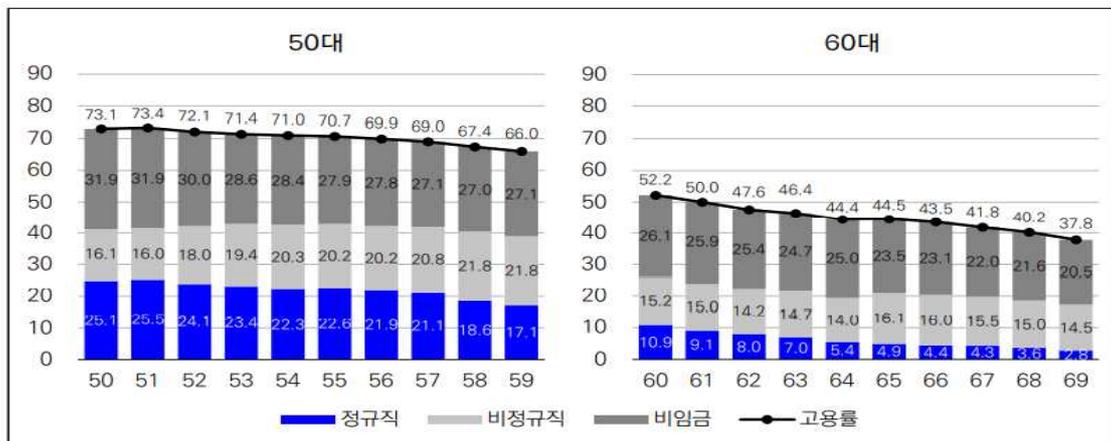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각 연도(2010년 5월, 2021년 5월) 원자료 재구성.

- 한국의 연간 1,908시간의 장시간노동(OECD, 2020)은 노동자 개인의 생애주기 노동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교대제 근무와 고강도 노동을 할수록 더는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 둬. 다른 한편 가족을 돌봐야 하는 현실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적지 않고, 거의 대부분 여성(25%, 남성 1.8%)임.
- 하지만 조기 퇴직 이후 경제활동 참가자 다수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을 선택함.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고령층이 몰리는 것은 지위가 약한 개인들이 비경제활동 상태를 끝내거나 피하려는 필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임.
- 한편 국내 중·고령층 노동시장(남재량·김선빈·장용성·한종석, 2021)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인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주된 일자리 이탈이

가구의 빈곤으로 연결되고 있어 이는 노인빈곤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게다가 노동시장의 저임금 일자리 및 불안정성이 높은 일자리가 적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존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적 안전망에도 사각지대나 배제된 채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등도 심각함.

- 현재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이탈과 더불어 취업자의 비율이 급감하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이탈 직전 90%를 넘던 취업자 비율이 이탈 후 1년이 경과하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비경제활동 비율은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음.
-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이후 취업상태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의 질은 크게 악화되고 있음. 50%에 이르던 상용직 비율이 이탈 3년 후 30% 아래로 하락했고, 이탈 시점에서 65%에 근접하였던 정규직 비율은 이탈 5년 후 35%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음.
- 다른 한편 노인 일자리(고령 시기)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가 집중된 50대와 60대의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이승호·이원진·김수영, 2020). 50대는 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시기임. 50대의 노동계적 유형화를 통해서 주된 일자리의 차이, 퇴직 시점의 차이가 어떤 특성의 고령자들에게서 주로 관측되는지 확인함.
- 60대는 생계유지를 위한 주요 소득원이 노동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비노동소득으로 변화하는 시기임. 노동계적 유형화로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하는 집단과 은퇴 후 노동시장 재진입하는 집단 간 특성 차이가 있음.

[그림 1-2] 50대와 60대 고령자의 고용률과 종사상 지위 변화(단위: %)



자료 : 이승호(2021),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유형과 특성」, 《노동리뷰》,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10쪽.

- 고령 시기별로 고용의 차이가 있으며, 50대는 연령 증가에 따른 고용률 감소(-7.1%p) 추이가 관측되었고, 그러한 변화는 주로 정규직 임금노동자 비중 감소(-8.0%p)에 기인하였으며,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비중은 오히려 증가(+5.7%p)했음. 60대는 연령에 따른 고용률 감소(-14.4%p) 추이가 더 급격히 나타났고, 정규직 임금노동자 비중 감소(-8.1%p)가 가장 컸지만, 비임금노동자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5.6%p) 했음.
- 고령자의 생애과정에서 근로소득은 50대 중반 정점에 이른 후 60대 후반까지 빠르게 감소함. 부분적으로 50대에, 주로 60대에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특히 공적연금 중심의 공적이전소득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지만, 비근로소득 증가 속도보다 근로소득 감소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고령자 총소득은 50대 중반 이후 60대 후반까지 크게 감소 함.
 - 이와 같은 소득 수준의 하락은 빈곤위험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한편 고령자의 노동계적은 주로 근로소득의 증감을, 부분적으로 공적연금과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비근로소득의 변화를 매개로 하여 소득 및 빈곤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음.¹⁾
- 노인·고령 일자리 노동계적 유형화 결과는 한국 사회에 전통적인 은퇴경로 외에도 다양한 경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이승호·이원진·김수영, 2020).
 - 첫째, 고령자의 고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정년의 추가 연장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법정 최소 정년인 60세까지 정규직을 유지하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지 않음. 둘째, 정년 연장의 혜택에서 제외된 고령자들의 고용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안이 요구됨. 셋째, 사적 부양이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서 노후의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
- 고령 노동시장 소득은 첫째, 노년기로 이행할 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소득 수준의 하락과 빈곤율의 상승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둘째, 50대와 60대의 은퇴는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 수준을 하락시키고 빈곤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셋째, 소수의 고령자는 50대와 60대에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과 재진입을 경험하고 있음.
- 그런데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이후 노후준비를 위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가 증가하였고,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0)이 수립되었지만, 이는 선언적인 정책적 접근 일 뿐, 아직 실행방안을 담고 있지는 못함. 향후 노인계층에 편입

1) 50대 중반 이후 근로소득 상대 평균이 급감하여 54세 시점에 전체 인구 총소득 중위값의 118%에 이르렀던 근로소득이 69세 시점에 42%로 떨어졌음.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특히 사회보험소득이 노년기에 증가하였지만, 근로소득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되는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여전히 매우 미흡한 상황임(국회입법조사처, 2020).

- 중장년의 노후 준비는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층이 노후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삶의 영역들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것”이며, 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적극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은퇴 이후 경제적 노후 준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임.

- 한편 정부는 2019년 4월 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현재 고용보험 피가입자 평균 1천 명 이상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은 비자발적 이직 예정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현재 법률 재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로 사업주는 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이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중고령층 일자리와 노동시장 및 직업 훈련 및 구직활동, 사회안전망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서울지역의 은퇴 현황 및 재취업 창업 활동 등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했음.
- 4장에서는 서울지역 고령·은퇴 노동자 실태와 특징(설문, 면접)을 정리했고, 제5장에서는 정부(중앙, 서울)의 중고령층 일자리 정책을 정리했음. 제6장에서는 우리 사회 중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에 맞추어 서울시 정책방향을 제시했음.

2. 연구 방법 및 구성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수의 고령 일자리는 직접재정지원 일자리(단기, 단순, 저임금)의 양적 팽창이 지속되었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제고되지 못했음. 이에 서울시 노인일자리/은퇴자 실태와 특징 및 사회보장 현황 분석(경제활동과 일자리 문제, 노동인권 문제, 소득 변화, 삶의 세계 등)하여, 향후 서울시노사민정협의 차원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및 자료분석, 서울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분석, 노인

일자리/은퇴자 실태와 특징(설문), 노인일자리/은퇴자의 정책과제를 검토했음. 첫째, 문헌 자료 분석은 고령/은퇴자 일자리 노동시장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령 및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및 현황을 검토했음.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분석(각 자치구 자료)했음.

- 둘째, 양적분석은 정부 통계 분석과 설문조사 분석으로 진행했음. 먼저 정부 통계 분석은 전국과 서울, 경기도로 구분하여 고령/은퇴자 일자리 규모와 실태 분석했음. 설문조사는 서울지역 고령자 대상 559명의 표본을 분석했고,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2022.10)했음. 한편 서울지역 고령노동자 대상 현재 일자리 및 은퇴 등 관련 면접조사(7명)를 진행했음.²⁾

<표 1-2> 서울지역 고령·은퇴 노동실태조사 방법 개요

| | 문헌 연구 | 통계 자료 | 설문조사 | 면접조사 |
|----|--|---|---|------------------------------|
| 내용 | 고령 노동시장 선행연구 고용노동부 서울시·자치구 자료 | 통계청 경찰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노동패널 가계조사 패널 국민연금 패널 | 559명(여성 290명) (55-59세 31.5%) (60-64세 32.2%) (65-69세 25.4%) (70-74세 10.9%) | 고령자 7명 (여성 4명) (남성 3명) |
| 시기 | 2020-2022년 | 2020-2021년 | 2022년 10월 7일-20일 | 2022년 10월-12월 |

주 : 정부 통계 분석 자료 세부 내용은 2장의 1절(6쪽) 참조.

2) 서울지역 고령 은퇴 노동자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연구진이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연구조사 초점(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검토 의견 과정 통해 문항 확정을 거쳤음.

2장. 서울지역 장년·노인층 일자리 현황 분석

[중고령자 노동통계 조사 및 분석 자료 목록]

- 장년 및 노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사회보험, 전반적인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정부의 승인통계자료들을 조사대상, 조사항목, 공표범위, 본 연구에의 활용가능여부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조사명 | 조사대상 | 조사항목 | 공표범위 | 활용가능여부 |
|-------------------------|--|--|------|-------------------------------|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취업여부, 취업시간 및 고용계약, 추가취업 및 전직희망 등 | 시도 | X (동/읍 여부만 구분하여 서울시 분석 불가) |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전국 거주 일반가구 | 가구실태, 가구의 소득 및 지출항목 등 | 전국 | X (도시 여부만 구분하여 서울시 분석 불가) |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전국 거주 일반가구 | 가구구성, 자산(실물자산, 금융자산 등), 부채(금융부채, 부채상환능력), 소득, 가계지출(경상이전지출, 주요지출), 노후생활, 기타 | 시도 | X (수도권 여부만 구분하여 서울시 분석 불가) |
|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일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취업희망여부, 이전 직장에 관한 사항 등 | 시군구 | O |
|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가구조사 및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 가구조사(가구원 인적사항, 소득 및 소비, 자산, 부채, 경제상태 등) / 개인조사(경제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특성, 근로시간, 직무 및 생활만족도, 구직활동 등) | 전국 | O |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45세 이상 국민 | 고용현황(경제활동상태, 일자리 지위, 근로시간 등), 소득 및 소비(임금소득, 사업체소득 등), 자산 등 | 시도 | O |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국민연금연구원) | 전국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및 만 50세 이상 개인·배우자 | 가구용 설문(소득, 저축, 자산, 지출 등) / 개인용 설문(경제활동, 고용형태, 종사 일자리의 특성, 은퇴 및 노후생활 등) | 전국 | O |

-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대상자를 서울시에 한정하여 조사자료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분석에 사용할 수 없음.

- 본 연구는 서울시의 장년·노인층 취업자의 일자리 지위나 소득수준 등 경제활동 현황·생활환경뿐 아니라 장년·노인층의 은퇴 이후 삶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종합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용 설문을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고 경제활동 상태, 고용특성, 직무만족도, 구직활동, 사회보험,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는 한국노동패널자료가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분석자료로 판단됨. 또한 한국노동패널 조사는 2015년(18차수)에 장년층의 은퇴와 관련된 부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은퇴 이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장년·노인층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국내 유일의 노동 관련 가구패널조사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거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3차 조사(2020년)까지 완료되었음.
- 한국노동패널자료는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되며,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 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연구는 분석단위 장년·노인층을 만 50세에서 만 74세로 규정하고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23차수(2020년) 개인용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장년·노인층 현황을 분석하였음. 또한 2015년(18차수) 장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여 은퇴 현황과 은퇴 이후 재취업 및 창업 준비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음.

1. 서울지역 일자리 특성

1) 경제활동현황

(1) 경제활동인구

- 2020년 서울시의 장년·노인층의 취업자 수는 1,782,421명으로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57.4%를 차지했고 실업자는 22,264명(0.7%), 비경제활동인구는 1,301,060명(41.9%)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의 취업자 수는 10,686,651명(63.1%), 경기도의 취업자 수는 2,526,480명(62.2%)으로, 서울시가 전국 및 경기 지역에 비해 취업자 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 장년·노인층 경제활동현황(지역 전체)

| | 전체 | 취업자 | | 실업자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국 | 16,945,641 | 10,686,651 | 63.1% | 183,444 | 1.1% | 6,075,546 | 35.9% |
| 서울시 | 3,105,746 | 1,782,421 | 57.4% | 22,264 | 0.7% | 1,301,060 | 41.9% |
| 경기 | 4,059,087 | 2,526,480 | 62.2% | 73,528 | 1.8% | 1,459,080 | 35.9% |

주) 표이름에 별도의 지역 표기가 없는 경우 서울지역 자료를 의미함

- 서울시 장년·노인층의 취업자 현황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취업자 비율이 70.8%, 여성은 45%로 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의 취업자 비중이 70.8%로 가장 높았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았으나 전문대졸과 대졸자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가구주인 경우 취업자 비중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2-2> 서울지역 중·고령자 경제활동현황

| | 전체 | 취업자 | | 실업자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 전체 | 3,105,746 | 1,782,421 | 57.4% | 22,264 | 0.7% | 1,301,060 | 41.9% | |
| 성별 | 남자 | 1,488,659 | 1,054,118 | 70.8% | 12,046 | 0.8% | 422,495 | 28.4% |
| | 여자 | 1,617,086 | 728,303 | 45.0% | 10,218 | 0.6% | 878,565 | 54.3% |
| 연령 | 50대 | 1,525,271 | 1,080,013 | 70.8% | 10,340 | 0.7% | 434,918 | 28.5% |
| | 60대 | 1,218,153 | 615,350 | 50.5% | 6,843 | 0.6% | 595,960 | 48.9% |
| | 70대 초반 | 362,322 | 87,059 | 24.0% | 5,081 | 1.4% | 270,182 | 74.6% |
| 교육수준 | 무학 | 31,945 | 1,613 | 5.0% | - | - | 30,332 | 95.0% |
| | 중졸 | 853,068 | 392,082 | 46.0% | 7,871 | 0.9% | 453,115 | 53.1% |
| | 고졸 | 1,290,987 | 751,950 | 58.2% | 6,418 | 0.5% | 532,619 | 41.3% |
| | 전문대졸 | 238,224 | 162,603 | 68.3% | 3,946 | 1.7% | 71,676 | 30.1% |
| | 대졸이상 | 691,521 | 474,174 | 68.6% | 4,029 | 0.6% | 213,319 | 30.8% |
| 혼인상태 | 미혼 | 158,604 | 93,858 | 59.2% | 1,914 | 1.2% | 62,833 | 39.6% |
| | 기혼유배우자 | 2,416,392 | 1,406,763 | 58.2% | 17,329 | 0.7% | 992,301 | 41.1% |
| | 기혼무배우자 | 530,749 | 281,801 | 53.1% | 3,021 | 0.6% | 245,927 | 46.3% |
| 가구주여부 | 가구주 | 1,856,218 | 1,238,321 | 66.7% | 13,560 | 0.7% | 604,338 | 32.6% |
| | 가구주의 배우자 | 1,171,160 | 499,887 | 42.7% | 8,704 | 0.7% | 662,569 | 56.6% |
| | 기타 | 78,367 | 44,214 | 56.4% | - | - | 34,153 | 43.6% |

[참고1] 전국 중·고령자 경제활동현황

| | | 전체 | 취업자 | | 실업자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 전체 | 16,945,641 | 10,686,651 | 63.1% | 183,444 | 1.1% | 6,075,546 | 35.9% |
| 성별 | 남자 | 8,365,498 | 6,393,951 | 76.4% | 116,921 | 1.4% | 1,854,626 | 22.2% |
| | 여자 | 8,580,143 | 4,292,700 | 50.0% | 66,523 | 0.8% | 4,220,920 | 49.2% |
| 연령 | 50대 | 8,586,101 | 6,415,133 | 74.7% | 94,773 | 1.1% | 2,076,195 | 24.2% |
| | 60대 | 6,471,833 | 3,603,427 | 55.7% | 72,773 | 1.1% | 2,795,632 | 43.2% |
| | 70대 초반 | 1,887,707 | 668,091 | 35.4% | 15,897 | 0.8% | 1,203,719 | 63.8% |
| 교육 수준 | 무학 | 193,971 | 57,079 | 29.4% | - | - | 136,892 | 70.6% |
| | 중졸 | 5,023,427 | 2,672,067 | 53.2% | 48,466 | 1.0% | 2,302,894 | 45.8% |
| | 고졸 | 7,288,608 | 4,777,994 | 65.6% | 69,863 | 1.0% | 2,440,751 | 33.5% |
| | 전문대졸 | 1,232,256 | 908,831 | 73.8% | 25,385 | 2.1% | 298,040 | 24.2% |
| | 대졸이상 | 3,207,380 | 2,270,680 | 70.8% | 39,730 | 1.2% | 896,969 | 28.0% |
| 혼인 상태 | 미혼 | 562,714 | 299,113 | 53.2% | 13,375 | 2.4% | 250,225 | 44.5% |
| | 기혼유배우자 | 13,749,971 | 8,903,651 | 64.8% | 124,685 | 0.9% | 4,721,636 | 34.3% |
| | 기혼무배우자 | 2,632,956 | 1,483,887 | 56.4% | 45,384 | 1.7% | 1,103,684 | 41.9% |
| 가구주 여부 | 가구주 | 9,990,447 | 7,240,622 | 72.5% | 143,869 | 1.4% | 2,605,956 | 26.1% |
| | 가구주의 배우자 | 6,563,652 | 3,279,207 | 50.0% | 33,978 | 0.5% | 3,250,468 | 49.5% |
| | 기타 | 391,541 | 166,823 | 42.6% | 5,597 | 1.4% | 219,122 | 56.0% |

[참고2] 경기지역 중·고령자 경제활동현황

| | | 전체 | 취업자 | | 실업자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 전체 | 4,059,087 | 2,526,480 | 62.2% | 73,528 | 1.8% | 1,459,080 | 35.9% |
| 성별 | 남자 | 2,033,203 | 1,564,418 | 76.9% | 44,514 | 2.2% | 424,271 | 20.9% |
| | 여자 | 2,025,885 | 962,062 | 47.5% | 29,013 | 1.4% | 1,034,809 | 51.1% |
| 연령 | 50대 | 2,227,589 | 1,635,031 | 73.4% | 38,795 | 1.7% | 553,763 | 24.9% |
| | 60대 | 1,476,585 | 780,139 | 52.8% | 32,753 | 2.2% | 663,693 | 44.9% |
| | 70대 초반 | 354,913 | 111,310 | 31.4% | 1,979 | 0.6% | 241,624 | 68.1% |
| 교육 수준 | 무학 | 40,783 | 15,369 | 37.7% | - | - | 25,414 | 62.3% |
| | 중졸 | 921,704 | 494,572 | 53.7% | 10,974 | 1.2% | 416,157 | 45.2% |
| | 고졸 | 1,826,370 | 1,153,898 | 63.2% | 35,463 | 1.9% | 637,009 | 34.9% |
| | 전문대졸 | 237,490 | 167,056 | 70.3% | 11,859 | 5.0% | 58,575 | 24.7% |
| | 대졸이상 | 1,032,741 | 695,584 | 67.4% | 15,231 | 1.5% | 321,925 | 31.2% |
| 혼인 상태 | 미혼 | 126,072 | 71,172 | 56.5% | 7,488 | 5.9% | 47,412 | 37.6% |
| | 기혼유배우자 | 3,351,999 | 2,141,606 | 63.9% | 52,828 | 1.6% | 1,157,565 | 34.5% |
| | 기혼무배우자 | 581,016 | 313,702 | 54.0% | 13,211 | 2.3% | 254,103 | 43.7% |
| 가구주 여부 | 가구주 | 2,390,912 | 1,733,838 | 72.5% | 62,804 | 2.6% | 594,270 | 24.9% |
| | 가구주의 배우자 | 1,585,124 | 752,431 | 47.5% | 9,100 | 0.6% | 823,593 | 52.0% |
| | 기타 | 83,052 | 40,211 | 48.4% | 1,623 | 2.0% | 41,217 | 49.6% |

(2) 취업자 종사상 지위

- 서울시 장년·노인층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이 712,173명으로 가장 많았
고(40%) 다음으로 고용주/자영업자 455,011명(25.6%), 임시직 357,056명(20.1%), 일용
직 207,772명(11.7%), 무급가족종사자 47,919명(2.7%) 순이었음.
-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및 경기 지역과 비교해보면 상용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임시
직 및 일용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확인됨. 비임금근로자인 고용주/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전국 및 경기 지역에 비해 낮았음.

<표 2-3> 취업자 종사상 지위(지역 전체)

|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
| 전국 | 10,679,729 | 4,336,320 (40.6%) | 1,433,023 (13.4%) | 1,012,145 (9.5%) | 3,169,066 (29.7%) | 729,175 (6.8%) |
| 서울시 | 1,779,931 | 712,173 (40%) | 357,056 (20.1%) | 207,772 (11.7%) | 455,011 (25.6%) | 47,919 (2.7%) |
| 경기 | 2,526,480 | 1,138,399 (45.1%) | 395,341 (15.6%) | 200,054 (7.9%) | 665,541 (26.35) | 127,146 (5%) |

- 서울시 장년·노인층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용직 비중은 낮고(38.9%) 임시직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28.6%)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용직의 비중은 줄고 임시직의 비중은 늘어남을 알 수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직 비중이 높고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은 낮았으며 고용주/자영
업자의 비중은 학력 수준 간 편차가 작았음. 또한 기혼이고 배우자가 있는 취업자의 상용
직 비중이 43.3%로 가장 높았고 기혼이고 배우자가 없는 취업자는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2-4> 서울지역 중·고령자 취업자 종사상 지위(단위: %)

| | | 전체 (명)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
| 전체 | | 1,779,931 | 712,173 (40%) | 357,056 (20.1%) | 207,772 (11.7%) | 455,011 (25.6%) | 47,919 (2.7%) |
| 성별 | 남자 | 1,054,118 | 429,831 (40.8%) | 149,617 (14.2%) | 127,917 (12.1%) | 332,836 (31.6%) | 13,916 (1.3%) |
| | 여자 | 725,813 | 282,342 (38.9%) | 207,439 (28.6%) | 79,855 (11%) | 122,175 (16.8%) | 34,002 (4.7%) |
| 연령 | 50대 | 1,077,522 | 520,609 (48.3%) | 162,893 (15.1%) | 126,109 (11.7%) | 243,746 (22.6%) | 24,165 (2.2%) |
| | 60대 | 615,350 | 176,524 (28.7%) | 153,085 (24.9%) | 68,950 (11.2%) | 194,772 (31.7%) | 22,019 (3.6%) |

| | | 전체 (명)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
| | 70대 초반 | 87,059 | 15,039 (17.3%) | 41,078 (47.2%) | 12,713 (14.6%) | 16,493 (18.9%) | 1,735 (2%) |
| 교육 수준 | 중졸 | 392,082 | 98,030 (25%) | 116,610 (29.7%) | 87,977 (22.4%) | 75,964 (19.4%) | 13,502 (3.4%) |
| | 고졸 | 749,459 | 258,396 (34.5%) | 147,428 (19.7%) | 107,840 (14.4%) | 210,976 (28.2%) | 24,818 (3.3%) |
| | 전문대졸 | 162,603 | 80,448 (49.5%) | 40,434 (24.9%) | 4,815 (3%) | 34,943 (21.5%) | 1,962 (1.2%) |
| | 대졸이상 | 474,174 | 274,323 (57.9%) | 51,946 (11%) | 7,139 (1.5%) | 133,128 (28.1%) | 7,637 (1.6%) |
| 혼인 상태 | 미혼 | 93,858 | 36,076 (38.4%) | 21,828 (23.3%) | 7,357 (7.8%) | 28,597 (30.5%) | - |
| | 기혼유배우자 | 1,404,748 | 608,639 (43.3%) | 238,173 (17%) | 143,297 (10.2%) | 368,247 (26.2%) | 46,392 (3.3%) |
| | 기혼무배우자 | 281,325 | 67,457 (24%) | 97,055 (34.5%) | 57,118 (20.3%) | 58,167 (20.7%) | 1,527 (0.5%) |
| 가구주 여부 | 가구주 | 1,238,321 | 481,400 (38.9%) | 219,460 (17.7%) | 160,618 (13%) | 361,401 (29.2%) | 15,443 (1.2%) |
| | 가구주의 배우자 | 497,872 | 210,313 (42.2%) | 130,315 (26.2%) | 45,761 (9.2%) | 80,560 (16.2%) | 30,924 (6.2%) |
| | 기타 | 43,738 | 20,461 (46.8%) | 7,282 (16.6%) | 1,393 (3.2%) | 13,051 (29.8%) | 1,551 (3.5%) |

[참고3] 전국 중·고령자 취업자 종사상 지위

| | | 전체 (명)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
| | 전체 | 10,679,729 | 4,336,320 (40.6%) | 1,433,023 (13.4%) | 1,012,145 (9.5%) | 3,169,066 (29.7%) | 729,175 (6.8%) |
| 성별 | 남자 | 6,393,951 | 2,716,957 (42.5%) | 518,925 (8.1%) | 680,625 (10.6%) | 2,412,952 (37.7%) | 64,493 (1%) |
| | 여자 | 4,285,778 | 1,619,363 (37.8%) | 914,098 (21.3%) | 331,520 (7.7%) | 756,115 (17.6%) | 664,682 (15.5%) |
| 연령 | 50대 | 6,409,528 | 3,196,477 (49.9%) | 649,358 (10.1%) | 547,337 (8.5%) | 1,649,702 (25.7%) | 366,655 (5.7%) |
| | 60대 | 3,602,110 | 1,047,552 (29.1%) | 619,096 (17.2%) | 406,687 (11.3%) | 1,231,815 (34.2%) | 296,959 (8.2%) |
| | 70대 초반 | 668,091 | 92,291(13 .8%) | 164,569 (24.6%) | 58,121 (8.7%) | 287,549 (43%) | 65,561 (9.8%) |
| 교육 수준 | 중졸 | 2,670,749 | 588,727 (22%) | 465,641 (17.4%) | 430,488 (16.1%) | 853,216 (31.9%) | 332,677 (12.5%) |
| | 고졸 | 4,775,503 | 1,910,702 (40%) | 667,448 (14%) | 477,407 (10%) | 1,397,740 (29.3%) | 322,206 (6.7%) |
| | 전문대졸 | 908,831 | 491,634 (54.1%) | 82,353 (9.1%) | 38,223 (4.2%) | 271,415 (29.9%) | 25,206 (2.8%) |
| | 대졸이상 | 2,267,566 | 1,342,475 (59.2%) | 196,635 (8.7%) | 57,659 (2.5%) | 630,951 (27.8%) | 39,846 (1.8%) |
| 혼인 상태 | 미혼 | 299,113 | 127,938 (42.8%) | 36,177 (12.1%) | 47,958 (16%) | 85,784 (28.7%) | 1,255 (0.4%) |
| | 기혼유배우자 | 8,898,522 | 3,743,306 (42.1%) | 1,025,539 (11.5%) | 735,383 (8.3%) | 2,674,978 (30.1%) | 719,315 (8.1%) |
| | 기혼무배우자 | 1,482,094 | 465,075 (31.4%) | 371,307 (25.1%) | 228,803 (15.4%) | 408,304 (27.5%) | 8,604 (0.6%) |
| 가구주 여부 | 가구주 | 7,239,304 | 2,975,411 (41.1%) | 801,461 (11.1%) | 791,299 (10.9%) | 2,599,666 (35.9%) | 71,468 (1%) |
| | 가구주의 배우자 | 3,274,078 | 1,304,404 (39.8%) | 599,438 (18.3%) | 204,573 (6.2%) | 515,788 (15.8%) | 649,875 (19.8%) |
| | 기타 | 166,347 | 56,505 (34%) | 32,124 (19.3%) | 16,273 (9.8%) | 53,613 (32.2%) | 7,832 (4.7%) |

[참고4] 경기지역 중·고령자 취업자 종사상 지위

| | | 전체 (명)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
| 전체 | | 2,526,480 | 1,138,399 (45.1%) | 395,341 (15.6%) | 200,054 (7.9%) | 665,541 (26.3%) | 127,146 (5%) |
| 성별 | 남자 | 1,564,418 | 741,387 (47.4%) | 148,491 (9.5%) | 141,621 (9.1%) | 522,763 (33.4%) | 10,156 (0.6%) |
| | 여자 | 962,062 | 397,012 (41.3%) | 246,849 (25.7%) | 58,433 (6.1%) | 142,778 (14.8%) | 116,990 (12.2%) |
| 연령 | 50대 | 1,635,031 | 907,184 (55.5%) | 187,435 (11.5%) | 94,846 (5.8%) | 371,611 (22.7%) | 73,954 (4.5%) |
| | 60대 | 780,139 | 204,548 (26.2%) | 180,650 (23.2%) | 101,680 (13%) | 249,067 (31.9%) | 44,195 (5.7%) |
| | 70대 초반 | 111,310 | 26,667 (24%) | 27,255 (24.5%) | 3,528 (3.2%) | 44,863 (40.3%) | 8,996 (8.1%) |
| 교육 수준 | 중졸 | 494,572 | 108,341 (21.9%) | 97,515 (19.7%) | 83,593 (16.9%) | 154,344 (31.2%) | 50,780 (10.3%) |
| | 고졸 | 1,153,898 | 517,949 (44.9%) | 201,690 (17.5%) | 103,141 (8.9%) | 262,970 (22.8%) | 68,149 (5.9%) |
| | 전문대졸 | 167,056 | 89,550 (53.6%) | 17,278 (10.3%) | 3,621 (2.2%) | 56,607 (33.9%) | - |
| | 대졸이상 | 695,584 | 420,752 (60.5%) | 70,842 (10.2%) | 6,942 (1%) | 190,229 (27.3%) | 6,820 (1%) |
| 혼인 상태 | 미혼 | 71,172 | 34,032 (47.8%) | 7,845 (11%) | 15,098 (21.2%) | 14,198 (19.9%) | - |
| | 기혼유배우자 | 2,141,606 | 1,005,413 (46.9%) | 310,864 (14.5%) | 132,114 (6.2%) | 566,069 (26.4%) | 127,146 (5.9%) |
| | 기혼무배우자 | 313,702 | 98,954 (31.5%) | 76,632 (24.4%) | 52,843 (16.8%) | 85,274 (27.2%) | - |
| 가구주 여부 | 가구주 | 1,733,838 | 783,929 (45.2%) | 206,823 (11.9%) | 176,063 (10.2%) | 555,309 (32%) | 11,714 (0.7%) |
| | 가구주의 배우자 | 752,431 | 338,871 (45%) | 177,189 (23.5%) | 22,573 (3%) | 98,365 (13.1%) | 115,432 (15.3%) |
| | 기타 | 40,211 | 15,598 (38.8%) | 11,328 (28.2%) | 1,418 (3.5%) | 11,867 (29.5%) | - |

- 서울시 장년·노인층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를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은 제조업 종사자 수가 130,965명(18.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8%), 운수 및 창고업(7.9%)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았음.
- 임시직은 부동산업 종사자 수가 55,885명(15.7%)으로 가장 많고 교육서비스업(12.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5%)이 다음 순이었음.
- 일용직은 건설업 종사자 수가 96,567명(48.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고용주/자영업자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22.5%), 운수 및 창고업(18.2%)이 높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수가 18,064명(37.7%)로 가장 많았음.

<표 2-5> 서울지역 산업별 취업자 종사자 지위

| 산업(대분류)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
| 전체 | 1,758,938 (100%) | 703,036 (100%) | 356,111 (100%) | 198,937 (100%) | 452,935 (100%) | 47,919 (100%) |
| 농업,임업 및 어업 | 582 (0.03%) | - | - | - | 582 (0.1%) | - |
| 광업 | 2,703 | 2,703 | - | - | - | - |

| 산업(대분류)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
| | (0.2%) | (0.4%) | | | | |
| 제조업 | 232,953 (13.2%) | 130,965 (18.6%) | 30,427 (8.5%) | 17,618 (8.9%) | 50,485 (11.1%) | 3,457 (7.2%) |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2,923 (0.2%) | 1,622 (0.2%) | - | - | 1,301 (0.3%) | -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8,730 (0.5%) | 8,730 (1.2%) | - | - | - | - |
| 건설업 | 175,109 (10%) | 34,405 (4.9%) | 15,848 (4.5%) | 96,567 (48.5%) | 26,714 (5.9%) | 1,574 (3.3%) |
| 도매 및 소매업 | 230,734 (13.1%) | 64,079 (9.1%) | 33,331 (9.4%) | 13,467 (6.8%) | 101,794 (22.5%) | 18,064 (37.7%) |
| 운수 및 창고업 | 154,214 (8.8%) | 55,587 (7.9%) | 7,071 (2%) | 7,694 (3.9%) | 82,555 (18.2%) | 1,307 (2.7%) |
| 숙박 및 음식점업 | 124,945 (7.1%) | 37,246 (5.3%) | 27,073 (7.6%) | 19,231 (9.7%) | 35,809 (7.9%) | 5,585 (11.7%) |
| 정보통신업 | 43,984 (2.5%) | 29,831 (4.2%) | 7,415 (2.1%) | - | 6,738 (1.5%) | - |
| 금융 및 보험업 | 59,120 (3.4%) | 27,365 (3.9%) | 15,498 (4.4%) | 1,717 (0.9%) | 14,540 (3.2%) | - |
| 부동산업 | 147,987 (8.4%) | 45,010 (6.4%) | 55,885 (15.7%) | 4,547 (2.3%) | 33,039 (7.3%) | 9,505 (19.8%)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 40,238 (2.3%) | 26,825 (3.8%) | 1,888 (0.5%) | 1,687 (0.8%) | 9,837 (2.2%) | -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67,922 (3.9%) | 18,601 (2.6%) | 23,787 (6.7%) | 5,959 (3%) | 16,947 (3.7%) | 2,629 (5.5%)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60,526 (3.4%) | 43,884 (6.2%) | 13,721 (3.9%) | 2,921 (1.5%) | - | - |
| 교육서비스업 | 118,135 (6.7%) | 45,117 (6.4%) | 43,338 (12.2%) | 317 (0.2%) | 29,363 (6.5%) |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40,491 (8%) | 90,271 (12.8%) | 37,464 (10.5%) | 2,958 (1.5%) | 9,798 (2.2%) |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13,577 (0.8%) | 3,854 (0.5%) | 4,374 (1.2%) | 0(0%) | 5,349 (1.2%) |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22,757 (7%) | 36,119 (5.1%) | 33,356 (9.4%) | 19,401 (9.8%) | 28,083 (6.2%) | 5,798 (12.1%) |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 활동 | 10,486 (0.6%) | - | 5,633 (1.6%) | 4,853 (2.4%) | - | - |
| 국제 및 외국기관 | 824(0%) | 824 (0.1%) | - | - | - | - |

- 서울시 장년·노인층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수가 170,230명(24%)으로 가장 많고 사무종사자가 다음 순이었으며(21.1%), 임시직은 단순노무종사자가 158,975명(45.3%)으로 가장 많고 일용직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91,503명(44.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고용주/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판매종사자 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가 많기 때문임.

<표 2-6> 서울지역 직업별 취업자 종사자 지위

| 직업(대분류)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
| 전체 | 1,761,510 (100%) | 710,726 (100%) | 350,904 (100%) | 204,219 (100%) | 449,719 (100%) | 45,942 (100%) |
| 관리자 | 58,313 (3.3%) | 44,877 (6.3%) | 9,246 (2.6%) | - | 4,190 (0.9%) | - |

| 직업(대분류)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309,117 (17.5%) | 170,230 (24%) | 31,006 (8.8%) | 1,103 (0.5%) | 97,272 (21.6%) | 9,505 (20.7%) |
| 사무종사자 | 182,056 (10.3%) | 149,989 (21.1%) | 18,561 (5.3%) | 0(0%) | 10,400 (2.3%) | 3,106 (6.8%) |
| 서비스종사자 | 207,123 (11.8%) | 74,598 (10.5%) | 56,726 (16.2%) | 18,311 (9%) | 53,897 (12%) | 3,591 (7.8%) |
| 판매종사자 | 209,327 (11.9%) | 49,095 (6.9%) | 22,148 (6.3%) | 13,261 (6.5%) | 105,683 (23.5%) | 19,141 (41.7%) |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2,353 (0.1%) | - | - | - | 2,353 (0.5%) | -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248,521 (14.1%) | 73,284 (10.3%) | 32,903 (9.4%) | 91,503 (44.8%) | 45,861 (10.2%) | 4,969 (10.8%) |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192,612 (10.9%) | 58,005 (8.2%) | 21,339 (6.1%) | 7,507 (3.7%) | 104,427 (23.2%) | 1,335 (2.9%) |
| 단순노무종사자 | 352,089 (20%) | 90,649 (12.8%) | 158,975 (45.3%) | 72,534 (35.5%) | 25,635 (5.7%) | 4,296 (9.4%) |

(3) 파견·용역 및 특수고용

○ 서울시 장년·노인층 취업자 중 파견근로자의 수는 8,612명(0.7%), 용역근로자는 84,433명(6.6%)으로 전국 및 경기지역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 파견 및 용역근로자 여부(지역 전체)

| | 전체 | 직접고용 | | 파견 | | 용역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국 | 6,788,410 | 6,248,325 | 92.0% | 68,114 | 1.0% | 471,970 | 7.0% |
| 서울 | 1,279,492 | 1,186,446 | 92.7% | 8,612 | 0.7% | 84,433 | 6.6% |
| 경기 | 1,733,793 | 1,567,015 | 90.4% | 24,491 | 1.4% | 142,287 | 8.2% |

○ 특수형태근로자의 비중도 15,918명(1.2%)으로 그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며 특수형태근로 직종은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대표적인 특고 직종이 아닌 기타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7,031명(44.2%)으로 가장 높았음.

-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및 경기지역에서 가장 종사자 수가 많은 직종은 보험설계사(각각 49,577명, 7,124명)로 나타남.

<표 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 및 직종(지역 전체)

| | | 전국 | | 서울 | | 경기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특고 여부 | 전체 | 6,788,410 | 100.0% | 1,279,492 | 100.0% | 1,733,793 | 100.0% |
| | 특고 | 134,423 | 2.0% | 15,918 | 1.2% | 19,664 | 1.1% |

| | | 전국 | | 서울 | | 경기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 일반 | 6,653,987 | 98.0% | 1,263,574 | 98.8% | 1,714,129 | 98.9% |
| 특고 직종 | 전체 | 134,423 | 100.0% | 15,918 | 100.0% | 19,664 | 100.0% |
| | 보험설계사 | 49,577 | 36.9% | 4,747 | 29.8% | 7,124 | 36.2% |
| | 학습지도교사 | 5,125 | 3.8% | - | - | 1,376 | 7.0% |
| | 퀵서비스배달기사 | 7,717 | 5.7% | - | - | 1,172 | 6.0% |
| | 골프장캐디 | - | - | - | - | - | - |
| | 기타 | 30,549 | 22.7% | 7,031 | 44.2% | 4,593 | 23.4% |
| | 영업직(대출 등) | 40,626 | 30.2% | 4,139 | 26.0% | 4,569 | 23.2% |
| | AS방문기사 | 829 | 0.6% | - | - | 829 | 4.2% |

2) 고용안정성

(1) 취업자의 고용안정성

- 임금근로자 중 회사가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해고 등이 아니라면 원하는 한 계속 현재의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1,007,404명(78.7%)이었고,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272,088명(21.3%)이었음.
- 고용이 안정적이라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3% 정도 높았고 연령이 50대에서 70대 초반으로 높아질수록 낮았음. 학력별로도 대졸 이상인 경우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90.2%였으나 무학인 경우 60.5%에 불과했음.

<표 2-9> 고용안정성 여부(임금근로자)

| | | 전체 | 고용안정 | | 고용불안정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 1,279,492 | 1,007,404 | 78.7% | 272,088 | 21.3% |
| 성별 | 남자 | 707,365 | 567,003 | 80.2% | 140,362 | 19.8% |
| | 여자 | 572,126 | 440,400 | 77.0% | 131,726 | 23.0% |
| 연령 | 50대 | 812,101 | 686,271 | 84.5% | 125,830 | 15.5% |
| | 60대 | 398,560 | 277,038 | 69.5% | 121,522 | 30.5% |
| | 70대 초반 | 68,831 | 44,094 | 64.1% | 24,736 | 35.9% |
| 교육 수준 | 무학 | 1,613 | 976 | 60.5% | 637 | 39.5% |
| | 중졸 | 302,617 | 216,679 | 71.6% | 85,938 | 28.4% |
| | 고졸 | 516,155 | 379,220 | 73.5% | 136,936 | 26.5% |
| | 전문대졸 | 125,697 | 109,773 | 87.3% | 15,925 | 12.7% |
| | 대졸이상 | 333,409 | 300,757 | 90.2% | 32,653 | 9.8% |

| | | 전체 | 고용안정 | | 고용불안정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혼인 상태 | 미혼 | 65,261 | 52,009 | 79.7% | 13,252 | 20.3% |
| | 기혼유배우자 | 992,124 | 795,091 | 80.1% | 197,033 | 19.9% |
| | 기혼무배우자 | 222,107 | 160,304 | 72.2% | 61,803 | 27.8% |

-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2%(596,886명)로 가장 높았고, 계약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고 있다는 응답은 20.9%(210,625명), 묵시적 관행에 의해 근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응답은 19.8%(199,893명)였음.
- 연령별로 고용안정의 주된 이유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50대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응답자가 454,543명(66.2%)이었으나, 70대 초반의 경우 9,169명(20.8%)이었음. 70대 초반은 계약의 반복·갱신이나 묵시적 관행으로 인해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졸이나 대졸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혼인 상태로는 기혼에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일수록 근로계약 자체가 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표 2-10> 고용안정 이유(임금근로자)

| | | 전체 | 기간정함없음 | | 계약반복갱신 | | 묵시적관행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 1,007,404 | 596,886 | 59.2% | 210,625 | 20.9% | 199,893 | 19.8% |
| 성별 | 남자 | 567,003 | 345,040 | 60.9% | 97,588 | 17.2% | 124,375 | 21.9% |
| | 여자 | 440,400 | 251,846 | 57.2% | 113,037 | 25.7% | 75,518 | 17.1% |
| 연령 | 50대 | 686,271 | 454,543 | 66.2% | 106,596 | 15.5% | 125,133 | 18.2% |
| | 60대 | 277,038 | 133,174 | 48.1% | 82,621 | 29.8% | 61,243 | 22.1% |
| | 70대 초반 | 44,094 | 9,169 | 20.8% | 21,408 | 48.6% | 13,518 | 30.7% |
| 교육 수준 | 무학 | 976 | - | - | 976 | 100.0% | - | - |
| | 중졸 | 216,679 | 89,198 | 41.2% | 67,377 | 31.1% | 60,105 | 27.7% |
| | 고졸 | 379,220 | 224,812 | 59.3% | 82,709 | 21.8% | 71,699 | 18.9% |
| | 전문대졸 | 109,773 | 56,427 | 51.4% | 34,301 | 31.2% | 19,046 | 17.4% |
| | 대졸이상 | 300,757 | 226,450 | 75.3% | 25,263 | 8.4% | 49,044 | 16.3% |
| 혼인 상태 | 미혼 | 52,009 | 26,301 | 50.6% | 13,770 | 26.5% | 11,937 | 23.0% |
| | 기혼유배우자 | 795,091 | 495,243 | 62.3% | 147,801 | 18.6% | 152,048 | 19.1% |
| | 기혼무배우자 | 160,304 | 75,341 | 47.0% | 49,054 | 30.6% | 35,908 | 22.4% |

-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언제든 그만둔다는 조건, 즉 임시직으로 채용으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았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남.

<표 2-11> 고용불안정 이유(임금근로자)

| 고용불안정 이유 | 사례수 | 비율 |
|------------------------|---------|--------|
| 전체 | 271,056 | 100.0% |
| 정해진 고용계약기간 만료 | 83,969 | 31.0% |
| 목시적, 관행적 계약종료 | 10,595 | 3.9% |
| 언제든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채용(임시직) | 116,692 | 43.1% |
| 프로젝트 종료 | 41,912 | 15.5% |
| 대체인력으로 고용됨 | - | - |
| 특정 계절에만 고용됨 | 5,805 | 2.1% |
| 다른 일자리 찾을 예정 | - | - |
| 규정, 관행 상 퇴직연령 도달 | 885 | 0.3% |
| 학업, 가족부양, 건강문제 | 6,546 | 2.4% |
| 직장의 경영상 이유 | 1,881 | 0.7% |
| 기타 | 2,771 | 1.0% |

- 고용안정성은 장년·노인층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응답 대상자에 좋은 일자리의 1순위 조건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는 응답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비중이 높았음. 임금 및 수입이 많은 일자리가 가장 좋은 일자리라고 응답한 비율은 12.9%로, 서울시 장년·노인층의 경우 소득수준보다 고용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표 2-12> 좋은 일자리의 1순위 조건

| | | 전체 | 안정적인 일자리 | 사회적 인정 일자리 | 발전 가능성 높은 일자리 | 적성 , 취향에 맞는 일자리 | 임금 및 수입이 많은 일자리 | 자율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
|----------|--------|-----------|----------------------|------------------|------------------------|--------------------------|--------------------------|---------------------|
| 전체 | | 3,105,746 | 1,903,032 (61.3%) | 155,732 (5%) | 193,892 (6.2%) | 362,888 (11.7%) | 399,294 (12.9%) | 90,909 (2.9%) |
| 성별 | 남자 | 1,488,659 | 906,264 (60.9%) | 86,257 (5.8%) | 87,316 (5.9%) | 151,637 (10.2%) | 207,487 (13.9%) | 49,699 (3.3%) |
| | 여자 | 1,617,086 | 996,767 (61.6%) | 69,475 (4.3%) | 106,576 (6.6%) | 211,251 (13.1%) | 191,807 (11.9%) | 41,210 (2.5%) |
| 연령 | 50대 | 1,525,271 | 877,432 (57.5%) | 66,121 (4.3%) | 102,811 (6.7%) | 189,679 (12.4%) | 232,156 (15.2%) | 57,071 (3.7%) |
| | 60대 | 1,218,153 | 768,923 (63.1%) | 73,872 (6.1%) | 72,264 (5.9%) | 139,048 (11.4%) | 139,449 (11.4%) | 24,598 (2%) |
| | 70대 초반 | 362,322 | 256,676 (70.8%) | 15,739 (4.3%) | 18,817 (5.2%) | 34,161 (9.4%) | 27,688 (7.6%) | 9,240 (2.6%) |
| 교육 수준 | 무학 | 31,945 | 21,349 (66.8%) | 7,131 (22.3%) | - | - | 3,464 (10.8%) | - |
| | 중졸 | 853,068 | 592,969 (69.5%) | 26,374 (3.1%) | 59,383 (7%) | 75,878 (8.9%) | 92,589 (10.9%) | 5,876 (0.7%) |
| | 고졸 | 1,290,987 | 767,924 (59.5%) | 53,391 (4.1%) | 70,446 (5.5%) | 165,337 (12.8%) | 204,131 (15.8%) | 29,758 (2.3%) |
| | 전문대졸 | 238,224 | 144,183 (60.5%) | 3,685 (1.5%) | 14,851 (6.2%) | 35,436 (14.9%) | 36,027 (15.1%) | 4,042 (1.7%) |
| | 대졸이상 | 691,521 | 376,607 (54.5%) | 65,151 (9.4%) | 49,212 (7.1%) | 86,237 (12.5%) | 63,082 (9.1%) | 51,233 (7.4%) |
| 혼인 상태 | 미혼 | 158,604 | 99,330 (62.6%) | 10,036 (6.3%) | 13,256 (8.4%) | 14,430 (9.1%) | 16,227 (10.2%) | 5,326 (3.4%) |
| | 기혼유배우자 | 2,416,392 | 1,462,597 | 122,153 | 153,080 | 283,871 | 318,398 | 76,293 |

| | 전체 | 안정적인 일자리 | 사회적 인정 일자리 | 발전 가능성 높은 일자리 | 적성 , 취향에 맞는 일자리 | 임금 및 수입이 많은 일자리 | 자율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
|--------|---------|--------------------|------------------|------------------------|--------------------------|--------------------------|---------------------|
| | | (60.5%) | (5.1%) | (6.3%) | (11.7%) | (13.2%) | (3.2%) |
| 기혼무배우자 | 530,749 | 341,104(64.3%) | 23,543 (4.4%) | 27,556 (5.2%) | 64,588 (12.2%) | 64,669 (12.2%) | 9,289 (1.8%) |

- 최소 얼마 이상의 임금 또는 수입이 되어야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월 평균임금으로는 336만원, 연 평균임금으로는 6,10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대하는 소득수준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의 최소 임금·수입 수준이 높았음.

<표 2-13> 좋은 일자리 최소 임금·수입수준

| | | 월평균임금(단위 : 만원) | 연평균임금(단위 : 만원) |
|----------|--------|----------------|----------------|
| 전체 | | 336.4 | 6101.4 |
| 성별 | 남자 | 380.0 | 6723.8 |
| | 여자 | 298.4 | 4565.0 |
| 연령 | 50대 | 381.3 | 6272.4 |
| | 60대 | 309.4 | 5721.1 |
| | 70대 초반 | 248.2 | 5596.5 |
| 교육 수준 | 무학 | 194.8 | - |
| | 중졸 | 241.0 | 3061.4 |
| | 고졸 | 338.6 | 5271.5 |
| | 전문대졸 | 361.0 | 4221.8 |
| | 대졸이상 | 465.9 | 7085.9 |
| 혼인 상태 | 미혼 | 305.0 | 6489.3 |
| | 기혼유배우자 | 356.5 | 6165.7 |
| | 기혼무배우자 | 258.4 | 4632.0 |

(2) 고용형태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정규직 선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은 100,963명(62.2%), 임시직은 146,269명(47.6%), 일용직은 93,645명(48.1%), 고용주/자영업자는 10,696명(25.7%)이 정규직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음.
- 남성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규직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편차는 있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음.

<표 2-14> 종사상 지위별 정규직 선호도

| |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자영업자 |
|----------|--------|----------------|----------------|---------------|---------------|
| 전체 | | 100,963(62.2%) | 146,269(47.6%) | 93,645(48.1%) | 10,696(25.7%) |
| 성별 | 남자 | 52,492(71.4%) | 71,417(55.2%) | 62,242(52.4%) | - |
| | 여자 | 48,471(54.6%) | 74,853(42%) | 31,403(41.3%) | 10,696(55%) |
| 연령 | 50대 | 60,198(63.6%) | 64,790(51.1%) | 66,807(57.4%) | 8,935(53.3%) |
| | 60대 | 34,430(62.5%) | 68,490(48.2%) | 26,139(39%) | 1,762(7.4%) |
| | 70대 초반 | 6,335(50.6%) | 12,990(33.5%) | 699(6.1%) | - |
| 교육 수준 | 무학 | - | 637(100%) | - | - |
| | 중졸 | 22,059(51.6%) | 41,806(41.3%) | 34,212(39.8%) | - |
| | 고졸 | 41,988(66.9%) | 60,538(50.1%) | 50,514(51.5%) | 3,434(21.2%) |
| | 전문대졸 | 9,732(43.5%) | 22,608(57.6%) | 3,099(64.3%) | 2,300(31.5%) |
| | 대졸이상 | 27,185(81.3%) | 20,681(45.4%) | 5,820(100%) | 4,962(47.9%) |
| 혼인 상태 | 미혼 | 10,456(87.8%) | 16,566(81.3%) | 4,868(66.2%) | 0(0%) |
| | 기혼유배우자 | 84,031(65.5%) | 97,809(47%) | 63,108(45.8%) | 7,262(23.3%) |
| | 기혼무배우자 | 6,477(29.2%) | 31,894(40.2%) | 25,669(51.7%) | 3,434(56.8%) |

- 취업자들이 현재의 고용형태로 일을 하는 주된 이유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72,455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지금 직장에서 퇴직 또는 정리해고 후 재취업했기 때문인 경우가 18.6%(131,511명)으로 나타남.
- 종사자 지위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응답자는 임시직이 가장 많았고 현 직장에서 퇴직·정리해고 후 재취업되었다는 응답자는 상용직이 가장 많았음.
- 일용직 및 고용주/자영업자는 일의 성격상 또는 계절성 일자리이기 때문에 현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상용직, 임시직에 비해 더 높았음.

<표 2-15> 종사자 지위별 현 고용형태 주된 이유

| 사회보험 유형 |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자영업자 |
|--------------------------------|-----|---------|---------|---------|---------|--------------|
| 전체 | 사례수 | 706,270 | 162,314 | 307,560 | 194,755 | 41,641 |
| | 비율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지금 직장에서 퇴직 또는 정리해고 후 재취업되었기 때문 | 사례수 | 131,511 | 39,208 | 62,301 | 29,420 | 582 |
| | 비율 | 18.6% | 24.2% | 20.3% | 15.1% | 1.4% |
|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 사례수 | 72,455 | 138,106 | 97,565 | 18,201 | 326,327 |
| | 비율 | 44.6% | 44.9% | 50.1% | 43.7% | 46.2% |
| 이 직장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 | 사례수 | 7,887 | 4,873 | 3,014 | - | - |
| | 비율 | 1.1% | 3.0% | 1.0% | - | - |
|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서 | 사례수 | 46,755 | 19,863 | 12,112 | 10,283 | 4,497 |
| | 비율 | 6.6% | 12.2% | 3.9% | 5.3% | 10.8% |
| 가사 | 사례수 | 11,660 | 1,467 | 7,441 | 987 | 1,765 |
| | 비율 | 1.7% | 0.9% | 2.4% | 0.5% | 4.2% |

| 사회보험 유형 |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자영업자 |
|---------------------|-----|--------|-------|--------|--------|--------------|
| 육아, 자녀돌봄 | 사례수 | 12,948 | - | 11,236 | - | 1,712 |
| | 비율 | 1.8% | - | 3.7% | - | 4.1% |
| 많은 임금을 보장하므로 | 사례수 | 28,315 | 4,556 | 5,557 | 16,270 | 1,932 |
| | 비율 | 4.0% | 2.8% | 1.8% | 8.4% | 4.6% |
|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 사례수 | 8,328 | 7,441 | 887 | - | - |
| | 비율 | 1.2% | 4.6% | 0.3% | - | - |
| 단기간만 일하기를 원했기 때문 | 사례수 | 9,156 | 1,105 | 5,347 | 2,704 | 0 |
| | 비율 | 1.3% | 0.7% | 1.7% | 1.4% | 0.0% |
| 돈이 급해서 | 사례수 | 5,128 | 1,706 | 2,121 | - | 1,301 |
| | 비율 | 0.7% | 1.1% | 0.7% | - | 3.1% |
| 건강 상 이유로 | 사례수 | 28,982 | 2,670 | 18,184 | 8,128 | - |
| | 비율 | 4.1% | 1.6% | 5.9% | 4.2% | - |
| 은퇴 후 소일거리 | 사례수 | 41,122 | 3,775 | 28,713 | 5,543 | 3,091 |
| | 비율 | 5.8% | 2.3% | 9.3% | 2.8% | 7.4% |
| 일의 성격 상 or 계절성 일자리 | 사례수 | 45,351 | 1,903 | 11,033 | 23,855 | 8,560 |
| | 비율 | 6.4% | 1.2% | 3.6% | 12.2% | 20.6% |
| 기타 | 사례수 | 2,800 | 1,292 | 1,508 | - | - |
| | 비율 | 0.4% | 0.8% | 0.5% | - | - |

○ 취업자가 원래부터 현 고용형태였는지 아니면 다른 고용형태에 있다가 전환된 것인지에 대해 종사자 지위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상용직의 경우 원래부터 현 고용형태였다 는 응답이 82%(133,025명)였음.

- 고용형태의 전환이 없었던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이나 대졸 보다는 중졸 및 고졸의 비중이 더 높았음.

<표 2-16> 고용형태 변경여부(상용직)

| | | 전체 | 원래부터 현 고용형태 | | 다른 고용형태에서 전환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 162,314 | 133,025 | 82.0% | 29,289 | 18.0% |
| 성별 | 남자 | 73,559 | 53,938 | 73.3% | 19,621 | 26.7% |
| | 여자 | 88,755 | 79,087 | 89.1% | 9,668 | 10.9% |
| 연령 | 50대 | 94,676 | 77,974 | 82.4% | 16,702 | 17.6% |
| | 60대 | 55,115 | 45,400 | 82.4% | 9,716 | 17.6% |
| | 70대 초반 | 12,522 | 9,652 | 77.1% | 2,871 | 22.9% |
| 교육 수준 | 무학 | 976 | - | - | 976 | 100.0% |
| | 중졸 | 42,737 | 36,451 | 85.3% | 6,286 | 14.7% |
| | 고졸 | 62,752 | 58,738 | 93.6% | 4,013 | 6.4% |
| | 전문대졸 | 22,398 | 17,409 | 77.7% | 4,989 | 22.3% |
| | 대졸이상 | 33,451 | 20,426 | 61.1% | 13,025 | 38.9% |
| 혼인 | 미혼 | 11,910 | 11,910 | 100.0% | - | - |

| | | 전체 | 원래부터 현 고용형태 | | 다른 고용형태에서 전환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상태 | 기혼유배우자 | 128,242 | 105,648 | 82.4% | 22,594 | 17.6% |
| | 기혼무배우자 | 22,162 | 15,467 | 69.8% | 6,694 | 30.2% |

○ 다음으로 임시직의 경우 원래부터 임시직이었다는 응답이 85.4%(262,542명)로 나타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현 고용형태를 유지한 경우가 더 많았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일자리에서 처음부터 임시직이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음.

<표 2-17> 고용형태 변경여부(임시직)

| | | 전체 | 원래부터 현 고용형태 | | 다른 고용형태에서 전환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 307,559 | 262,542 | 85.4% | 45,017 | 14.6% |
| 성별 | 남자 | 129,283 | 106,183 | 82.1% | 23,100 | 17.9% |
| | 여자 | 178,276 | 156,359 | 87.7% | 21,917 | 12.3% |
| 연령 | 50대 | 126,735 | 107,119 | 84.5% | 19,616 | 15.5% |
| | 60대 | 142,007 | 123,218 | 86.8% | 18,789 | 13.2% |
| | 70대 초반 | 38,817 | 32,205 | 83.0% | 6,612 | 17.0% |
| 교육 수준 | 무학 | 637 | 637 | 100.0% | - | - |
| | 중졸 | 101,339 | 82,091 | 81.0% | 19,248 | 19.0% |
| | 고졸 | 120,808 | 102,690 | 85.0% | 18,118 | 15.0% |
| | 전문대졸 | 39,246 | 35,268 | 89.9% | 3,978 | 10.1% |
| 혼인 상태 | 대졸이상 | 45,529 | 41,857 | 91.9% | 3,672 | 8.1% |
| | 미혼 | 20,377 | 14,096 | 69.2% | 6,281 | 30.8% |
| | 기혼유배우자 | 207,909 | 178,454 | 85.8% | 29,455 | 14.2% |
| | 기혼무배우자 | 79,273 | 69,992 | 88.3% | 9,282 | 11.7% |

○ 일용직은 상용직이나 임시직에 비해 현 일자리에서 원래부터 일용직으로 일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91.8%(178,780명)로 나타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임시직 고용형태를 유지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음.

<표 2-18> 고용형태 변경여부(일용직)

| | | 전체 | 원래부터 현 고용형태 | | 다른 고용형태에서 전환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 194,756 | 178,780 | 91.8% | 15,976 | 8.2% |
| 성별 | 남자 | 118,789 | 111,702 | 94.0% | 7,087 | 6.0% |
| | 여자 | 75,967 | 67,078 | 88.3% | 8,890 | 11.7% |
| 연령 | 50대 | 116,375 | 107,538 | 92.4% | 8,837 | 7.6% |
| | 60대 | 66,987 | 62,023 | 92.6% | 4,964 | 7.4% |
| | 70대 초반 | 11,393 | 9,218 | 80.9% | 2,175 | 19.1% |
| 교육 | 무학 | - | - | - | - | - |

| | | 전체 | 원래부터 현 고용형태 | | 다른 고용형태에서 전환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수준 | 중졸 | 86,013 | 80,062 | 93.1% | 5,951 | 6.9% |
| | 고졸 | 98,107 | 88,082 | 89.8% | 10,025 | 10.2% |
| | 전문대졸 | 4,815 | 4,815 | 100.0% | - | - |
| | 대졸이상 | 5,820 | 5,820 | 100.0% | - | - |
| 혼인 상태 | 미혼 | 7,357 | 7,357 | 100.0% | - | - |
| | 기혼유배우자 | 137,722 | 124,974 | 90.7% | 12,748 | 9.3% |
| | 기혼무배우자 | 49,678 | 46,449 | 93.5% | 3,229 | 6.5% |

○ 마지막으로 고용주/자영업자는 92.6%(38,579명)가 원래부터 고용주/자영업자 지위를 영위해왔다고 응답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고용주/자영업자 고용형태를 유지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음.

<표 2-19> 고용형태 변경여부(고용주/자영업자)

| | | 전체 | 원래부터 현 고용형태 | | 다른 고용형태에서 전환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 41,642 | 38,579 | 92.6% | 3,063 | 7.4% |
| 성별 | 남자 | 22,191 | 22,191 | 100.0% | - | - |
| | 여자 | 19,451 | 16,388 | 84.3% | 3,063 | 15.7% |
| 연령 | 50대 | 16,754 | 16,754 | 100.0% | - | - |
| | 60대 | 23,850 | 20,788 | 87.2% | 3,063 | 12.8% |
| | 70대 초반 | 1,038 | 1,038 | 100.0% | - | - |
| 교육 수준 | 무학 | - | - | - | - | - |
| | 중졸 | 7,787 | 7,787 | 100.0% | - | - |
| | 고졸 | 16,197 | 14,896 | 92.0% | 1,301 | 8.0% |
| | 전문대졸 | 7,292 | 7,292 | 100.0% | - | - |
| | 대졸이상 | 10,367 | 8,605 | 83.0% | 1,762 | 17.0% |
| 혼인 상태 | 미혼 | 4,389 | 4,389 | 100.0% | - | - |
| | 기혼유배우자 | 31,204 | 29,443 | 94.4% | 1,762 | 5.6% |
| | 기혼무배우자 | 6,049 | 4,748 | 78.5% | 1,301 | 21.5% |

○ 전체 취업자 중 62,986명(8.9%)만이 현재 직장이 직원들에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취업자는 56.1%(매우 그렇다는 응답률 21.8%와 그런 편이라는 응답률 34.3%의 합계)였음.

- 종사자 지위별로 살펴보면 직장에서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고 전환을 희망한다는 응답자 모두 상용직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일용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53.8%)이 더 높았음.

<표 2-20> 종사자 지위별 정규직 전환 기회 유무 및 전환 희망 여부

| | 정규직 전환 기회 | | | 정규직 전환 희망 | | | |
|----------|-----------|------------------|--------------------|-----------|--------------------|--------------------|--------------------|
| | 전체 | 있음 | 없음 | 전체 |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전체 | 708,761 | 62,986 (8.9%) | 645,776 (91.9%) | 608,040 | 132,748 (21.8%) | 208,289 (34.3%) | 267,003 (43.9%) |
| 상용직 | 162,314 | 27,672 (17%) | 134,641 (83%) | 142,583 | 31,066 (21.8%) | 69,853 (49%) | 41,664 (29.2%) |
| 임시직 | 307,559 | 17,261 (5.6%) | 290,298 (94.4%) | 265,557 | 70,062 (26.4%) | 86,075 (32.4%) | 109,420 (41.2%) |
| 일용직 | 194,756 | 17,576 (9%) | 177,180 (91%) | 169,820 | 28,419 (16.7%) | 50,061 (29.5%) | 91,339 (53.8%) |
| 고용주/자영업자 | 41,642 | - | 41,642 (100%) | 27,589 | 3,200 (11.6%) | 2,300 (8.3%) | 22,089 (80.1%) |

3) 사업장 및 직무 특성

(1) 산업별 사업체 규모

- 임금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를 살펴보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52.4%(590,190개)로 가장 높았으며 100~299인 규모 사업체의 비중(3.9%)이 가장 낮았음.
- 숙박 및 음식점업이 10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85.5%) 10~29인 규모에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32.5%), 30~99인과 100~299인 규모에서는 정보통신업(각각 29.1%, 18.4%)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음.
-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는 사업체 수가 매우 적은 광업과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하고는 금융 및 보험업이 55.2%로 나타나,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큰 사업체 비중이 높았음.

<표 2-21> 서울지역 산업별 사업체 규모

| 산업(대분류) | 전체 | 10인 미만 | 10~29인 | 3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
| 전체 | 1,125,831 | 590,190 (52.4%) | 220,675 (19.6%) | 160,408 (14.2%) | 43,398 (3.9%) | 111,160 (9.9%) |
| 농업,임업 및 어업 | - | - | - | - | - | - |
| 광업 | 2,703 | - | - | - | - | 2,703 (100%) |
| 제조업 | 201,936 | 122,088 (60.5%) | 51,828 (25.7%) | 20,114 (10%) | - | 7,906 (3.9%) |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1,622 | - | 1,622 (100%) | - | - | -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 - | - | - | - | - |
| 건설업 | 86,921 | 43,847 (50.4%) | 24,089 (27.7%) | 8,154 (9.4%) | 1,421 (1.6%) | 9,411 (10.8%) |
| 도매 및 소매업 | 152,237 | 120,138 | 9,611 | 11,269 | 1,749 | 9,471 |

| 산업(대분류) | 전체 | 10인 미만 | 10~29인 | 3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
| | | (78.9%) | (6.3%) | (7.4%) | (1.1%) | (6.2%) |
| 운수 및 창고업 | 59,012 | 13,799 (23.4%) | 11,101 (18.8%) | 16,700 (28.3%) | 7,735 (13.1%) | 9,677 (16.4%) |
| 숙박 및 음식점업 | 91,091 | 77,855 (85.5%) | 7,416 (8.1%) | 5,821 (6.4%) | - | - |
| 정보통신업 | 27,013 | - | 1,412 (5.2%) | 7,854 (29.1%) | 4,968 (18.4%) | 12,780 (47.3%) |
| 금융 및 보험업 | 44,035 | 11,112 (25.2%) | 3,790 (8.6%) | 3,567 (8.1%) | 1,256 (2.9%) | 24,308 (55.2%) |
| 부동산업 | 94,359 | 60,076 (63.7%) | 16,418 (17.4%) | 12,399 (13.1%) | 3,289 (3.5%) | 2,178 (2.3%)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010 | 8,756 (29.2%) | 2,526 (8.4%) | 4,817 (16.1%) | 1,888 (6.3%) | 12,022 (40.1%)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52,589 | 22,450 (42.7%) | 14,632 (27.8%) | 6,958 (13.2%) | 8,125 (15.4%) | 425 (0.8%)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16,289 | 4,986 (30.6%) | 3,011 (18.5%) | 3,560 (21.9%) | 1,243 (7.6%) | 3,490 (21.4%) |
| 교육서비스업 | 62,014 | 16,901 (27.3%) | 15,663 (25.3%) | 17,933 (28.9%) | 6,287 (10.1%) | 5,229 (8.4%)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16,758 | 43,889 (37.6%) | 30,503 (26.1%) | 26,193 (22.4%) | 5,436 (4.7%) | 10,737 (9.2%)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4,153 | 3,526 (84.9%) | 627 (15.1%) | 0(0%) | - |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9,991 | 38,907 (48.6%) | 26,014 (32.5%) | 15,069 (18.8%) | - | - |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활동 | 2,274 | 1,862 (81.9%) | 412 (18.1%) | - | - | - |
| 국제 및 외국기관 | 824 | - | - | - | - | 824 (100%) |

(2) 직장 및 직무만족도

- 임금근로자에 대해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고,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현 직무(일)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여 평균 점수로 변환한 결과, 직장 만족도는 3.32점, 직무 만족도는 3.43점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직장보다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가운데 남성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 및 직무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22> 직장만족도 및 직무만족도

| | | 직장만족도 | 직무만족도 |
|-------|--------|-------|-------|
| 전체 | | 3.32 | 3.43 |
| 성별 | 남자 | 3.34 | 3.41 |
| | 여자 | 3.30 | 3.45 |
| 연령 | 50대 | 3.36 | 3.45 |
| | 60대 | 3.25 | 3.39 |
| | 70대 초반 | 3.22 | 3.38 |
| 교육 수준 | 무학 | 4.00 | 3.39 |
| | 중졸 | 3.14 | 3.31 |

| | | 직장만족도 | 직무만족도 |
|----------|--------|-------|-------|
| | 고졸 | 3.23 | 3.36 |
| | 전문대졸 | 3.42 | 3.42 |
| | 대졸이상 | 3.57 | 3.65 |
| 혼인 상태 | 미혼 | 3.23 | 3.47 |
| | 기혼유배우자 | 3.36 | 3.45 |
| | 기혼무배우자 | 3.17 | 3.33 |

- 직무(일)에 대한 만족도를 임금이나 근무환경 등 세부 요인별로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평균 점수로 변환한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만족도가 2.87점으로 가장 낮고 수행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3.38점으로 가장 높았음.
- 전반적으로 요인별 점수가 3점대에 분포하여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가운데 임금이나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3점 이하로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혼인상태로는 미혼인 취업자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표 2-23> 요인별 직무만족도 ,

| | | 임금 만족도 | 취업안정성 만족도 | 수행업무 만족도 | 근무환경 만족도 | 근로시간 만족도 | 발전가능성 만족도 | 의사소통· 인간관계 만족도 |
|----------|--------|-----------|--------------|-------------|-------------|-------------|--------------|----------------------|
| 전체 | | 2.87 | 3.24 | 3.38 | 3.24 | 3.26 | 3.12 | 3.26 |
| 성별 | 남자 | 2.82 | 3.22 | 3.38 | 3.23 | 3.22 | 3.12 | 3.28 |
| | 여자 | 2.94 | 3.27 | 3.39 | 3.24 | 3.32 | 3.11 | 3.23 |
| 연령 | 50대 | 2.91 | 3.29 | 3.43 | 3.28 | 3.29 | 3.16 | 3.31 |
| | 60대 | 2.80 | 3.16 | 3.31 | 3.18 | 3.24 | 3.07 | 3.19 |
| | 70대 초반 | 2.90 | 3.13 | 3.29 | 3.15 | 3.12 | 2.95 | 3.19 |
| 교육 수준 | 무학 | 3.39 | 3.00 | 3.00 | 3.39 | 3.39 | 3.00 | 3.00 |
| | 중졸 | 2.77 | 3.07 | 3.23 | 3.09 | 3.13 | 2.98 | 3.12 |
| | 고졸 | 2.79 | 3.13 | 3.29 | 3.17 | 3.18 | 3.01 | 3.17 |
| | 전문대졸 | 2.88 | 3.18 | 3.44 | 3.23 | 3.37 | 3.14 | 3.33 |
| | 대졸이상 | 3.07 | 3.55 | 3.63 | 3.48 | 3.47 | 3.39 | 3.49 |
| 혼인 상태 | 미혼 | 2.69 | 3.12 | 3.20 | 3.08 | 3.12 | 3.00 | 3.05 |
| | 기혼유배우자 | 2.88 | 3.27 | 3.41 | 3.26 | 3.27 | 3.14 | 3.28 |
| | 기혼무배우자 | 2.87 | 3.10 | 3.31 | 3.19 | 3.27 | 3.04 | 3.20 |

(3) 교육 및 기술(기능) 수준

-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과 본인의 교육수준 간의 적합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무와 교육수준이 맞다는 응답이 89.7%(1,598,518명)로 가장 높았음.
- 교육 수준과 비교할 때 하고 있는 일의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더 강했음.

<표 2-24> 직무-교육수준 적합도

| | | 전체 | 수준이 매우 낮음 | 수준이 낮은 편 | 수준이 맞음 | 수준이 높은 편 |
|----------|--------|-----------|--------------|---------------|------------------|-------------|
| 전체 | | 1,782,421 | 21,146(1.2%) | 160,511(9%) | 1,598,518(89.7%) | 2,246(0.1%) |
| 성별 | 남자 | 1,054,118 | 13,335(1.3%) | 88,386(8.4%) | 950,151(90.1%) | 2,246(0.2%) |
| | 여자 | 728,303 | 7,810(1.1%) | 72,126(9.9%) | 648,367(89%) | - |
| 연령 | 50대 | 1,080,013 | 11,543(1.1%) | 75,731(7%) | 992,739(91.9%) | - |
| | 60대 | 615,350 | 8,403(1.4%) | 74,800(12.2%) | 529,900(86.1%) | 2,246(0.4%) |
| | 70대 초반 | 87,059 | 1,200(1.4%) | 9,980(11.5%) | 75,879(87.2%) | - |
| 교육 수준 | 무학 | 1,613 | - | 637(39.5%) | 976(60.5%) | - |
| | 중졸 | 392,082 | 1,927(0.5%) | 41,228(10.5%) | 348,928(89%) | - |
| | 고졸 | 751,950 | 3,898(0.5%) | 71,249(9.5%) | 674,557(89.7%) | 2,246(0.3%) |
| | 전문대졸 | 162,603 | - | 20,500(12.6%) | 142,103(87.4%) | - |
| | 대졸이상 | 474,174 | 15,321(3.2%) | 26,898(5.7%) | 431,955(91.1%) | - |
| 혼인 상태 | 미혼 | 93,858 | 1,978(2.1%) | 10,675(11.4%) | 81,205(86.5%) | - |
| | 기혼유배우자 | 1,406,763 | 17,789(1.3%) | 128,887(9.2%) | 1,257,841(89.4%) | 2,246(0.2%) |
| | 기혼무배우자 | 281,801 | 1,379(0.5%) | 20,950(7.4%) | 259,472(92.1%) | - |

○ 다음으로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과 본인의 기술(기능)수준 간의 적합도에 대해서도 직무와 기술(기능)수준이 맞다는 응답이 90.6%(1,615,117명)로 가장 많았음. 기술(기능)과 비교할 때 하고 있는 일의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 역시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강했음.

<표 2-25> 직무-기술(기능)수준 적합도

| | | 전체 | 수준이 매우 낮음 | 수준이 낮은 편 | 수준이 맞음 | 수준이 높은 편 |
|----------|--------|-----------|--------------|---------------|------------------|-------------|
| 전체 | | 1,782,421 | 21,146(1.2%) | 141,746(8%) | 1,615,117(90.6%) | 4,413(0.2%) |
| 성별 | 남자 | 1,054,118 | 13,335(1.3%) | 78,540(7.5%) | 959,996(91.1%) | 2,246(0.2%) |
| | 여자 | 728,303 | 7,810(1.1%) | 63,206(8.7%) | 655,120(90%) | 2,166(0.3%) |
| 연령 | 50대 | 1,080,013 | 11,543(1.1%) | 71,365(6.6%) | 994,938(92.1%) | 2,166(0.2%) |
| | 60대 | 615,350 | 8,403(1.4%) | 59,816(9.7%) | 544,884(88.5%) | 2,246(0.4%) |
| | 70대 초반 | 87,059 | 1,200(1.4%) | 10,565(12.1%) | 75,294(86.5%) | - |
| 교육 수준 | 무학 | 1,613 | - | 637(39.5%) | 976(60.5%) | - |
| | 중졸 | 392,082 | 1,927(0.5%) | 26,152(6.7%) | 364,004(92.8%) | - |
| | 고졸 | 751,950 | 3,898(0.5%) | 68,443(9.1%) | 677,363(90.1%) | 2,246(0.3%) |
| | 전문대졸 | 162,603 | - | 20,500(12.6%) | 142,103(87.4%) | - |
| | 대졸이상 | 474,174 | 15,321(3.2%) | 26,014(5.5%) | 430,672(90.8%) | 2,166(0.5%) |
| 혼인 상태 | 미혼 | 93,858 | 1,978(2.1%) | 9,939(10.6%) | 81,941(87.3%) | - |
| | 기혼유배우자 | 1,406,763 | 17,789(1.3%) | 110,254(7.8%) | 1,274,307(90.6%) | 4,413(0.3%) |
| | 기혼무배우자 | 281,801 | 1,379(0.5%) | 21,553(7.6%) | 258,869(91.9%) | - |

○ 현재 일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배운 기술이나 지식이 다른 직장에서도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5.1%(804,004명)는 현 직장과 동일하게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부분적일지라도 유용하다는 응답 또한 39.8%(708,985명)로 높았음.

- 다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지식이 타 직장에서는 거의 쓸모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26> 기술·지식의 타 직장 유용성

| | | 전체 | 현 직장과 동일하게 유용 | 부분적 유용 | 거의 쓸모없음 | 특별한 기술·지식 습득 일자리 아님 |
|----------|--------|-----------|------------------|----------------|----------------|------------------------------|
| 전체 | | 1,782,421 | 804,004(45.1%) | 708,985(39.8%) | 215,700(12.1%) | 53,733(3%) |
| 성별 | 남자 | 1,054,118 | 513,537(48.7%) | 430,018(40.8%) | 92,071(8.7%) | 18,491(1.8%) |
| | 여자 | 728,303 | 290,467(39.9%) | 278,966(38.3%) | 123,629(17%) | 35,242(4.8%) |
| 연령 | 50대 | 1,080,013 | 525,589(48.7%) | 413,483(38.3%) | 110,863(10.3%) | 30,078(2.8%) |
| | 60대 | 615,350 | 248,339(40.4%) | 268,480(43.6%) | 80,699(13.1%) | 17,831(2.9%) |
| | 70대 초반 | 87,059 | 30,076(34.5%) | 27,021(31%) | 24,138(27.7%) | 5,824(6.7%) |
| 교육 수준 | 무학 | 1,613 | 637(39.5%) | - | 976(60.5%) | - |
| | 중졸 | 392,082 | 154,522(39.4%) | 143,477(36.6%) | 83,407(21.3%) | 10,676(2.7%) |
| | 고졸 | 751,950 | 327,809(43.6%) | 292,164(38.9%) | 106,406(14.2%) | 25,571(3.4%) |
| | 전문대졸 | 162,603 | 82,025(50.4%) | 67,836(41.7%) | 10,193(6.3%) | 2,549(1.6%) |
| | 대졸이상 | 474,174 | 239,010(50.4%) | 205,507(43.3%) | 14,718(3.1%) | 14,938(3.2%) |
| 혼인 상태 | 미혼 | 93,858 | 39,305(41.9%) | 31,977(34.1%) | 22,576(24.1%) | - |
| | 기혼유배우자 | 1,406,763 | 656,109(46.6%) | 576,506(41%) | 132,903(9.4%) | 41,244(2.9%) |
| | 기혼무배우자 | 281,801 | 108,590(38.5%) | 100,501(35.7%) | 60,221(21.4%) | 12,489(4.4%) |

2. 직업교육·훈련 및 구직활동

1) 직업교육·훈련

- 조사연도인 2020년을 기준으로 작년(2019년) 이후 취업이나 창업 또는 업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3.5%(110,064명)만이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교육·훈련을 받은 횟수는 최대 2회인 것으로 나타남.

<표 2-27> 직업교육·훈련 유무 및 횟수

| | | 직업교육·훈련 여부 | | | 직업교육·훈련 횟수 | | |
|-------|--------|------------|-------------------|----------------------|------------|-------------------|-------------------|
| | | 전체 | 있음 | 없음 | 전체 | 1회 | 2회 |
| 전체 | | 3,105,746 | 110,064 (3.5%) | 2,995,682 (96.5%) | 110,064 | 98,724 (89.7%) | 11,339 (10.3%) |
| 성별 | 남자 | 1,488,659 | 67,845 (4.6%) | 1,420,814 (95.4%) | 67,845 | 60,084 (88.6%) | 7,762 (11.4%) |
| | 여자 | 1,617,086 | 42,218 (2.6%) | 1,574,868 (97.4%) | 42,218 | 38,641 (91.5%) | 3,578 (8.5%) |
| 연령 | 50대 | 1,525,271 | 69,310 (4.5%) | 1,455,961 (95.5%) | 69,310 | 65,057 (93.9%) | 4,253 (6.1%) |
| | 60대 | 1,218,153 | 37,235 (3.1%) | 1,180,918 (96.9%) | 37,235 | 30,149 (81%) | 7,086 (19%) |
| | 70대 초반 | 362,322 | 3,519 (1%) | 358,803 (99%) | 3,519 | 3,519 (100%) | - |
| 교육 수준 | 무학 | 31,945 | - | 31,945 (100%) | - | - | - |
| | 중졸 | 853,068 | 17,052 (2%) | 836,016 (98%) | 17,052 | 17,052 (100%) | - |
| | 고졸 | 1,290,987 | 26,228 (2%) | 1,264,758 (98%) | 26,228 | 25,425 (96.9%) | 803 (3.1%) |
| | 전문대졸 | 238,224 | 21,068 (8.8%) | 217,156 (91.2%) | 21,068 | 19,602 (93%) | 1,466 (7%) |
| | 대졸이상 | 691,521 | 45,714 (6.6%) | 645,807 (93.4%) | 45,714 | 36,645 (80.2%) | 9,070 (19.8%) |
| 혼인 상태 | 미혼 | 158,604 | 5,694 (3.6%) | 152,910 (96.4%) | 5,694 | 3,583 (62.9%) | 2,111 (37.1%) |
| | 기혼유배우자 | 2,416,392 | 83,110 (3.4%) | 2,333,282 (96.6%) | 83,110 | 75,348 (90.7%) | 7,762 (9.3%) |
| | 기혼무배우자 | 530,749 | 21,259 (4%) | 509,490 (96%) | 21,259 | 19,793 (93.1%) | 1,466 (6.9%) |

-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목적은 전체 응답자의 78.3%(86,141명)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취업 또는 재취업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는 12.5%였음.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응답이 남성은 91.5%(62,076명), 여성은 57%(24,065명)로 나타남에 반해 취업 또는 재취업이 목적인 경우는 남성이 4.1%(2,795명), 여성이 25.8%(10,911명)였음.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았음.

- 연령별로도 상대적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은 50대는 업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58,057명(83.8%)이었고 70대 초반은 취업 또는 재취업이 목적인 경우가 79.4%(2,795명)로 편차가 존재했음.

<표 2-28> 직업교육·훈련 목적

| | 전체 | (재)취업 | | 업무능력향상 | | 자격증 취득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 전체 | 110,064 | 13,707 | 12.5% | 86,141 | 78.3% | 10,216 | 9.3% | |
| 성별 | 남자 | 67,845 | 2,795 | 4.1% | 62,076 | 91.5% | 2,973 | 4.4% |
| | 여자 | 42,218 | 10,911 | 25.8% | 24,065 | 57.0% | 7,242 | 17.2% |
| 연령 | 50대 | 69,310 | 4,394 | 6.3% | 58,057 | 83.8% | 6,859 | 9.9% |
| | 60대 | 37,235 | 6,518 | 17.5% | 27,361 | 73.5% | 3,356 | 9.0% |
| | 70대 초반 | 3,519 | 2,795 | 79.4% | 724 | 20.6% | - | - |
| 교육 수준 | 무학 | - | - | - | - | - | - | |
| | 중졸 | 17,052 | 4,917 | 28.8% | 12,136 | 71.2% | - | - |
| | 고졸 | 26,228 | 1,371 | 5.2% | 18,986 | 72.4% | 5,871 | 22.4% |
| | 전문대졸 | 21,068 | 7,418 | 35.2% | 12,279 | 58.3% | 1,371 | 6.5% |
| | 대졸이상 | 45,714 | - | - | 42,741 | 93.5% | 2,973 | 6.5% |
| 혼인 상태 | 미혼 | 5,694 | - | - | 5,694 | 100.0% | - | - |
| | 기혼유배우자 | 83,110 | 8,842 | 10.6% | 67,491 | 81.2% | 6,777 | 8.2% |
| | 기혼무배우자 | 21,259 | 4,864 | 22.9% | 12,956 | 60.9% | 3,439 | 16.2% |

- 전체 교육·훈련의 56.3%는 회사에서 시행하는 업무능력향상훈련이었고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은 27.2%, 개인이 선택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은 16.1%였으나, 교육·훈련 분야별로 차이는 있었음.
- 건설분야나 전기 및 전자분야, 금융·보험 및 환경분야는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향상훈련이 100%로 나타났으나, 의료분야(물리치료, 간호 등)는 정부지원훈련 비중이 53.6%로 가장 높았음.
- 서비스 분야(음식조리, 제빵, 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등)는 개인이 선택하여 실시한 교육훈련 비중이 70.1%인 것에 반해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향상훈련은 전무했음.

<표 2-29> 직업교육·훈련 분야 및 지원 형태

| 직업교육·훈련 분야 | 전체 |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향상훈련 | | 정부지원훈련 | | 개인선택의 교육훈련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110,064 | 61,921 | 56.3% | 30,450 | 27.7% | 17,693 | 16.1% |
| 건설분야 | 11,568 | 11,568 | 100.0% | - | - | - | - |
| 전기 및 전자 분야 | 4,794 | 4,794 | 100.0% | - | - | - | - |
| 컴퓨터, 정보, 통신 분야 | 14,512 | 9,713 | 66.9% | 4,799 | 33.1% | - | - |

| 직업교육·훈련 분야 | 전체 |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향상훈련 | | 정부지원훈련 | | 개인선택의 교육훈련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서비스 분야(음식조리, 제빵, 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등) | 4,582 | - | - | 1,371 | 29.9% | 3,211 | 70.1% |
| 업무관리분야(생산사무, 판매 사무, 사무지원 등) | 35,897 | 17,404 | 48.5% | 11,591 | 32.3% | 6,902 | 19.2% |
| 의료분야(물리치료, 간호 등) | 16,065 | 5,742 | 35.7% | 8,617 | 53.6% | 1,706 | 10.6% |
| 금융, 보험 및 환경분야 | 1,599 | 1,599 | 100.0% | - | - | - | - |
| 기타 | 21,047 | 11,101 | 52.7% | 4,072 | 19.3% | 5,874 | 27.9% |

○ 위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의 유형을 설문한 결과 재직자훈련이 5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실업자 재취직 훈련(21.6%), 신규학교 졸업자 대상 취업훈련(15.5%) 순이었음.

<표 2-30> 정부지원훈련 유형

| 정부지원훈련 유형 | 사례수 | 비율 |
|-------------------------|--------|-------|
| 전체 | 30,450 | 100.0 |
| 기능사 양성 훈련 또는 정부위탁훈련 | - | - |
| 실업자 재취직 훈련(고용보험사업장 이직자) | 6,574 | 21.6 |
| 고용촉진훈련(주부 등 기타 실업자) | 1,371 | 4.5 |
| 재직자 훈련 | 17,775 | 58.4 |
| 취업훈련(신규학교 졸업자) | 4,731 | 15.5 |
| 근로자수강지원금 | - | - |
| 기타 실업자훈련 | - | - |

○ 2020년을 기준으로 작년(2019년) 이후 취득한 국가자격증(기술사, 기능사, 교사자격증, 영양사 등), 민간자격증 또는 외국자격증이 있는지를 조사한 문항에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0.8%(23,499명)만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고, 자격증을 취득한 목적은 (재)취업이라는 응답이 73.1%(17,179명)로 가장 많았음.

-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그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전문대졸, 대졸 등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자격증 취득자 수가 더 많았음. 또한 연령대에서는 50대, 학력은 대졸 이상인 경우만 창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응답하였음.

<표 2-31> 자격증 취득 여부 및 목적

| | 자격증 취득 여부 | | | 자격증 취득 목적 | | | | |
|----|-----------|------------------|----------------------|-----------|------------------|-------------------|-----------------|-----------------|
| | 전체 | 있음 | 없음 | 전체 | 창업 | (재)취업 | 자격증 취득 | 기타 |
| 전체 | 3,105,746 | 23,499 (0.8%) | 3,082,247 (99.2%) | 23,499 | 2,973 (12.7%) | 17,179 (73.1%) | 2,127 (9.1%) | 1,219 (5.2%) |

| | | 자격증 취득 여부 | | | 자격증 취득 목적 | | | | |
|-------|--------|-----------|---------------|-------------------|-----------|---------------|----------------|---------------|---------------|
| | | 전체 | 있음 | 없음 | 전체 | 창업 | (재)취업 | 자격증 취득 | 기타 |
| 성별 | 남자 | 1,488,659 | 7,376 (0.5%) | 1,481,284 (99.5%) | 7,376 | 2,973 (40.3%) | 4,402 (59.7%) | - | - |
| | 여자 | 1,617,086 | 16,123 (1%) | 1,600,963 (99%) | 16,123 | - | 12,776 (79.2%) | 2,127 (13.2%) | 1,219 (7.6%) |
| 연령 | 50대 | 1,525,271 | 10,278 (0.7%) | 1,514,993 (99.3%) | 10,278 | 2,973 (28.9%) | 7,304 (71.1%) | - | - |
| | 60대 | 1,218,153 | 12,002 (1%) | 1,206,151 (99%) | 12,002 | - | 9,874 (82.3%) | 2,127 (17.7%) | - |
| | 70대 초반 | 362,322 | 1,219 (0.3%) | 361,102 (99.7%) | 1,219 | - | - | - | 1,219 (100%) |
| 교육 수준 | 무학 | 31,945 | - | 31,945 (100%) | - | - | - | - | - |
| | 중졸 | 853,068 | 6,840 (0.8%) | 846,228 (99.2%) | 6,840 | - | 3,493 (51.1%) | 2,127 (31.1%) | 1,219 (17.8%) |
| | 고졸 | 1,290,987 | 3,181 (0.2%) | 1,287,806 (99.8%) | 3,181 | - | 3,181 (100%) | - | - |
| | 전문대졸 | 238,224 | 6,102 (2.6%) | 232,122 (97.4%) | 6,102 | - | 6,102 (100%) | - | - |
| | 대졸이상 | 691,521 | 7,376 (1.1%) | 684,145 (98.9%) | 7,376 | 2,973 (40.3%) | 4,402 (59.7%) | - | - |
| 혼인 상태 | 미혼 | 158,604 | - | 158,604 (100%) | - | - | - | - | - |
| | 기혼유배우자 | 2,416,392 | 16,567 (0.7%) | 2,399,825 (99.3%) | 16,567 | - | 13,221 (79.8%) | 2,127 (12.8%) | 1,219 (7.4%) |
| | 기혼무배우자 | 530,749 | 6,932 (1.3%) | 523,818 (98.7%) | 6,932 | 2,973 (42.9%) | 3,958 (57.1%) | - | - |

2) 구직활동

(1) 구직활동 현황

-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간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자는 27,122명(2%), 지난 1개월 간 구직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8,994명(0.7%)으로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일주일 간 구직활동을 한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구직활동 비율이 더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특히 전문대졸자의 구직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음.

<표 2-32> 미취업자 구직여부

| | | 지난 일주일 간 구직 | | | 지난 1개월 간 구직 | | |
|----|--------|-------------|--------|------|-------------|-------|------|
| | | 전체 | 사례수 | 비율 | 전체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 1,323,324 | 27,122 | 2.0% | 1,296,203 | 8,994 | 0.7% |
| 성별 | 남자 | 434,541 | 16,904 | 3.9% | 417,637 | 8,994 | 2.2% |
| | 여자 | 888,783 | 10,218 | 1.1% | 878,565 | - | - |
| 연령 | 50대 | 445,258 | 10,340 | 2.3% | 434,918 | 7,309 | 1.7% |
| | 60대 | 602,803 | 11,701 | 1.9% | 591,102 | 1,685 | 0.3% |
| | 70대 초반 | 275,263 | 5,081 | 1.8% | 270,182 | - | - |
| 교육 | 무학 | 30,332 | - | - | 30,332 | - | - |

| | | 지난 일주일 간 구직 | | | 지난 1개월 간 구직 | | |
|----------|--------|-------------|--------|------|-------------|-------|------|
| | | 전체 | 사례수 | 비율 | 전체 | 사례수 | 비율 |
| 수준 | 중졸 | 460,986 | 10,555 | 2.3% | 450,431 | 4,740 | 1.1% |
| | 고졸 | 539,037 | 8,592 | 1.6% | 530,445 | 4,253 | 0.8% |
| | 전문대졸 | 75,622 | 3,946 | 5.2% | 71,676 | - | - |
| | 대졸이상 | 217,347 | 4,029 | 1.9% | 213,319 | - | - |
| 혼인 상태 | 미혼 | 64,746 | 1,914 | 3.0% | 62,833 | 2,199 | 3.5% |
| | 기혼유배우자 | 1,009,629 | 22,187 | 2.2% | 987,443 | 3,056 | 0.3% |
| | 기혼무배우자 | 248,949 | 3,021 | 1.2% | 245,927 | 3,739 | 1.5% |

- 지난 1개월 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장년·노인층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했음. 응답자의 61.1%(16,523명)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이전에 일자리를 찾아봤으나 없었기 때문에 구직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2.2%(8,709명)였음.
- 결국 장년·노인층의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가사일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3.7%(1,831명)였음.

<표 2-33> 성별 지난 1개월 간 비구직 사유

| | 전체 | 남성 | | 여성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27,063 (100%) | 19,321 | 100.0% | 7,741 | 100.0% |
|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 | - | - | - | - |
|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 | - | - | - | - |
|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 | - | - | - | - |
|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 16,523 (61.1%) | 14,461 | 74.8% | 2,061 | 26.6% |
|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해서 | - | - | - | - | - |
|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 - | - | - | - | - |
| 구직결과를 기다림 | - | - | - | - | - |
|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에(육아) | - | - | - | - | - |
| 가사일 때문에 | 1,831 (6.8%) | - | - | 1,831 | 23.7% |
| 건강 상 이유로 | - | - | - | - | - |
|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 8,709 (32.2%) | 4,860 | 25.2% | 3,849 | 49.7% |

-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의 경우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67.7%(11,341명), 54.6%(5,182명)였으나, 70대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1개월 동안도 구직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표 2-34> 연령별 지난 1개월 간 비구직 사유

| | 50대 | | 60대 | | 70대 초반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16,744 | 100.0% | 9,495 | 100.0% | 823 | 100.0% |
|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 | - | - | - | - | - |
|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 | - | - | - | - | - |
|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 | - | - | - | - | - |
| 일 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 11,341 | 67.7% | 5,182 | 54.6% | - | - |
|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해서 | - | - | - | - | - | - |
|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 - | - | - | - | - | - |
| 구직결과를 기다림 | - | - | - | - | - | - |
|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에(육아) | - | - | - | - | - | - |
| 가사일 때문에 | - | - | 1,831 | 19.3% | - | - |
| 건강 상 이유로 | - | - | - | - | - | - |
|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 5,404 | 32.3% | 2,482 | 26.1% | 823 | 100.0% |

- 서울시 장년·노인층이 일 자리를 구하는 주요 경로는 인터넷 등 통신망(31.4%), 공공 직업안내소(31.3%), 친구나 친지의 소개(22.8%) 등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발견되는데 여성은 주로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하여 구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71.3%), 남성은 공공 직업안내소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41.5%로 다수였음. 또한 취업을 원하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하거나 전 일자리에 근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한 구직활동은 여성의 경우 전무했음.

<표 2-35> 주요 구직경로

| | | 전체 | 친구, 친지의 소개 | 공공 직업안내소 | 인터넷 등 통신망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전 일자리에 근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
| 전체 | | 31,258 | 7,132 (22.8%) | 9,776 (31.3%) | 9,830 (31.4%) | 1,157 (3.7%) | 3,363 (10.8%) |
| 성별 | 남자 | 21,040 | 5,255 (25%) | 8,725 (41.5%) | 2,540 (12.1%) | 1,157 (5.5%) | 3,363 (16%) |
| | 여자 | 10,218 | 1,877 (18.4%) | 1,051 (10.3%) | 7,290 (71.3%) | - | - |
| 연령 | 50대 | 17,649 | 7,132 (40.4%) | 2,054 (11.6%) | 8,463 (48%) | - | - |
| | 60대 | 8,528 | - | 5,247 (61.5%) | 1,367 (16%) | - | 1,914 (22.4%) |

| | | 전체 | 친구, 친지의 소개 | 공공 직업안내소 | 인터넷 등 통신망 |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전 일자리에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
|-------|--------|--------|------------------|------------------|------------------|-----------------------------|------------------------|
| | 70대 초반 | 5,081 | - | 2,475 (48.7%) | 0(0%) | 1,157 (22.8%) | 1,449 (28.5%) |
| 교육 수준 | 무학 | - | - | - | - | - | - |
| | 중졸 | 12,611 | 3,056 (24.2%) | 5,016 (39.8%) | 1,367 (10.8%) | 1,157 (9.2%) | 2,016 (16%) |
| | 고졸 | 10,672 | 4,076 (38.2%) | 4,760 (44.6%) | 489 (4.6%) | - | 1,347 (12.6%) |
| | 전문대졸 | 3,946 | - | - | 3,946 (100%) | - | - |
| | 대졸이상 | 4,029 | - | - | 4,029 (100%) | - | - |
| 혼인 상태 | 미혼 | 4,113 | 2,199 (53.5%) | - | - | - | 1,914 (46.5%) |
| | 기혼유배우자 | 20,385 | 4,932 (24.2%) | 4,383 (21.5%) | 8,463 (41.5%) | 1,157 (5.7%) | 1,449 (7.1%) |
| | 기혼무배우자 | 6,760 | - | 5,393 (79.8%) | 1,367 (20.2%) | - | - |

(2) 희망 일자리 및 근로조건

- 구직자들이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성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여성은 봉제의복 제조업과 음식점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 희망 업종이 집중된 반면 남성은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봉제의복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건물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희망 업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표 2-36> 성별 구직희망 업종

| 산업(소분류) | 전체 | 남성 | | 여성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28,022 | 21,040 | 100.0% | 6,982 | 100.0% |
| 봉제의복 제조업 | 4,423 | 3,056 | 14.5% | 1,367 | 19.6% |
| 건물 건설업 | 1,914 | 1,914 | 9.1% | 102 | 0.5% |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102 | 102 | 0.5% | - | - |
| 육상 여객 운송업 | 1,347 | 1,347 | 6.4% | - | - |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199 | 2,199 | 10.5% | - | - |
| 음식점업 | 3,135 | 1,258 | 6.0% | 1,877 | 26.9%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282 | 1,282 | 6.1% | - | -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3,332 | 3,332 | 15.8% | - | - |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1,157 | 1,157 | 5.5% | - | - |
|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5,393 | 5,393 | 25.6% | - | - |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3,739 | - | - | 3,739 | 53.5% |

- 교육수준별로 구직을 희망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인 경우는 봉제의복 제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4,423명(35.1%)으로 가장 많았으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분야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36.4%), 전문대 졸업자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68.1%), 대졸 이상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00%)을 가장 희망하는 업종으로 꼽았음.

<표 2-37> 교육수준별 구직희망 업종

| 산업(소분류) | 무학 | 중졸 이하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
|------------------|----|------------------|------------------|------------------|-----------------|
| 전체 | - | 12,611 (100%) | 10,183 (100%) | 3,946 (100%) | 1,282 (100%) |
| 봉제의복 제조업 | - | 4,423 (35.1%) | - | - | - |
| 건물 건설업 | - | 1,914 (15.2%) | - | - | - |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 | 102 (0.8%) | - | - | - |
| 육상 여객 운송업 | - | - | 1,347 (13.2%) | - | - |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 - | 2,199 (21.6%) | - | - |
| 음식점업 | - | - | 1,877 (18.4%) | 1,258 (31.9%) | -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 - | - | 1,282 (100%) |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 | 3,332 (26.4%) | - | - | - |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 | 1,157 (9.2%) | - | - | - |
|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 | 1,685 (13.4%) | 3,709 (36.4%) | - | - |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 | - | 1,051 (10.3%) | 2,688 (68.1%) | - |

-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고용주나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보다는 임금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했는데(29,381명, 94%), 다만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용주/자영업자를 희망한다는 남성 응답자는 없었으나 여성은 1,877명(18.4%)이 고용주/자영업자로서의 취업을 희망하였음. 고용주/자영업자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50대 고등학교 졸업자에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라 할 수 있음.

<표 2-38> 희망 고용형태

| | | 전체 | 임금근로자 | | 고용주/자영업자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 31,258 | 29,381 | 94.0% | 1,877 | 6.0% |
| 성별 | 남자 | 21,040 | 21,040 | 100.0% | - | - |
| | 여자 | 10,218 | 8,341 | 81.6% | 1,877 | 18.4% |
| 연령 | 50대 | 17,649 | 15,773 | 89.4% | 1,877 | 10.6% |
| | 60대 | 8,528 | 8,528 | 100.0% | - | - |
| | 70대 초반 | 5,081 | 5,081 | 100.0% | - | - |
| 교육 수준 | 무학 | - | - | - | - | - |
| | 중졸 | 12,611 | 12,611 | 100.0% | - | - |
| | 고졸 | 10,672 | 8,795 | 82.4% | 1,877 | 17.6% |
| | 전문대졸 | 3,946 | 3,946 | 100.0% | - | - |
| | 대졸이상 | 4,029 | 4,029 | 100.0% | - | - |
| 혼인 상태 | 미혼 | 4,113 | 4,113 | 100.0% | - | - |
| | 기혼유배우자 | 20,385 | 18,508 | 90.8% | 1,877 | 9.2% |
| | 기혼무배우자 | 6,760 | 6,760 | 100.0% | - | - |

○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근로시간제는 전일제가 83.3%(24,476명), 시간제가 16.7%(4,905명)으로 나타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음.

<표 2-39> 희망 근로시간제

| | | 전체 | 전일제 | | 시간제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 29,381 | 24,476 | 83.3% | 4,905 | 16.7% |
| 성별 | 남자 | 21,040 | 17,186 | 81.7% | 3,854 | 18.3% |
| | 여자 | 8,341 | 7,290 | 87.4% | 1,051 | 12.6% |
| 연령 | 50대 | 15,773 | 13,574 | 86.1% | 2,199 | 13.9% |
| | 60대 | 8,528 | 6,873 | 80.6% | 1,655 | 19.4% |
| | 70대 초반 | 5,081 | 4,029 | 79.3% | 1,051 | 20.7% |
| 교육 수준 | 무학 | - | - | - | - | - |
| | 중졸 | 12,611 | 12,611 | 100.0% | - | - |
| | 고졸 | 8,795 | 3,890 | 44.2% | 4,905 | 55.8% |
| | 전문대졸 | 3,946 | 3,946 | 100.0% | - | - |
| | 대졸이상 | 4,029 | 4,029 | 100.0% | - | - |
| 혼인 상태 | 미혼 | 4,113 | 1,914 | 46.5% | 2,199 | 53.5% |
| | 기혼유배우자 | 18,508 | 17,457 | 94.3% | 1,051 | 5.7% |
| | 기혼무배우자 | 6,760 | 5,105 | 75.5% | 1,655 | 24.5% |

○ 구직자들이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항목별로 그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나이가 너무 많다는 점, 취업·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구직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구직을 어렵게 하는 중요 요인인 것으로 보임. 반면 학력·기술·기능이나 경험 부족,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는 점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었음.

<표 2-40> 구직 시 어려움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 - | - | - | 15133 (48.4%) | 16125 (51.6%) |
|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 - | 4034 (12.9%) | 5712 (18.3%) | 14383 (46%) | 7129 (22.8%) |
| 학력, 기술, 기능이 부족하다 | 1360 (4.4%) | 11619 (37.2%) | 9502 (30.4%) | 8777 (28.1%) | - |
| 경험이 부족하다 | 1360 (4.4%) | 10839 (34.7%) | 7448 (23.8%) | 7046 (22.5%) | 4564 (14.6%) |
|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 - | 5749 (18.4%) | 17241 (55.2%) | 6213 (19.95%) | 2054 (6.6%) |
|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 - | 15029 (48.1%) | 11379 (36.4%) | 4850 (15.5%) | - |
| 나이가 너무 많다 | - | 2841 (9.1%) | 8002 (25.6%) | 12592 (40.3%) | 7822 (25%) |
|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 - | - | - | 1877 (100%) | - |
|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3739 (36.6%) | 1877 (18.4%) | 1367 (13.4%) | 3235 (31.7%) | - |
|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14450 (46.2%) | 8538 (27.3%) | 6126 (19.6%) | 2144 (6.9%) | - |

3. 사회보험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

1) 사회보험

○ 비임금근로자인 고용주/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 여부 및 형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56,451명(51%), 가입자의 가입형태는 지역가입자가 58.5%(149,943명)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납부율이 떨어졌고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납부자가 많았음. 직장 가입자로 가입한 비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높았음.

<표 2-41> 국민연금 납부 여부 및 가입 형태(비임금근로자)

| | | 국민연금 납부 여부 | | | 국민연금 가입 형태 | | |
|----------|--------|------------|--------------------|--------------------|------------|--------------------|--------------------|
| | | 전체 | 납부 | 미납부 | 전체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전체 | | 502,930 | 256,451 (51%) | 246,479 (49%) | 256,451 | 106,507 (41.5%) | 149,943 (58.5%) |
| 성별 | 남자 | 346,753 | 189,566 (54.7%) | 157,187 (45.3%) | 189,566 | 70,428 (37.2%) | 119,138 (62.8%) |
| | 여자 | 156,177 | 66,885 (42.8%) | 89,292 (57.2%) | 66,885 | 36,079 (53.9%) | 30,806 (46.1%) |
| 연령 | 50대 | 267,911 | 176,424 (65.9%) | 91,488 (34.1%) | 176,424 | 79,421 (45%) | 97,003 (55%) |
| | 60대 | 216,790 | 80,027 (36.9%) | 136,763 (63.1%) | 80,027 | 27,086 (33.8%) | 52,941 (66.2%) |
| | 70대 초반 | 18,228 | - | 18,228 (100%) | - | - | - |
| 교육 수준 | 무학 | - | - | - | - | - | - |
| | 중졸 | 89,465 | 35,173 (39.3%) | 54,292 (60.7%) | 35,173 | 11,671 (33.2%) | 23,502 (66.8%) |
| | 고졸 | 235,795 | 121,494 (51.5%) | 114,300 (48.5%) | 121,494 | 38,528 (31.7%) | 82,966 (68.3%) |
| | 전문대졸 | 36,905 | 18,577 (50.3%) | 18,328 (49.7%) | 18,577 | 12,042 (64.8%) | 6,535 (35.2%) |
| | 대졸이상 | 140,765 | 81,206 (57.7%) | 59,559 (42.3%) | 81,206 | 44,266 (54.5%) | 36,940 (45.5%) |
| 혼인 상태 | 미혼 | 28,597 | 16,192 (56.6%) | 12,406 (43.4%) | 16,192 | 11,170 (69%) | 5,022 (31%) |
| | 기혼유배우자 | 414,639 | 205,626 (49.6%) | 209,013 (50.4%) | 205,626 | 80,737 (39.3%) | 124,889 (60.7%) |
| | 기혼무배우자 | 59,694 | 34,633 (58%) | 25,061 (42%) | 34,633 | 14,601 (42.2%) | 20,032 (57.8%) |

- 비임금근로자인 고용주/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9.5%(47,972명)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다만 연령대가 낮고 상대적으로 고학력일수록 가입률은 더 높았음.

<표 2-42> 고용보험 가입 여부(비임금근로자)

| | 전체 | 가입 | | 미가입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 전체 | 502,930 | 47,972 | 9.5% | 454,958 | 90.5% | |
| 성별 | 남자 | 346,753 | 25,471 | 7.3% | 321,282 | 92.7% |
| | 여자 | 156,177 | 22,501 | 14.4% | 133,676 | 85.6% |
| 연령 | 50대 | 267,911 | 38,483 | 14.4% | 229,428 | 85.6% |
| | 60대 | 216,790 | 9,488 | 4.4% | 207,302 | 95.6% |
| | 70대 초반 | 18,228 | - | - | 18,228 | 100.0% |
| 교육 수준 | 무학 | - | - | - | - | - |
| | 중졸 | 89,465 | 3,734 | 4.2% | 85,732 | 95.8% |
| | 고졸 | 235,795 | 15,231 | 6.5% | 220,564 | 93.5% |
| | 전문대졸 | 36,905 | 6,783 | 18.4% | 30,122 | 81.6% |
| | 대졸이상 | 140,765 | 22,224 | 15.8% | 118,541 | 84.2% |
| 혼인 상태 | 미혼 | 28,597 | 7,437 | 26.0% | 21,160 | 74.0% |
| | 기혼유배우자 | 414,639 | 30,299 | 7.3% | 384,339 | 92.7% |
| | 기혼무배우자 | 59,694 | 10,235 | 17.1% | 49,459 | 82.9% |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임금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업은 가입률이 100%였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5.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0.5%)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높게 나타났음.

<표 2-43> 산업별 고용보험 가입률(비임금근로자)

| 산업(대분류) | 전체 | 가입 | | 미가입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500854 | 47972 | 9.6% | 452882 | 90.4% |
| 농업, 임업 및 어업 | 582 | - | - | 582 | 100.0% |
| 광업 | - | - | - | - | - |
| 제조업 | 53942 | 10028 | 18.6% | 43914 | 81.4%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1301 | - | - | 1301 | 100.0%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 - | - | - | - |
| 건설업 | 28288 | - | - | 28288 | 100.0% |
| 도매 및 소매업 | 119857 | 9151 | 7.6% | 110706 | 92.4% |
| 운수 및 창고업 | 83862 | 2007 | 2.4% | 81855 | 97.6% |
| 숙박 및 음식점업 | 41394 | 3629 | 8.8% | 37765 | 91.2% |
| 정보통신업 | 6738 | 6738 | 100.0% | - | - |
| 금융 및 보험업 | 14540 | - | - | 14540 | 100.0% |
| 부동산업 | 42544 | - | - | 42544 | 100.0%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9837 | - | - | 9837 | 100.0%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19575 | 614 | 3.1% | 18961 | 96.9% |

| 산업(대분류) | 전체 | 가입 | | 미가입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 | - | - | - |
| 교육서비스업 | 29363 | 3200 | 10.9% | 26163 | 89.1%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9798 | 8334 | 85.1% | 1464 | 14.9%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349 | 3238 | 60.5% | 2111 | 39.5%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33882 | 1032 | 3.0% | 32849 | 97.0% |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 | - | - | - |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 - |

- 조사 시점인 2020년 기준인 2019년 이후 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훈연금 등 사회보험 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했음.
- 서울시 장년·노인층의 22.6%(699,549명)가 사회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했음.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는 높을수록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비중이 높았으며,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장년·노인층의 수급률이 높았음.

<표 2-44> 사회보험 수급 여부

| | 전체 | 받은 적 있음 | | 현재 받고 있음 | | 받은 적 없음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 전체 | 3,105,746 | 278,596 | 9.0% | 420,953 | 13.6% | 2,406,197 | 77.5% | |
| 성별 | 남자 | 1,488,659 | 135,557 | 9.1% | 260,055 | 17.5% | 1,093,047 | 73.4% |
| | 여자 | 1,617,086 | 143,038 | 8.8% | 160,898 | 9.9% | 1,313,150 | 81.2% |
| 연령 | 50대 | 1,525,271 | 31,607 | 2.1% | 39,713 | 2.6% | 1,453,951 | 95.3% |
| | 60대 | 1,218,153 | 149,170 | 12.2% | 264,154 | 21.7% | 804,828 | 66.1% |
| | 70대 초반 | 362,322 | 97,818 | 27.0% | 117,086 | 32.3% | 147,418 | 40.7% |
| 교육 수준 | 무학 | 31,945 | 4,591 | 14.4% | 4,858 | 15.2% | 22,496 | 70.4% |
| | 중졸 | 853,068 | 122,420 | 14.4% | 164,730 | 19.3% | 565,918 | 66.3% |
| | 고졸 | 1,290,987 | 81,213 | 6.3% | 149,626 | 11.6% | 1,060,148 | 82.1% |
| | 전문대졸 | 238,224 | 16,997 | 7.1% | 13,994 | 5.9% | 207,233 | 87.0% |
| | 대졸이상 | 691,521 | 53,375 | 7.7% | 87,744 | 12.7% | 550,402 | 79.6% |
| 혼인 상태 | 미혼 | 158,604 | 2,472 | 1.6% | 12,455 | 7.9% | 143,677 | 90.6% |
| | 기혼유배우자 | 2,416,392 | 204,380 | 8.5% | 312,945 | 13.0% | 1,899,068 | 78.6% |
| | 기혼무배우자 | 530,749 | 71,743 | 13.5% | 95,554 | 18.0% | 363,452 | 68.5% |

- 수급받은 (주된)사회보험의 유형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비중이 전체 사회보험 수급의 66.5%(465,053명)를 차지했고, 실업급여(13.6%)가 그 다음으로 높았음. 이 외에도 공무원 연금, 유족연금, 보훈연금 등도 수령하고 있었으나 그 수는 적었음.

<표 2-45> 연령별 수급 사회보험 유형

| 사회보험 유형 | | 전체 | 50대 | 60대 | 70대 초반 |
|---------|-----|---------|--------|---------|---------|
| 전체 | 사례수 | 699,549 | 71,321 | 413,324 | 214,904 |
| | 비율 | 100.0% | 100.0% | 100.0% | 100.0% |
| 노령연금 | 사례수 | 465,053 | - | 287,098 | 177,955 |
| | 비율 | 66.5% | - | 69.5% | 82.8% |
| 장애연금 | 사례수 | 6,808 | 2,816 | 3,992 | - |
| | 비율 | 1.0% | 3.9% | 1.0% | - |
| 유족연금 | 사례수 | 20,206 | 1,734 | 10,689 | 7,783 |
| | 비율 | 2.9% | 2.4% | 2.6% | 3.6% |
| 반환일시금 | 사례수 | 9,594 | - | 8,084 | 1,510 |
| | 비율 | 1.4% | - | 2.0% | 0.7% |
| 사학연금 | 사례수 | 11,938 | - | 11,938 | - |
| | 비율 | 1.7% | - | 2.9% | - |
| 공무원연금 | 사례수 | 56,746 | 7,649 | 39,648 | 9,449 |
| | 비율 | 8.1% | 10.7% | 9.6% | 4.4% |
| 군인연금 | 사례수 | 3,997 | - | 2,802 | 1,195 |
| | 비율 | 0.6% | - | 0.7% | 0.6% |
| 장해급여 | 사례수 | 3,005 | 796 | 1,104 | 1,105 |
| | 비율 | 0.4% | 1.1% | 0.3% | 0.5% |
| 유족급여 | 사례수 | 1,155 | 1,155 | - | - |
| | 비율 | 0.2% | 1.6% | - | - |
| 보훈연금 | 사례수 | 19,717 | - | 10,082 | 9,635 |
| | 비율 | 2.8% | - | 2.4% | 4.5% |
| 특례노령연금 | 사례수 | 6,308 | - | 1,193 | 5,115 |
| | 비율 | 0.9% | - | 0.3% | 2.4% |
| 실업급여 | 사례수 | 95,022 | 57,171 | 36,694 | 1,157 |
| | 비율 | 13.6% | 80.2% | 8.9% | 0.5% |

2) 전반적 생활환경

- 서울시 장년·노인층을 대상으로 가족 수입이나 여가생활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후 평균 점수로 변환한 결과,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3.5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2.93점으로 가장 낮았음.
- 다만 가족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졌음.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족 수입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졌는데, 저학력이 저임금 일자리로 이어지거나 아예 구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표 2-46> 요인별 생활만족도

| | | 가족 수입 | 여가생활 | 주거환경 | 가족관계 | 친인척 관계 | 사회적 친분관계 |
|-------|--------|-------|------|------|------|--------|----------|
| 전체 | | 2.93 | 3.11 | 3.39 | 3.58 | 3.30 | 3.25 |
| 성별 | 남자 | 2.91 | 3.06 | 3.39 | 3.58 | 3.29 | 3.24 |
| | 여자 | 2.95 | 3.16 | 3.39 | 3.59 | 3.30 | 3.27 |
| 연령 | 50대 | 2.95 | 3.10 | 3.41 | 3.64 | 3.32 | 3.29 |
| | 60대 | 2.92 | 3.11 | 3.39 | 3.55 | 3.29 | 3.23 |
| | 70대 초반 | 2.89 | 3.16 | 3.36 | 3.48 | 3.25 | 3.17 |
| 교육 수준 | 무학 | 2.53 | 2.65 | 3.16 | 3.04 | 2.97 | 2.92 |
| | 중졸 | 2.73 | 2.97 | 3.24 | 3.40 | 3.21 | 3.13 |
| | 고졸 | 2.95 | 3.09 | 3.37 | 3.59 | 3.29 | 3.26 |
| | 전문대졸 | 2.87 | 3.14 | 3.53 | 3.68 | 3.34 | 3.30 |
| | 대졸이상 | 3.20 | 3.33 | 3.59 | 3.80 | 3.42 | 3.41 |
| 혼인 상태 | 미혼 | 2.64 | 2.87 | 3.13 | 3.23 | 3.08 | 3.05 |
| | 기혼유배우자 | 3.00 | 3.18 | 3.46 | 3.67 | 3.35 | 3.30 |
| | 기혼무배우자 | 2.72 | 2.88 | 3.16 | 3.30 | 3.10 | 3.12 |

○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1.2%(1,278,035명),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46.5%(1,442,813명)로, 서울시 장년·노인층이 스스로 인지하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인 것으로 보임.

<표 2-47> 현재 건강상태

| | | 전체 | 건강이 아주 안좋다 |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건강한 편이다 | 아주 건강하다 |
|-------|--------|-----------|---------------|-----------------|-------------------|-------------------|---------------|
| 전체 | | 3,105,746 | 36,241 (1.2%) | 328,415 (10.6%) | 1,278,035 (41.2%) | 1,442,813 (46.5%) | 20,242 (0.7%) |
| 성별 | 남자 | 1,488,659 | 17,720 (1.2%) | 136,792 (9.2%) | 605,578 (40.7%) | 714,555 (48%) | 14,015 (0.9%) |
| | 여자 | 1,617,086 | 18,520 (1.1%) | 191,623 (11.8%) | 672,457 (41.6%) | 728,258 (45%) | 6,227 (0.4%) |
| 연령 | 50대 | 1,525,271 | 4,009 (0.3%) | 104,751 (6.9%) | 502,409 (32.9%) | 901,062 (59.1%) | 13,040 (0.9%) |
| | 60대 | 1,218,153 | 21,892 (1.8%) | 144,284 (11.8%) | 592,520 (48.6%) | 452,256 (37.1%) | 7,202 (0.6%) |
| | 70대 초반 | 362,322 | 10,340 (2.9%) | 79,381 (21.9%) | 183,106 (50.5%) | 89,495 (24.7%) | - |
| 교육 수준 | 무학 | 31,945 | 2,360 (7.4%) | 20,468 (64.1%) | 8,480 (26.5%) | 637 (2%) | - |
| | 중졸 | 853,068 | 20,629 (2.4%) | 168,884 (19.8%) | 447,904 (52.5%) | 214,202 (25.1%) | 1,450 (0.2%) |
| | 고졸 | 1,290,987 | 12,359 (1%) | 106,208 (8.2%) | 514,422 (39.8%) | 652,955 (50.6%) | 5,042 (0.4%) |
| | 전문대졸 | 238,224 | - | 7,999 (3.4%) | 111,617 (46.9%) | 113,830 (47.8%) | 4,777 (2%) |
| | 대졸이상 | 691,521 | 893 (0.1%) | 24,855 (3.6%) | 195,612 (28.3%) | 461,189 (66.7%) | 8,973 (1.3%) |
| 혼인 상태 | 미혼 | 158,604 | 6,358 (4%) | 38,754 (24.4%) | 50,085 (31.6%) | 63,407 (40%) | - |
| | 기혼유배우자 | 2,416,392 | 18,131 (0.8%) | 190,445 (7.9%) | 963,215 (39.9%) | 1,224,971 (50.7%) | 19,629 (0.8%) |

| | | 전체 | 건강이 아주 안좋다 |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건강한 편이다 | 아주 건강하다 |
|--|--------|---------|------------------|-------------------|--------------------|--------------------|---------------|
| | 기혼무배우자 | 530,749 | 11,751 (2.2%) | 99,216 (18.7%) | 264,734 (49.9%) | 154,434 (29.1%) | 613 (0.1%) |

- 현재 시각·청각·언어장애 등 감각기관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0.6%(20,108명)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걷기나 계단 오르기, 물건 운반하기 등의 육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280,993명)였음.
- 육체적 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장년·노인층의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감각기관 장애 및 육체적 활동에 제약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상대적으로 저학력일수록 감각기관 장애 및 육체적 활동 제약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있음.

<표 2-48> 감각기관 장애 및 육체적 활동 제약 여부

| | | 전체 | 감각기관 장애 | | | | 육체적 활동 제약 | | | |
|-------|--------|-----------|---------|------|-----------|--------|-----------|-------|-----------|-------|
| | | | 있음 | | 없음 | | 있음 | | 없음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 3,105,746 | 20,108 | 0.6% | 3,085,637 | 99.4% | 280,993 | 9.0% | 2,824,753 | 91.0% |
| 성별 | 남자 | 1,488,659 | 10,375 | 0.7% | 1,478,284 | 99.3% | 92,743 | 6.2% | 1,395,917 | 93.8% |
| | 여자 | 1,617,086 | 9,733 | 0.6% | 1,607,353 | 99.4% | 188,250 | 11.6% | 1,428,836 | 88.4% |
| 연령 | 50대 | 1,525,271 | 7,164 | 0.5% | 1,518,107 | 99.5% | 67,812 | 4.4% | 1,457,459 | 95.6% |
| | 60대 | 1,218,153 | 5,286 | 0.4% | 1,212,867 | 99.6% | 145,614 | 12.0% | 1,072,539 | 88.0% |
| | 70대 초반 | 362,322 | 7,658 | 2.1% | 354,663 | 97.9% | 67,567 | 18.6% | 294,755 | 81.4% |
| 교육 수준 | 무학 | 31,945 | 1,952 | 6.1% | 29,993 | 93.9% | 8,566 | 26.8% | 23,379 | 73.2% |
| | 중졸 | 853,068 | 10,213 | 1.2% | 842,855 | 98.8% | 152,449 | 17.9% | 700,619 | 82.1% |
| | 고졸 | 1,290,987 | 5,460 | 0.4% | 1,285,527 | 99.6% | 87,056 | 6.7% | 1,203,931 | 93.3% |
| | 전문대졸 | 238,224 | - | - | 238,224 | 100.0% | 587 | 0.2% | 237,637 | 99.8% |
| | 대졸이상 | 691,521 | 2,484 | 0.4% | 689,037 | 99.6% | 32,334 | 4.7% | 659,187 | 95.3% |
| 혼인 상태 | 미혼 | 158,604 | 4,768 | 3.0% | 153,836 | 97.0% | 14,130 | 8.9% | 144,475 | 91.1% |
| | 기혼유배우자 | 2,416,392 | 11,265 | 0.5% | 2,405,127 | 99.5% | 187,213 | 7.7% | 2,229,179 | 92.3% |
| | 기혼무배우자 | 530,749 | 4,076 | 0.8% | 526,674 | 99.2% | 79,649 | 15.0% | 451,100 | 85.0% |

- 서울시 장년·노인층이 인식하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지위)가 어느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위 등급을 상-중-하로 나누고 각각의 등급별로 상-하의 하위단계를 추가로 만들어 총 6단계의 지위 등급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음.
- 조사 결과 자신 계층 지위를 중간계층이나 하위계층 즉, 중하 등급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2%(1,465,410명)로 가장 높았고, 하-상 등급의 지위라는 응답은 25.5%(792,290명)로 나타났음. 이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편이라는 서울시 장년·노인층의 전반적인 인식을 보여줌.

<표 2-49>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 | | 전체 | 상-상 | 상-하 | 중-상 | 중-하 | 하-상 | 하-하 |
|----------|--------|-----------|-----------------|------------------|--------------------|----------------------|--------------------|--------------------|
| 전체 | | 3,105,746 | 8,726 (0.3%) | 47,547 (1.5%) | 544,727 (17.5%) | 1,465,410 (47.2%) | 792,290 (25.5%) | 247,046 (8%) |
| 성별 | 남자 | 1,488,659 | 6,553 (0.4%) | 24,752 (1.7%) | 258,206 (17.3%) | 698,200 (46.9%) | 381,566 (25.6%) | 119,384 (8%) |
| | 여자 | 1,617,086 | 2,173 (0.1%) | 22,795 (1.4%) | 286,521 (17.7%) | 767,210 (47.4%) | 410,724 (25.4%) | 127,662 (7.9%) |
| 연령 | 50대 | 1,525,271 | 4,277 (0.3%) | 21,265 (1.4%) | 266,833 (17.5%) | 725,578 (47.6%) | 404,704 (26.5%) | 102,615 (6.7%) |
| | 60대 | 1,218,153 | 4,449 (0.4%) | 21,488 (1.8%) | 225,244 (18.5%) | 572,758 (47%) | 289,699 (23.8%) | 104,515 (8.6%) |
| | 70대 초반 | 362,322 | - | 4,794 (1.3%) | 52,650 (14.5%) | 167,074 (46.1%) | 97,887 (27%) | 39,917 (11%) |
| 교육 수준 | 무학 | 31,945 | - | 0(0%) | 1,427 (4.5%) | 2,143 (6.7%) | 21,580 (67.6%) | 6,796 (21.3%) |
| | 중졸 | 853,068 | - | 8,265 (1%) | 83,655 (9.8%) | 316,885 (37.1%) | 302,091 (35.4%) | 142,173 (16.7%) |
| | 고졸 | 1,290,987 | - | 7,122 (0.6%) | 200,090 (15.5%) | 676,297 (52.4%) | 322,554 (25%) | 84,923 (6.6%) |
| | 전문대졸 | 238,224 | - | 3,026 (1.3%) | 41,052 (17.2%) | 126,939 (53.3%) | 62,145 (26.1%) | 5,062 (2.1%) |
| | 대졸이상 | 691,521 | 8,726 (1.3%) | 29,134 (4.2%) | 218,503 (31.6%) | 343,147 (49.6%) | 83,919 (12.1%) | 8,092 (1.2%) |
| 혼인 상태 | 미혼 | 158,604 | - | - | 21,189 (13.4%) | 41,221 (26%) | 66,237 (41.8%) | 29,957 (18.9%) |
| | 기혼유배우자 | 2,416,392 | 8,726 (0.4%) | 43,248 (1.8%) | 479,862 (19.9%) | 1,267,114 (52.4%) | 517,447 (21.4%) | 99,995 (4.1%) |
| | 기혼무배우자 | 530,749 | - | 4,299 (0.8%) | 43,676 (8.2%) | 157,075 (29.6%) | 208,605 (39.3%) | 117,094 (22.1%) |

4. 소결

- 2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장년 및 노인층의 경제활동 현황, 취업자 일자리 특성, 직업교육훈련 및 구직활동, 사회보험 수급현황,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등을 살펴보았음.
- 2020년 기준 서울시 장년·노인층의 취업자 수는 1,782,421명으로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57.4%를 차지했고 실업자는 22,264명(0.7%), 비경제활동연구는 1,301,060명(41.9%)으로 나타났음.
 - 남성의 취업자 비율이 70.8%, 여성은 45%로 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의 취업자 비중이 70.8%로 가장 높았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았으나 전문대졸과 대졸자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가구주인 경우 취업자 비중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이 40%(712,173명), 고용주/자영업자 25.6%(455,011명), 임시직 20.1%(357,056명), 일용직 11.7%(207,772명), 무급가족종사자 2.7%(47,919명) 순이었음. 한편 파견근로자는 0.7%(8,612명), 용역근로자는 6.6%(84,433명), 특수형태근로자는 11.2%(5,918명)였음.
- 임금근로자 중 현 일자리에서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1,007,404명(78.7%)이었고,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272,088명(21.3%)이었음.
 -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2%(596,886명)로 가장 높았고, “계약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고 있다”는 응답은 20.9%(210,625명), “묵시적 관행에 의해 근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응답은 19.8%(199,893명)였음.
 -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언제든 그만둔다는 조건, 즉 임시직으로 채용으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았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남.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정규직 선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은 62.2%(100,963명), 임시직은 47.6%(146,269명), 일용직은 48.1%(93,645명), 고용주/자영업자는 25.7%(10,696명)이 정규직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음.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임금이나 근무환경 등 세부 요인별로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평균 점수로 변환한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만족도’가 2.87점으로 가장

낮고, '수행 업무 만족도'가 3.38점으로 가장 높았음.

-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에 대해 하고 있는 일과 본인의 교육수준 간의 적합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무와 교육수준'이 맞다는 응답이 89.7%(1,598,518명)으로 높았음.
 - 현재 일자리에 대해 하고 있는 일과 본인의 '기술(기능)수준 간의 적합도'에 대해서도 '직무와 기술(기능)수준'이 맞다는 응답이 90.6%(1,615,117명)이 가장 많았음.

- 2020년을 기준으로 작년(2019년) 이후 취업이나 창업 또는 업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3.5%(110,064명)만이 교육·훈련 유경험이나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목적은 전체 응답자의 78.3%(86,141명)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취업 또는 재취업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는 12.5%였음.

-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간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자는 2%(27,122명), 지난 1개월 간 구직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0.7%(8,994명)이었음.
 - 지난 1개월 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장년·노인층 대상 그 사유를 설문하였는데, 응답자의 61.1%(16,523명)가 "일 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이전에 일 자리를 찾아봤으나 없었기 때문에 구직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2.2%(8,709명)였음.

- 2020년을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훈연금 등 사회보험 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울시 장년·노인층의 22.6%(699,549명)가 사회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했음.
 - 수급받은 (주된)사회보험 유형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비중이 전체 사회보험 수급의 66.5%(465,053명)를 차지했고, 실업급여가 13.6%로 그 다음으로 높았음.

- 가족수입이나 여가생활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후 평균 점수로 변환한 결과,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3.5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 수입 만족도'는 2.93점으로 가장 낮았음.
 - 한편 현재 서울지역 중고령층 구직자들이 구직 시 겪는 어려움은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3장. 서울지역 은퇴 및 경제활동 현황 분석

-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은퇴자들의 실태는 2015년까지만 조사를 하여 해당 자료를 통해 서울지역 상황을 제한적으로 검토했음. 노동패널 18차수(2015년) 부가조사로 만 50세 이상 만 74세 이하 장년·노인층에 실시한 은퇴 여부와 은퇴 준비 및 은퇴 후 생활에 관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은퇴 현황

-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장년·노인층에 은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은퇴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8.5%(1,705,014명)로 가장 많았고, 과거 한 번도 취업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20.8%(606,239명), 은퇴하였다는 응답은 19.2%(559,874명)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는 은퇴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1,195,174명(75.2%)으로 대부분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70대는 취업자가 62,377명(21.2%)으로 적었음.
- 과거에 한 번도 취업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이 576,211명(37.7%)로 남성에 비해 훨씬 많았고(30,028명, 2.2%), 연령대가 높을수록 과거 취업 활동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음.

<표 3-1> 은퇴 여부

| | | 전체 | 은퇴 하였다 | 주된 일자리에서는 은퇴하였으나 소일거리 일은 계속하고 있다 | 은퇴하지 않았다 | 과거 한 번도 취업활동을 한 적이 없다 |
|----------|--------|-----------|--------------------|--|----------------------|-----------------------------|
| 전체 | | 2,912,253 | 559,874 (19.2%) | 41,126 (1.4%) | 1,705,014 (58.5%) | 606,239 (20.8%) |
| 성별 | 남자 | 1,382,208 | 310,841 (22.5%) | 12,783 (0.9%) | 1,028,556 (74.4%) | 30,028 (2.2%) |
| | 여자 | 1,530,045 | 249,033 (16.3%) | 28,343 (1.9%) | 676,458 (44.2%) | 576,211 (37.7%) |
| 연령 | 50대 | 1,590,246 | 173,115 (10.9%) | 23,099 (1.5%) | 1,195,174 (75.2%) | 198,858 (12.5%) |
| | 60대 | 1,027,907 | 267,614 (26%) | 18,027 (1.8%) | 447,463 (43.5%) | 294,803 (28.7%) |
| | 70대 초반 | 294,100 | 119,145 (40.5%) | - | 62,377 (21.2%) | 112,578 (38.3%) |
| 교육 수준 | 무학 | 61,164 | 33,476 (54.7%) | 1,603 (2.6%) | 15,157 (24.8%) | 10,928 (17.9%) |
| | 중졸 | 961,494 | 171,461 (17.8%) | 23,352 (2.4%) | 492,947 (51.3%) | 273,735 (28.5%) |
| | 고졸 | 1,140,390 | 218,142 (19.1%) | 8,910 (0.8%) | 700,114 (61.4%) | 213,223 (18.7%) |
| | 전문대졸 | 188,441 | 17,441 (9.3%) | - | 147,352 (78.2%) | 23,648 (12.5%) |
| | 대졸이상 | 560,764 | 119,354 | 7,261 | 349,444 | 84,706 |

| | 전체 | 은퇴 하였다 | 주된 일자리에서는 은퇴하였으나 소일거리 일은 계속하고 있다 | 은퇴하지 않았다 | 과거 한 번도 취업활동을 한 적이 없다 | |
|----------|--------|-----------|--|------------------|-----------------------------|--------------------|
| | | (21.3%) | (1.3%) | (62.3%) | (15.1%) | |
| 혼인 상태 | 미혼 | 48,313 | 15,660 (32.4%) | - | 32,653 (67.6%) | - |
| | 기혼유배우자 | 2,361,819 | 449,256 (19%) | 39,348 (1.7%) | 1,392,201 (58.9%) | 481,013 (20.4%) |
| | 기혼무배우자 | 502,122 | 94,958 (18.9%) | 1,778 (0.4%) | 280,159 (55.8%) | 125,226 (24.9%) |

○ 현재 은퇴 상태인 장년·노인층을 대상으로 은퇴의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는 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였고(28.6%), 2순위는 직장의 파산·폐업·휴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은퇴(48.5%)였음.

- 70대 은퇴자가 많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직이 주된 이유로 꼽힌 것으로 보이며, 정년퇴직이나 일로 인한 스트레스 등도 중요한 은퇴 사유인 것으로 나타남.

<표 3-2> 은퇴의 주된 이유

| | 1순위 | | 2순위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601,000 | 100% | 575,615 | 100% |
| 정년퇴직 | 69,368 | 11.5 | 1,251 | 0.2 |
|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 24,581 | 4.1 | 4,415 | 0.8 |
| 은퇴를 해도 될 만큼 여유 있는 본인 수입 | 5,842 | 1.0 | 16,568 | 2.9 |
| 은퇴를 해도 될 만큼 여유 있는 배우자 수입 | 2,958 | 0.5 | 7,202 | 1.3 |
| 해고 등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 31,750 | 5.3 | 9,893 | 1.7 |
|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 40,405 | 6.7 | 51,622 | 9.0 |
| 일하기가 싫어져서/일로 인한 스트레스 등 | 65,191 | 10.8 | 37,474 | 6.5 |
| 고용주나 일로부터의 압박감 때문에 | 18,170 | 3.0 | 1,742 | 0.3 |
| 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 171,680 | 28.6 | 48,850 | 8.5 |
|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서 | 3,116 | 0.5 | 8,337 | 1.4 |
|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의 건강문제 | 13,737 | 2.3 | | |
|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 32,942 | 5.5 | 43,480 | 7.6 |
| 더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 21,848 | 3.6 | 40,454 | 7.0 |
| 손자,손녀 등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 15,016 | 2.5 | 8,505 | 1.5 |
| 직장의 파산,폐업,휴업 등으로 인해 | 34,775 | 5.8 | 279,192 | 48.5 |
| 기타 | 49,623 | 8.3 | 16,630 | 2.9 |

○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의 자발성 여부를 설문한 결과 자발적 은퇴가 69.7%(419,080명), 비자발적 은퇴가 30.3%(181,920명)로 나타났는데, 비자발적으로 은퇴했다는 응답이 여성은 18.1%(50,288명)인 반면 남성은 40.7%(131,633명)로 성별 격차가 큰 것이

확인됨. 연령별로는 50대보다는 60대와 70대의 비자발적 은퇴 비율이 더 높았음.

<표 3-3> 은퇴의 자발성 여부

| | | 전체 | 자발적 은퇴 | | 비자발적 은퇴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 601,000 | 419,080 | 69.7% | 181,920 | 30.3% |
| 성별 | 남자 | 323,624 | 191,992 | 59.3% | 131,633 | 40.7% |
| | 여자 | 277,376 | 227,088 | 81.9% | 50,288 | 18.1% |
| 연령 | 50대 | 196,215 | 150,390 | 76.6% | 45,824 | 23.4% |
| | 60대 | 285,641 | 189,020 | 66.2% | 96,620 | 33.8% |
| | 70대 초반 | 119,145 | 79,669 | 66.9% | 39,476 | 33.1% |
| 교육 수준 | 무학 | 35,079 | 24,277 | 69.2% | 10,802 | 30.8% |
| | 중졸 | 194,813 | 132,378 | 68.0% | 62,435 | 32.0% |
| | 고졸 | 227,053 | 165,699 | 73.0% | 61,354 | 27.0% |
| | 전문대졸 | 17,441 | 10,120 | 58.0% | 7,321 | 42.0% |
| | 대졸이상 | 126,615 | 86,606 | 68.4% | 40,008 | 31.6% |
| 혼인 상태 | 미혼 | 15,660 | 13,028 | 83.2% | 2,633 | 16.8% |
| | 기혼유배우자 | 488,604 | 340,190 | 69.6% | 148,414 | 30.4% |
| | 기혼무배우자 | 96,736 | 65,862 | 68.1% | 30,874 | 31.9% |

- 은퇴 당시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근로자가 36.3%(296,3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23.1%(188,854명), 임시직 12.6%(103,043명), 고용주 12.1%(98,851명), 일용직 11%(89,848명), 무급가족 종사자 4.9%(40,183명) 순이었음.
-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은 상용직으로 은퇴한 비율이 45.5%(220,278명)였으나 여성은 22.9%(76,077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임시직과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로 은퇴한 경우는 남성에 비해 더 많았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으로 은퇴했다는 응답률이 높고 낮을수록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은퇴했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표 3-4> 은퇴 당시 종사상 지위

| | | 전체 | 임금근로자 | | | 비임금근로자 | | |
|----|--------|---------|--------------------|--------------------|-------------------|-------------------|--------------------|-------------------|
| | |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 전체 | | 817,134 | 296,355 (36.3%) | 103,043 (12.6%) | 89,848 (11%) | 98,851 (12.1%) | 188,854 (23.1%) | 40,183 (4.9%) |
| 성별 | 남자 | 484,421 | 220,278 (45.5%) | 19,596 (4%) | 48,014 (9.9%) | 77,687 (16%) | 115,604 (23.9%) | 3,242 (0.7%) |
| | 여자 | 332,712 | 76,077 (22.9%) | 83,447 (25.1%) | 41,833 (12.6%) | 21,164 (6.4%) | 73,250 (22%) | 36,942 (11.1%) |
| 연령 | 50대 | 335,012 | 102,366 (30.6%) | 48,074 (14.4%) | 32,418 (9.7%) | 47,215 (14.1%) | 83,117 (24.8%) | 21,822 (6.5%) |
| | 60대 | 346,095 | 148,789 (43%) | 29,369 (8.5%) | 39,669 (11.5%) | 39,483 (11.4%) | 73,038 (21.1%) | 15,748 (4.6%) |
| | 70대 초반 | 136,026 | 45,200 (33.2%) | 25,601 (18.8%) | 17,761 (13.1%) | 12,153 (8.9%) | 32,699 (24%) | 2,613 (1.9%) |
| 교육 | 무학 | 36,921 | 7,429 | 19,015 | 7,032 | - | 3,445 | - |

| | | 전체 | 임금근로자 | | | 비임금근로자 | | |
|----------|--------|---------|--------------------|-------------------|-------------------|-------------------|--------------------|------------------|
| | |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 수준 | | | (20.1%) | (51.5%) | (19%) | | (9.3%) | |
| | 중졸 | 258,266 | 67,816 (26.3%) | 35,785 (13.9%) | 42,845 (16.6%) | 20,167 (7.8%) | 70,896 (27.5%) | 20,757 (8%) |
| | 고졸 | 322,515 | 91,796 (28.5%) | 38,842 (12%) | 39,971 (12.4%) | 27,837 (8.6%) | 104,644 (32.4%) | 19,426 (6%) |
| | 전문대졸 | 39,450 | 16,193 (41%) | - | - | 23,257 (59%) | - | - |
| | 대졸이상 | 159,981 | 113,121 (70.7%) | 9,401 (5.9%) | - | 27,589 (17.2%) | 9,869 (6.2%) | - |
| 혼인 상태 | 미혼 | 24,604 | 5,077 (20.6%) | - | 7,226 (29.4%) | - | 12,302 (50%) | - |
| | 기혼유배우자 | 661,222 | 270,516 (40.9%) | 63,566 (9.6%) | 54,638 (8.3%) | 94,400 (14.3%) | 137,918 (20.9%) | 40,183 (6.1%) |
| | 기혼무배우자 | 131,307 | 20,761 (15.8%) | 39,478 (30.1%) | 27,984 (21.3%) | 4,450 (3.4%) | 38,634 (29.4%) | - |

○ 은퇴 당시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 근로가 89.6%(438,251명)으로 다수였고, 다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제 근로 비율(14.9%)이 더 높았음.

<표 3-5> 은퇴 당시 근로시간 형태

| | | 전체 | 시간제 근로 | | 전일제 근로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 489,246 | 50,995 | 10.4% | 438,251 | 89.6% |
| 성별 | 남자 | 287,888 | 20,933 | 7.3% | 266,955 | 92.7% |
| | 여자 | 201,357 | 30,061 | 14.9% | 171,296 | 85.1% |
| 연령 | 50대 | 182,858 | 19,811 | 10.8% | 163,047 | 89.2% |
| | 60대 | 217,826 | 20,031 | 9.2% | 197,795 | 90.8% |
| | 70대 초반 | 88,561 | 11,153 | 12.6% | 77,408 | 87.4% |
| 교육 수준 | 무학 | 33,476 | 2,551 | 7.6% | 30,925 | 92.4% |
| | 중졸 | 146,446 | 26,097 | 17.8% | 120,348 | 82.2% |
| | 고졸 | 170,608 | 12,945 | 7.6% | 157,663 | 92.4% |
| | 전문대졸 | 16,193 | 0 | 0.0% | 16,193 | 100.0% |
| | 대졸이상 | 122,523 | 9,401 | 7.7% | 113,121 | 92.3% |
| 혼인 상태 | 미혼 | 12,303 | 1,711 | 13.9% | 10,592 | 86.1% |
| | 기혼유배우자 | 388,720 | 36,629 | 9.4% | 352,092 | 90.6% |
| | 기혼무배우자 | 88,223 | 12,654 | 14.3% | 75,568 | 85.7% |

○ 은퇴 당시 10인 이하 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경우가 62.3%(509,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99인 규모 사업체 종사자가 9.9%(80,800명)로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가 다수였음. 연령별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규모 사업장 은퇴자 수는 적고 대규모 사업장 은퇴자 수는 많았음.

- 다만 남성에 비해 여성이 10인 이하 규모 사업체에서 은퇴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음. 남성은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은퇴한 경우가 10.5%(50,914명)로 여성이 2.3%(7,816

명)인 데 반해 크게 높은 수치를 보임.

<표 3-6> 은퇴 당시 일자리 사업체 규모

| | | 전체 | 10인 이하 | 10~29인 | 30~99인 | 100~ 299인 | 300인 이상 | 군인/ 공무원/ 교원 | 잘 모름 |
|----------|--------|---------|--------------------|-------------------|-------------------|------------------|-------------------|-------------------|------------------|
| 전체 | | 817,134 | 509,222 (62.3%) | 59,358 (7.3%) | 80,800 (9.9%) | 47,647 (5.8%) | 58,729 (7.2%) | 15,014 (1.8%) | 46,364 (5.7%) |
| 성별 | 남자 | 484,421 | 271,397 (56%) | 37,526 (7.7%) | 55,653 (11.5%) | 30,288 (6.3%) | 50,914 (10.5%) | 15,014 (3.1%) | 23,630 (4.9%) |
| | 여자 | 332,712 | 237,825 (71.5%) | 21,832 (6.6%) | 25,147 (7.6%) | 17,359 (5.2%) | 7,816 (2.3%) | - | 22,734 (6.8%) |
| 연령 | 50대 | 335,012 | 237,744 (71%) | 20,445 (6.1%) | 28,451 (8.5%) | 15,345 (4.6%) | 10,813 (3.2%) | 3,028 (0.9%) | 19,186 (5.7%) |
| | 60대 | 346,095 | 182,924 (52.9%) | 24,946 (7.2%) | 39,994 (11.6%) | 32,302 (9.3%) | 31,874 (9.2%) | 11,985 (3.5%) | 22,070 (6.4%) |
| | 70대 초반 | 136,026 | 88,554 (65.1%) | 13,967 (10.3%) | 12,355 (9.1%) | - | 16,042 (11.8%) | - | 5,108 (3.8%) |
| 교육 수준 | 무학 | 36,921 | 31,403 (85.1%) | 5,519 (14.9%) | - | - | - | - | - |
| | 중졸 | 258,266 | 189,994 (73.6%) | 12,267 (4.7%) | 5,359 (2.1%) | 18,998 (7.4%) | 14,160 (5.5%) | - | 17,489 (6.8%) |
| | 고졸 | 322,515 | 217,475 (67.4%) | 33,809 (10.5%) | 30,219 (9.4%) | 4,692 (1.5%) | 12,088 (3.7%) | 8,508 (2.6%) | 15,725 (4.9%) |
| | 전문대졸 | 39,450 | 26,163 (66.3%) | 2,965 (7.5%) | 8,678 (22%) | - | 1,644 (4.2%) | - | - |
| | 대졸이상 | 159,981 | 44,187 (27.6%) | 4,798 (3%) | 36,544 (22.8%) | 23,957 (15%) | 30,838 (19.3%) | 6,506 (4.1%) | 13,150 (8.2%) |
| 혼인 상태 | 미혼 | 24,604 | 22,893 (93%) | - | - | - | - | - | 1,711 (7%) |
| | 기혼유배우자 | 661,222 | 389,499 (58.9%) | 44,013 (6.7%) | 77,107 (11.7%) | 45,350 (6.9%) | 57,478 (8.7%) | 15,014 (2.3%) | 32,761 (5%) |
| | 기혼무배우자 | 131,307 | 96,830 (73.7%) | 15,345 (11.7%) | 3,693 (2.8%) | 2,297 (1.7%) | 1,251 (1%) | - | 11,891 (9.1%) |

○ 서울시 장년·노인층을 대상으로 현재 소득이나 수입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가 주된 일자리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득·수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72.9%(1,680,177명), 현재의 일자리가 주된 일자리라는 응답이 88.6%(1,488,880명)였음.

<표 3-7> 현재 일자리 및 주된 일자리 여부

| | | 현재 소득·수입활동 여부 | | | 현 일자리의 주된 일자리 여부 | | |
|----|-----|---------------|----------------------|--------------------|------------------|----------------------|--------------------|
| | | 전체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체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 전체 | | 2,306,014 | 1,680,177 (72.9%) | 625,837 (27.1%) | 1,680,177 | 1,488,880 (88.6%) | 191,297 (11.4%) |
| 성별 | 남자 | 1,352,180 | 1,004,831 (74.3%) | 347,350 (25.7%) | 1,004,831 | 867,759 (86.4%) | 137,072 (13.6%) |
| | 여자 | 953,834 | 675,346 (70.8%) | 278,487 (29.2%) | 675,346 | 621,121 (92%) | 54,225 (8%) |
| 연령 | 50대 | 1,391,388 | 1,157,978 (83.2%) | 233,410 (16.8%) | 1,157,978 | 1,056,376 (91.2%) | 101,602 (8.8%) |
| | 60대 | 733,104 | 458,708 | 274,395 | 458,708 | 387,008 | 71,700 |

| | | 현재 소득·수입활동 여부 | | | 현 일자리의 주된 일자리 여부 | | |
|----------|--------|---------------|----------------------|--------------------|------------------|----------------------|--------------------|
| | | 전체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체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 | | | (62.6%) | (37.4%) | | (84.4%) | (15.6%) |
| | 70대 초반 | 181,522 | 63,491 (35%) | 118,031 (65%) | 63,491 | 45,496 (71.7%) | 17,995 (28.3%) |
| 교육 수준 | 무학 | 50,236 | 15,157 (30.2%) | 35,079 (69.8%) | 15,157 | 13,315 (87.8%) | 1,842 (12.2%) |
| | 중졸 | 687,760 | 500,703 (72.8%) | 187,056 (27.2%) | 500,703 | 429,494 (85.8%) | 71,210 (14.2%) |
| | 고졸 | 927,167 | 671,758 (72.5%) | 255,409 (27.5%) | 671,758 | 604,652 (90%) | 67,106 (10%) |
| | 전문대졸 | 164,793 | 134,474 (81.6%) | 30,319 (18.4%) | 134,474 | 125,343 (93.2%) | 9,132 (6.8%) |
| | 대졸이상 | 476,058 | 358,084 (75.2%) | 117,974 (24.8%) | 358,084 | 316,077 (88.3%) | 42,007 (11.7%) |
| 혼인 상태 | 미혼 | 48,313 | 25,420 (52.6%) | 22,893 (47.4%) | 25,420 | 23,709 (93.3%) | 1,711 (6.7%) |
| | 기혼유배우자 | 1,880,805 | 1,380,550 (73.4%) | 500,256 (26.6%) | 1,380,550 | 1,219,583 (88.3%) | 160,966 (11.7%) |
| | 기혼무배우자 | 376,895 | 274,207 (72.8%) | 102,688 (27.2%) | 274,207 | 245,588 (89.6%) | 28,619 (10.4%) |

○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에 정년제도가 존재하는 경우는 17.5%(261,182명)였고 그 경우 정년은 평균 62세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로는 50대나 60대,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이나 대졸 이상 일자리 일수록 정년제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음.

<표 3-8> 현 일자리의 정년제도

| | | 정년제도 여부 | | | | | 정년 연령 |
|----------|--------|-----------|---------|-------|-----------|--------|----------|
| | | 전체 | 있음 | | 없음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 | 전체 | 1,488,880 | 261,182 | 17.5% | 1,227,698 | 82.5% | 62 |
| 성별 | 남자 | 867,759 | 196,138 | 22.6% | 671,621 | 77.4% | 62 |
| | 여자 | 621,121 | 65,044 | 10.5% | 556,077 | 89.5% | 62 |
| 연령 | 50대 | 1,056,376 | 210,858 | 20.0% | 845,518 | 80.0% | 61 |
| | 60대 | 387,008 | 49,150 | 12.7% | 337,859 | 87.3% | 64 |
| | 70대 초반 | 45,496 | 1,174 | 2.6% | 44,322 | 97.4% | 65 |
| 교육 수준 | 무학 | 13,315 | 0 | 0.0% | 13,315 | 100.0% | |
| | 중졸 | 429,494 | 33,237 | 7.7% | 396,257 | 92.3% | 62 |
| | 고졸 | 604,652 | 71,777 | 11.9% | 532,875 | 88.1% | 62 |
| | 전문대졸 | 125,343 | 22,568 | 18.0% | 102,775 | 82.0% | 62 |
| | 대졸이상 | 316,077 | 133,601 | 42.3% | 182,477 | 57.7% | 62 |
| 혼인 상태 | 미혼 | 23,709 | 0 | 0.0% | 23,709 | 100.0% | |
| | 기혼유배우자 | 1,219,583 | 239,407 | 19.6% | 980,177 | 80.4% | 62 |
| | 기혼무배우자 | 245,588 | 21,775 | 8.9% | 223,813 | 91.1% | 65 |

2. 재취업 및 창업

1) 취업자의 재취업 및 창업

- 비은퇴자이면서 취업자인 서울시 장년·노인층을 대상으로 향후 퇴직 후의 재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문항들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퇴하지 않고 취업자로 경제활동을 하는 장년·노인층에 현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계획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95.9%(1,577,710명)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을 불문하고 현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다음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는 매우 적은 것이 확인됨.

<표 3-9> 퇴직 후 재취업·창업 계획

| | | 전체 | 재취업 준비·계획 | | 창업 준비·계획 | | 계획없음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 1,644,660 | 61,923 | 3.8% | 5,026 | 0.3% | 1,577,710 | 95.9% |
| 성별 | 남자 | 983,627 | 36,323 | 3.7% | 3,739 | 0.4% | 943,564 | 95.9% |
| | 여자 | 661,033 | 25,600 | 3.9% | 1,287 | 0.2% | 634,146 | 95.9% |
| 연령 | 50대 | 1,154,049 | 53,451 | 4.6% | 2,993 | 0.3% | 1,097,605 | 95.1% |
| | 60대 | 430,151 | 3,056 | 0.7% | 2,034 | 0.5% | 425,061 | 98.8% |
| | 70대 초반 | 60,460 | 5,417 | 9.0% | - | - | 55,043 | 91.0% |
| 교육 수준 | 무학 | 15,157 | 2,280 | 15.0% | - | - | 12,877 | 85.0% |
| | 중졸 | 487,124 | 18,874 | 3.9% | 1,287 | 0.3% | 466,963 | 95.9% |
| | 고졸 | 667,926 | 16,972 | 2.5% | 2,034 | 0.3% | 648,919 | 97.2% |
| | 전문대졸 | 134,474 | - | - | - | - | 134,474 | 100.0% |
| | 대졸이상 | 339,978 | 23,797 | 7.0% | 1,705 | 0.5% | 314,476 | 92.5% |
| 혼인 상태 | 미혼 | 25,420 | - | - | - | - | 25,420 | 100.0% |
| | 기혼유배우자 | 1,346,837 | 43,868 | 3.3% | 5,026 | 0.4% | 1,297,942 | 96.4% |
| | 기혼무배우자 | 272,403 | 18,056 | 6.6% | - | - | 254,347 | 93.4% |

-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장년·노인층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지인 등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42.9%(28,731명)로 가장 많았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이라는 응답은 38%(25,433명)였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창업교육·컨설팅을 준비한다는 응답이 각각 45.1%, 2.3%였던 데 반해 60대와 70대는 해당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

무했고, 특히 70대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준비·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이 78.3%(4,242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표 3-10> 퇴직 후 재취업·창업을 위한 준비 분야

| | | 전체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전직지원 프로그램 | 지인 등을 통한 준비 | 잘 모르겠음 |
|----------|--------|--------|-------------------|-----------------------|------------------|-------------------|------------------|
| 전체 | | 66,950 | 25,433 (38%) | 1,287 (1.9%) | 4,242 (6.3%) | 28,731 (42.9%) | 7,256 (10.8%) |
| 성별 | 남자 | 40,062 | 17,889 (44.7%) | - | 1,963 (4.9%) | 16,472 (41.1%) | 3,739 (9.3%) |
| | 여자 | 26,887 | 7,544 (28.1%) | 1,287 (4.8%) | 2,280 (8.5%) | 12,259 (45.6%) | 3,517 (13.1%) |
| 연령 | 50대 | 56,444 | 25,433 (45.1%) | 1,287 (2.3%) | - | 24,501 (43.4%) | 5,222 (9.3%) |
| | 60대 | 5,090 | - | - | - | 3,056 (60%) | 2,034 (40%) |
| | 70대 초반 | 5,417 | - | - | 4,242 (78.3%) | 1,174 (21.7%) | - |
| 교육 수준 | 무학 | 2,280 | - | - | 2,280 (100%) | - | - |
| | 중졸 | 20,161 | 7,544 (37.4%) | 1,287 (6.4%) | - | 11,330 (56.2%) | - |
| | 고졸 | 19,006 | 1,561 (8.2%) | - | 1,963 (10.3%) | 9,932 (52.3%) | 5,551 (29.2%) |
| | 전문대졸 | - | - | - | - | - | - |
| | 대졸이상 | 25,502 | 16,328 (64%) | - | - | 7,469 (29.3%) | 1,705 (6.7%) |
| 혼인 상태 | 미혼 | - | - | - | - | - | - |
| | 기혼유배우자 | 48,894 | 25,433 (52%) | 1,287 (2.6%) | 1,963 (4%) | 16,472 (33.7%) | 3,739 (7.6%) |
| | 기혼무배우자 | 18,056 | - | - | 2,280 (12.6%) | 12,259 (67.9%) | 3,517 (19.5%) |

○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기능·지식이 본인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질문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7.9%(25,345명)로 가장 많았고,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26.7%(17,893명),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25.1%(16,784명)였음.

-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필요한 기술·기능·지식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향이 있었고 연령별로는 70대가 자신의 기술·기능·지식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강했음.

<표 3-11> 재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능·지식 수준

| | | 전체 | 매우 낮다 | 낮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높은 편이다 | 매우 높다 |
|----|----|--------|------------------|-------------------|-------------------|-------------------|-----------------|
| 전체 | | 66,950 | 3,332 (5%) | 17,893 (26.7%) | 25,345 (37.9%) | 16,784 (25.1%) | 3,595 (5.4%) |
| 성별 | 남자 | 40,062 | - | 10,349 (25.8%) | 12,852 (32.1%) | 13,267 (33.1%) | 3,595 (9%) |
| | 여자 | 26,887 | 3,332 (12.4%) | 7,544 (28.1%) | 12,494 (46.5%) | 3,517 (13.1%) | - |

| | | 전체 | 매우 낮다 | 낮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높은 편이다 | 매우 높다 |
|-------|--------|--------|------------------|-------------------|-------------------|-------------------|------------------|
| 연령 | 50대 | 56,444 | 1,052 (1.9%) | 16,719 (29.6%) | 20,327 (36%) | 16,784 (29.7%) | 1,561 (2.8%) |
| | 60대 | 5,090 | - | - | 3,056 (60%) | - | 2,034 (40%) |
| | 70대 초반 | 5,417 | 2,280 (42.1%) | 1,174 (21.7%) | 1,963 (36.2%) | - | - |
| 교육 수준 | 무학 | 2,280 | 2,280 (100%) | 0(0%) | 0(0%) | - | - |
| | 중졸 | 20,161 | 0(0%) | 8,718 (43.2%) | 11,443 (56.8%) | - | - |
| | 고졸 | 19,006 | 1,052 (5.5%) | 0(0%) | 5,823 (30.6%) | 8,536 (44.9%) | 3,595 (18.9%) |
| | 전문대졸 | - | - | - | - | - | - |
| | 대졸이상 | 25,502 | - | 9,175 (36%) | 8,079 (31.7%) | 8,248 (32.3%) | 0(0%) |
| 혼인 상태 | 미혼 | - | - | - | - | - | - |
| | 기혼유배우자 | 48,894 | - | 17,893 (36.6%) | 14,139 (28.9%) | 13,267 (27.1%) | 3,595 (7.4%) |
| | 기혼무배우자 | 18,056 | 3,332 (18.5%) | - | 11,206 (62.1%) | 3,517 (19.5%) | - |

○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생애경력설계(경력진단, 진로설계) 지원(31.4%)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 다음으로는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39.8%)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한편 기업에 대한 고용자 고용장려금제도도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음.

<표 3-12> 재취업·창업을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

| | 1순위 | | 2순위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66,950 | 100% | 66,950 | 100% |
| 생애경력설계(경력진단, 진로설계 등) 지원 | 21,024 | 31.4 | 1,052 | 1.6 |
|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 9,573 | 14.3 | 26,654 | 39.8 |
| 고용센터 등의 취업지원 알선 | 9,824 | 14.7 | 3,524 | 5.3 |
| 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자금지원 | 4,741 | 7.1 | 11,508 | 17.2 |
| 전문기관을 통한 재직 중 전직지원프로그램 | 5,557 | 8.3 | 2,616 | 3.9 |
| 기업에 대한 고용자 고용장려금제도 | 16,230 | 24.2 | 16,855 | 25.2 |
| 기타 | - | - | 4,741 | 7.1 |
| 없음 | - | - | - | - |

2) 미취업자의 재취업 및 창업

- 비은퇴자이면서 미취업자인 서울시 장년·노인층을 대상으로 향후 퇴직 후의 재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문항들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직 은퇴는 하지 않았으나 취업활동은 하고 있지 않은 장년·노인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64.5%(38,958명)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먼저 여성은 재취업 준비·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68.2%(10,519명)로 남성에 비해 매우 높았고 계획이 없는 경우는 31.8%(4,906명)에 불과했음.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70대는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100%였음. 교육수준별로는 고졸과 전문대졸 졸업자의 재취업 준비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3> 재취업·창업 준비

| | 전체 | 재취업 준비 | | 창업 준비 | | 계획없음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 전체 | 60,354 | 16,719 | 27.7% | 4,677 | 7.7% | 38,958 | 64.5% | |
| 성별 | 남자 | 44,929 | 6,200 | 13.8% | 4,677 | 10.4% | 34,052 | 75.8% |
| | 여자 | 15,425 | 10,519 | 68.2% | - | - | 4,906 | 31.8% |
| 연령 | 50대 | 41,125 | 8,373 | 20.4% | 4,677 | 11.4% | 28,075 | 68.3% |
| | 60대 | 17,312 | 8,346 | 48.2% | - | - | 8,966 | 51.8% |
| | 70대 초반 | 1,917 | - | 0.0% | - | - | 1,917 | 100.0% |
| 교육 수준 | 무학 | - | - | - | - | - | - | - |
| | 중졸 | 5,822 | 917 | 15.7% | - | - | 4,906 | 84.3% |
| | 고졸 | 32,189 | 12,837 | 39.9% | - | - | 19,352 | 60.1% |
| | 전문대졸 | 12,877 | 2,965 | 23.0% | - | - | 9,912 | 77.0% |
| 혼인 상태 | 대졸이상 | 9,466 | - | - | 4,677 | 49.4% | 4,788 | 50.6% |
| | 미혼 | 7,233 | 2,444 | 33.8% | - | - | 4,788 | 66.2% |
| | 기혼유배우자 | 45,365 | 10,082 | 22.2% | 4,677 | 10.3% | 30,606 | 67.5% |
| | 기혼무배우자 | 7,756 | 4,193 | 54.1% | - | - | 3,563 | 45.9% |

-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문제가 39%, 저임금 등 낮은 근로조건(33.3%)을 꼽은 장애요인이었음. 이 외에도 고령으로 인해 기존 직원들과 융화가 어려운 부분을 재취업의 장애요인으로 꼽았음.

<표 3-14> 재취업 장애요인

| | 1순위 | | 2순위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21,396 | 100.0 | 21,396 | 100.0 |
| 고령자 고용을 꺼리는 기업문화 및 사회적 인식 | 5,928 | 27.7 | 13,321 | 62.3 |
| 저임금 등 낮은 근로조건 | 7,121 | 33.3 | 4,193 | 19.6 |
| 직무 적응 및 새로운 기술 습득 | - | - | - | - |
| 신체적 건강 상태 | 8,346 | 39.0 | 2,965 | 13.9 |
| 기존 직원들과의 융화 어려움 | - | - | 917 | 4.3 |
| 기타 | - | - | - | - |
| 없음 | - | - | - | - |

○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기능·지식이 본인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질문에는 매우 낮다는 응답이 38.5%(8,246명)로 가장 높아, <표 3-11>의 취업자 응답과는 큰 차이를 보였음.

- 특히 남성의 경우 매우 낮다는 응답이 57%,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43%로 양극단의 응답 결과가 나타났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고른 응답 분포를 보였음.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신의 기술·기능·지식 수준이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했음.

<표 3-15> 재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능·지식 수준

| | | 전체 | 매우 낮다 | 낮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높은 편이다 | 매우 높다 |
|-------|--------|--------|--------------|--------------|--------------|--------------|-------|
| 전체 | | 21,396 | 8,246(38.5%) | 2,444(11.4%) | 3,064(14.3%) | 7,642(35.7%) | - |
| 성별 | 남자 | 10,877 | 6,200(57%) | - | - | 4,677(43%) | - |
| | 여자 | 10,519 | 2,046(19.5%) | 2,444(23.2%) | 3,064(29.1%) | 2,965(28.2%) | - |
| 연령 | 50대 | 13,050 | 2,046(15.7%) | 2,444(18.7%) | 917(7%) | 7,642(58.6%) | - |
| | 60대 | 8,346 | 6,200(74.3%) | - | 2,147(25.7%) | - | - |
| | 70대 초반 | - | - | - | - | - | - |
| 교육 수준 | 무학 | - | - | - | - | - | - |
| | 중졸 | 917 | - | - | 917(100%) | - | - |
| | 고졸 | 12,837 | 8,246(64.2%) | 2,444(19%) | 2,147(16.7%) | 0(0%) | - |
| | 전문대졸 | 2,965 | - | - | - | 2,965(100%) | - |
| | 대졸이상 | 4,677 | - | - | - | 4,677(100%) | - |
| 혼인 상태 | 미혼 | 2,444 | - | 2,444(100%) | - | - | - |
| | 기혼유배우자 | 14,759 | 6,200(42%) | - | - | - | - |
| | 기혼무배우자 | 4,193 | 2,046(48.8%) | - | 2,147(51.2%) | - | - |

○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1순위)으로는 전문기관을 통한 생애경력설계(경력진단, 진로설계) 지원(31.4%)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 다음으로는 기업의 고령장려금제도(24.2%)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고용센터 등의 취업지원 알선 등도 미취업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었음.

<표 3-16> 재취업·창업을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

| | 1순위 | | 2순위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전체 | 21,396 | 100 | 21,396 | 100 |
| 생애경력설계(경력진단, 진로설계 등) 지원 | 5,011 | 23.4 | 6,824 | 31.9 |
|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 917 | 4.3 | 10,690 | 50.0 |
| 고용센터 등의 취업지원 알선 | 2,444 | 11.4 | 2,965 | 13.9 |
| 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자금지원 | 4,677 | 21.9 | - | - |
| 전문기관을 통한 재직 중 전직지원프로그램 | 8,346 | 39.0 | 917 | 4.3 |
| 기업에 대한 고령자 고용장려금제도 | - | - | - | - |
| 기타 | - | - | - | - |
| 없음 | - | - | - | - |

3. 소결

- 3장에서는 장년층을 조사대상으로 한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장년 및 노인층의 은퇴 여부, 퇴직 후 재취업·창업 준비 현황 등에 대해 살펴 보았음.
-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장년·노인층에 은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은퇴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8.5%(1,705,014명)로 가장 많았고, 과거 한 번도 취업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20.8%(606,239명), 은퇴하였다는 응답은 19.2%(559,874명)로 나타났음.
 -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의 자발성 여부를 설문한 결과 자발적 은퇴가 69.7%(419,080명), 비자발적 은퇴가 30.3%(181,920명)였음.
- 아직 은퇴하지 않고 취업자로 경제활동을 하는 장년·노인층에 현 일자리에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계획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95.9%(1,577,710명)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장년·노인층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지인 등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42.9%(28,731명)로 가장 많았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이라는 응답은 38%(25,433명)였음.
 -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1순위)으로는 생애경력설계(경력진단, 진로설계) 지원(31.4%)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 다음으로는 기업의 고령장려금제도(24.2%)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 아직 은퇴는 하지 않았으나 취업활동은 하고 있지 않은 장년·노인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64.5%(38,958명)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1순위)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문제가 39%였으며, 낮은 임금 및 근로조건(33.3%), 고령자 꺼려하는 문화와 인식(27.7%) 장애요인이었음.
 -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전문기관을 통한 재직 중 전직지원프로그램(39%), 생애경력설계 지원(23.4%), 창업 컨설팅 및 자금지원(21.9%),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 알선(11.4%) 순이었음.

4장. 서울지역 고령·은퇴노동자 실태와 특징 : 실태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 「서울지역 고령·은퇴노동자 실태조사」는 서울시 노인 일자리와 은퇴자 실태 및 특징, 사회보장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노인 일자리 및 은퇴자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실행됨.
- 설문조사는 만 55세-만 75세 서울시민을 대상(서울지역 성별, 연령별 표본층화)으로 실시되었으며, 2022년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온-오프라인) 진행되었음.
- 조사 내용은 고령·은퇴노동자의 △일자리 현황과 이동, △현재 일자리 특성 및 주관적 만족, △정책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등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음.
-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7명(여성 4명, 남성 3명)의 고령·은퇴노동자와 면접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참여자의 기초 정보와 특성은 아래 <표 4-1>과 같음.³⁾

<표 4-1> 고령·은퇴노동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 참여자 | 인구사회학적 속성 | | | 주요 노동시장 변화(전후 시기) 흐름 속성 | | | |
|-----|-----------|-------|-------|-------------------------|--------------|----------------|-----------|
| | 성별 | 연령대 | 거주 지역 | 현 고용상태 | 직전 주된 일자리 직무 | 최근 및 현재 일자리 직무 | 재취업 상황 |
| 가 | 여 | 60-64 | 도봉구 | 정규직 | 대형마트 계산원 | 대형마트 계산원 | 정년 퇴직 준비 |
| 나 | 여 | 55-59 | 강남구 | 실업/구직 활동상태 | 백화점 판매원 | 물류센터 재고관리 | 재취업했으나 퇴사 |
| 다 | 남 | 60-64 | 용산구 | 정규직 | 제조업 사무직 | 제조업 사무직 | 정년 연장 상태 |
| 라 | 남 | 60-64 | 마포구 | 정규직 | 공무원 | 건설회사 감리직 | 재취업한 상태 |
| 마 | 여 | 60-64 | 강남구 | 정규직 | 가족 사업 | 재가요양보호사 | 재취업한 상태 |
| 바 | 남 | 60-64 | 마포구 | 정규직 | 식품개발직 | 식품개발직 | 재취업한 상태 |
| 사 | 여 | 65-69 | 은평구 | 계약직 | 호텔 객실 청소 | 요양보호사 | 재취업한 상태 |

2) 조사표본 특징

○ 고령·은퇴노동자 실태조사 응답자는 총 599명(여성 290명, 남성 269명)이었고, 연령대는

3) 면접조사 참여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에 추가로 눈덩이표집을 이용하여 모집하였고, 총 7명의 참여자와 2022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약 일주일간 면접조사를 진행함. 참여자의 거주지역 혹은 직장 근처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일대일로 대면하여 약 한 시간가량 면접조사를 시행하였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하였음. 이후 음성파일을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설문조사 해석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였음.

만 60세-만 64세(32.2%) > 만 55세-만 59세(31.5%) > 만 65세-만 69세(25.4%) > 만 70세-만 74세(10.9%) 순으로 나타났음.

<표 4-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연령대

| | 빈도 (명) | 연령대 | | | |
|----|--------|-----------|-----------|-----------|-----------|
| | | 만55세~만59세 | 만60세~만64세 | 만65세~만69세 | 만70세~만74세 |
| 전체 | 559 | 31.5% | 32.2% | 25.4% | 10.9% |
| 여성 | 290 | 30.7% | 32.4% | 25.5% | 11.4% |
| 남성 | 269 | 32.3% | 32.0% | 25.3% | 10.4% |

-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44.4%) > 고등학교 졸업(41.5%) > 대학원(9.3%) > 중졸 이하(4.8%) 순으로 나타났음.
-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53.4%)이 절반 이상이며, 그 뒤로 대졸(33.8%) > 중졸 이하(6.6%) > 대학원(6.2%) 순임. 반면 남성의 경우, 대학교 졸업(55.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28.6%) > 대학원(12.6%) > 중졸 이하(3.0%) 순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대졸 및 대학원 비율이 높고, 고졸 및 중졸 이하의 비율은 낮았음.

<표 4-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교육 수준

| | 교육 수준 | | | |
|----|-------|-------|-------|-------|
|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 |
| 전체 | 4.8% | 41.5% | 44.4% | 9.3% |
| 여성 | 6.6% | 53.4% | 33.8% | 6.2% |
| 남성 | 3.0% | 28.6% | 55.8% | 12.6% |

- 응답자의 현재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16.3%) > 기간제/임시계약직(13.1%) > 기타(8.6%) > 시간제 파트타임(6.4%) > 무기계약직(6.3%) > 특수고용/프리랜서(6.1%) > 비정규직(일용직)(5.2%) > 무급가족종사자(2.9%) > 파견용역하청(0.4%)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정규직(23.1%)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19.3%) > 기간제/임시계약직(12.8%) > 기타(12.4%) > 시간제 파트타임(10.3%) 등의 순임. 남성은 정규직(47.6%) > 기간제/임시계약직(13.4%)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13.0%) > 무기계약직(7.8%) 등의 순임.

<표 4-4>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고용상태

| | 정규직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기간제/임시계약직 | 시간제 파트타임 | 무기계약직 | 특수고용/프리랜서 | 비정규직(일용직) | 무급가족종사자 | 파견용역하청 | 기타 |
|----|-------|---------------|-----------|----------|-------|-----------|-----------|---------|--------|-------|
| 전체 | 34.9% | 16.3% | 13.1% | 6.4% | 6.3% | 6.1% | 5.2% | 2.9% | 0.4% | 8.6% |
| 여성 | 23.1% | 19.3% | 12.8% | 10.3% | 4.8% | 7.6% | 3.8% | 5.5% | 0.3% | 12.4% |
| 남성 | 47.6% | 13.0% | 13.4% | 2.2% | 7.8% | 4.5% | 6.7% | 0.0% | 0.4% | 4.5% |

○ 고용상태가 ‘실업/구직 활동상태(무직)’에 해당하는 91명을 제외한 468명의 종사 직종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전문직(37%) > 판매직·서비스직(25%) > 기타(14.1%) > 단순노무직(13.2%) > 생산직·기능직(10.7%)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판매직·서비스직(30.8%)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남성은 사무직·전문직(47.9%)이었음. 연령별로 살펴보면, 사무직·전문직의 비중이 55-59세(49.1%), 60-64세(38.1%), 65-69세(26.7%)까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러나 70-74세부터는 단순노무직(35.7%)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종사상 지위의 경우, 정규직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직종은 사무직·전문직(63.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판매직·서비스직은 무기계약직(34.3%), 기간제/임시계약직(31.5%), 시간제 파트타임(52.8%)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4-5>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직종

| | | 사무직·전문직 | 판매직·서비스직 | 단순노무직 | 생산직·기능직 | 기타 |
|--------|-----------|---------|----------|-------|---------|-------|
| 전체 | | 37.0% | 25.0% | 13.2% | 10.7% | 14.1% |
| 성별 | 여성 | 26.1% | 30.8% | 14.5% | 6.4% | 22.2% |
| | 남성 | 47.9% | 19.2% | 12.0% | 15.0% | 6.0% |
| 연령대 | 55-59세 | 49.1% | 20.9% | 5.5% | 12.3% | 12.3% |
| | 60-64세 | 38.1% | 35.4% | 8.2% | 4.8% | 13.6% |
| | 65-69세 | 26.7% | 21.6% | 22.4% | 12.1% | 17.2% |
| | 70-74세 | 14.3% | 14.3% | 35.7% | 21.4% | 14.3%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63.1% | 21.0% | 2.6% | 10.3% | 3.1% |
| | 무기계약직 | 22.9% | 34.3% | 14.3% | 28.6% | 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26.0% | 31.5% | 26.0% | 13.7% | 2.7% |
| | 시간제 파트타임 | 13.9% | 52.8% | 16.7% | 8.3% | 8.3% |
| | 비정규직(일용직) | 17.2% | 17.2% | 48.3% | 13.8% | 3.4% |
| | 파견용역하청 | 0.0% | 50.0% | 50.0% | 0.0% | 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5.3% | 35.3% | 8.8% | 2.9% | 17.6% |

| | | 사무직·전문직 | 판매직·서비스직 | 단순노무직 | 생산직·기능직 | 기타 |
|--|---------|---------|----------|-------|---------|-------|
| | 무급가족종사자 | 0.0% | 12.5% | 43.8% | 12.5% | 31.3% |
| | 기타 | 2.1% | 4.2% | 4.2% | 0.0% | 89.6% |

○ 응답자의 가구형태는 약 절반 이상이 본인(또는 배우자)+자녀(54.2%)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부부(32.4%) > 1인가구(8.6%)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부모(2.3%) 등 순임.

- 여성의 경우 본인(또는 배우자)+자녀(50%) > 부부가구(본인+배우자)(35.9%) > 1인가구(본인)(11.4%) 등의 순임. 남성도 본인(또는 배우자)+자녀(58.7%) > 부부가구(본인+배우자)(28.6%) > 1인가구(본인)(5.6%) 등의 순으로 동일하나, 1인가구(본인)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5%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4-6>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가구 형태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인가구(본인)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부모 | 본인(또는 배우자)+부모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손자녀 | 기타 |
|----|---------------|--------------|----------|------------------|---------------|-------------------|------|
| 전체 | 54.2% | 32.4% | 8.6% | 2.3% | 2.0% | 0.4% | 0.2% |
| 여성 | 50.0% | 35.9% | 11.4% | 0.0% | 2.1% | 0.3% | 0.3% |
| 남성 | 58.7% | 28.6% | 5.6% | 4.8% | 1.9% | 0.4% | 0.0% |

○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0.6%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그다음으로는 연립/다세대주택(28.4%) > 단독주택(8.9%) 등 순으로 나타남.

- 점유 형태는 자가가 75.7% 비율로 가장 높게 확인되며, 전세(17%) > 월세(5.9%) > 기타(1.4%) 순으로 나타났음. 응답자의 서울지역 내 거주지 현황은 <표 4-9>와 같음.

<표 4-7>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거주 형태

|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기타 |
|----|-------|----------|-------|---------------------|------|
| 전체 | 60.6% | 28.4% | 8.9% | 0.7% | 1.3% |
| 여성 | 57.2% | 33.1% | 7.6% | 0.7% | 1.4% |
| 남성 | 64.3% | 23.4% | 10.4% | 0.7% | 1.1% |

<표 4-8>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점유 형태

|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 전체 | 75.7% | 17.0% | 5.9% | 1.4% |
| 여성 | 75.2% | 17.2% | 5.5% | 2.1% |
| 남성 | 76.2% | 16.7% | 6.3% | 0.7% |

<표 4-9>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거주 지역구

| 지역구 | 빈도 (명) | 비율 (%) | 지역구 | 빈도 (명) | 비율 (%) |
|------|--------|--------|------|--------|--------|
| 은평구 | 45 | 8.1% | 동작구 | 20 | 3.6% |
| 양천구 | 45 | 8.1% | 영등포구 | 20 | 3.6% |
| 노원구 | 41 | 7.3% | 구로구 | 18 | 3.2% |
| 강남구 | 38 | 6.8% | 성북구 | 15 | 2.7% |
| 송파구 | 38 | 6.8% | 동대문구 | 10 | 1.8% |
| 강동구 | 31 | 5.6% | 종랑구 | 10 | 1.8% |
| 관악구 | 31 | 5.6% | 용산구 | 10 | 1.8% |
| 도봉구 | 30 | 5.4% | 광진구 | 9 | 1.6% |
| 강서구 | 27 | 4.8% | 성동구 | 7 | 1.3% |
| 강북구 | 24 | 4.3% | 종로구 | 7 | 1.3% |
| 마포구 | 24 | 4.3% | 중구 | 7 | 1.3% |
| 서대문구 | 24 | 4.3% | 금천구 | 5 | 0.9% |
| 서초구 | 23 | 4.1% | 전체 | 559 | 100.0% |

2. 서울 고령·은퇴노동자 과거 일자리 및 재취업 현황

1) 중장년 시기 주된 일자리 특성

- 중장년(35세-54세) 시기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주된 직장의 일자리 특성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전문직에 종사한 비율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판매직·서비스직(27.7%) > 단순노무직(9.3%) > 생산직·기능직(6.6%) > 기타(3.9%)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은 사무직·전문직(43.1%) > 판매직·서비스직(38.3%) > 생산직·기능직(7.6%) 등의 순이며, 남성은 사무직·전문직(62.5%) > 판매직·서비스직(16.4%) > 단순노무직(12.6%) 등으로 나타남.
- 사업체의 업종은 민간서비스업(50.3) > 기타(18.4%) > 제조업(17.2%) > 공공부문(14.1%) 순이며, 사업체 규모는 1-29인(44.7%)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음.
- 한편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 종사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는데, 여성의 절반 이상은 1-29인(54.1%)에 속해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 비율은 15.5%임. 반면 남성은 1-29인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비율이 34.6%로 동일하게 나타남.
- 고용상태는 응답자의 64.8%가 정규직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됨. 남성의 경우 79.6%가 정규직에 해당하며 매우 높았고, 여성에서 정규직 비율은 51%로 확인됨.
- 중장년 시기 주된 직장에서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1.3%이고, 노동조합이 없었다는 비율이 66.7%로 다수임. 남성(14.1%)이 여성(8.6%)에 비해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여성 73.4%, 남성 59.5% 무노조 응답).

<표 4-10> 중장년 시기 주된 일자리 특성

| | | 전체 | 여 | 남 |
|--------|----------|-------|-------|-------|
| 빈도 (명) | | 559 | 290 | 269 |
| 직종 | 사무직·전문직 | 52.4% | 43.1% | 62.5% |
| | 판매직·서비스직 | 27.7% | 38.3% | 16.4% |
| | 단순노무직 | 9.3% | 6.2% | 12.6% |
| | 생산직·기능직 | 6.6% | 7.6% | 5.6% |
| | 기타 | 3.9% | 4.8% | 3.0% |
| 사업체 업종 | 민간서비스업 | 50.3% | 52.8% | 47.6% |
| | 제조업 | 17.2% | 15.9% | 18.6% |

| | | 전체 | 여 | 남 |
|---------|------------------|-------|-------|-------|
| | 공공부문 | 14.1% | 9.3% | 19.3% |
| | 기타 | 18.4% | 22.1% | 14.5% |
| 사업체 규모 | 1-29인 | 44.7% | 54.1% | 34.6% |
| | 30-99인 | 20.6% | 22.8% | 18.2% |
| | 100-299인 | 10.0% | 7.6% | 12.6% |
| | 300인 이상 | 24.7% | 15.5% | 34.6% |
| 고용상태 | 정규직 | 64.8% | 51.0% | 79.6% |
| | 비정규직(계약직) | 8.8% | 14.1% | 3.0% |
| | 비정규직(시간제) | 5.7% | 8.3% | 3.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5.4% | 5.9% | 4.8% |
| | 무기계약직 | 5.4% | 10.3% | 0.0% |
| | 비정규직(일용직) | 4.3% | 3.8% | 4.8% |
| | 비정규직(파견용역) | 3.2% | 3.1% | 3.3% |
| | 무급가족종사자 | 0.5% | 1.0% | 0.0% |
| | 고용주 | 0.5% | 0.3% | 0.7% |
| | 자영업자 | 0.4% | 0.7% | 0.0% |
| | 기타 | 1.1% | 1.4% | 0.7% |
| 노동조합 유무 | 있었고, 가입했다 | 11.3% | 8.6% | 14.1% |
| | 있었으나, 가입하지 않았다 | 12.3% | 11% | 13.8% |
| | 있었으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 9.7% | 6.9% | 12.6% |
| | 없었다 | 66.7% | 73.4% | 59.5% |

2) 이직 및 재취업 현황

○ 중장년 시기(35세~54세) 가장 오랫동안 일한 직장에서 ‘은퇴’나 ‘퇴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7명(58.5%)이 은퇴하였다고 답하였으며, 232명(41.5%)이 현재도 계속 일하고 있다고 답하였음.

○ 은퇴를 응답한 327명을 대상으로 그 방식을 조사한 결과, 일반 퇴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4%), 이어 정년퇴직(30%) > 명예퇴직(13.1%) > 기타(8.9%) > 권고 사직(2.8%) > 해고(1.2%) 순으로 나타남. 남성(42%)이 여성(19.8%)에 비해 정년퇴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반면 일반 퇴사의 경우 여성(56.5%)이 남성(29.3%)보다 높게 나타남.

- 은퇴 이후 이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이직 평균 횟수는 ‘3회’로 조사됨. 평균 이직 횟수

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고령·은퇴자 대상 일자리 혹은 이들의 종사 비율이 높은 일자리에서의 노동조건과 관련 있을 수 있음.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이제 일자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1년짜리는 없더라고요. 보통 한 3월쯤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풀 타임이 아니고 4~5시간으로. 근데 일 년에 한 번씩 자기가 지원을 해서 면접도 보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그래야하고. (중략) 3월에 지원해가지고 되면 한달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또 그거를 모집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좀 해봤고. 이게 나라에서 여러 사람한테 일자리를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참여자 가, 여, 대형마트 계산원).”

“정규직으로 하는데 이게 누구 말이 파리목숨이지. 대상자가 나를 싫다하면 센터는 바꿔줘야 되고. 무조건 그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정규직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은 대상자가 만약에 이 사람 오는 거 싫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자리가 있으면 가고 없으면 그냥 대기 상태인 거예요(참여자 마, 여, 재가요양보호사).”

<표 4-11> 은퇴 및 퇴직 방식

| | 사례수 | 일반 퇴사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권고사직 | 해고 | 기타 |
|----|-----|-------|-------|-------|------|------|-------|
| 전체 | 327 | 44.0% | 30.0% | 13.1% | 2.8% | 1.2% | 8.9% |
| 여성 | 177 | 56.5% | 19.8% | 9.0% | 2.3% | 1.7% | 10.7% |
| 남성 | 150 | 29.3% | 42.0% | 18.0% | 3.3% | 0.7% | 6.7% |

- 은퇴 후 재취업 경험이 있는 참여자 226명(여성 109명, 남성 117명)을 대상으로 재취업 일자리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직종은 사무직·전문직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판매직·서비스직이 31%로 확인됨. 이어 단순노무직(18.1%) > 생산직·기능직(10.2%) > 기타(5.3%)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판매직·서비스직으로의 재취업이 가장 높게(39.4%)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사무직·전문직(46.2%)이었음.
- 재취업 일자리의 사업체 업종은 민간서비스업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공공부분(9.7%)임.
- 민간서비스업 분야는 여성(62.4%)과 남성(55.6%)에게서 모두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다음으로 기타(19.3%)> 공공부문(10.1%) > 제조업(8.3%) 순으로 나타남. 남성은 민간서비스업 다음으로 제조업(23.1%) > 기타(12%) > 공공부문(9.4) 순임.

-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8%가 1-29인 규모의 기업으로 재취업하였고, 이는 여성(67%)과 남성(49.6%) 모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여성의 재취업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는 1-29인(67%) > 30-99인(18.3%) > (300인 이상)(8.3%) > 100-299인(6.4%) 순으로 나타남. 남성의 경우, 1-29인(49.6%) > 30-99인(21.4%) > 300인 이상(16.2%) > 100-299인(12.8%) 순임.

- 고령·은퇴노동자의 재취업 일자리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계약직)(30.5%) > 정규직(28.3%) > 비정규직(시간제)(12.4%) > 무기계약직(8.4%) > 특수고용/프리랜서(8.0%) > 비정규직(일용직)(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재취업 일자리의 고용상태는 비정규직(계약직)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정규직(20.2%) > 비정규직(시간제)(17.4%) > 특수고용/프리랜서(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남성의 재취업 일자리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비정규직(계약직)(26.5%) > 무기계약직(11.1%) > 비정규직(시간제)(7.7%) > 비정규직(일용직)(6.8%) > 특수고용/프리랜서(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령·은퇴노동자의 재취업 일자리 고용상태는 <표 4-10>에서 중장년 시기 정규직 비율(전체 64.8%, 여 51%, 남 79.6%)이 높게 나온 것에 반해, 재취업 일자리에서는 정규직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상태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20 고령화연구패널 기초분석보고서」를 통해 보충하여 해석할 수 있음. 고령의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에서 남, 여 모두 ‘시간제 임금 근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그 주된 이유로는 ‘오랜 시간 일하고 싶지 않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음(김경희 외, 2021: 128)⁴.

“뭐, 일은 해야죠. 그런데 예전에 젊었을 때 회사 다니듯이 뭐 그렇게 그 시간은 못 빼고. 지금도 시간적으로 좀 느슨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저하가 되니까 눈도 침침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조업이니까 힘을 쓸 때도 있는데. 또 이제 아무래도 두뇌 회전도 젊을 때보다 틀리니까(참여자 다, 남, 제조업 사무직).”

4) 김경희 외, 2021. 「2020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표 4-12> 재취업 일자리 특성

| | | 전체 | 여성 | 남성 |
|--------|------------|-------|-------|-------|
| 빈도 (명) | | 226 | 109 | 117 |
| 직종 | 사무직·전문직 | 35.4% | 23.9% | 46.2% |
| | 판매직·서비스직 | 31.0% | 39.4% | 23.1% |
| | 단순노무직 | 18.1% | 20.2% | 16.2% |
| | 생산직·기능직 | 10.2% | 9.2% | 11.1% |
| | 기타 | 5.3% | 7.3% | 3.4% |
| 사업체 업종 | 민간서비스업 | 58.8% | 62.4% | 55.6% |
| | 제조업 | 15.9% | 8.3% | 23.1% |
| | 공공부문 | 9.7% | 10.1% | 9.4% |
| | 기타 | 15.5% | 19.3% | 12.0% |
| 사업체 규모 | 1-29인 | 58.0% | 67.0% | 49.6% |
| | 30-99인 | 19.9% | 18.3% | 21.4% |
| | 100-299인 | 9.7% | 6.4% | 12.8% |
| | 300인 이상 | 12.4% | 8.3% | 16.2% |
| 고용상태 | 정규직 | 28.3% | 20.2% | 35.9% |
| | 비정규직(계약직) | 30.5% | 34.9% | 26.5% |
| | 비정규직(시간제) | 12.4% | 17.4% | 7.7%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8.0% | 11.0% | 5.1% |
| | 무기계약직 | 8.4% | 5.5% | 11.1% |
| | 비정규직(일용직) | 6.6% | 6.4% | 6.8% |
| | 비정규직(파견용역) | 0.9% | 0.9% | 0.9% |
| | 무급가족종사자 | 0.4% | 0.9% | 0.0% |
| | 고용주 | 1.3% | 0.0% | 2.6% |
| | 자영업자 | 0.4% | 0.0% | 0.9% |
| | 기타 | 2.7% | 2.8% | 2.6% |

- 현재 종사하는 주된 일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총 411명(여성 195명, 남성 216명)이 다양한 직업을 작성하였으나, 그중에서도 중복된 응답이 가장 많은 직업은 여성의 경우 ‘요양보호사’(26명)였음. 그 뒤로 건물청소(8명) > 사무직, 보험설계사, 의류판매직(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남성의 경우, ‘버스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무직(9명) > 컨설턴트(8명) 등으로 나타남.
- 여성 고령·은퇴노동자 중 면접참여자 중 두 명의 요양보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의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요양보호사는 5.3%인 반면, 여성은 94.7%로 조사됨(강은나 외, 2019: 20)⁵⁾.

“이제 다 뭐 일자리가 다 없으니까 다들 이제 막 요양보호사 다 그런 데로 다 빠지더라고
요. 우리 나이 때는. 저는 그거 따 놓은지 이제 한 15년 됐나. 그때 당시에는 나는 그냥 젊
어서 식구들 아프고 그러면은 케어가 된다고 그래서 따 거지. 돈 벌려고는 내가 안 했어.
근데 지금 같아서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할 일 없으면 그것도 괜찮겠어서 그런 거라고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참여자 나, 여, 구직활동 중).”

“우리 선배들도 퇴직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는 다 따는 거예요. 노인 인구층이 늘
어나니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일도 많다고 그러더라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
으면 요양보호사는 현장 실습을 안해도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따고. 유튜브 보면 노노돌봄
해서 노인돌보는 일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주민센터나 구청 이런 데 가서 내가 찾아봐야
돼요(참여자 가, 여, 대형마트 계산원).”

<표 4-13> 현재 주된 일자리(세부)

| | 여성 | | 남성 | | |
|-------|--------|--------|--------|--------|------|
| | 빈도 (명) | 비율 (%) | 빈도 (명) | 비율 (%) | |
| 요양보호사 | 26 | 13.3% | 버스운전 | 13 | 6.0% |
| 건물청소 | 8 | 4.1% | 사무직 | 9 | 4.2% |
| 사무직 | 7 | 3.6% | 컨설턴트 | 8 | 3.7% |
| 보험설계사 | 7 | 3.6% | 경리 | 7 | 3.2% |
| 의류판매직 | 7 | 3.6% | 서비스직 | 5 | 2.3% |

5) 강은나 외, 2019.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서울 고령·은퇴자 현재 일자리 특징과 사회안전망

1) 현재 일자리 현황

○ 현재 일자리에서 주당 평균 4.9일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성별, 연령,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도 비슷하게 나타남. 즉, 현재 고령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4-5일 근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표 4-14> 주당 평균 근무 일수

| |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평균 (일) |
|--------|---------------|-----|------|------|------|------|------|-----|--------|
| 전체 | | 0.9 | 2.5 | 6.3 | 5.9 | 66.4 | 17.5 | 0.5 | 4.9 |
| 성별 | 여성 | 0.3 | 3.4 | 4.8 | 5.5 | 63.4 | 21.7 | 0.7 | 5.0 |
| | 남성 | 1.5 | 1.5 | 7.8 | 6.3 | 69.5 | 13.0 | 0.4 | 4.8 |
| 연령대 | 55-59세 | 0.6 | 2.3 | 6.3 | 4.0 | 69.3 | 17.0 | 0.6 | 4.9 |
| | 60-64세 | 0.6 | 1.7 | 5.0 | 7.8 | 68.9 | 15.6 | 0.6 | 4.9 |
| | 65-69세 | 2.1 | 4.2 | 7.7 | 6.3 | 62.7 | 16.2 | 0.7 | 4.7 |
| | 70-74세 | 0.0 | 1.6 | 6.6 | 4.9 | 59.0 | 27.9 | 0.0 | 5.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0.0 | 0.0 | 2.6 | 5.6 | 73.8 | 17.9 | 0.0 | 5.1 |
| | 무기계약직 | 5.7 | 0.0 | 2.9 | 5.7 | 77.1 | 8.6 | 0.0 | 4.7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1.4 | 4.1 | 6.8 | 6.8 | 67.1 | 12.3 | 1.4 | 4.8 |
| | 시간제 파트타임 | 0.0 | 5.6 | 11.1 | 8.3 | 50.0 | 25.0 | 0.0 | 4.8 |
| | 비정규직(일용직) | 0.0 | 0.0 | 10.3 | 10.3 | 51.7 | 24.1 | 3.4 | 5.0 |
| | 파견용역하청 | 0.0 | 0.0 | 0.0 | 50.0 | 50.0 | 0.0 | 0.0 | 4.5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0.0 | 14.7 | 14.7 | 8.8 | 58.8 | 2.9 | 0.0 | 4.2 |
| | 무급가족종사자 | 0.0 | 12.5 | 12.5 | 6.3 | 50.0 | 18.8 | 0.0 | 4.5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1.1 | 0.0 | 6.6 | 2.2 | 62.6 | 27.5 | 0.0 | 5.1 |
| 기타 | 2.1 | 4.2 | 8.3 | 4.2 | 66.7 | 12.5 | 2.1 | 4.8 | |

○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절반 이상(59.7%)이 7-8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노동시간은 7.7시간임.

- 성별 평균 노동시간은 각각 여성 7.2시간, 남성 8.2시간으로 여성보다 약 한 시간 가량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 평균 노동시간은 7-8시간 수준으로 유사함.
-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 시간제 파트타임(5.3시간), 파견용역하청(9시간), 특수고용/프리랜서(6.3시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7-8시간 수준으로 확인됨.

<표 4-15> 하루 평균 노동시간

| | | 6시간 이하 | 7-8시간 | 9시간 이상 | 평균 (시간) |
|--------|---------------|--------|-------|--------|---------|
| 전체 | | 22.0 | 59.7 | 18.2 | 7.7 |
| 성별 | 여성 | 31.0 | 54.5 | 14.5 | 7.2 |
| | 남성 | 12.3 | 65.4 | 22.3 | 8.2 |
| 연령대 | 55-59세 | 21.6 | 58.0 | 20.5 | 7.6 |
| | 60-64세 | 20.6 | 63.3 | 16.1 | 7.6 |
| | 65-69세 | 19.0 | 62.7 | 18.3 | 8.1 |
| | 70-74세 | 34.4 | 47.5 | 18.0 | 7.2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4.6 | 73.8 | 21.5 | 8.3 |
| | 무기계약직 | 8.6 | 62.9 | 28.6 | 8.4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30.1 | 50.7 | 19.2 | 8.1 |
| | 시간제 파트타임 | 77.8 | 19.4 | 2.8 | 5.3 |
| | 비정규직(일용직) | 27.6 | 48.3 | 24.1 | 7.5 |
| | 파견용역하청 | 0.0 | 50.0 | 50.0 | 9.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47.1 | 44.1 | 8.8 | 6.3 |
| | 무급가족종사자 | 37.5 | 43.8 | 18.8 | 6.6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9 | 71.4 | 18.7 | 8.0 |
| | 기타 | 45.8 | 45.8 | 8.3 | 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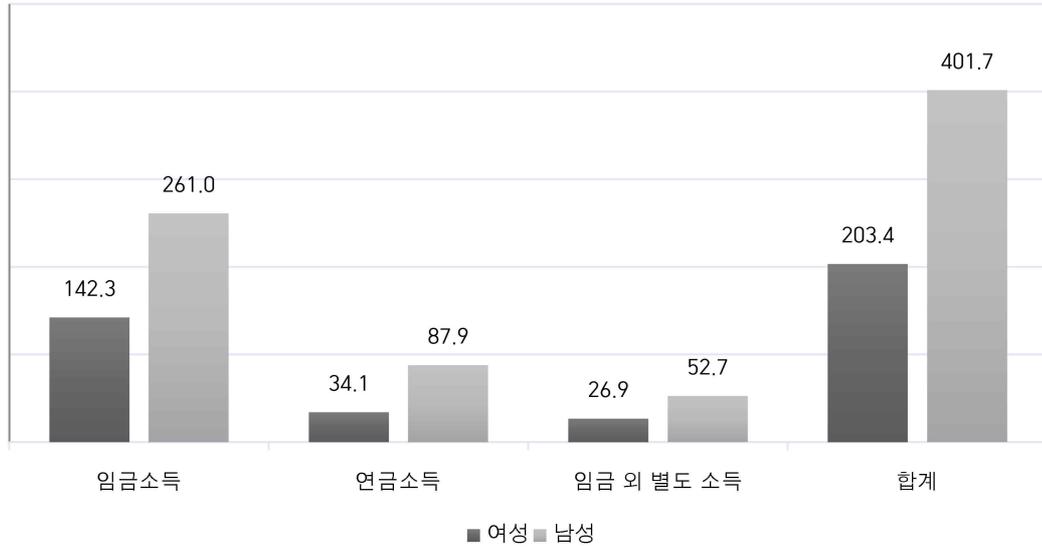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임금소득은 199.4만 원임. 월평균 연금소득은 60만 원, 월평균 임금 외 별도 소득(자녀용돈, 임대 소득 등의 기타 소득)은 39.3만 원으로 나타남.

- 남성은 여성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임금 소득에 있어서는 100만 원 이상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연금소득은 50만 원 이상, 별도 소득은 30만 원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6> 월평균 소득 - 항목별(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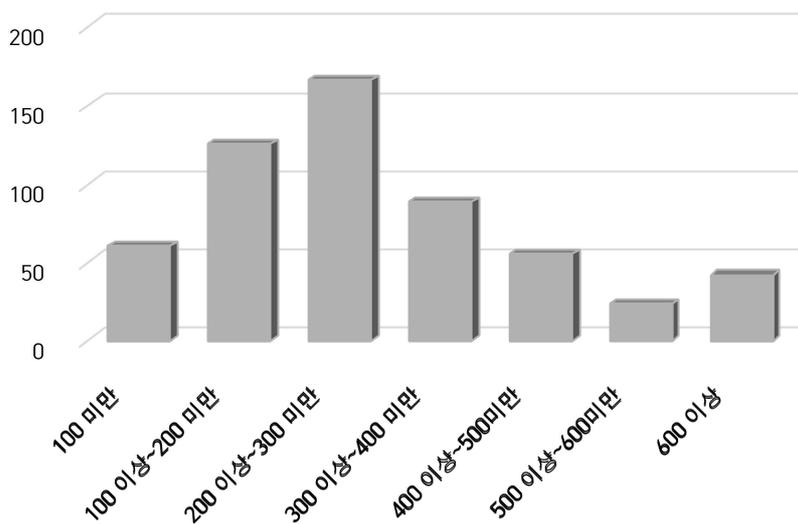
| | 임금소득 | 연금소득 | 임금 외 별도 소득 | 합계 (만원) |
|----|-------|------|------------|---------|
| 전체 | 199.4 | 60.0 | 39.3 | 298.8 |
| 여성 | 142.3 | 34.2 | 26.9 | 203.4 |
| 남성 | 261.0 | 87.9 | 52.7 | 401.7 |

[그림 4-1] 월평균 소득의 성별 차이 - 항목별(단위: 만원)



- 최근 6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 합계(임금소득, 연금소득, 임금 외 별도 소득)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166명)에 응답자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으며, 그 다음으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125명) >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88명) > 100만 원 미만(6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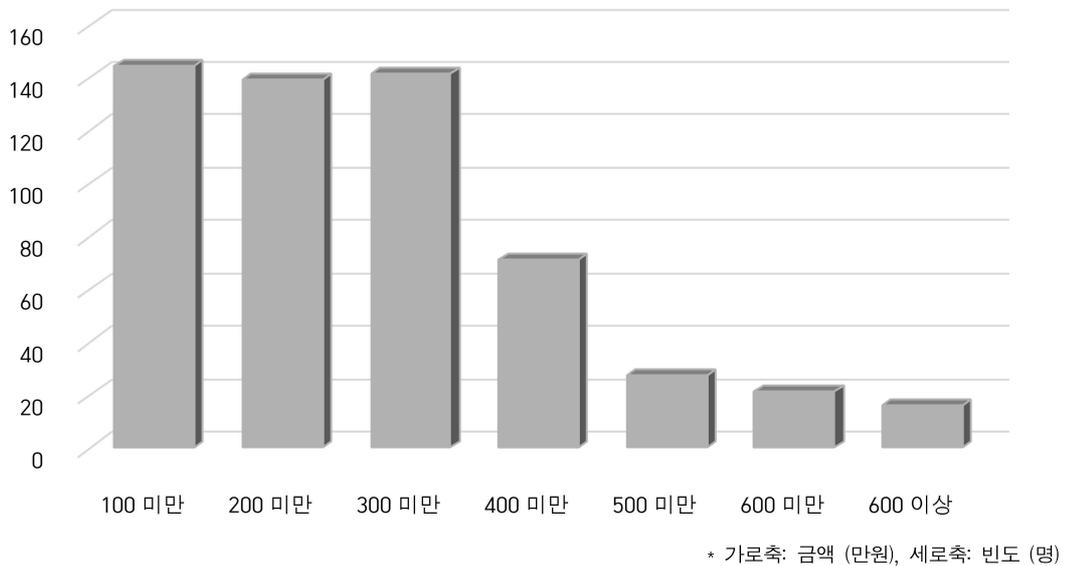
[그림 4-2] 월평균 소득 합계 분포도



* 가로축: 금액 (만원), 세로축: 빈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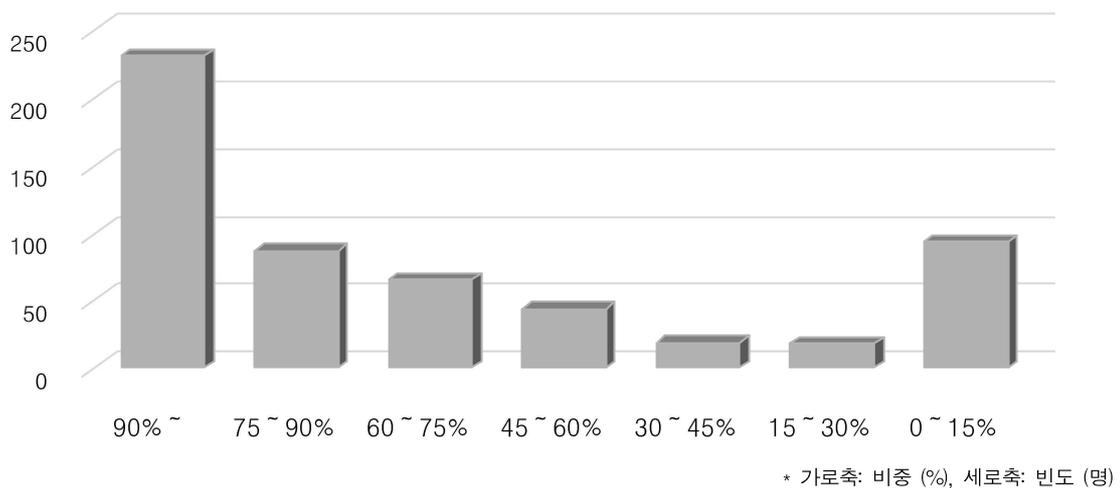
- 월평균 임금소득(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100만 원 미만(144명), 300만 원 미만(141명), 200만 원 미만(139명)에 응답자가 고루 분포되어있음.

[그림 4-3] 월평균 임금소득 분포도



- 월평균 소득 합계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31명의 응답자가 90% 이상에 해당. 다음으로 94명의 응답자가 15% 미만에 해당. 이어 75% 이상 90% 미만(87명) > 60% 이상 75% 미만(66명) > 45% 이상 60% 미만(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고령·은퇴노동자의 전체 소득 합계에서 임금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한 것을 보여줌.

[그림 4-4] 월평균 소득 합계에서 임금소득 비중



- 고령·은퇴노동자의 향후 예상 노후 연금소득(기초연금 포함) 수준을 조사한 결과 약 월평균 약 107.4만 원으로 파악됨. 여성의 경우 약 73.1만 원, 남성의 경우 약 144.4만 원으로 조사됨.
- 의식주 및 수도, 피복, 교통 통신, 의료 등 현재 생계비로 지출되는 총비용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약 189.8만 원으로 파악됨. 여성 약 167.2만 원, 남성 약 214.2만 원으로 나타났다.
- 생계비 지출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64세로 평균 약 200.4만 원으로 나타남. 이어서 55-59세(약 194.8만 원) > 65-69세(약 180.7만 원) > 70-74세(약 165.4만 원) 순으로 나타남.
- 은퇴 이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는 월평균 약 204.4만 원 선이라고 대답함. 성별로 구분할 때 여성은 약 183만 원, 남성은 약 227.5만 원으로 조사됨.

<표 4-17> 현재 및 향후 소득(연금/현재, 은퇴 후 생계비)

| | | 연금소득(만원) | 현재 생계비(만원) | 은퇴 이후 생계비(만원) |
|--------|---------------|----------|------------|---------------|
| 전체 | | 107.4 | 189.8 | 204.4 |
| 성별 | 여성 | 73.1 | 167.2 | 183.0 |
| | 남성 | 144.4 | 214.2 | 227.5 |
| 연령대 | 55-59세 | 104.0 | 194.8 | 203.7 |
| | 60-64세 | 116.1 | 200.4 | 215.3 |
| | 65-69세 | 112.5 | 180.7 | 197.3 |
| | 70-74세 | 79.9 | 165.4 | 190.7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19.2 | 217.9 | 224.6 |
| | 무기계약직 | 103.4 | 201.4 | 226.3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94.7 | 165.5 | 184.7 |
| | 시간제 파트타임 | 84.6 | 177.2 | 185.6 |
| | 비정규직(일용직) | 64.3 | 149.0 | 177.9 |
| | 파견용역하청 | 48.5 | 260.0 | 185.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57.7 | 153.7 | 180.3 |
| | 무급가족종사자 | 89.1 | 183.1 | 197.5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124.2 | 170.5 | 190.4 |
| | 기타 | 136.6 | 199.9 | 212.9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72.5 | 160.7 | 170.6 |

| | | 연금소득(만원) | 현재 생계비(만원) | 은퇴 이후 생계비(만원) |
|-------|---------------------|----------|------------|---------------|
| | 아파트 | 126.2 | 204.3 | 222.2 |
| | 단독주택 | 89.4 | 183.0 | 188.2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157.5 | 162.5 | 240.0 |
| | 기타 | 92.1 | 212.9 | 207.1 |
| 점유 형태 | 자가 | 117.1 | 196.8 | 211.5 |
| | 전세 | 83.2 | 177.8 | 189.9 |
| | 월세 | 69.2 | 145.5 | 160.5 |
| | 기타 | 41.8 | 148.8 | 183.8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65.0 | 118.1 | 141.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92.9 | 169.7 | 187.6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118.5 | 211.4 | 222.3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87.7 | 170.9 | 222.7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221.5 | 246.9 | 233.1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145.0 | 185.0 | 225.0 |
| | 기타 | 60.0 | 200.0 | 250.0 |

2) 사회안전망 현황

-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의 경우 응답자의 53.8%가 직장가입에 해당 하였음. 다음으로 미가입(31.8%) > 지역가입(14.3%) 순으로 나타남. 남성 60.2% 가입, 여성은 47.9% 가입됨.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68.7%) > 지역가입(18.8%) > 직장가입피부양자(8.2%) > 미가입 (3.2%) > 의료수급권자(1.1%) 순이며, 남성(75.5%)과 여성(62.4%) 가입 차이가 있음.
- 고용보험 가입은 62.8%(남성 71.7%, 여성 54.5%), 산재보험 가입은 59.2%(미가입 34.7%, 잘 모른다 6.1%; 남성 69.1%, 여성 50% 가입)였음.

<표 4-18> 사회보험 가입 여부

| | | 전체 | 여성 | 남성 |
|------|----------|-------|-------|-------|
| 국민연금 | 직장가입 | 53.8% | 47.9% | 60.2% |
| | 미가입 | 31.8% | 34.8% | 28.6% |
| | 지역가입 | 14.3% | 17.2% | 11.2% |
| 건강보험 | 직장가입 | 68.7% | 62.4% | 75.5% |
| | 지역가입 | 18.8% | 19.7% | 17.8% |
| | 직장가입피부양자 | 8.2% | 11.4% | 4.8% |

| | | 전체 | 여성 | 남성 |
|------|--------|-------|-------|-------|
| | 미가입 | 3.2% | 5.5% | 0.7% |
| | 의료수급권자 | 1.1% | 1.0% | 1.1% |
| 고용보험 | 가입 | 62.8% | 54.5% | 71.7% |
| | 미가입 | 37.2% | 45.5% | 28.3% |
| 산재보험 | 가입 | 59.2% | 50.0% | 69.1% |
| | 미가입 | 34.7% | 42.8% | 26.0% |
| | 잘 모름 | 6.1% | 7.2% | 4.8% |

○ 현재 하는 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다수의 응답자가 ‘아니오’에 답했으며, 심리·정신질환의 경우 97.7%, 신체적·육체적 질환은 86.9%가 치료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표 4-19> 업무상 질환에 따른 병원 치료 경험

| | | 예 | 아니오 |
|------------|----|------|------|
| 심리·정신질환 | 전체 | 2.3 | 97.7 |
| | 여성 | 2.4 | 97.6 |
| | 남성 | 2.2 | 97.8 |
| 신체적·육체적 질환 | 전체 | 13.1 | 86.9 |
| | 여성 | 13.8 | 86.2 |
| | 남성 | 12.3 | 87.7 |

○ 지난 1년간 몸이 아파 결근한 경험(업센티즘)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8%가 “없다”고 응답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였으며, 아프지 않았다는 응답은 15%임.

<표 4-20> 몸 상태에 따른 결근(업센티즘) 여부(코로나19 제외)

| | 있음 | 없음 | 아프지 않았음 |
|----|-------|-------|---------|
| 전체 | 17.0% | 68.0% | 15.0% |
| 여성 | 20.3% | 66.2% | 13.4% |
| 남성 | 13.4% | 69.9% | 16.7% |

○ 또한 질병 치료를 받기 위해 결근하여 소득감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73.9%가 없다고 답하였고, 26.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이와 같은 비율은 여성과 남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 비정규직(일용직), 파견용역하청, 특수고용/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등에서 다른 종사상 지위보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1> 질병으로 인한 결근에 따른 생활 어려움

| | | 어려움을 겪었음 | 어려움이 없었음 |
|--------|---------------|----------|----------|
| 전체 | | 26.1% | 73.9% |
| 성별 | 여성 | 24.8% | 75.2% |
| | 남성 | 27.5% | 72.5%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22.1% | 77.9% |
| | 무기계약직 | 17.1% | 82.9%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26.0% | 74.0% |
| | 시간제 파트타임 | 25.0% | 75.0% |
| | 비정규직(일용직) | 41.4% | 58.6% |
| | 파견용역하청 | 100.0% | 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44.1% | 55.9% |
| | 무급가족종사자 | 37.5% | 62.5%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19.8% | 80.2% |
| | 기타 | 33.3% | 66.7% |

- 현재 직장에서 ‘업무상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플 경우’ 산재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37.7%가 “본인 자비로 처리한다.”를 응답했고, 36.9%가 “산재 처리 신청을 한다.”고 응답함.
- 그러나 사실상 본인 자비 처리(37.7%), 산재처리가 안되는 특수고용(7%), 별도 지원이나 산재처리 없이 공가 처리(5.2%), 없음(0.2%)에 해당하는 50.1%(280명)는 산재처리가 해당 안되는 조건으로 범주화 할 수 있음.
- 이 밖에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지원(5.2%), 관련 지정병원을 통해 치료 지원(4.7%), 직장에서 개별 상해보험 가입(0.4%명), 공제 제도 가입(0.2%명)에 해당하는 10.5%(58명)가 산재처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범주화 할 수 있음.
- 한편 면접참여자 중 두 명의 요양보호사 모두 통상 사측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음을 언급했을 뿐만아니라 정확한 산업재해 기준을 모르고 있어 본인이 신청해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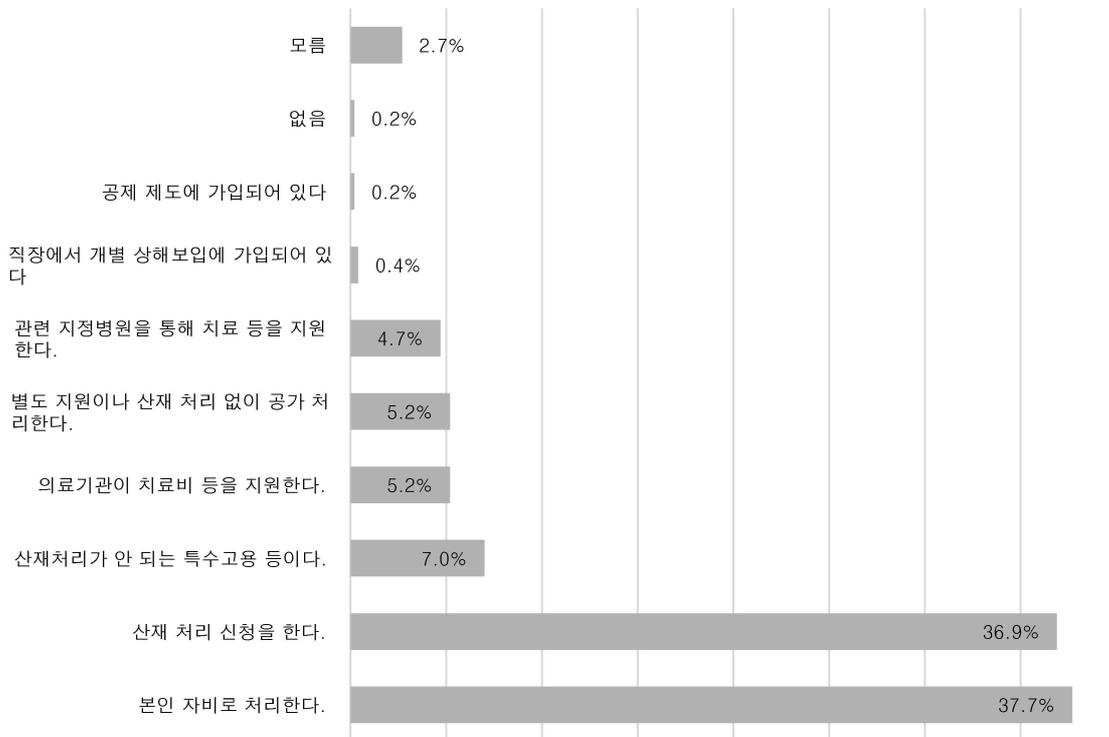
“우리 일하다 허리가 삐끗할 수 있잖아요. 나도 예전에 한번 어르신 관리하다가 좀 다쳤거든. 그리고 한번은 인대도 늘어난 적 있고 그런데 (사측에서는)나이가 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참여자 마, 여, 재가요양보호사).”

“한 번은 볼 일보러 갔다가 어디 병원에 크게 (광고가)붙어있는거예요. 어깨 삐끗한 것도 산

재가 된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병원에서 서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가지고 가서 (사측에) 물어봤더니 거부반응이 굉장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내가 일부러 이거(산재) 받으려고 그런거 아니고 된다고 물어본 건데 해주기 싫으면 해주지 마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걸 해주면 자기네들한테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참여자 마, 여, 재가요양보호사).”

“이제 회사에서 산재 처리 건이 있으면 공단에서 뭐라더라. 뭐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그거를 안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이런거는 제도가 그렇게 마이너스되게 되어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바닥이 굉장히 좁고 알음알음 다 연결되어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봐...(참여자 사, 여, 요양보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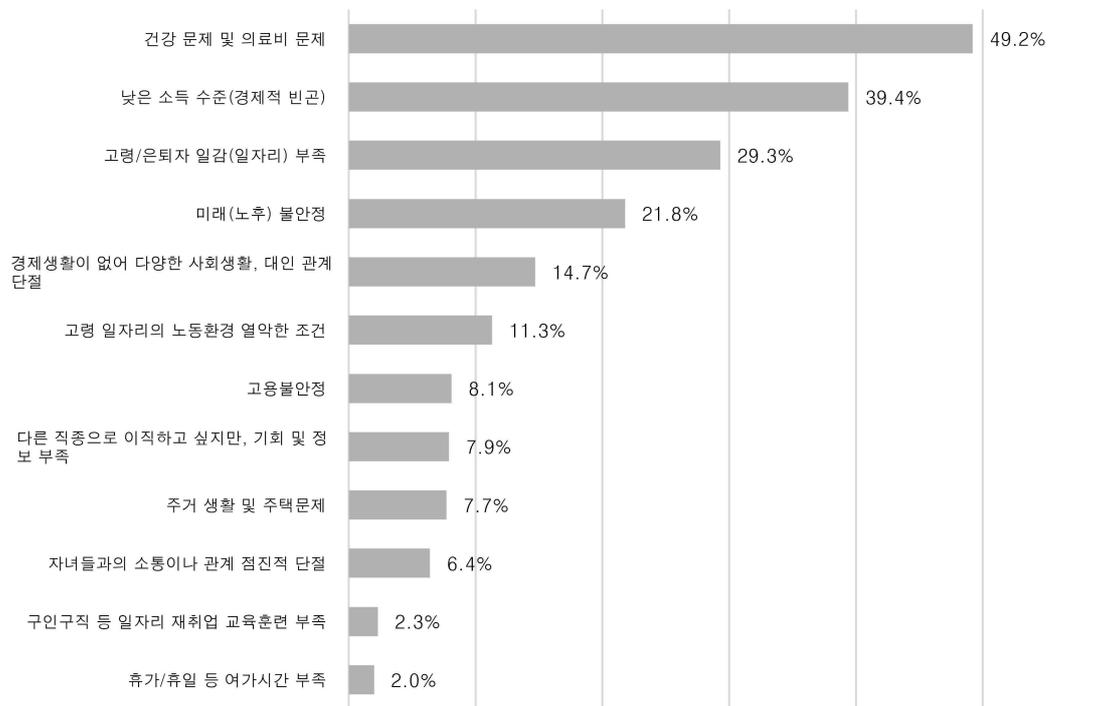
[그림 4-5] 일하는 과정의 산재 처리 여부



4. 정책 수요와 의견

○ 현재 은퇴 이후 가장 힘든 점이나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1순위)은 △낮은 소득 수준(31.5%), △건강 문제 및 의료비(25.6%) 등이 가장 많았고, △고령·은퇴자 일감 부족(15.9%), △미래 노후 불안정(6.1%), △고용불안정(4.3%)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4-22>.⁶⁾)

[그림 4-6] 은퇴 이후 애로사항(1순위+2순위)



<표 4-22> 은퇴 이후 애로사항(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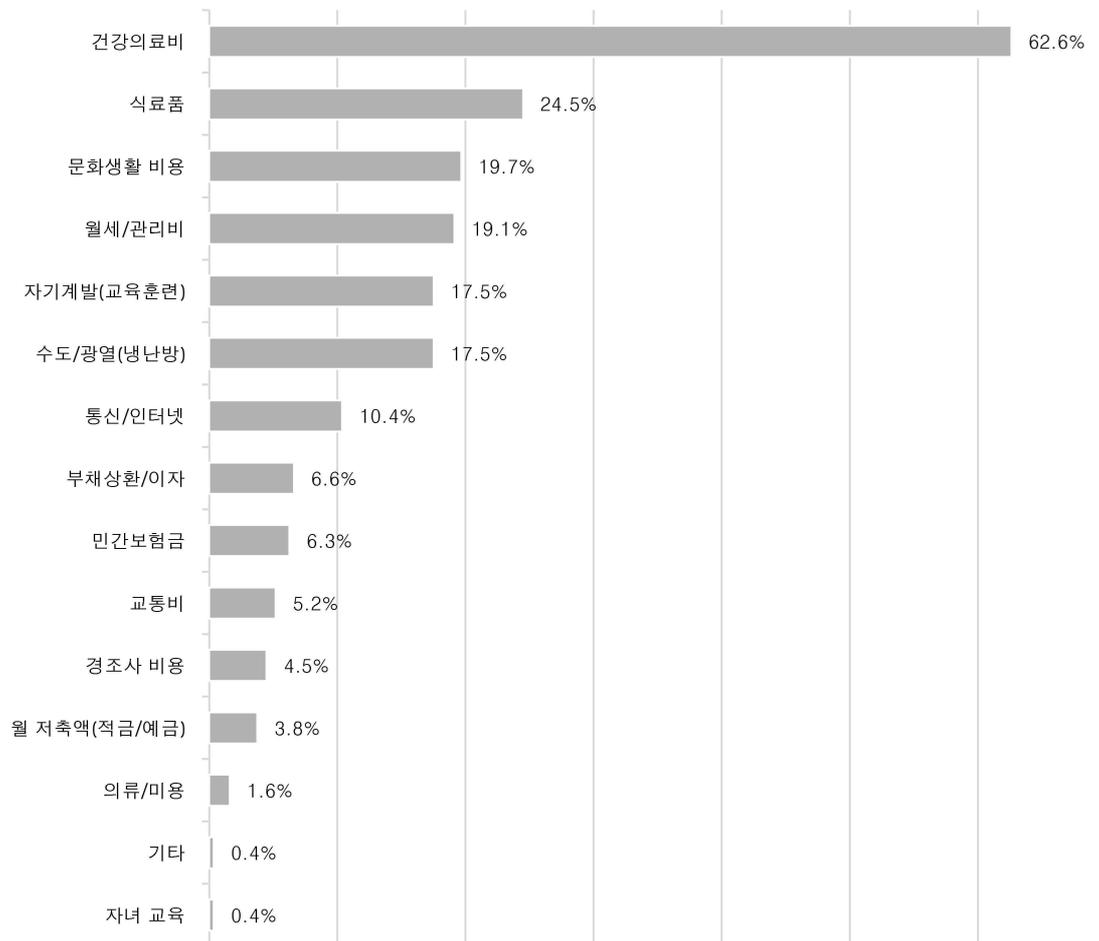
| | 전체 | 성별 | | 연령대 | | | |
|------------------------------|-------|-------|-------|--------|--------|--------|--------|
| | | 여성 | 남성 | 55-59세 | 60-64세 | 65-69세 | 70-74세 |
| 낮은 소득 수준(경제적 빈곤) | 31.5% | 30.3% | 32.7% | 36.9% | 27.2% | 28.9% | 34.4% |
| 건강 문제 및 의료비 문제 | 25.6% | 30.0% | 20.8% | 26.1% | 25.0% | 28.2% | 19.7% |
| 고령/은퇴자 일감(일자리) 부족 | 15.9% | 14.5% | 17.5% | 8.5% | 20.6% | 19.0% | 16.4% |
| 미래(노후) 불안정 | 6.1% | 4.8% | 7.4% | 7.4% | 3.9% | 5.6% | 9.8% |
| 고용불안정 | 4.3% | 4.8% | 3.7% | 5.1% | 3.9% | 4.2% | 3.3% |
| 경제생활이 없어 다양한 사회생활, 대인 관계 단절 | 4.1% | 3.1% | 5.2% | 2.8% | 6.1% | 2.8% | 4.9% |
|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싶지만, 기회 및 정보 부족 | 3.6% | 2.8% | 4.5% | 3.4% | 4.4% | 2.8% | 3.3% |

6) 1순위 응답의 결과는 <표 4-22> 참조

| | 전체 | 성별 | | 연령대 | | | |
|------------------------|------|------|------|--------|--------|--------|--------|
| | | 여성 | 남성 | 55-59세 | 60-64세 | 65-69세 | 70-74세 |
| 고령 일자리의 노동환경 열악한 조건 | 3.0% | 3.4% | 2.6% | 2.8% | 3.3% | 3.5% | 1.6% |
| 주거 생활 및 주택문제 | 3.0% | 3.1% | 3.0% | 3.4% | 3.9% | 1.4% | 3.3% |
| 자녀들과의 소통이나 관계 점진적 단절 | 1.6% | 1.7% | 1.5% | 1.7% | 0.0% | 2.8% | 3.3% |
| 구인구직 등 일자리 재취업 교육훈련 부족 | 0.7% | 0.7% | 0.7% | 1.7% | 0.6% | 0.0% | 0.0% |
| 휴가/휴일 등 여가시간 부족 | 0.5% | 0.7% | 0.4% | 0.0% | 1.1% | 0.7% | 0.0% |

- 은퇴 이후 서울시나 구청 등의 지자체에서 고령은퇴자들에게 일자리 이외의 지원 정책(1순위)으로는 △건강의료비(42.6%), △식료품(10.7%), △자기계발/교육훈련(10.6%), △월세/관리비(9.3%), △수도/광열(냉난방)(7.0%), △문화생활 비용(4.7%), △통신비용(3.6%) 등 순으로 나타났음(<표 4-23> 참조).⁷⁾

[그림 4-7] 은퇴 이후 필요한 지자체 정책(1순위+2순위)



7) 1순위 응답의 결과는 <표 4-23> 참조

<표 4-23> 은퇴 이후 필요한 지자체 정책(1순위)

| | 전체 | 성별 | | 연령대 | | | |
|--------------|-------|-------|-------|--------|--------|--------|--------|
| | | 여성 | 남성 | 55-59세 | 60-64세 | 65-69세 | 70-74세 |
| 건강의료비 | 42.6% | 43.4% | 41.6% | 41.5% | 43.9% | 42.3% | 42.6% |
| 식료품 | 10.7% | 9.7% | 11.9% | 10.8% | 10.0% | 11.3% | 11.5% |
| 자기계발(교육훈련) | 10.6% | 9.7% | 11.5% | 10.2% | 12.2% | 10.6% | 6.6% |
| 월세/관리비 | 9.3% | 10.0% | 8.6% | 10.2% | 9.4% | 9.2% | 6.6% |
| 수도/광열(냉난방) | 7.0% | 7.9% | 5.9% | 6.3% | 6.1% | 7.7% | 9.8% |
| 문화생활 비용 | 4.7% | 5.5% | 3.7% | 3.4% | 3.9% | 6.3% | 6.6% |
| 통신/인터넷 | 3.6% | 3.8% | 3.3% | 5.1% | 1.7% | 4.2% | 3.3% |
| 교통비 | 2.7% | 1.7% | 3.7% | 2.3% | 3.3% | 2.8% | 1.6% |
| 부채상환/이자 | 2.7% | 1.7% | 3.7% | 3.4% | 2.8% | 0.7% | 4.9% |
| 월 저축액(적금/예금) | 2.5% | 2.1% | 3.0% | 2.3% | 2.8% | 2.1% | 3.3% |
| 민간보험금 | 2.5% | 3.4% | 1.5% | 3.4% | 2.2% | 1.4% | 3.3% |
| 경조사 비용 | 0.7% | 0.3% | 1.1% | 1.1% | 1.1% | 0.0% | 0.0% |
| 의류/미용 | 0.5% | 0.7% | 0.4% | 0.0% | 0.6% | 1.4% | 0.0% |

- 응답자가 고령자·은퇴자로서 일하면서 겪는 애로사항 조사 결과(0점~100점) 고령·은퇴노동자들은 일하고 싶지만 나이 문제, 적합한 일자리 찾기의 문제, 취업 가능한 일자리의 질이 낮은 문제들을 우려함.
 - 설문 응답자들은 “일하고 싶으나 나이 제한 때문에 일자리 얻거나 취업하기 어렵다.”(75.9점),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71.5점), “취업 가능한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낮다.”(70.8점), “4고령자를 위한 취업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69.3점) 순으로 나타남.
 - 이 밖에도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은퇴해야 했다.”(67.6점), “노년기에 새 일자리 찾는데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기 힘들었다.”(66.5점), “나이에 적합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없었다.”(62.3점) 등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서울지역 고령자 집단의 애로사항 모두 재취업 이전 구직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이라 볼 수 있음. 또한 노년기에 새 일자리 찾는데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기 힘들었다.”와 관련하여 고령·은퇴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지금 이 나이에 노니까 너무 우울증도 와요. 우울증도 있고, 허무하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 사람이 일이 있어야 되거든. 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안돼. 병 생겨. 근데 일을 구하려고 해도 누구 말대로 어디 가서 내가 청소밖에 진짜 할

게 없어요. 마음이 초조해요. (중략) (물류센터) 일할 때 정시 출근하고 퇴근하고 데려다 주고 다 하니깐 편하긴 한데 진짜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무섭더라고. 나는 다행히 그런 건 없었지만 누군 반품 (잘못)눌렀다가 마이너스 되기도 하고. 너무 열악해 그리고 쉬는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어(참여자 나, 여, 구직활동 중).”

“정년 퇴직을 하려는 시점에서 보니까 오히려 여자들이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술학원은 알아보니 거의 남자들 수업이에요. 나이 든 여자들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은 없냐고 물어볼 예정이에요. 어쨌든 좀 막막해요. (중략) 그래서 저는 지금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들어 보셨죠? 기술이라기보다는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끈기는 있으니까 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참여자 가, 여, 대형마트 계산원)”

“정년 퇴직하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대기업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밑에 중소기업에 가서 보수를 어느 정도 그 받을 만큼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중략) 주위에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분인데 거의 집에서 혼자만 그냥 집에 있다가 최근에 어렵게 이렇게 일 자리를 구했는데 택할 수 있는 경비. 그다음에 또 저보다 좀 젊지만 특별한 내가 기술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갈 수 있는 곳으로는 구청에 계약직, 주차 단속같은. 그다음에 어떤 건설 현장이라든가 그런 자리가 있죠. 주위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사례가 있긴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라이센스 따고 하는데 그건 극히 몇 사람이고, 나이가 많은데 또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이러는 것도 쉽지 않죠(참여자 라, 남, 건설회사 감리직).”

- 반면 중장년 주된 일자리로 전문 개발직 혹은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면접참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수월했음을 언급하고 있었음. 이는 중고령층 노동시장의 정책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임.

“일반 퇴사를 했어요. 자진 퇴사를 하고 굳이 어디 풀타임으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이랑 보수를 맞춰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갔죠.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너네 회사 일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너네는 이런 조건을 해줄 수 있겠니 했을 때 맞으면 하는 거죠. 그래도 오랜 시간 일을 했고, 남들보다 빠르고 쉽게 좋은 거를 개발하는 노하우를 가졌으니 경쟁력이 있는거죠(참여자 바, 남, 식품개발직).”

“좀 특이하게 우리 **공무원들은 그 분야에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어서 자동으로 현직에서 퇴직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취업을 가죠. 우리 출신들은 그런 게 **협회라는 데서 구인 광고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게시판에. 거기 들어가면 어떤 현장에 어떤 일을 하는데 연봉은 얼마다 나와있고, 아니면 역으로 구직광고를 올릴 수도 있어요. 나 이런 조건과 자격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구직광고 올려놨더니 면접보자고 해서 이제 된거죠(참여자 라, 남, 건설회사 감리직).”

<표 4-24> 고령·은퇴자로서 일하면서 겪는 애로사항

| | 전혀 그렇지 않음 | 별로 그렇지 않음 | 그저 그런편 (보통) | 약간 그러함 | 매우 그러함 | 평균점수 (100점 만점)* |
|--|-----------|-----------|-------------|--------|--------|-----------------|
| 1) 일하고 싶으나 나이 제한 때문에 일자리 얻거나 취업하기 어렵다. | 0.7% | 4.5% | 13.2% | 53.5% | 28.1% | 75.9 |
| 2) 나이로 인해 일자리 또는 직장에서 차별받았다. (예: 보수, 업무, 직책 등) | 3.6% | 21.1% | 27.7% | 33.1% | 14.5% | 58.5 |
| 3) 나이에 적합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없었다. (예: 직무성격, 근로시간 등) | 4.3% | 14.1% | 25.9% | 39.5% | 16.1% | 62.3 |
| 4) 고령자를 위한 취업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 1.3% | 8.6% | 22.9% | 46.2% | 21.1% | 69.3 |
| 5)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 1.4% | 9.3% | 15.9% | 48.5% | 24.9% | 71.5 |
| 6) 노년기에 새 일자리 찾는데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기 힘들었다. | 1.6% | 9.1% | 28.1% | 44.2% | 17.0% | 66.5 |
| 7)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은퇴해야 했다. | 3.8% | 11.8% | 20.4% | 38.3% | 25.8% | 67.6 |
| 8) 취업 가능한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낮다. (예: 저임금, 기피하는 업무 등) | 1.6% | 8.1% | 20.9% | 44.2% | 25.2% | 70.8 |
| 9) 나이 때문에 일자리에서 무시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 9.7% | 29.5% | 32.4% | 22.7% | 5.7% | 46.3 |

* 전혀 그렇지 않음 0점~매우 그러함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 값임.

- 고령·은퇴자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기되는 정책의 목록 중, 응답자가 자신의 의견과 가까운 부분을 선택한 결과, 가장 높은 평균점수가 나온 정책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80.8점),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정책 지원”(80.3점), “저임금, 비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과 “건강진단 지원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80점) 순이었음.
- 한편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고령·은퇴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잔존해있음. 이유는 개별적이고 복합적일 수 있으나 노동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함. 따라서 이들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하면서도 고용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 정도 나이가 되면 특별히 일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나은 생활을 하는 이런 거죠. 물론 스트레스받고 하지만 그게 크게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어떤 내가 가야 될 직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많죠. 젊은 친구들이 봉급받기 위해서 하는 일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중략) 그냥 뭔가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고 어딘가에 내가 소속돼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거죠(참여자 라, 남, 건설회사 감리직).”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갈 데 있다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는 그래요 그러면 내일은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뭐 해야지 하고 사람이 밤에 엔돌핀도 돌거든. 그 전엔

직장 다니면서 난 언제까지 이 짓을 하나 했는데 그게 후회스러워요(참여자 나, 여, 구직활동 중).”

- 다른 한편으로 “은퇴노동자 소득안정 지원 정책”(62.3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책에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볼 때, 고령·은퇴노동자는 보기에 제시된 열 두 개의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4-25> 고령·은퇴자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 | 전혀 그렇지 않음 | 별로 그렇지 않음 | 그저 그런편 (보통) | 약간 그러함 | 매우 그러함 | 평균점수 (100점 만점)* |
|--|-----------|-----------|-------------|--------|--------|-----------------|
| 1)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정책 지원 | 0.4% | 0.7% | 8.6% | 58.1% | 32.2% | 80.3 |
| 2) 저임금, 비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 | 0.2% | 1.8% | 13.2% | 47.4% | 37.4% | 80.0 |
| 3) 은퇴노동자 소득안정 지원 정책 | 4.3% | 14.1% | 25.9% | 39.5% | 16.1% | 62.3 |
| 4) 경력단절 예방 및 구직 상담 | 0.0% | 2.3% | 15.7% | 57.8% | 24.2% | 75.9 |
| 5) 재취업 노동자 대상 기업 지원 유도 | 0.2% | 2.0% | 14.7% | 57.2% | 25.9% | 76.7 |
| 6) 은퇴 노동자 교육훈련 및 지원 | 0.0% | 1.4% | 14.8% | 56.2% | 27.5% | 77.5 |
| 7) 은퇴노동자 모임 형성 및 정보교환 사업 지원 | 0.5% | 3.6% | 22.4% | 52.8% | 20.8% | 72.4 |
| 8) 건강진단 지원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 | 0.2% | 1.4% | 12.3% | 50.3% | 35.8% | 80.0 |
| 9) 나이를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기업문화 개선 | 0.0% | 3.6% | 19.7% | 46.5% | 30.2% | 75.8 |
| 10)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 0.4% | 0.7% | 10.2% | 52.8% | 36.0% | 80.8 |
| 11) 노동조건이 낮은 일자리라도 고령자 취업 기회 확대 | 0.4% | 2.9% | 14.3% | 53.1% | 29.3% | 77.1 |
| 12) 고령·은퇴자 협의회 운영 및 지원 사업 | 0.7% | 2.0% | 18.2% | 57.6% | 21.5% | 74.3 |

* 전혀 그렇지 않음 0점~매우 그러함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 값임.

5. 소결

이상의 설문조사 및 추가적 면접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4장의 소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서울 고령·은퇴노동자의 중장년 시기(35세-54세) 주된 일자리의 특성은 직종의 경우, 사무직·전문직 52.4% > 판매직·서비스직 2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 업종은 민간서비스업이 50.3%로 가장 높았음. 또 44.7%가 1-29인 규모의 사업체에 근무했으며, 고용상태는 64.8%가 정규직으로 확인.
 - 중장년기 주된 일자리 특성에서 사무직·전문직에 종사했던 비율은 남성 62.5%, 여성 43.1%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상태에서 남성은 79.6%가 정규직에 종사하였고 여성은 51%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은퇴 이후 재취업 일자리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둘째, 은퇴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의 특성은 직종의 경우, 사무직·전문직 35.4% > 판매직·서비스직 31% 순으로 나타남. 사업체 업종은 민간서비스업이 58.8%로 가장 높았음. 사업체 규모는 58%가 1-29인 규모에 속함. 고용상태는 30.5%가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정규직이 28.3%로 나타남.
 - 재취업 일자리의 특성에서 사무직·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남성 46.2%, 여성 23.9%로 나타났으며, 고용상태에서는 남성은 정규직 35.9% > 비정규직(계약직)(26.5%) 순이며, 여성은 비정규직(계약직)(34.9%) > 정규직(20.2%) 순으로 나타남.
- 셋째, 고령·은퇴노동자의 현재 주당 평균 근무 일수는 4.9일이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7.7시간이 평균인 것으로 확인됨. 월평균 소득의 항목별 평균은 임금소득은 199.4만 원, 연금소득은 60만 원, 임금 외 별도소득은 39.3만 원으로 조사됨.
 - 월평균 소득의 평균에서 남녀격차 확인됨. 임금소득의 평균은 남성이 261만 원인 반면, 여성은 142.3만 원으로 나타남. 연금소득의 평균에서는 남성 87.9만 원, 여성 34.2원이며, 임금 외 별도소득에서 남성은 52.7만 원, 여성은 26.9만 원으로 나타남.
- 넷째,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고령·은퇴노동자의 53.8%가 직장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었고, 미가입 비율은 31.8%로 나타남. 건강보험은 68.7%가 직장 가입이며, 미가입은 3.2%임. 고용보험은 62.8%가 가입되어있으며, 산재보험은 59.2%가 가입함.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으나, 산재처리 여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37.7%가 자비로 처리한다고 응답하였고, 산재처리 신청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9%임. 그러나 산재처리가 안되는 특수고용(7%), 별도 지원 없이 공가 처리(5.2%), 없음(0.2%)은 실질적으로 산재처리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응답자의 절반(50.1%) 정도가 제도 밖 사각지대에 있는 것임.

- 다섯째, 은퇴 이후 애로사항으로는 △낮은 소득 수준(31.5%), △건강 문제 및 의료비(25.6%) 등이 가장 많았고, △고령·은퇴자 일감 부족(15.9%), △미래 노후 불안정(6.1%), △고용불안정(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건강의료비(42.6%), △식료품(10.7%), △자기개발/교육훈련(10.6%), △월세/관리비(9.3%), △수도/광열(냉난방)(7.0%), △문화생활 비용(4.7%), △통신비용(3.6%) 등 순이었음.
- 고령·은퇴노동자들에게 소득과 건강 의료 및 일자리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일하는 과정의 산재 기준은 매우 모호할 수 있으며, 과정의 복잡함 등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됨. 따라서 재직 및 구직자 대상 노동시장 및 사회보험 등 기준과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와 교육 필요성이 제기됨.
- 여섯째, 고령·은퇴노동자가 일하며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일하고 싶으나 나이 제한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찾기의 어려움’, ‘취업 가능한 일자리의 질이 낮음’, ‘고령자를 위한 취업 정보 얻는 것의 어려움’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고령·은퇴노동자의 다수는 노동을 지속하고자 하고자 하며,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나이로 인한 여러 제약을 우려함. 면접조사 일부 참여자는 고용안정의 중요성 강조함. 고령으로 노동시장 이동이 많은 것, 새로운 취업 정보를 탐색해야 하는 것,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하는 것 등은 고령·은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 일곱째, 고령·은퇴노동자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적정 임금이 지급되도록 정책 지원’, ‘저임금, 비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필요성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고령·은퇴노동자에게는 중장년시기처럼 플타임으로 근무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 따라서 유동적인 시간 운용과 더불어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5장. 정부 노인·고령 일자리 사업 현황

1. 중장년·노인 일자리 정책과 지원사업 현황

1) 중앙정부 중장년·고령 노동시장 정책

(1) 중고령 노동시장 정책 방향

○ 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구조 변화 - 중장년 노동시장, 일자리

-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를 맞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65세 이상 비중(%): '20년 15.7 → '25년 20.3(초고령사회) → '30년 25.0).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생산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음. 이에 따라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여건 마련과 주된 일자리를 떠난 이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 과제로서 부상하였음.

○ 중앙 정부 및 고령자 노동시장 법제도화, 정책 방향

- 정부의 중고령 일자리 정책 방안은 2017년 8월 8일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주로 이동하는 생애경로를 △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으로 설정하고, 각각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다는 것임.

- 2018년 8월에는 기존의 계획을 일자리사업 확대와 재취업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재구성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매칭하여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춤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과 민간기업이 신중년을 채용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물론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 이행 이후 노후준비 위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제2차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0)이 수립되었지만 이는 선언적인 정책적 접근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국회입법조사처, 2020).

○ 정부의 「고령자고용법」 개정 통한 지원 정책 방향

- 정부는 2019년 4월 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률」(이하, 고령자 고용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로 사업주는 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

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나아가, 고용보험 피가입자 평균 1천 명 이상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은 비자발적 이직 예정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윤석열 정부 고령 노동자 정책 방향(안, 미래노동시장연구회)

- 한편 윤석열 정부 시기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2022.12.12)에서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여 노동력 감소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고령자가 숙련과 경험을 활용하여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이 담겨 있음.
- 연구회 권고문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023.1.9.) 자료에서는 고용연장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연금 수급연령 상향, 경제의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고령자고용법상의 60세 법정 정년 제도와 계속고용 노력의무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물론 이미 2020년 1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 또는 재고용)를 도입·시행하고 이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하면 계속고용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였음.

(2) 중고령 노동시장 정책 정책 - 고용노동부⁸⁾

○ 정부(고용노동부)의 중고령 노동시장 정책은 <인생3모작 전직 재취업 지원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및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도 마련, △생애경력 서비스 설계 확대, △전직스쿨 과정 내실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 △신중년의 은퇴 후 사회공헌활동 기회 확대, △중장년 취업지원 기관 운영 등 지원 정책이 있음. 물론 중장년 고용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융자지원, 장년고용현황조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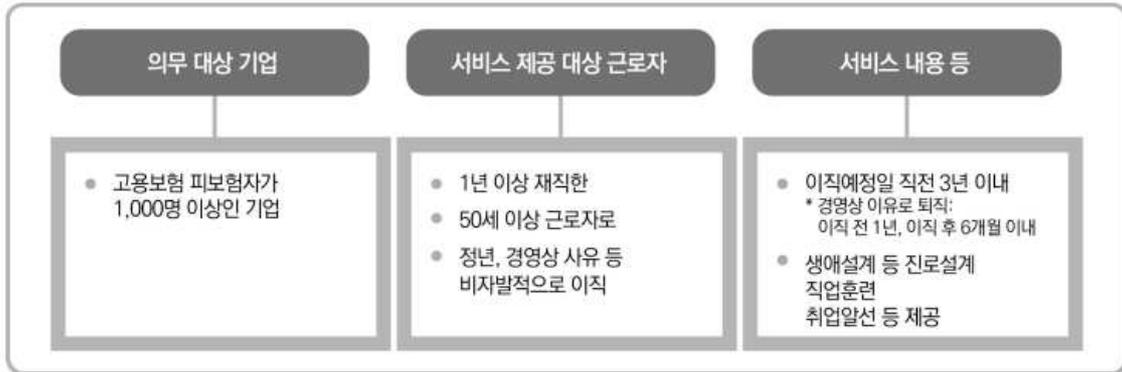
가.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및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도 마련

- 정부는 급증하는 고령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이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의 진로설계, 직업훈련 등의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시점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고령의 근로자가 재직상태에서 이직을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퇴직 이후 다음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

8)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2022년판 고용노동백서』를 요약 발췌 정리한 것임.

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5-1] 재취원 지원 의무화 내용(2022..5.1 시행)



출처 : 고용노동부(2022), 『2022년판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138쪽.

나. 생애경력 서비스 설계 확대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는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진단 및 제2의 인생 경력설계를 통해 체계적인 재취업 계획을 수립하고 능력개발 및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합동 장년 고용대책('14년 9월)에 따라 2015년부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장년고용서비스 강화방안('16년 10월)에 따라 2017년부터는 사전 검진에 기반한 직업훈련·취업준비 등 체계적인 생애고용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직자뿐만 아니라 구직자에게도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경력설계를 통한 서비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대상을 확대('15년 50세 이상 재직자 → '16년 45세 이상 재직자 → '17년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대상자도 매년 확대('17년 20천 명 → '18년 25천 명 → '19년 30천 명 → '20년 35천 명 → '21년 40천 명)하고 있는 상황임.

업·직종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업·직종 종사자 특성,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이동경로, 경력개발 특성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교수법 설계

- (제조업 생산직) 참가자 특성이 50대 후반, 남성, 상대적 저학력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흥미를 유도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고, 동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제공
- (서비스직) 참가자 특성이 50대, 여성이 주 타겟임을 고려하여 조별 토의 활동과 팀워크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법 등 구성 검토

[그림 5-2] 재취원 지원 생애경력설계 ‘구직자 과정’ 프로그램

| 동 | 인생 들여다보기(1.5~5H) | 서 | 인생 되돌아보기(1.5~6H) |
|------------------|---|-----------------|--|
| 인생 2막 준비 현황과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합시다 호모헌드레드 시대의 이해 100세시대 우리의 고민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말하다 인생 2막 준비현황과 필요성 | 나의 진로경력 회고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 회고(Life Review)의 의의 인생을 돌아보는 질문들 나의 인생 정리하기 베이비부머의 정체성 격려와 응원 |
| 중장년 노동시장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각해봅시다! 중장년 노동시장 개요 다양한 일자리의 이해 재취업, 창업, 창직, 귀농·귀촌, 사회공헌 | 주요경력에서 핵심역량 찾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경력 회고 베이비부머의 근로생애 유형 주요 경력에서 핵심역량 찾기 주변 경력에서 몰입경험 찾기 |
| 일과 직업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각해봅시다 일의 의미 은퇴의 의미 | 주변 경력에서 몰입경험 찾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가치관 버킷리스트 직업흥미검사 |
| 남 | 제 2인생 계획하기(1.5~3H) | 북 | 제2인생 실행하기(1.5~6H) |
| 생애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설계의 이해 생애설계 실습 | 구직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준비의 이해 구직서류 준비 지원 분야 분석 실습 면접 준비 |
| 경력경로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설계의 이해 경력설계 실습 | 삶의 균형점 찾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명한 자산관리 |
| 구직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설계의 이해 조사단계 접근단계 후속단계 구직계획 수립 | 일의 영역 확장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이프 리밸런싱의 이해 라이프 리밸런싱 실습 |

출처 : 고용노동부(2022), 『2022년판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141쪽.

다. 전직스쿨 과정 내실화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및 베이비부머 대량퇴직 등 장년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40대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심리안정·변화코칭 등 전직지원 프로그램, 취·창업 정보제공, 1:1상담,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직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원활한 전직 및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3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에는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전직지원 여건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참여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인별 수요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비스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6종 테마, 30개 모듈 중 기업·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음.⁹⁾ 또한, 2017년도부터는 중장년의 다양한 직업수요를 고려하여 도시농부, 목공, 드론 조종사, 사회적기업 창업 등 중장년이 고려해볼 만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과정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9) 2015년에는 2,471명(총 71개 기업), 2016년 4,512명(총 77개 기업), 2017년 6,216명(총 114개 기업), 2018년 8,553명(총 128개 기업), 2019년 9,095명(총 126개 기업), 2020년 4,742명(총 77개 기업), 2021년 7,321명(총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5-3] 고용노동부 전직스쿨 프로그램



출처 : 고용노동부(2022), 『2022년판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143쪽.

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

- 고용장려금제도는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함.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구직자·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노사·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음.¹⁰⁾
- 2018년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74개의 적합직무를 선정하였고, 2019년에는 이를 213개 직무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음. 2020년에는 213개 이외의 기타 직무를 전체 직무의 5% 이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하였음. 2021년에는 디지털·그린 분야의 29개 직무를 추가 발굴하여, 총 242개 직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22년에는 2020년 이후 기타 직무로 선정된 직무를 심사하여 3개 직무를 정식 적합직무로 편입, 총 245개 직무를 운영하고 있음.¹¹⁾

마.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10)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17.8.8.)의 후속조치로 국무회의(‘17.12.19.)에서 근거하여법령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의결되었음.

11) 사업 수행 결과 2018년 50대 이상 근로자 1,159명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3,119명을, 2020년에는 3,522명을, 2021년에는 3,996명을 지원했음.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신중년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실시되었음. 늘어난 100세 시대에 맞춰 생계형 일자리보다는 자신의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신중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2019년부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중 하나로 신설함에 따라 사업 명칭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했음.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50세 이상 신중년이 비영리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 참여자에게 활동시간 당 참여수당 2천 원이 지급되고, 교통비와 식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¹²⁾

바. 중장년 취업지원 기관 운영

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2006년 12월부터 퇴직 중견 전문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상담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전문인력 활용으로 중소기업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등을 중견전문인력 고용센터로 지정('12년, 6개소)하여 취업알선·구인 업체의 고용상담 및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13년부터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베이비부머 대량퇴직 등 장년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와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로 통합·운영 중이며, 2021년에는 전국 31개소에서 40세 이상의 중장년퇴직(예정)자들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고용·복지서비스 통합방침에 따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컨설팅트가 입주하여 한 곳에서 통합된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② 고령자 인재은행

- 장년의 취업능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제공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21년 전국 42개 기관)하여 운영 중임. 2011년부터는 장년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담-훈련-취업지원」의 체계화된 서비스 구조를 구축하였음.
- 또한, 2011년부터 고용센터와 고령자인재은행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고용안정 정보망

12) 2012년 624명, 2013년 1,345명, 2014년 3,690명, 2015년 5,805명, 2016년 5,928명, 2017년 6,081명, 2018년 6,647명, 2019년 10,513명, 2020년 11,832명, 2021년 11,242명으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방이양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음.

(워크넷) 이용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③ 장년고용서비스 역량강화

- 장년 취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조사·연구를 통해 장년의 특성에 적합한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장년 취업촉진에 기여하고 있음. 2015년에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고령자 인재은행 소속 컨설턴트 총 141명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집체)을 실시하였고, 취업지원·취업동아리 우수사례 공모·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우수상(2)·장려상(5)을 선정하고 우수사례집 발간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고 있음.¹³⁾
- 2020년에는 1,000인 이상 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도입됨에 따라 역량강화 교육에도 ‘재취업지원서비스 과정’을 추가하여 총 316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였음. 2021년에는 상담현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요조사를 통해 언택트 서비스 제공 방식 및 중장년 대상 정부지원제도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169명에게 실시하였음.

2) 중장년·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유형

○ 정부의 노인 일자리 영역은 ① 저소득 장년들이 집중된 재정지원일자리, ② 정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일자리, ③ 재정지원 일자리와 정규 노동시장 일자리의 중간지점에 있는 고용과 복지가 혼합된 일자리로 구분됨(박경하 외, 2016).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으로,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으로 관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크게 △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공공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지원으로 구분됨.
- 이 중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금을 직접 지원함. 주된 참여자는 취업취약계층으로, 노인 등 특정한 계층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조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은퇴인력 등이 주된 대상으로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 등이 있음.

13) 2016년에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와 고령자인재은행 소속 컨설턴트 총 142명에 대한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 모든 중장년 일자리희망 센터에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강사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있음.

- 한편 정부의 직접일자리아업 중 노인일자리아업에는 관련 법률¹⁴⁾을 근거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됨(보건복지부, 2022).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일자리아업’도 대표적임.

3)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장년·노인일자리 지원사업

- 중앙부처 일자리아업인 고용노동부 신중년 일자리아업으로는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신중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아업, △고용장려금 등이 있음.

<표 5-1> 중앙정부(고용노동부) 신중년 일자리 사업 개요

| 유형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신중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아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
| 구분 | 신중년 사회공헌 기회 제공과 신중년 퇴직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일자리 지원 보조사업. ‘신중년 사회공헌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구분(위탁 가능) |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 | 신중년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 목적 사업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앙정부 사업 |
| 내용 | 참여대상자는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수행 업무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공인자격이 있거나 그밖에 전문성 판단 기준 또는 3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사회공헌만 해당)를 의미. 참여자는 경영전략, IT정보화, 마케팅·홍보, 법률·법무, 인사·노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등 13개 분야 참여 |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산업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 및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 |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이 참여대상자이며,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세부사업계획 심사·선정 및 최소한의 지침만 규정함.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이동 학습지도, 독거노인 치매예방,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방향 |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해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등 신중년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는 등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 |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활동성격이나 예산구조에 따라 여러 하위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음.
- 활동성격에 따라 세부사업이 봉사과 근로형태로 나뉘는데, 봉사 성격의 사회활동으로는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이 있고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등으로 나뉨.

14)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동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동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동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등

- 예산구조를 기준으로서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이 있고,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는 재능나눔활동,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사업이 있음.
- 중앙부처 및 서울시 일자리지원서비스는 각각 다양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관사업 유형은 직접일자리, 생애·경력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기반조성으로 구분됨.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한국폴리텍대학)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여성가족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학진흥원,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사업 등)도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취업지원기관임.
- 서울시는 서울일자리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어르신취업센터, 서울시 50플러스센터 등 중고령층 대상 일자리 알선 구인구직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임.

<표 5-2> 서울시 일자리 지원센터 및 기관 현황

| 기관 | 서울일자리센터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서울시어르신취업센터 |
|-----|--------------------------|--|---|--|
| 내용 | 25개 자치구마다 일자리센터를 운영 | 25개 자치구 서울시 거주하는 만55세 이상 고령자 | 서울시의 50+세대 즉 만 50세-64세의 중장년층 대상 통합지원정책을 추진 | 2004년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의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로 운영되다 2018년 서울시어르신취업센터로 확대개편 |
| 서비스 | 취업알선, 취업관련 정보 제공, 직업훈련 등 | 구인처개발, 구직자모집,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교육 및 사후관리를 제공 | 50플러스캠퍼스, 자치구 기반 사회공헌 아카데미와 인생재설계 교육, 상담, 사회참여활동지원 50플러스센터 구성 | 서울시 어르신 취업과 사회활동 지원 위한 기반 조성사업, 재취업 위한 훈련·인턴십 등을 개발 |

2. 서울시 중장년·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1) 서울지역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문제

(1) 서울지역 중장년 및 고령자 현황

- 서울시 인구 38.9%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의 다가올 노년기를 대비하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 필요한 상황임. 중장년층은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 중장년의 노후준비지수는 55.67점(100점기준)으로 전국(54.62점) 대비 다소 높지만, 노후 준비는 여전히 부족. (중장년 필요 정책)소득보장(23.9%), 노후설계 지원(21.9%), 정년기준 연장(14.8%), 고용지원제도(11.7%)
- 노후설계 시작 적정 연령은 40대 후반, 조기퇴직자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라 중장년 지원정책은 대상층의 확대 및 서비스가 강화되어야함

[그림 5-4] 전국 및 서울지역 중장년 노후준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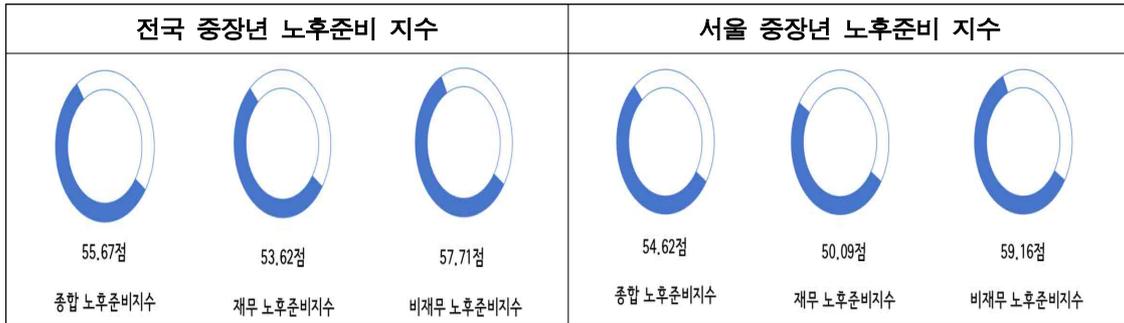


자료 : 강소량(2022),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노후준비와 정책제언』, 서울시의회(2022.10.16).

(2) 서울지역 중장년 노동시장 문제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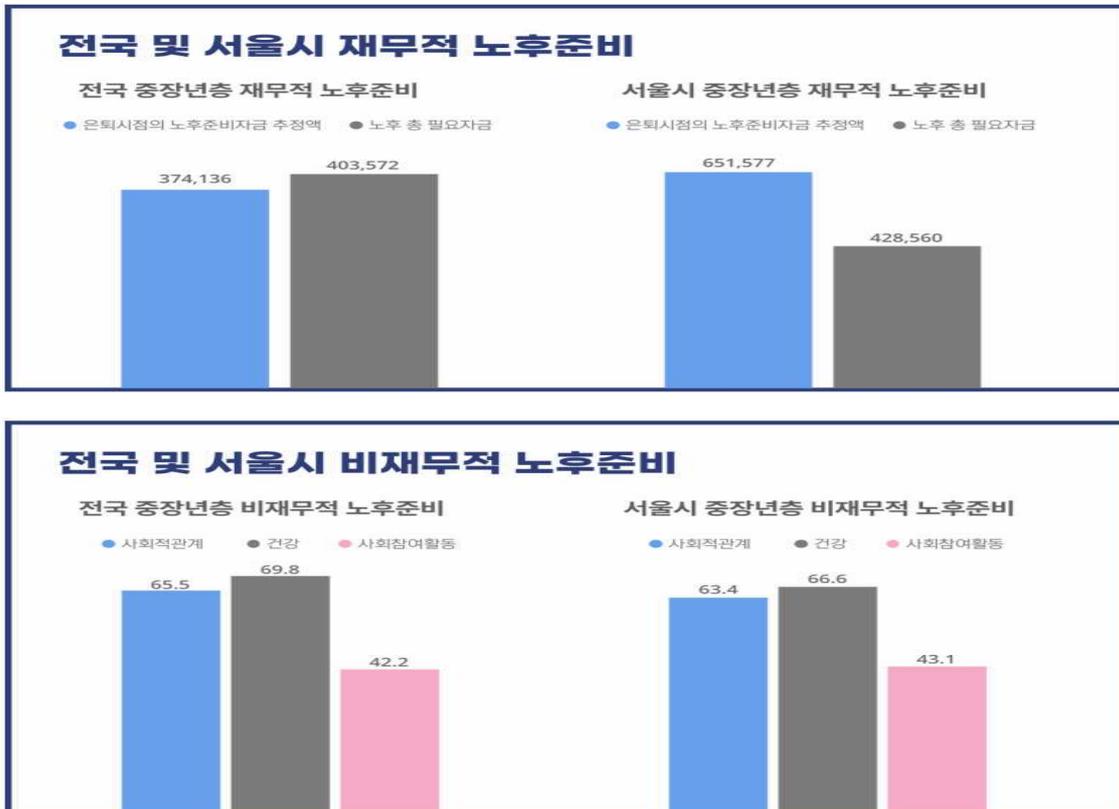
- 중장년 노후준비는 지역, 소득, 자산 및 근로형태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바, 이들의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노후준비지원정책이 필요함.
- 일자리, 사회공헌, 노후준비라는 서울시 중장년 정책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을 보완, 통합적 지원 정책 필요함. 산업구조 변화 및 디지털전환 등 환경 변화에 중장년이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정책추진 요구는 증가

[그림 5-5] 전국 및 서울지역 노후준비 지수



자료 : 강소량(2022),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노후준비와 정책제언』, 서울시의회(2022.10.16).

[그림 5-6] 전국 및 서울지역 재무적, 비재무적 노후준비 지수(단위: 천원, 점수)



자료 : 강소량(2022),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노후준비와 정책제언』, 서울시의회(2022.10.16).

(2) 서울시 중장년 고령 노동시장 정책

- 서울시 고령사회 노동시장 대응 흐름(2010년대, 민선 6-7기)
- 서울시는 2010년 7월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2013년에는 「서울어르신종합계

획=제1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2013~2015)」을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베이비부머 엑스포 개최 △전문가 은퇴작 인재은행 구축 △신노년단체 육성 및 사업 지원 △신노년 정책자문단 구성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음.

- 서울시는 이후에도 2014년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제3기 서울시 지역복지계획(2015~2018)」을 통해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 지원(50+재단 설립, 50+인프라 구축 등)’을 세부 사업으로 제기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시 50+지원사업이 체계를 갖췄으며, 이의 컨트롤타워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이하, ‘50+재단’)을 출연기관 형태로 설립 및 운영하였고, 권역별 50플러스캠퍼스(이하, ‘50+캠퍼스’)와 차지구별 50플러스센터(이하, 50+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 고령사회 노동시장 대응 흐름(2020년대, 민선 8기)

- 서울시는 민선 8기 시기 인생 전환기를 맞은 369만 중장년 세대가 중년의 위기를 넘어 평생 현역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을 발표(2022.12.20.) 했음. 이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 기존 세대·연령대별 지원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4050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계획임.

서울시, 369만 4050세대 인생 전환기 전방위 지원...전국 최초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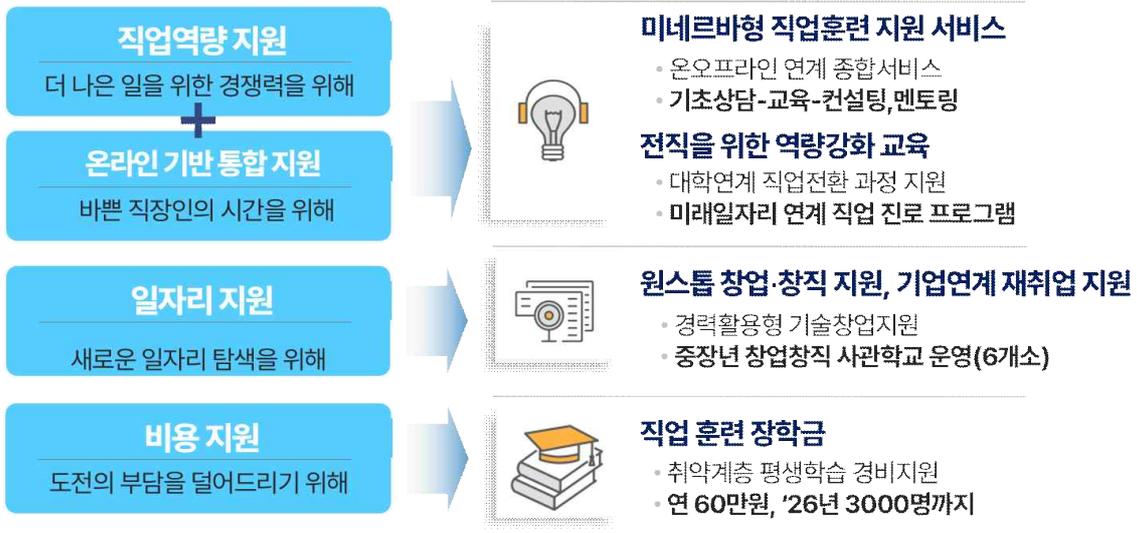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5년 간(22-26) 4,600억 원 투자(5개 분야: ①직업 역량 강화 ②재취업·창업 등 일자리 지원 ③디지털 역량 강화 ④활력있는 인생후반을 위한 생애설계·노후준비 ⑤4050 전용공간 ‘활력+행복타운’ 조성), 48개 사업

- 330개 온라인 교육+108개 현장서 실습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서비스’로 직업 업그레이드(4050세대를 위한 ‘서울런 4050’에서 자격증, 취업 등 330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배운 내용을 서울기술교육원, SBA 등 서울 전역 108개 학습공간에서 실습)
- 소상공인 등 중장년 디지털 전환 교육 강화, 보람일자리 등 경력맞춤형 일자리 확대 (참여자 개인별로 맞춤 컨설팅과 학습 지원 ‘온라인 직업훈련멘토단’ 운영(108명), 이 모든 지원 허브역할 ‘인생전환지원센터’ 개소(* 24.1, 정동), 전직·이직 필요 자격증·학점 취득을 위한 대학 연계 프로그램 확대.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는 직업훈련 장학금(연 60만 원) 지원
- 50+세대가 인생 2막을 위한 생애설계와 노후준비 (생애설계 상담과 연계한 성장형 포트폴리오 지원, ‘중장년 인생설계학교’ 개설, 생활건강관리 서비스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 26년 수유영아마를 부지에 위기의 중장년 재충전 전용공간 ‘활력+행복타운’ 조성

* 출처 : 서울시 평생교육과 보도자료(2022.12.20.)

- 2022년 서울시 종합계획은 4050세대를 40대와 50대로 나누고, 이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해서 각각의 연령대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구성한 것이 핵심임. 중장년층은 개개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세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중장년 이외에 50 플러스 세대인 고령자를 위해 생애설계 상담과 연계 지원, 중장년 인생설계 학교, 건강 문화 프로그램도 같이 발표 했음([그림 5] 참조).

[그림 5-7] 서울시 40+전직·이직을 위한 직업 훈련·역량 강화



[그림 5-8] 서울시 50+ 경력 맞춤 일자리 확대와 디지털 역량 지원



○ 서울시 중고령 일자리 사업 현황과 주요 지원 기관

- 서울시는 중고령자를 위한 일자리사업을 중장년 일자리와 어르신 일자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50+정책 일환으로 실시하는 서울시50+보람일자리, 서울50+인턴십, 굿잡5060, 점프업5060, 앙코르 전직지원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임.

<표 5-3> 서울시 중고령 및 어르신 일자리 사업

| 유형 | 보람일자리 사업 | 인턴십 사업 |
|-------|---|--|
| 구분 | 중장년 일자리 사업으로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사회공헌일 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활력 있고 안정된 인생후반기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사업 | 서울50+인턴십과 서울50+뉴딜인턴십 |
| 근거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근거 | |
| 주요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50-67세 시민이 참여대상이며 6대 분야(사회서비스, 마을, 세대통합, 50+당사자, 문화·안전, 소상공인)의 사회활동에 소액의 활동비, 교육, 상해보험 등을 지원 | 서울 50+인턴십은 서울시 50+세대(만 45세-67세)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경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영역에서 인생2막 두 번째 커리어를 개척할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타임형 인턴십 서울50+뉴딜인턴십은 지원 직무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만 45세-67세 서울 거주 시민에게 민간기업에서의 풀타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게는 50+세대의 전문성을 제공하는 사업 |

○ 서울시 일자리사업은 5가지 유형(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분류되며, 세부 사업은 서비스 대상이나 자치구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고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표 5-4> 서울지역 지자체 직접일자리 사업 유형

| 유형 | 공공업무지원형 | 소득보조형 | 인턴형 | 사회봉사·복지형 |
|----|---|---|---|--|
| 내용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도 참여조건(학위, 자격증 등)이 요구 | 노인, 저소득층 등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일 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상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단기간의 교육 이수만으로 참여가 가능 | 취업취약계층에게 현장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일 경험 습득 및 경력 형성을 도와 관련 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 퇴직자·청년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로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 |
| 예시 | 취업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 전문 분야 강사 지원사업, 공공기록물 전자화 지원사업 등 지속·반복참여가 불가능한 사업 |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일자리, 경력단절여성 대상 재택일자리, 여름철 하천 쓰레기수거 사업 등 | 청년들의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보조(일경험) 사업, 기업 수요에 맞춘 청년·중장년·여성 인턴십 운영 등 | 중장년 경력활용 봉사활동 사업, 어르신 재능기부 사업, 청년자원봉사활동 등 |

[참조] 주요 지역 중고령 재취업 지원 기관 현황 요약(2021)

| | A기관 | B기관 | C기관 | D기관 |
|--------|--|--|---|---|
| 사업시작 | 2005 | 2015 | 2019 | 2013 |
| 설립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이후 퇴직자 대거 발생 -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 위해 재취업지원센터와 전직지원 통합하여 희망센터 운영 -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퇴직이후 인생 준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민간위탁 통해 취업지원센터 운영 - 노동부는 공제회 직영방식과 민간위탁방식 효율성 비교 위해 서울과 부천 시범으로 직영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산업 (조선업) 악화, 퇴직 대거 발생 - 서울 50플러스재단 벤처마킹, 지자체 사업 필요성 제안 - 조례 개정 후 사업 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령 퇴직자 대상 취업지원 위해 설립 |
| 참여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40대 이상의 재직자, 1년 내 퇴직예정자, 퇴직자 및 구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에서 일자리 찾는 구직자(근로자) - 건설현장에서 일할사람 찾는 구인자(건설사업주) - 구직자는 대부분 50대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0~만64세 지역 거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40대 이상의 재직자, 1년 내 퇴직예정자, 퇴직자 및 구직자 |
| 제공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재취업지원 - 전직지원 - 업종특화서비스 - 신중년 인생 3모작패키지 - 기업지원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알선 - 구인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 생애설계심층상담 - 커뮤니티 활동지원 - 사회공헌일자리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재설계서비스 - 재취업지원 - 전직지원 - 5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파견 고용서비스 제공 |
| 조직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센터전체 120명 (관리직 20명, 컨설턴트 100명) - 서울 공덕센터 13명 (관리직 1명, 컨설턴트 12명) - 정규직 +일부 계약직 (유아대체 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센터 총 4명(센터장, 행정, 직업상담사 2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1명 내외(사기획 관리직 5명, 컨설턴트 6명) - 정규직(관리직)+계약직(컨설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내외: 관리직(센터 4명), 컨설턴트(5개 고용센터 6명/파견) - 정규직(관리직) + 계약직(컨설턴트) |
| 예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지원 - 고용노동부가 전체예산 지급하면 각센터 규모에 따라 재단이 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지원 - 총 1억 6천만 원 - 대부분 인건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지원 - 총 9억 원 - 인건비 1억 8천만 원 (20%), 사업비 5억 8천만 원(65%), 센터 운영비 1억 3천만 원 (15%) - 상담인력은 고용동부 별도 사업 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지원 - 총 6억 원 - 인건비 1억 8천만 원 (30%) - 사업비(운영비 포함) 4억 2천만 원(70%) |

| | | | | |
|-------------------|---|---|---|--|
| | | | - 도의회에서 예산 증액추세 | |
| 공간 | 임대 | 임대 | 임대 | 임대 |
| 구성원 전문성 제고 | - 서비스별로 콘텐츠개발하여 교육 - 2-3주 역량교육 | - 건설관련자 채용 - 전문성 강화 수단 無 | 복지비 활용(1인당 30만 원) - 연간 80시간 직무교육 | - 매년 2회 구성원 간 전체 회의 - 우수사례 및 상담 정보 공유 |
| 지역 주체 협력 | - 사용자단체 (상공회의소) - 450 개 대기업 인사 담당자 연계 - 폴리텍대학,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 | - 서울지역 건설현장소장 및 팀·반장 | - 지역 고용거버넌스(지자체, 노사민정협의회) | - 지역 인자위 - 지역 고용거버넌스(지자체, 노사민정협의회) - 폴리텍대학 |
| 프로그램 | - 경력전성시대 과정 - 경력동서남북 과정 - 경력행복만개 과정 | - 취업인원 3,500명 - 자체 목표 설정 | - 취업인원 500명 - 상담인원 1,500명 - 자체 목표 설정 | - 취업인원 1,500-1,800명 - 상담인원 3천5백-4명 - 노동부 목표 제시하면 경총 분배 |
| 사업성과 (연간) | - 취업인원 11,630명 - 구직인원 38,779명 - 구인인원 5,622명 - 알선상담 13,156건 - 노동부 성과목표 제시하면 재단 센터 규모 따라 분배 | - 취업인원 3,500명 - 자체 목표 설정 | - 취업인원 500명 - 상담인원 1,500명 - 자체 목표 설정 | - 취업인원 1,500-1,800명 - 상담인원 3,500-4,000명 - 고용노동부 목표, 제시 경총 분배 |
| 취업처 발굴 | - 노동부 워크넷활용 - 재단 인프라 활용 - 관리기업 pool 작성 | - 서울시 건설현장 방문 - 맨투맨 전략 | - 회원사 - 재취업업무는 부수적 | - 회원사 - 기업 인사담당자와 협의 - 채용박람회 활용 |
| 홍보 | - 다양한 매체(신문, 라디오, 등) - 현수막, 전단지 등 오프라인 - SNS 등 온라인 | - SNS,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 현수막, 전단지 등 오프라인 - 공제회 | - 다양한 매체(신문, 라디오, 지역정보지) - 현수막, 전단지 등 오프라인 - SNS 등 온라인 - 지자체 | - 다양한 매체(신문, 라디오, 지역정보지) - 현수막, 전단지 등 오프라인 - SNS 등 온라인 - 지자체 및 고용센터 |

출처 : 이주환·이상범(2021), 『퇴직노동자 재취업지원을 위한 지역노사정협력방안연구』, 한국노총 서울본부.

2) 서울시 자치구별 장년·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1) 서울시 25개 자치구 일자리사업 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 일자리사업의 전체 예산은 1조 6천 6백만원(1개 자치구 평균 6백 9십억원)이고 이 중 구비는 6천 5백억원(1개 자치구 평균 2백 7십억원)이며, 총 2,566개 사업(1개 자치구 평균 107개)을 운영하고 있음.

- 전체 사업예산 중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은 1조 4천 7백만원(1개 자치구 평균 5백 9십억원 ; 구비 5천 7백만원/1개 자치구 평균 2백 2십억원)이며, 총 2,100개 사업(1개 자치구 평균 88개)을 운영하고 있음. 즉, 일자리사업 예산의 95% 이상이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라 할 수 있음.

<표 5-5> 서울지역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 및 규모(2021년 25개 자치구)

| | 21년 지자체 전체 일자리 예산 및 규모 | | | | | | 21년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 및 규모(단위: 천만원) | | | | | |
|-----|------------------------|--------|--------|--------|---------|-------|--------------------------------|--------|--------|--------|---------|-------|
| | 전체 예산 | 구비 | 시비 | 국비 등 | 일자리 규모 | 과제 수 | 전체 예산 | 구비 | 시비 | 국비 등 | 일자리 규모 | 과제 수 |
| 평균 | 6,926 | 2,714 | 2,385 | 1,839 | 9,873 | 107 | 5,903 | 2,295 | 2,020 | 1,587 | 6,052 | 88 |
| 전체 | 166,220 | 65,126 | 57,249 | 44,126 | 236,956 | 2,566 | 147,548 | 57,386 | 50,486 | 39,675 | 151,290 | 2,100 |
| 종로 | 3,108 | 1,013 | 1,316 | 779 | 6,089 | 104 | 2,678 | 970 | 943 | 765 | 4,341 | 94 |
| 중구 | 3,328 | 1,828 | 984 | 516 | 4,909 | 177 | 3,080 | 1,772 | 819 | 489 | 3,541 | 166 |
| 용산 | 2,570 | 1,152 | 757 | 670 | 4,797 | 60 | 2,488 | 1,121 | 742 | 638 | 4,480 | 47 |
| 성동 | 482 | 64 | 107 | 311 | 789 | 12 | 480 | 62 | 107 | 311 | 789 | 11 |
| 광진 | 4,438 | 1,569 | 1,623 | 1,246 | 6,510 | 116 | 4,425 | 1,567 | 1,623 | 1,235 | 6,390 | 114 |
| 동대문 | 6,695 | 2,612 | 2,481 | 1,601 | 8,857 | 157 | 5,493 | 1,824 | 2,102 | 1,567 | 6,169 | 138 |
| 중랑 | 7,012 | 2,506 | 2,349 | 2,440 | 10,182 | 89 | 6,534 | 2,482 | 2,320 | 1,697 | 4,678 | 74 |
| 성북 | 9,433 | 2,718 | 3,764 | 2,951 | 10,566 | 133 | 6,507 | 1,983 | 2,461 | 2,063 | 7,236 | 89 |
| 강북 | 4,036 | 898 | 1,409 | 1,729 | 8,318 | 78 | 3,311 | 855 | 1,181 | 1,274 | 5,112 | 60 |
| 도봉 | 46,520 | 21,534 | 15,336 | 9,650 | 7,058 | 136 | 42,715 | 18,545 | 14,604 | 9,566 | 4,486 | 117 |
| 노원 | 9,733 | 2,788 | 4,123 | 2,822 | 12,090 | 165 | 9,433 | 2,663 | 4,014 | 2,756 | 9,609 | 151 |
| 은평 | 8,943 | 3,610 | 3,468 | 1,865 | 14,487 | 134 | 7,907 | 3,023 | 3,154 | 1,730 | 10,311 | 99 |
| 서대문 | 6,853 | 2,551 | 2,715 | 1,587 | 13,558 | 175 | 4,001 | 1,841 | 1,169 | 991 | 7,321 | 133 |
| 마포 | 5,095 | 1,724 | 2,376 | 994 | 7,411 | 63 | 5,029 | 1,677 | 2,358 | 994 | 5,861 | 61 |
| 양천 | 3,570 | 1,420 | 1,132 | 1,017 | 10,266 | 118 | 3,479 | 1,378 | 1,110 | 990 | 8,017 | 103 |
| 강서 | 4,880 | 2,121 | 1,485 | 1,264 | 7,624 | 79 | 4,545 | 1,969 | 1,373 | 1,193 | 6,335 | 62 |
| 구로 | 4,777 | 2,095 | 1,497 | 1,185 | 13,961 | 98 | 4,364 | 1,879 | 1,309 | 1,176 | 6,866 | 73 |
| 금천 | 2,925 | 1,027 | 1,131 | 767 | 8,037 | 74 | 2,840 | 1,007 | 1,111 | 722 | 5,620 | 66 |
| 영등포 | 3,415 | 879 | 1,287 | 1,248 | 8,171 | 53 | 2,980 | 775 | 1,042 | 1,163 | 6,772 | 29 |
| 동작 | 3,864 | 1,480 | 1,170 | 1,215 | 20,993 | 112 | 2,962 | 1,267 | 943 | 752 | 5,694 | 85 |

| | 21년 지자체 전체 일자리 예산 및 규모 | | | | | | 21년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 및 규모(단위: 천만원) | | | | | |
|----|------------------------|-------|-------|-------|--------|------|--------------------------------|-------|-------|-------|--------|------|
| | 전체 예산 | 구비 | 시비 | 국비 등 | 일자리 규모 | 과제 수 | 전체 예산 | 구비 | 시비 | 국비 등 | 일자리 규모 | 과제 수 |
| 관악 | 5,773 | 1,783 | 2,036 | 1,954 | 11,059 | 50 | 5,164 | 1,343 | 1,898 | 1,923 | 8,615 | 44 |
| 서초 | 6,082 | 3,558 | 1,469 | 1,055 | 10,593 | 91 | 5,703 | 3,384 | 1,292 | 1,027 | 6,464 | 80 |
| 강남 | 6,333 | 1,103 | 1,313 | 3,919 | 14,008 | 74 | 5,339 | 1,093 | 1,018 | 3,229 | 6,710 | 56 |
| 송파 | 4,884 | 2,412 | 1,293 | 1,179 | 12,059 | 174 | 4,271 | 2,192 | 1,087 | 992 | 5,976 | 146 |
| 강동 | 1,954 | 745 | 735 | 474 | 5,353 | 46 | 1,856 | 715 | 709 | 432 | 3,897 | 13 |

* 자료 :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의 각 지자체 요청(2021.6) 원자료 재분석

(2) 25개 자치구별 장년·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장년·노인일자리 사업유형 및 예산, 일자리 규모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아래 표를 살펴보면 자치구별로 사업유형 및 예산의 편차가 큼을 확인할 수 있음.
- 자치구 대부분이 직접 일자리사업에 초점을 맞춘 사업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체 일자리 예산 대비 장년·노인 일자리 예산 비중은 강동구가 99.8%로 가장 높고 성동구가 2.9%로 가장 낮았음.

<표 5-6> 서울시 자치구별 장년·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및 규모

| 자치구 | 사업유형 | 일자리예산(단위 : 천만원) | | | | | 일자리규모 (총인원) |
|------|----------|-----------------|---------|---------|------------|----------------------|----------------|
| | | 총 예산 | 구비 | 시비 | 국비 (기금) | 전체 일자리예산 대비 비중 | |
| 종로구 | 직접일자리 | 1431 | 578.8 | 527.6 | 324.6 | 46.0 | 3,195 |
| 중구 | 직접일자리 | 784.4 | 299.8 | 241.1 | 243.4 | 24.5 | 1,948 |
| | 직업능력개발훈련 | 30.3 | 15.3 | 15 | - | | 76 |
| | 전체 | 814.7 | 315.1 | 256.1 | 243.4 | | 2,024 |
| 용산구 | 직접일자리 | 1218.5 | 473 | 400.1 | 343.4 | 47.4 | 3,012 |
| 성동구 | 직접일자리 | 13.8 | 6.9 | - | 6.9 | 2.9 | 10 |
| 광진구 | 직접일자리 | 1302 | 607.9 | 365.6 | 328.5 | 29.3 | 2,904 |
| 동대문구 | 직접일자리 | 894 | 313 | 313 | 268 | 13.4 | 2,675 |
| | 직업능력개발훈련 | 1.5 | 1.5 | - | - | | 91 |
| | 전체 | 895.5 | 314.5 | 313 | 268 | | 2,766 |
| 중랑구 | 직접일자리 | 873 | 392 | 259 | 222 | 12.5 | 2,042 |
| 성북구 | 직접일자리 | 1,531 | 491 | 520 | 519 | 18.5 | 3,282 |
| | 창업지원 | 217 | 203 | - | 15 | | 52 |
| | 전체 | 1,748 | 694 | 520 | 534 | | 3,334 |
| 강북구 | 직접일자리 | 871 | 261 | 305 | 305 | 21.6 | 2,829 |
| 도봉구 | 직접일자리 | 1,448 | 1,448 | - | - | 3.1 | 67 |
| 노원구 | 직접일자리 | 6,368.4 | 1,838.4 | 2,543.9 | 1,986.4 | 67.3 | 8,026 |
| | 직업능력개발훈련 | 3.4 | 0.3 | - | 3.1 | | 12 |
| | 고용서비스 | 112.6 | 78.9 | 20.2 | 13.5 | | 2,097 |

| 자치구 | 사업유형 | 일자리에산(단위 : 천만원) | | | | | 일자리규모 (총인원) |
|-------|-----------|-----------------|---------|-------|------------|----------------------|----------------|
| | | 총 예산 | 구비 | 시비 | 국비 (기금) | 전체 일자리에산 대비 비중 | |
| | 고용장려금 | 61.8 | 8.3 | 14.9 | 38.6 | | 253 |
| | 전체 | 6,546.2 | 1,925.9 | 2,579 | 2,041.6 | | 10,388 |
| 은평구 | 직접일자리 | 1,739.3 | 606.7 | 618.1 | 514.5 | 19.9 | 5,824 |
| | 직업능력개발훈련 | 0.97 | 0.97 | - | - | | 6 |
| | 고용서비스 | 29.8 | 29.8 | - | - | | 88 |
| | 사회적경제 활성화 | 6.33 | 6.33 | - | - | | 2 |
| | 전체 | 1,776.4 | 643.8 | 618.1 | 514.5 | | 5,920 |
| | 서대문구 | 직접일자리 | 1,561 | 605 | 511 | | 445 |
| 고용서비스 | 0.2 | 0.2 | - | - | 140 | | |
| 전체 | 1,560.7 | 604.8 | 511.3 | 444.6 | 5,143 | | |
| 마포구 | 직접일자리 | 1,083.5 | 379.2 | 379.2 | 325.2 | 21.3 | 3,294 |
| 양천구 | 직접일자리 | 963.7 | 337.3 | 337.3 | 289.1 | 27.0 | 2,733 |
| | 전체 | 1,185 | 417 | 412 | 356 | | 3,441 |
| 강서구 | 직업능력개발훈련 | 1 | 1 | - | - | 24.8 | 49 |
| | 고용장려금 | 24.6 | 12.2 | 0 | 12.4 | | 13 |
| | 전체 | 1,211 | 431 | 412 | 368 | | 3,503 |
| | 직접일자리 | 1,172 | 417 | 400 | 355 | | 24.6 |
| 고용서비스 | 2 | 2 | - | - | 58 | | |
| 전체 | 1,174 | 419 | 400 | 355 | 4,016 | | |
| 금천구 | 직접일자리 | 1,710 | 620 | 600 | 491 | 58.9 | 4,211 |
| | 직업능력개발훈련 | 12.7 | 12.7 | - | - | | 28 |
| | 전체 | 1,723 | 632 | 600 | 491 | | 4,239 |
| 영등포구 | 직접일자리 | 1331 | 538.2 | 421.6 | 371.2 | 39.7 | 4,636 |
| | 직업능력개발훈련 | 5 | 5 | - | - | | 71 |
| | 기타 | 19.8 | 19.8 | - | - | | - |
| | 전체 | 1355.8 | 563 | 421.6 | 371.2 | | 4707 |
| 동작구 | 직접일자리 | 1,022 | 361 | 356 | 305 | 28.8 | 3,254 |
| | 직업능력개발훈련 | 27 | 20 | 7 | - | | 3768 |
| | 고용서비스 | 65 | 28 | 28 | 8 | | 3528 |
| | 전체 | 1,114 | 409 | 391 | 313 | | 10,550 |
| 관악구 | 직접일자리 | 1,147 | 414 | 396 | 337 | 19.9 | 3,024 |
| | 직업능력개발훈련 | 3 | 3 | - | - | | 35 |
| | 전체 | 1,150 | 417 | 396 | 337 | | 3,059 |
| 서초구 | 직접일자리 | 763 | 352 | 220 | 191 | 12.7 | 1,967 |
| | 고용서비스 | 9 | - | 9 | - | | 200 |
| | 전체 | 772 | 352 | 229 | 191 | | 2,167 |
| 강남구 | 직접일자리 | 1046 | 282 | 329 | 436 | 16.5 | 2,780 |
| | 전체 | 1782 | 1009 | 380 | 393 | | 3,312 |
| 송파구 | 직업능력개발훈련 | 13 | 8 | 5 | - | 37.1 | 59 |
| | 고용서비스 | 18 | 13 | 5 | - | | 429 |
| | 전체 | 1813 | 1030 | 390 | 393 | | 3,800 |
| | 직접일자리 | 1,935.6 | 715.5 | 708.6 | 432.4 | | 99.8 |
| 고용장려금 | 14 | 1.6 | 4 | 8.4 | 100 | | |
| 전체 | 1,949.5 | 717.1 | 712.6 | 440.8 | 3,997 | | |

○ 일자리 지원사업의 유형별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만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고, 노원구나 은평구와 같이 상대적으로 직접 일자리 외에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라도 직접 일자리의 예산 비중이 97%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임금을 보조해주는 데 그치는 직접 일자리 사업보다는 민간기업

에 취업·재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기술·능력을 개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일자리 사업 전환이 필요함.

<표 5-7> 서울시 자치구별 장년·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유형별 예산(단위: 천만원)

| 자치구 | 직접 일자리 | 직업능력 개발훈련 | 고용서비스 | 고용장려금 | 창업지원 | 기타 | 전체 |
|------|-------------------|---------------|----------------|---------------|---------------|---------------|------------------|
| 종로구 | 1431 (100) | - | - | - | - | - | 1431 (100) |
| 중구 | 784.4 (96.3) | 30.3 (3.7) | - | - | - | - | 814.7 (100) |
| 용산구 | 1218.5 (100) | - | - | - | - | - | 1218.5 (100) |
| 성동구 | 13.8 (100) | - | - | - | - | - | 13.8 (100) |
| 광진구 | 1302 (100) | - | - | - | - | - | 1302 (100) |
| 동대문구 | 894 (99.8) | 1.5 (0.2) | - | - | - | - | 895.5 (100) |
| 중랑구 | 873 (100) | - | - | - | - | - | 873 (100) |
| 성북구 | 1,531 (87.6) | - | - | - | 217 (12.4) | - | 1,748 (100) |
| 강북구 | 871 (100) | - | - | - | - | - | 871 (100) |
| 도봉구 | 1,448 (100) | - | - | - | - | - | 1,448 (100) |
| 노원구 | 6,368.4 (97.3) | 3.4 (0.1) | 112.6 (1.7) | 61.8 (0.9) | - | - | 6,546.2 (100) |
| 은평구 | 1,739.3 (97.9) | 0.97 (0.1) | 29.8 (2.1) | - | - | 6.33 (0.4) | 1,776.4 (100) |
| 서대문구 | 1,561 (100) | - | 0.2 (0) | - | - | - | 1,560.7 (100) |
| 마포구 | 1,083.5 (100) | - | - | - | - | - | 1,083.5 (100) |
| 양천구 | 963.7 (100) | - | - | - | - | - | 963.7 (100) |
| 강서구 | 1,185 (97.9) | 1 (0.1) | - | 24.6 (2) | - | - | 1,211 (100) |
| 구로구 | 1,172 (99.8) | - | 2 (0.1) | - | - | - | 1,174 (100) |
| 금천구 | 1,710 (99.2) | 12.7 (0.7) | - | - | - | - | 1,723 (100) |
| 영등포구 | 1331 (98.2) | 5 (0.4) | - | - | - | 19.8 (1.5) | 1355.8 (100) |
| 동작구 | 1,022 (91.7) | 27 (2.4) | 65 (4.5) | - | - | - | 1,114 (100) |
| 관악구 | 1,147 (99.7) | 3 (0.3) | - | - | - | - | 1,150 (100) |
| 서초구 | 763 (98.8) | - | 9 (0.6) | - | - | - | 772 (100) |
| 강남구 | 1046 (100) | - | - | - | - | - | 1046 (100) |

| 자치구 | 직접 일자리 | 직업능력 개발훈련 | 고용서비스 | 고용장려금 | 창업지원 | 기타 | 전체 |
|-----|-------------------|--------------|-------------|-------------|------|----|------------------|
| 송파구 | 1782 (98.3) | 13 (0.7) | 18 (1.3) | - | - | - | 1813 (100) |
| 강동구 | 1,935.6 (99.3) | - | - | 14 (0.7) | - | - | 1,949.5 (100) |

6장. 결론 : 요약 및 정책방향

1. 주요 결과 요약

[2장] 서울지역 중고령 일자리 현황

- 2020년 기준 서울시 장년·노인층의 취업자 수는 1,782,421명으로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57.4%를 차지했고 실업자는 22,264명(0.7%), 비경제활동연구는 1,301,060명(41.9%)임.
- 남성 취업자 비율(70.8%, 여성 45%)이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 취업자 비중이 70.8%로 가장 높았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았으나 전문대졸과 대졸자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가구주인 경우 취업자 비중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는 상용직이 40%(712,1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용주/자영업자 25.6%(455,011명), 임시직 20.1%(357,056명), 일용직 11.7%(207,772명), 무급가족종사자 2.7%(47,919명) 순이었음. 취업자 중 파견 근로자는 0.7%(8,612명), 용역근로자는 6.6%(84,433명), 특수형태근로자는 1.2%(15,918명)였음.

- 임금근로자 중 현 일자리에서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응답자는 78.7%(1,007,404명)이었고,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응답자는 21.3%(272,088명)이었음.
-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2%(596,886명)로 가장 높았고, 계약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고 있다는 응답은 20.9%(210,625명), 묵시적 관행에 의해 근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응답은 19.8%(199,893명)였음.
-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언제든 그만둔다는 조건, 즉 임시직으로 채용으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았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남.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정규직 선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은 62.2%(100,963명), 임시직은 47.6%(146,269명), 일용직은 48.1%(93,645명), 고용주/자영업자는 25.7%(10,696명)이 정규직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음.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임금이나 근무환경 등 세부 요인별로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평균 점수로 변환한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만족도(2.87점)으로 가장 낮고, 수행 업무 만족도(3.38점)가 가장 높았음.
- 한편 취업자 대상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과 본인의 교육수준 간의 적합도에 대해 조사 결과, 직무와 교육수준이 맞다는 응답이 89.7%로 가장 높았음. 현재 일과 본인의 기

술수준 간 적합도에 대해서도 직무와 기술수준이 맞다는 응답은 90.6%였음.

- 2020년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취업이나 창업 또는 업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3.5%(110,064명)만이 교육·훈련 유경험이거나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목적은 전체 응답자의 78.3%(86,141명)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취업 또는 재취업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는 12.5%였음.

-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간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자는 2%(27,122명), 지난 1개월 간 구직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0.7%(8,994명)이었음.
- 지난 1개월 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장년·노인층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설문 하였는데, 응답자의 61.1%(16,523명)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이전에 일자리를 찾아봤으나 없었기 때문에 구직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2.2%(8,709명)였음.
- 한편 구직자들이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항목별 조사한 결과,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20년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훈연금 등 사회보험 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울시 장년·노인층의 22.6%(699,549명)가 사회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했음.
- 수급받은 (주된)사회보험의 유형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비중이 전체 사회보험 수급의 66.5%(465,053명)를 차지했고, 실업급여(13.6%)가 그 다음으로 높았음. 가족수입이나 여가생활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 만족도(5점 척도)는 가족관계 만족도(3.58점)이 가장 높았고, 가족 수입 만족도(2.93점)가 가장 낮았음.

[3장] 서울지역 은퇴 준비 현황

-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장년·노인층에 은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은퇴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8.5%(1,705,014명)로 가장 많았고, 과거 한 번도 취업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20.8%(606,239명), 은퇴하였다는 응답은 19.2%(559,874명)로 나타났음. 은퇴자 대상 조사에서 자발적 은퇴(69.7%, 419,080명), 비자발적 은퇴(30.3%, 181,920명)보다 2배 높았음.

- 아직 은퇴하지 않고 취업자로 경제활동을 하는 장년·노인층에 현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계획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95.9%(1,577,710명)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장년·노인층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지인 등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42.9%(28,731명)로 가장 많았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이라는 응답은 38%(25,433명)였음.
-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1순위)으로는 생애경력설계(경력진단, 진로설계) 지원(31.4%)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 다음으로는 기업의 고령장려금제도(24.2%)가 중요하다고 나타났음.

○ 아직 은퇴는 하지 않았으나 취업활동은 하고 있지 않은 장년·노인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64.5%(38,958명)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1순위)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문제가 39%였으며, 낮은 임금 및 근로조건(33.3%), 고령자 꺼려하는 문화와 인식(27.7%) 장애요인이었음.
-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전문기관을 통한 재직 중 전직지원프로그램(39%), 생애경력설계 지원(23.4%), 창업 컨설팅 및 자금지원(21.9%),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 알선(11.4%) 순이었음.

[4장] 서울지역 고령 은퇴자 설문조사 결과

○ 첫째, 서울 고령·은퇴노동자의 중장년 시기(35세-54세) 주된 일자리의 특성은 직종의 경우, 사무직·전문직 52.4% > 판매직·서비스직 2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 업종은 민간서비스업이 50.3%로 가장 높았음. 또 44.7%가 1-29인 규모의 사업체에 근무했으며, 고용상태는 64.8%가 정규직으로 확인.

- 중장년기 주된 일자리 특성에서 사무직·전문직에 종사했던 비율은 남성 62.5%, 여성 43.1%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상태에서 남성은 79.6%가 정규직에 종사하였고 여성은 51%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은퇴 이후 재취업 일자리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둘째, 은퇴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의 특성은 직종의 경우, 사무직·전문직 35.4% > 판매직·서비스직 31% 순으로 나타남. 사업체 업종은 민간서비스업이 58.8%로 가장 높았음. 사업체 규모는 58%가 1-29인 규모에 속함. 고용상태는 30.5%가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정규직이 28.3%로 나타남.

- 재취업 일자리의 특성에서 사무직·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남성 46.2%, 여성 23.9%로 나타났으며, 고용상태에서는 남성은 정규직 35.9% > 비정규직(계약직)(26.5%) 순이며, 여성은 비정규직(계약직)(34.9%) > 정규직(20.2%) 순으로 나타남.

<표 6-1> 서울지역 중고령 노동자 은퇴 전후 노동시장 상황 요약(설문조사 결과)

| 은퇴 이전 노동시장 상황 | | | | 현재 주된 일자리 현황 | |
|---------------------|--------------------|------------------|--------------------|---|---|
| 은퇴 이전 증장년 시기 주된 일자리 | | 퇴사 이후 현재 재취업 일자리 | | 노동조건 | 소득 생활 |
| 사무전문직 52.4% | 30인 미만 44.7% | 사무전문직 35.4% | 30인 미만 58% | [평균 노동일] 4.9일 (3인 미만 9.7%) (4일 5.9%) (5일 66.4%) (6일 17.5%) (7일 0.5%) * 6일 이상 기간제 13.7% 시간제 25.0% 65세 이상 16.9% 70대 이상 27.9% | [월평균 소득] 298.8만원 * 여성 203.4 * 남성 401.7 임금 199.4만원 * 여 142.3/남 261 연금 60.0만원 * 여 34.2/남 87.9 그 외 39.3만원 * 여 26.9/남 52.7 |
| 판매서비스직 27.7% | 30-99인 미만 20.6% | 판매서비스 31% | 30-99인 미만 19.9% | | |
| 단순 노무직 9.3% | 300인 미만 10% | 단순노무직 18.1% | 300인 미만 9.7% | [1일 노동시간] 7.7시간 (파견용역 9시간) (시간제 5.3시간) | [생계비] (현재) 189.8만원 * 여성 167.2 * 남성 214.2 (향후) 204.4만원 * 여성 183.0 * 남성 227.5 |
| 생산기능직 6.6% | 300인 이상 24.7% | 생산기능직 10.2% | 300인 이상 12.4% | | |
| 정규직 64.8% | 민 간 서 비 스 50.3% | 정규직 28.3% | 민간서비스 58.8% | [사회보험 미가입] 국민연금 31.8% 고용보험 37.2% 건강보험 3.2% 산재보험 34.7% | [질병 결근] 업무 질한 유경험 13.1% 결근 有 17.0% 결근 생활 어려움 26.1% |
| 무기계약 5.4% | 민간 제조업 17.2% | 무기계약 8.4% | 민간 제조업 15.9% | | |
| 기간제 8.8% | 공 공 부 문 14.1% | 기간제 30.5% | 공공부문 9.7% | | |
| 시간제 5.7% | 기타 18.4% | 시간제 12.4% | 기타 15.5% | | |
| 파견용역 3.2% | | 파견용역 0.9% | | | |
| 일용직 4.3% | | 일용직 6.6% | | | |
| 특고프리랜서 5.4% | | 특고프리랜서 8.0% | | | |
| 고용자영인 0.9% | | 고용자영인 1.7% | | | |

주 : 1) 퇴사 방식 '일반 퇴사 44%, 정년퇴직 30%, 명예퇴직 13.1%, 권고 사직&해고 4%, 기타 8.9%
2) 현재 주된 일자리는 요양보호, 건물 청소, 사무직, 보험설계가, 의류 판매직, 운전, 경리, 서비스판매직 등

○ 셋째, 고령·은퇴노동자의 현재 주당 평균 근무 일수는 4.9일이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7.7시간이 평균인 것으로 확인됨. 월평균 소득의 항목별 평균은 임금소득은 199.4만 원, 연금소득은 60만 원, 임금 외 별도소득은 39.3만 원으로 조사됨.

- 월평균 소득의 남녀격차 확인되며, 평균 임금소득은 남성이 261만 원인 반면, 여성은 142.3만 원으로 나타남. 평균 연금소득은 남성 87.9만 원, 여성 34.2원이며, 임금 외 별도소득에서 남성은 52.7만 원, 여성은 26.9만 원으로 나타남.

○ 넷째,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고령·은퇴노동자의 53.8%가 직장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었고, 미가입 비율은 31.8%로 나타남. 건강보험은 68.7%가 직장 가입이며, 미가입은 3.2%임. 고용보험은 62.8%가 가입되어있으며, 산재보험은 59.2%가 가입함.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으나, 산재처리 여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37.7%가 자비로 처리한다고 응답하였고, 산재처리 신청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9%임. 그러나 산재처리가 안되는 특수고용(7%), 별도 지원 없이 공가 처리(5.2%), 없음(0.2%)은 실질적으로 산재처리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함(280명, 50.1%).

- 다섯째, 은퇴 이후 애로사항으로는 △낮은 소득 수준(31.5%), △건강 문제 및 의료비(25.6%) 등이 가장 많았고, △고령·은퇴자 일감 부족(15.9%), △미래 노후 불안정(6.1%), △고용불안정(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건강의료비(42.6%), △식료품(10.7%), △자기개발/교육훈련(10.6%), △월세/관리비(9.3%), △수도/광열(냉난방)(7.0%), △문화생활 비용(4.7%), △통신비용(3.6%) 등 순이었음.
- 고령·은퇴노동자들에게 소득과 건강 의료 및 일자리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일하는 과정의 산재 기준은 매우 모호할 수 있으며, 과정의 복잡함 등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됨. 따라서 재직 및 구직자 대상 노동시장 및 사회보험 등 기준과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와 교육 필요성이 제기됨.

- 여섯째, 고령·은퇴노동자가 일하며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일하고 싶으나 나이 제한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찾기의 어려움’, ‘취업 가능한 일자의 질이 낮음’, ‘고령자를 위한 취업 정보 얻는 것의 어려움’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고령·은퇴노동자의 다수는 노동을 지속하고자 하고자 하며,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나이로 인한 여러 제약을 우려함. 면접조사 일부 참여자는 고용안정의 중요성 강조함. 고령으로 노동시장 이동이 많은 것, 새로운 취업 정보를 탐색해야 하는 것,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하는 것 등은 고령·은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 일곱째, 고령·은퇴노동자 문제 개선 필요 정책으로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적정 임금이 지급되도록 정책 지원’, ‘저임금, 비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필요성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고령·은퇴노동자에게는 중장년시기처럼 풀타임으로 근무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 따라서 유동적인 시간 운용과 더불어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5장] 중앙 및 서울시 중고령층 일자리 정책 현황

- 중앙정부(고용노동부)는 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구조 변화 흐름에 맞추어 중장년 노동시장,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여건 마련과 주된 일자리를 떠난 이후 재취업을 지원 등이 법제도,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첫째, 중앙 정부 및 고령자 노동시장 법제도화, 정책 방향은 보건복지부(노후지원)와 고용노동부(고령자고용법) 측면에서 추진되었음.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 이행 이후 노후준비 위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제2차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0)이 수립되었지만 이는 선언적인 정책적 접근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률」(2019)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사업주는 이직준비자를 대상으로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나아가, 고용보험 피가입자 평균 1천 명 이상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은 비자발적 이직 예정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둘째,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발표(2017.8.8) 이후,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주로 이동하는 생애경로를 △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으로 설정하고, 각각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있음. 정부는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2018.8)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매칭하여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춤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과 민간기업이 신중년을 채용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중고령 노동시장 정책은 <인생3모작 전직 재취업 지원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및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도 마련, △생애경력 서비스 설계 확대, △전직스쿨 과정 내실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 △신중년의 은퇴 후 사회공헌활동 기회 확대, △중장년 취업지원 기관 운영 등 지원 정책이 있음. 물론 중장년 고용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용자지원, 장년고용 현황조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셋째, 윤석열 정부 시기 고령 노동자 정책 방향은 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2022.12.12.)과 업무계획(2023.1.9.)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여 노동력 감소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고령자가 숙련과 경험을 활용하여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이 담겨 있음.

- 연구회 권고문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고용연장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연금 수급연령 상향, 경제의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고령자고용법상의 60세 법정 정년 제도와 계속고용 노력의무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물론 이미 2020년 1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 또는 재고용)를 도입·시행하고 이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하면 계속고용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였음.

○ 넷째, 서울시 고령사회 노동시장 대응은 2010년대(민선 6-7기)와 2020년대(민선 8기)로 구분될 수 있음. 먼저 서울시는 2010년 7월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2013년에는 「서울어르신종합계획=제1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2013~2015)」을 발표했음. 이러한 계획에 따라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베이비부머 엑스포 개최 △전문가 은퇴자 인재은행 구축 △신노년단체 육성 및 사업 지원 △신노년 정책자문단 구성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음.

- 서울시는 이후에도 2014년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제3기 서울시 지역복지계획(2015~2018)」을 통해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 지원(50+재단 설립, 50+인프라 구축 등)’을 세부 사업으로 제기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시 50+지원사업이 체계를 갖췄으며, 이의 컨트롤타워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이하, ‘50+재단’)을 출연기관 형태로 설립 및 운영하였고, 권역별 50플러스캠퍼스(이하, ‘50+캠퍼스’)와 자치구별 50플러스센터(이하, 50+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다섯째, 서울시는 민선 8기 시기 인생 전환기를 맞은 369만 중장년 세대가 중년의 위기를 넘어 평생 현역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을 발표(2022.12.20.) 했음. 이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 기존 세대연령대별 지원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4050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계획임.

- 2022년 서울시 종합계획은 4050세대를 40대와 50대로 나누고, 이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해서 각각의 연령대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구성한 것이 핵심임. 중장년층은 개개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세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중장년 이외에 50 플러스 세대인 고령자를 위해 생애설계 상담과

연계 지원, 중장년 인생설계 학교, 건광 문화 프로그램도 같이 발표했음.

- 여섯째, 서울시 일자리사업은 5가지 유형(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분류되며, 세부 사업은 서비스 대상이나 자치구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음. 기존 서울시 중고령자를 위한 일자리사업을 중장년 일자리와 어르신 일자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50+정책 일환으로 실시하는 서울시50+보람일자리, 서울50+인턴십, 굿잡5060, 점프업5060, 양코르 전직지원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임.
- 일곱째, 서울시(광역시)를 제외하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 이외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조금 추진하는 정도이고,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고용장려금과 같은 사업은 전담 조직, 인력, 전문성, 예산 부족 등으로 시행하지 거의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임.
 - 2021년 기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전체 사업예산 중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은 1조 4천 7백만원(전체 일자리 예산의 95%)이며, 1개 자치구 평균 5백 9십억원(구비 5천 7백억원 /1개 자치구 평균 2백 2십억원)이었음.
 - 그런데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중고령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은 3천5백1십7억9천만원(1개 자치구당 평균 1,407천만원)이며, 중고령 일자리 참여자 수는 81,464명(1개 자치구당 평균 3,258명)으로 확인됨.

2. 정책방향

- OECD 전체에서 인구의 중간 연령은 현재 40세에서 2050년대 중반에는 45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인구와 근로 연령 인구의 비율(15세-64세)은 2018년 4분의 1에서 2050년 5분의 2로 예측하고 있음(OECD, 2019).
- 향후 고령화 시대에 각 회원국들은 55~64세의 노동시장 포용을 촉진하고, 특히 55~64세 인구의 참여율이 이미 높은 경우에는 65세 이후의 노동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 OECD(2019ab)는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목표에 따라 △조기은퇴 유인 감소 노동공급 정책, △고령자 취업 일자리 증가 노동수요 정책,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조성, △교육·훈련을 확대 노동생산성 정책 4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¹⁵⁾
- 특히 OECD 이사회는 [그림 6-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년 고령화 및 고용 관련 정책으로 정책 목표로 (1) 고령자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2) 고령 노동자 고용 및 유지에 대한 고용주의 장벽 해결, (3) 생애주기 접근 방식을 통해 고령자 고용 가능성 개선을 3개 과제를 채택한바 있음.

[그림 6-1] OECD 고용자 고용지원 정책 방향과 목표



자료 : OECD(2019), 『Working Better with Age』 OECD.

15) <https://www.oecd.org/els/working-better-with-age-c4d4f66a-en.htm>

○ <표 6-2>에서도 확인 가능하 듯, 유럽 주요 국가들의 고령노동자 고용지원 정책 사례를 보면 대체로 인구구조 변화(고령화)와 맞물린 노동시장 정책과 연금정책이 함께 진행되었음. 특히 대부분 법제도(정년 규정과 고용, 유연한 노동시간) 등이 함께 추진되었고 이와 연동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음.

- 문제는 영국처럼 노동시장 내 약자를 보호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보완적 정책 없이 고령 노동과 은퇴의 지연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자칫 경쟁력이 없는 다수의 중·고령자들을 보호하던 사회적 보호 장치의 철회를 만드는 결과를 우리는 우려해야 함. 다수의 국가들의 수년 동의 사회적 합의와 노사정 논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음.

<표 6-2> 주요 해외 국가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 영국,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 | 영국 | 독일 | 네덜란드 | 핀란드 |
|--|---|---|--|---|
| 정책 방향 | 고령 인구 노동시장 참여 적극적 지원·유도 정책 | 고령 증가 노동시장 퇴장방식 변화 | 고령 인구 유연안정성과 지원 | 고령 인구 고용지원과 기술교육 |
| 주요 특징 | 인센티브 정책 고령자 연령 차별 폐지 연금수급 개시 연령 변화 (중·고령 경제 노동 유인 증가, 퇴직 지연 효과) | 노동시간 단축과 조기은퇴 유도 전체 노동시장의 세대별 규모 적절히 조절 변형 고령 유연화, 연금조정 | 고령 친화적 제도 환경과 지원 고령자 재취업, 재배치의 고용가능성 제고 노동조건 기업연금 유연성확대 방식 | 노동력 공급 위기와 실질 은퇴 연령 늦추기 고령자 작업능력 (workability)과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
| 법 제도 | 정년 규정 폐지(2011) 65세 기본연령 → 이후 연령 계속근로요구권 | 정년 연장 법안(2007) 65세 → 67세, 12년부터 단계적 적용 | 정년 연장(2005) 최대 70세까지 연기 | 정년 연장(2005) 63세 → 최대 68세 |
| |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 진정직업 사유(기본정년 연령사유 금지) | | 2014년 연령 제한 없는 일자리 (Vacancies for all ages) 강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 | 공적 연금수급 개시연령 (SPa)의 상향조정(21년 -20년 60세 → 66세, 26-28년 67세, 44년 -46년 68세) | 2014년-2017년 유연연금제(Flexirente) 도입 계 속 근 무 (Weiterführung), 새로운 일자리 취업/재취업 | 2005년 조기퇴직 시 연금급여 측면 페널티 강화 | 2005년 연금개혁 소득비례연금 적용 60세부터 수급 가능 부분연금 58세부터 수급 *파트타임연금&조기퇴직 연금(early old-age pension) 수령 가능 최소 연령 기준(만 58세 → 62세) |
| 유연근무 법제화(2003) 중소기업 중·고령자 노동자 지원 부족, 유연근무 청구, 활용 어려움 제기 | 2010년 고령자단축근무제 대상 국가 재정지원도 폐지 | 2006년 고령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유연성 확대(2000년 노동시간 조정법) | 노동능력지표 도입 고령자 지원 활용 | |
| 지원 정책 | [조기퇴직 유도 복지 프로그램 개혁 변화] 노인 대상 범주형 공공부조 연금크레딧 수급 개시 연령 변화 장애 관련 급여 → 고용 지원수당 개편 ¹⁶⁾ | [고령자촉진 지원정책]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06) 50세 이상 취업활성화 50세 이상 고용과 재훈련 기업 보조금 추가지급 이전 직장보다 적은 임금 | 중고령노동자 직업훈련 참여 확대 및 검증 체계화 : 직무역량 검증(EVC, 2016) 장기실업 위험 예측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설계 고령 구직자 재/취업지원 |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 FINPAW, 1998-2002] : 고령 노동자 고용률 높이기, 평균 연금수급 연령 높이기, 노동행정에서 고령화 이슈 비중 높이기 |

| | 영국 | 독일 | 네덜란드 | 핀란드 |
|-------|--|--|--|---|
| | 직업훈련기관 잡센터 일 자리 매칭 | 이라도 고령자가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기업 의료 상담 프로그램 강화 등 | 프로그램(Talent 55+): 07년 45세 → 10년 55세 고령자 고용 및 신규채용 보조금 지급(mobility bonus)&세제혜택 | 기, 고령 노동자의 노동 능력 유지, 노동시간 유연화 향상, 연령차별 감소 및 고령 호의적 태도 확산 |
| | 기업과 파트너십 통한 고용서비스 정책(Fuller Working Lives) 고령자 고용유지, 재교육 및 채용 개선, 법률 지원 기본퇴직연령제도 폐지 이후 유연근무제도 활용 “50세 이상 유연근무제 프로그램(Flexible Working for over 50s)” 실시(Fuller Working Lives 의제 명칭 “50 PLUS: Choices”) 변경 | | [노동재단] “Diversity at Work” 프로젝트(2015) [정부-기업] “Every Day Better” 프로젝트 취약성 높은 중소기업장 소속 노동자 고용가능성 향상 위해 다양한 지원 | [지학력 중장년 노동자 지원 Noste Programme 2003~2009] : 30-59세 대상 교육 및 직업훈련(자격증 등) |
| 주요 지표 | [65세 20%: 초고령] 2025년 [65세 인구 비율] 18.9% [65세 고용율] 21.0% | 2008년 22.2% 15.5% | 2022년 20.0% 13.1% | 2015년 22.9% 13.8% |

주 : 한국 초고령화 인구 비율 20% 도달 년도 2025년, 65세 인구 비중 16.6%, 65세 이상 고용율 45%
 자료 : 이승호·손동영·박명준·이다미·주은선(2022),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 영, 독, 네, 핀」, 《국제노동 브리프》, Vlo 20, No11, 2022-12, 한국노동연구원, 9~56쪽의 각 국가별 현황, 주요 지표 및 일부 내용 필자 추가 보완 재구성.

- 그렇다면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에서는 현재 정부의 「고령자 촉진」 「노후준비 지원 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지원 서비스 및 일자리 정책을 총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서울시는 생애설계 준비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인 중장년 및 고령자 대상 정책과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서울시는 중장년기부터 노년기에 점진적 은퇴준비 및 계속고용 등 생애주기 각 단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노후준비 및 중고령 일자리 고용 정책을 모색해야 함. 이는 영국,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정책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넓히고(40세-70세), 지원 법률(차별, 연금, 고용, 근무 등)을 제정했듯 자치법규(조례)와 정책 및 사업 영역(공공, 민간), 다양한 파트너십(정부-기업-노동, 정부-기업 등)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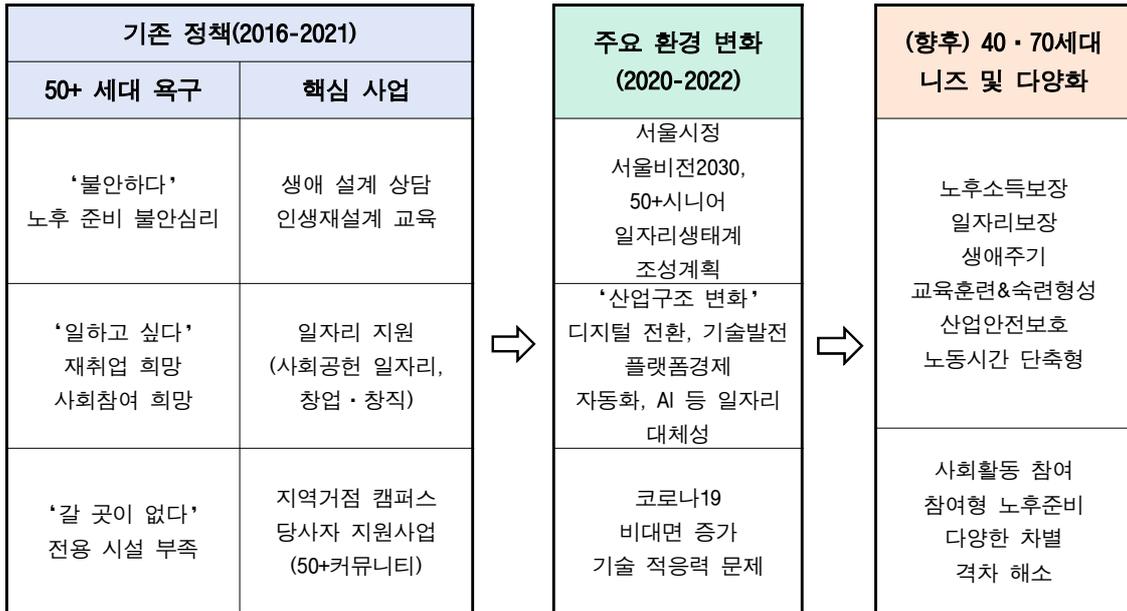
16) 영국 고용지원수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지급 조건으로 구직 노력을 요함.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역량평가(Work Capability Assessment)를 실시하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자들을 “근로 적합(fit for work)”, “근로 관련 활동 가능(work related activity group)”, “근로 불가능(support group)” 세 개 집단으로 분류함. 그리고 근로 불가능 집단을 제외한 두 개 집단에 속한 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주당 최대 35시간까지의 구직활동의 의무를 부여함(손동호, 2022).

<표 6-3> 서울지역 중고령 및 은퇴자 전후 고민과 정책 지향 요구도

| 은퇴 이후 노동시장 및 생활 고민 | | 은퇴 고령 재취업 정책 필요 의견(점수: 0점-100점) | | | |
|-------------------------|-----------------|---------------------------------|--------------------------|--|------|
| 은퇴 이후 애로 사항 | 낮은 소득 수준(경제 빈곤) | 31.5% | 은퇴/고령자 일하면서 애로 사항 | 1) 일하고 싶으나 나이 제한 때문에 일 자리 얻거나 취업하기 어렵다 | 75.9 |
| | 건강 문제 및 의료비 문제 | 25.6% | | 2) 나이로 인해 일자리 또는 직장에서 차별받았다(예: 보수, 업무, 직책 등) | 58.5 |
| | 고령/은퇴자 일자리 부족 | 15.9% | | 3) 나이에 적합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없었다(예: 직무성격, 근로시간 등) | 62.3 |
| | 미래 노후 불안정 | 6.1% | | 4) 고령자를 위한 취업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 69.3 |
| | 고용불안정 | 4.3% | | 5)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 71.5 |
| | 대인 관계 단절 | 4.1% | | 6) 노년기에 새 일자리 찾는데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기 힘들었다 | 66.5 |
| | 구인구직 정보 부족 | 3.6% | | 7)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은퇴해야 했다 | 67.6 |
| | 고령 일자리 열악 노동조건 | 3.0% | | 8) 취업 가능한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낮다(예: 저임금, 기피하는 업무 등) | 70.8 |
| | 주거생활 및 주택문제 | 3.0% | | 9) 나이 때문에 일자리에서 무시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 46.3 |
| | 자녀들과 소통 및 단절 | 1.6% | | 1)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정책 지원 | 80.3 |
| | 구인구직 재취업 훈련 부족 | 0.7% | | 2) 저임금, 비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 | 80.0 |
| | 휴일휴가 등 여가시간 부족 | 0.5% | | 3) 은퇴노동자 소득안정 지원 정책 | 62.3 |
| 은퇴 이후 정부 지원 요구 항목 | 건강의료비 | 42.6% | 은퇴 고령자 개선 필요 정책 | 4) 경력단절 예방 및 구직 상담 | 75.9 |
| | 식료품 | 10.7% | | 5) 재취업 노동자 대상 기업 지원 유도 | 76.7 |
| | 자기계발(교육훈련) | 10.6% | | 6) 은퇴 노동자 교육훈련 및 지원 | 77.5 |
| | 월세/관리비 | 9.3% | | 7) 은퇴노동자 모임 형성 및 정보교환 사업 지원 | 72.4 |
| | 수도/광열(냉난방) | 7.0% | | 8) 건강진단 지원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 | 80.0 |
| | 문화 생활 | 4.7% | | 9) 나이를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기업문화 개선 | 75.8 |
| | 통신비용 | 2.7% | | 10)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 80.8 |
| | 부채상환/이자 | 2.7% | | 11) 노동조건이 낮은 일자리라도 고령자 취업 기회 확대 | 77.1 |
| | 월 저축 | 2.5% | | 12) 고령·은퇴자 협의체 운영 및 지원 사업 | 74.3 |
| | 민간보험금 | 2.5% | | | |
| | 경조사 비용 | 0.7% | | | |
| | 의류 미용 | 0.5% | | | |

- 둘째, 지자체의 역할은 노후준비지원법(제9조의 2, 제10조(2022.6.22. 개정))에도 명시되어 있음. 이는 급증하는 복지지출에 대응하여 개인의 재무관리에 치중했던 정책을 빈곤 질병·무위·고독 등 다차원적인 사회적 위험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함. 지자체의 역할은 고령자고용법(제5조 구인·구직 정보수집, 제16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에 있듯 현재의 구인구직 서비스 전달 및 지원기구를 실효적으로 재편 운영하고, 공공부문에 있어 자치구와 함께 일자리 사업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림 6-2] 서울시 중장년 노후준비, 중고령·은퇴 일자리 지원 정책 방향(안)



* 주 : 강소량(2022),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노후준비와 정책제언』, 서울시의회 발표자료를 연구진 수정 보완 재구성.

- 셋째, 고령사회 주요 인적 자원인 중장년에 대한 노후정책 지원 기초와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이 강화됨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지원기구와 전달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노후 및 일자리지원센터 개편은 중장년 및 고령자 대상으로 추진하되, 기존 50플러스재단/50플러스캠퍼스(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50플러스센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재편하여 활용해야 함.
- 넷째, 서울시에서 기존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카페를 자치구와 함께 고령 일자리 준비에 맞춤형으로 재편하고, 기술교육원 및 평생교육 시설에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저학력, 저숙련 유급교육훈련+일자리 제공 매칭)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유럽처럼 고령자 차별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방 행정자원(고용장려금, 세액공제, 시설 환경비 일부 지원 등)을 활용하는 것임.
- 다섯째, 서울시가 고령화 사회에 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정책으로는 소득보장과 일자리지원 이외에 다양한 사회정책을 모색해볼 수 있음. 대표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저소득 고령층 애로사항인 보건의료&건강문제 지원(65세 이상) 및 주거복지 지원(전월세 금융대출 이차보전)과 같은 융합하여 패키지로 검토하는 것임.

<참고문헌>

- 강소량(2022),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노후준비와 정책제언』, 서울시의회.
- 김경희 외(2021), 「2020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김태완 외(2020), 『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진(2021), 「정년연장과 청년실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한국의 논점 2022』, 북바 이북. 97~106쪽.
- 남재량(2019), 『고령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고용시스템의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2021),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와 빈곤 : 주된 일자리 이동과 빈곤」, 《노동리뷰》, 2021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김동배(2020), 『중고령층 노동시장의 특성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34~34쪽.
- 남재량·김선빈·장용성·한종석(2020), 『주된 일자리 고령층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명준(2022), 「독일의 고령노동자 고용촉진정책: 근래의 경향과 한국적 시사점」, 《국제노동브리프》, Vlo 20, No11, 2022-12, 한국노동연구원, 21~32쪽.
- 이다미(2022), 「네덜란드의 고령자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국제노동브리프》, Vlo 20, No11, 2022-12, 한국노동연구원, 33~42쪽.
- 이원진(2021),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와 빈곤 : 고령자의 노동계적과 소득, 빈곤의 관계」, 《노동리뷰》, 2021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1~33쪽.
- 이승호(2021),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와 빈곤 :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유형과 특성」, 《노동리뷰》, 2021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호·이원진·김수영(2020), 『고령 노동과 빈곤』, 한국노동연구원.
- 이윤경 외(2019),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주환·이상범(2021), 『퇴직노동자 재취업지원을 위한 지역노사정 협력방안 연구』, 한국노동총서 서울본부.
- 손동영(2022), 「영국의 중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국제노동브리프》, Vlo 20, No11, 2022-12, 한국노동연구원, 9~20쪽.
- 주은선(2022),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국제노동브리프》, Vlo 20, No11, 2022-12, 한국노동연구원, 43~56쪽.
- Dorothea Schmidt-Klau et al(2022), 「고령근로자의 이행과 활동적 노화 : 글로벌적 관점과 정책적 의미」, 《국제노동브리프》, 2022년 4월호(Vol.20. No.4), 한국노동연구원. 22~36쪽.

OECD(2019b), 『Working Better with Age, 』 , OECD.

OECD(2019a), 『Pensions at a Glance 2019』 , OECD.

<부록1>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장년·노인 일자리 현황¹⁷⁾

<부표1> 종로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1,431 | 3,195 |
| 직접일자리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828 | 2,806 |
| |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 3 | 4 |
| | 구청사 시설 기본 유지관리 | 3 | 1 |
| | 보안, 방호체계구축 | 9 | 4 |
| | 지방세 부과징수 | 1 | 5 |
| | 안전자문관 운영 | 3 | 1 |
| | 불법광고물 정비 | 4 | 1 |
|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 29 | 9 |
| | 청소차량 운전원 관리 | 2 | 1 |
| | 종로구 클린넷 운영 | 2 | 1 |
| | 서울365청결 기동대 운영 | 63 | 24 |
| | 자원관리 도우미사업 | 20 | 17 |
|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2 | 1 |
|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 3 | 2 |
| |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 4 | 3 |
| | 북인사관광안내소 운영 | 7 | 2 |
| | 남인사관광안내소 운영 | 6 | 2 |
| | 인사동홍보관 운영 | 17 | 5 |
| | 인사동길 차없는 거리 운영 | 7 | 4 |
| |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채용 | 80 | 99 |
| |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 | 2 | 56 |
| |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구축 | 9 | 9 |
| | 북촌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 | 12 | 5 |
| |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평가 | 3 | 2 |
| |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 3 | 1 |
|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 9 | 3 |
| | 위기가구 통합지원센터 운영 | 1 | 1 |
|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3 | 1 |
|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전담인력) | 2 | 1 |
|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 | 4 | 5 |
| | 가사간병 서비스 | 4 | 8 |
| |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 | 21 | 5 |
| | 산마루놀이터 유지관리 | 15 | 3 |
| | 시공원 유지관리 | 33 | 19 |
| | 중요광장유지관리 | 15 | 5 |
| | 황학정 국궁장 유지관리 | 9 | 6 |
| | 가로녹지대 기동반 운영 | 33 | 12 |

17) 이 자료는 2021년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일자리사업 원자료를 분석한 것임.

| | | | |
|--|------------------------|----|----|
| | 수목식재 사후관리 | 48 | 13 |
| | 도시농업 활성화 | 19 | 6 |
| | 일반병해충방제 | 8 | 4 |
|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 4 | 3 |
|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 4 | 2 |
| | 산림서비스증진(산림서비스 도우미운영) | 2 | 1 |
| |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 | 8 | 12 |
| |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 21 | 5 |
| | 지하보자도시설 유지관리 | 7 | 2 |
| | 도로굴착 복구 | 7 | 2 |
|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 2 | 1 |
| | 주차시설물 정비 | 5 | 2 |
| | 식품위생 서포터즈 | 3 | 1 |
| | 방역소독 | 13 | 4 |
| | 결핵관리 | 3 | 1 |
| |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 3 | 1 |
| | 건강검진사업 운영 | 3 | 1 |

<부표2> 증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814.7 | 2,024 |
| 직접일자리 | 고령(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 128.6 | 68 |
| | 고령(노인)일자리사업 | 597.1 | 1,748 |
| | 지역봉사일자리사업 | 58.7 | 132 |
| 직업능력개발훈련 |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0.3 | 40 |
| | 신중년의아름다운도전, 지역상생일자리플랫폼사업 | 30 | 36 |

<부표3> 용산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1,218.5 | 3,012 |
| 직접일자리 | 골목청결지킴이 인건비 | 64 | 66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570 | 1,464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570 | 1,464 |
| | 용산공예관 판매장 및 체험장 어르신근로자 보수 | 11 | 15 |
| |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 3.5 | 3 |

<부표4> 성동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13.8 | 10 |
| 직접일자리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 13.8 | 10 |

<부표5> 광진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1,302 | 2,904 |
| 직접일자리 | 아차산향토자료실 향토사학자 운영 | 2 | 1 |
| | 보훈일자리사업 | 3 | 14 |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760 | 2,404 |
| | 경로당 순회관리프로그램 지원 | 3.7 | 1 |
| |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 4.1 | 3 |
| | 구립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운영 | 3 | 15 |
| | 중곡보건지소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재활치료실 운영 | 3 | 1 |
| | 자양공공힐링센터 운영 | 3 | 1 |
|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 1 | 2 |
| |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토털홈케어서비스 | 19 | 13 |
| | 50+세대 인생이모작프로그램 지원(50+ 상담센터 운영) | 3 | 4 |
| | 50+ 사회공헌 일자리 운영 | 26 | 73 |
| | 50+ 인턴십 운영 | 12 | 30 |
| | 민원상담관 운영 | 2 | 1 |
| | 취미,생활체육교실 | 4 | 2 |
| | 통계조사 실시 | 28 | 61 |
|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35 | 76 |
| | 공중화장실 기간제 근로사업 | 36 | 12 |
| | 등절기 골목길 전담 청소 | 22 | 30 |
| | 무단투기단속반 운영사업 | 19 | 7 |
| | 청소분야 기간제 근로사업 | 19 | 7 |
| | 재활용분리배출홍보요원기간제 | 5 | 6 |
| | 행정차고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사업 | 2 | 1 |
| | 환경미화원노조 기간제 근로사업 | 2 | 1 |
| | 청소차량 정비지원 기간제 근로사업 | 2 | 1 |
| | EM보급사업 | 2 | 1 |
|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단) | 8 | 6 |
| | 일반병해충 방제 | 7 | 3 |
| | 산사태 현장예방단 | 5 | 4 |
|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 | 2.4 | 1 |
|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2.2 | 1 |
| | 숲가꾸기사업 | 6 | 1 |
| 도시농업활성화사업 | 11 | 6 | |
| 아차산공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 | 23 | 7 | |

| | | |
|--------------------------|-----|----|
| 가로수, 정자마당, 띠녹지 유지관리 | 17 | 7 |
|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 12 | 5 |
| 소공원 유지관리 | 2 | 1 |
| 마을마당 유지관리 | 10 | 4 |
| 산림보호관리 | 7 | 3 |
| 녹지대 및 중량천 녹지 유지관리 | 37 | 15 |
| 청춘뜨락 유지관리 | 2 | 1 |
| 광진숲나루 유지관리 | 7 | 3 |
|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 3 | 11 |
| 중소형 민간 건축안전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 1.6 | 14 |
| 노후조적조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진단) 실시 | 3 | 11 |
| 자전거순찰대 사업 | 12 | 5 |
| 방역소독사업 | 6 | 4 |
| 치매관리사업 | 76 | 17 |
| 모자보건사업 | 3 | 2 |
| 건강돌봄 서비스 | 18 | 4 |

<부표6> 동대문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전체 | | 895.5 | 2,766 |
| 직접일자리 | 20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자체) | 157 | 546 |
| | 20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민간) | 737 | 2129 |
| 직업능력개발훈련 | 중장년층 경비원 양성 교육 | 1.5 | 91 |

<부표7> 중랑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전체 | | 873 | 2,042 |
| 직접일자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628 | 1,946 |
| | 실버카페 운영 지원 | 141 | 36 |
| | 도로굴착 복구 | 3 | 1 |
| | 하수도 준설 | 55 | 35 |
| |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 26 | 15 |
| |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 11 | 5 |
| | 가로관리 단속 보조원 인건비 | 9 | 4 |

<부표8> 성북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1,748 | 3,334 |
| 직접일자리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1,156 | 3,102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346 | 172 |
|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0 | 0 |
|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 29 | 8 |
| 직업능력개발훈련 | 혁신산업지원(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 16 | 31 |
| |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 경영개선 촉진사업) | 1 | 1 |
|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 200 | 20 |

<부표9> 강북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871 | 2,829 |
| 직접일자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871 | 2,829 |

<부표10> 도봉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1,448 | 67 |
| 직접일자리 | 숙직전담 요원 | 172 | 6 |
| | 마을관리사 운영 | 195 | 14 |
| | 찾아가는 직업상담사 운영 | 81 | 4 |
| | 물가조사원 운영 | 16 | 14 |
| |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 52 | 2 |
| | 청소업무지원(지역 및 가로청소) | 383 | 12 |
| |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선별작업 | 385 | 10 |
| | 공중화장실 관리 | 164 | 5 |

<부표11> 노원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 | | |
|-------|------------------------|---------|--------|
| | 전체 | 6,546.2 | 10,388 |
| 직접일자리 | 어르신사회활동지원 사업 | 1,562.5 | 4,559 |
| | 청춘실버카페운영(월계청춘카페) | 7.0 | 22 |
| | 청춘실버카페운영(공릉청춘카페) | 6.7 | 23 |
| | 청춘실버카페운영(노원실버카페) | 8.9 | 23 |
| | 어르신재능기부단 구성 | 3.8 | 40 |
| | 치매공공 후견사업 | 0.4 | 2 |
| | 보훈회관 운영 | 14.3 | 2 |
| | 중계온마을센터 운영 | 9.1 | 9 |
| | 노원문화원 문화해설사 육성 | 0.8 | 33 |
| | 노원평생교육원 운영 | 16.2 | 66 |
| | 공릉평생교육원 운영 | 14.4 | 24 |
| | 평생교육원 장미실습장 운영 | 11.4 | 19 |
| | 정보화교육장 운영 | 14.3 | 8 |
| | 나도셰프다 프로젝트 | 11.8 | 7 |
| |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 | 23.0 | 42 |
| | 20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 6.0 | 1 |
| | 지역특화사업 | 3.6 | 1 |
| | 공공근로 사업 | 408.0 | 547 |
| | 희망근로지원사업 | 266.1 | 306 |
| | 2차 희망일자리사업 | 265.1 | 327 |
|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28.9 | 34 |
|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 52.0 | 75 |
| | 뉴딜일자리 전통시장매니저 사업 | 3.1 | 1 |
| | 뉴딜일자리 소상공인회 매니저 사업 | 3.1 | 1 |
| | 고용유지지원금사업현장접수처 | 35.0 | 2 |
| | 시-구 협력 민생대책 사업 현장접수처 | 582.9 | 2 |
| | 물가관리 | 3.8 | 5 |
| | 개별주택가격재정 업무부조 | 3.0 | 2 |
|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운영 | 1.5 | 6 |
| | 공공복지서포터즈 | 9.0 | 17 |
| | 통합사례관리사 | 24.3 | 6 |
| | 우리동네돌봄단(노원똑똑돌봄단) 운영 | 77.2 | 196 |
|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 2.0 | 3 |
| | 자활근로사업 | 1,170.5 | 840 |
| | 자활사례관리 보조인원 | 2.8 | 1 |
| |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 | 505.3 | 241 |
| |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운영 | 9.8 | 3 |
| |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사업 | 331.6 | 14 |
| | 거점장애인복지관 보조인력 | 5.6 | 1 |
| | 다모인 운영 | 3.7 | 1 |
| | 어린이집 현장활동보조인력 | 1.9 | 1 |
|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2.4 | 10 |
| | 서울시 뉴딜일자리 아동복지시설 돌봄지원가 | 10.0 | 6 |
| |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15.3 | 5 |
| | 청소년(마을)방과후 활동 이음단 | 3.5 | 1 |
| | 지구의 길 운영 | 1.2 | 4 |
| | 역사의 길 운영 | 2.1 | 9 |

| | | |
|-------------------------------|------|-----|
| 도로굴착복구업무보조 | 4.0 | 1 |
| 실내공기질 어린이집 모니터링 활동 | 0.2 | 7 |
|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 4.7 | 2 |
| 표범장지뱀 모니터링 및 교육 운영 | 1.4 | 10 |
| 이지센터 해설사 | 0.2 | 10 |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 1.1 | 1 |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 2.0 | 5 |
|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 11.6 | 37 |
| EM(유용미생물)보급사업 | 6.0 | 1 |
| 클린하우스및거점수거의날운영 | 4.2 | 7 |
| 하천유지관리원(기간제근로자) 운영 | 26.7 | 9 |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운영 | 6.3 | 2 |
| 근린공원 유지관리 | 53.2 | 14 |
| 꽃묘식재유지관리(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 | 16.1 | 10 |
| 목예원운영 | 29.1 | 7 |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16.5 | 4 |
| 산사태현장에방단 | 2.8 | 3 |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14.5 | 7 |
|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생태계 교란식물 관리 | 6.6 | 1 |
| 수목식재사후관리사업 | 40.4 | 15 |
| 숲 가꾸기 | 18.5 | 4 |
| 시공원 유지관리 | 46.4 | 4 |
|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 29.8 | 11 |
| 어린이놀이터모래소독 | 5.5 | 3 |
| 등산로 및 둘레길 유지관리 | 16.4 | 5 |
| 화랑대철도공원 유지관리 | 3.4 | 3 |
| 공공도시텃밭 운영 | 4.8 | 3 |
| 노원 불빛정원 운영 | 29.4 | 2 |
| 생태 학습관 운영 | 10.1 | 2 |
| 도시숲자원화 및 희망목공소 운영 | 4.4 | 2 |
| 불암산나비정원 운영 | 54.1 | 4 |
|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 2.1 | 1 |
| 산림치유센터 운영 | 40.0 | 8 |
| 서울형치유의숲길 운영 | 2.5 | 1 |
| 유아숲체험장 운영(영축산) | 23.6 | 10 |
| 초안산 도자기체험장 운영 | 14.9 | 2 |
| 나무상상놀이터 운영 | 2.9 | 1 |
| 노원정원지원센터 운영 | 43.0 | 4 |
| 화랑대 철도공원 기차카페 운영 | 20.5 | 2 |
| 녹색복지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 10.9 | 4 |
| 불법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운영 | 3.2 | 2 |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10.0 | 28 |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 0.2 | 8 |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1.4 | 4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 9.6 | 109 |
| 원산지명예감시원 운영 | 1.1 | 4 |

| | | | |
|----------|--------------------------|------|-------|
|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0.4 | 4 |
| |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 1.2 | 16 |
| | 노원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 22.2 | 2 |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아동청소년 건강증진) | 5.7 | 2 |
| | 구민 건강생활 실천 | 3.3 | 1 |
| | 이웃사랑봉사단 심리상담요원 운영 | 20.8 | 57 |
| | 국가암검진 사업 | 67.5 | 1 |
|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 14.7 | 1 |
| | 공릉평생건강관리사업 | 16.9 | 4 |
| |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 | 10.2 | 3 |
| |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 4.3 | 3 |
| 직업능력개발훈련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3.4 | 12 |
| 고용서비스 | 맞춤형 구인구직활성화 | 8.2 | 1,083 |
| |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운영 | 8.0 | 98 |
|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 | 29.5 | 52 |
| | 노원50플러스센터 고용서비스 | 43.0 | 817 |
| |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고용서비스 | 23.9 | 47 |
| 고용장려금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 14.8 | 11 |
|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 6.8 | 10 |
| | 내일키움통장사업 | 19.8 | 185 |
| | 희망키움통장사업 | 20.4 | 47 |

<부표12> 은평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1,776.35 | 5,920 |
| 직접일자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 1,632.40 | 5,696 |
| | 셋이서문학관 운영 | 4.55 | 1 |
| | 은평한옥마을회관 운영 | 3.10 | 1 |
| | 문화재 경비인력 운영 | 23.90 | 8 |
| | 문화재 관리 및 유지 보수 | 2.20 | 1 |
| | 뉴딜일자리사업(방문복지코디네이터) | 33.20 | 14 |
| |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 13.90 | 62 |
| | 발달지체 영유아 맞춤보육 지원사업 | 1.90 | 2 |
| | 불법광고물 정비(기간제근로자) | 9.20 | 4 |
|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 14.90 | 35 |
| 직업능력개발훈련 | 희희낙락 은평에서 놀자 (구 어르신 놀이지도자 양성 사업) | 0.97 | 6 |
| 고용서비스 | 어르신일자리센터 지원 | 29.80 | 88 |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서민금융복지 상담 지원 | 6.33 | 2 |

<부표13> 서대문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1,560.86 | 5,283 |
| 직접일자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전담인력(구직영) | 27.85 | 8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구직영, 민간위탁) | 1,408.70 | 5,066 |
|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 6.56 | 2 |
|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 2.48 | 1 |
| | 경로당 활성화 지원 인력 | 3.20 | 1 |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일자리 서포터즈) | 4.94 | 2 |
| | 보건소 청사관리 인력 | 9.17 | 3 |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작은도서관 활성화 촉진가) | 9.88 | 4 |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 13.36 | 5 |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한국어 교육강사) | 1.32 | 1 |
| |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 3.70 | 1 |
| | 열린육아방 운영 | 8.30 | 2 |
|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지원센터 상담사 | 1.30 | 2 |
| | 키즈클린플러스사업 | 59.90 | 45 |
| 고용서비스 | 노인회지회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지원 | 0.20 | 140 |

<부표14> 마포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1,083.5 | 3,294 |
| 직접일자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 1,083 | 3,294 |
| | 노인일자리 박람회 | 0.5 | - |

<부표15> 양천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963.7 | 2,733 |
| 직접일자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963.7 | 2,733 |

<부표16> 강서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 | | |
|----------|--------------------|---------|-------|
| | 전체 | 1,210.8 | 3,503 |
| 직접일자리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1,177 | 3,432 |
| |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 5.8 | 8 |
| | 방역관리 강화 | 2.4 | 1 |
| 직업능력개발훈련 | 경비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1 | 49 |
| 고용장려금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 9.3 | 4 |
| | Special-support 사업 | 7.4 | 5 |
| | 꿈뽕도우미 | 7.9 | 4 |

<부표17> 구로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1,174 | 4,016 |
| 직접일자리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 7 | 22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 1,143 | 3,884 |
| | 하천변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 | 16 | 6 |
| | 신중년 사회 공헌활동지원사업 | 6 | 46 |
| 고용서비스 | 경비원 취업지원교육 | 2 | 58 |

<부표18> 금천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1,722.8 | 4,239 |
| 직접일자리 |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 975 | 3,621 |
| | 노인통합지원서비스사업 | 169 | 85 |
| | 금천50+센터 및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 100 | 104 |
|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 52 | 90 |
| | 금천일자리주식회사 | 0 | 72 |
| |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 12.2 | 12 |
| | 금천구평생학습관운영 | 14.2 | 71 |
| | 전통시장매니저 | 15 | 5 |
| | 개별주택 가격조사 | 1.8 | 4 |
| | 금나래 중앙공원 유지관리 | 7.6 | 3 |
| | 공원시설 유지관리 | 28 | 16 |

| | | | |
|----------|------------------|------|----|
| |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 12.7 | 6 |
| | 단독주택 병해충 방제 | 4.5 | 3 |
| | 산림재해예방 | 11 | 5 |
| | 산림유지관리 | 19.8 | 8 |
| |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 44 | 18 |
| | 안양천 녹지대 관리사업 | 7.7 | 3 |
| | 안양천 하천녹지 유지사업 | 22.5 | 10 |
| | 교통유발 부담금 전산입력 | 5.7 | 7 |
|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 2.8 | 10 |
| |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 14.5 | 4 |
| | 복숭아마을 지역재생활동가 근무 | 2.7 | 2 |
| | 새벽일자리쉼터 운영 | 7.4 | 3 |
|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 | 1 | 2 |
|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요원 | 117 | 23 |
| | 방역소독사업 | 27 | 7 |
| |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지도사 | 6 | 12 |
| | 방문건강관리사업 | 21 | 3 |
| | 정신건강증진사업 | 8 | 2 |
| 직업능력개발훈련 | 금천마을사서운영 | 12 | 26 |
| | 중장년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 0.7 | 2 |

<부표19> 영등포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1,355.8 | 4,707 |
| 직접일자리 | 늘푸름학교 매니저 | 8.4 | 6 |
| | 신중년 일자리 설계사 | 9.8 | 5 |
| | 감정노동자 상담심리 서비스 사업 | 2.4 | 3 |
|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행복커뮤니티 ICT 돌봄 서비스) | 7.4 | 3 |
| | 청소봉사대 운영 | 43.8 | 274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1190.7 | 4,054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구비추가) | 17.8 | 70 |
| | 클린하우스 청결관리인 | 14 | 41 |
| |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 | 36.7 | 180 |

|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 | 중장년·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 5 | 71 |
| 기타 | 중장년일자리희망플랫폼 | 19.8 | |

<부표20> 동작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전체 | | 1,114 | 10,550 |
| 직접일자리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1,017 | 3,214 |
| |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 5 | 40 |
| 직업능력개발훈련 |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 13 | 138 |
| | 동작50+센터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 14 | 3,630 |
| 고용서비스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 8 | 3,008 |
| | 동작50+센터 운영 및 일자리 연계 사업 | 57 | 520 |

<부표21> 관악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전체 | | 1,150 | 3,059 |
| 직접일자리 | 노인일자리 사업 | 1,145 | 3,022 |
| | 위기가정지원센터 상담원(기간제근로자) | 2 | 2 |
| 직업능력개발훈련 | 중장년 취업 재도약 프로그램 | 3 | 35 |

<부표22> 서초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전체 | | 772 | 2,167 |
| 직접일자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 621 | 1711 |
| | 스마트시니어IT시니어서포터즈운영 | 8 | 12 |
| | 신중년 경력활용 베이커리공방 운영 | 3 | 1 |
| | 재활용품 선별 | 112 | 40 |
| |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 8 | 3 |
| |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 11 | 200 |
| 고용서비스 |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 | 9 | 200 |

<부표23> 강남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1,046 | 2,780 |
| 직접일자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1046 | 2780 |

<부표24> 송파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 전체 | 1,813 | 3,800 |
| 직접일자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780 | 2,700 |
|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 247 | 116 |
| |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 | 61 | 245 |
| | 주차장 관리 | 203 | 35 |
| |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 30 | 4 |
| | 하천시설 및 지하보도 관리 | 106 | 43 |
| | 거주자주차 및 견인보관소 운영 | 31 | 5 |
| | 체육문화회관 운영 | 27 | 6 |
| |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 4 | 1 |
| |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교사 운영 | 8 | 8 |
| | 서울을 이끄는 50+희망일자리 컨설턴트 | 18 | 6 |
| | 서울을 이끄는 50+ 말벗 활동단 | 15 | 50 |
| | 송파요리창작소 운영 | 10 | 4 |
|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 11 | 8 |
| | 동네체육시설 관리 | 24 | 7 |
| | 문화재시설유지관리 | 24 | 11 |
| | 문화재 돌봄 사업운영 | 16 | 8 |
| | 문화재시설 경비인력 | 14 | 5 |
| | 청사시설 및 주차장 관리 | 99 | 12 |
| | 동 구내식당 운영 | 32 | 15 |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운영 | 22 | 23 | |
| 직업능력개발훈련 | 송파요리창작소 운영 | 10 | 7 |
| | 중장년 재취업(일반경비원) 양성 | 1 | 50 |
| | 중장년 재취업(요양보호사) 양성 | 2 | 2 |

| | | | |
|-------|-----------------|----|-----|
| 고용서비스 | 시니어클럽(시니어컨설팅센터) | 13 | 180 |
| | 송파노인종합복지관 | 5 | 147 |
| |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 | 102 |

<부표25> 강동구 노인·중장년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일자리 총예산 (단위 : 천만원) | 일자리 규모 (총 인원) |
|-------|------------------------|-----------------------|------------------|
| 전체 | | 1,949.5 | 3,997 |
| 직접일자리 | 서울시민안심일자리 | 300 | 300 |
| | 지역공동체일자리 | 24 | 42 |
| | 지역방역일자리 | 42.05 | 68 |
| |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 25.7 | 40 |
| | 장애인일자리 (일반형_전일제일자리) | 101.7 | 40 |
| | 장애인일자리 (일반형_시간제일자리) | 101.7 | 17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1,188.6 | 3,332 |
| |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 | 21 | 14 |
| | 산림서비스 증진 | 12.8 | 4 |
| |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 41 | 14 |
| | 수목식재 사후관리 | 57.9 | 20 |
| | 고덕천(망월천) 유지관리 | 12.8 | 4 |
| |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 6.3 | 2 |
| 고용장려금 | 내일키움통장사업_ 근로소득장려금 | 6.95 | 63 |
| | 희망키움통장사업_ 근로소득장려금 | 7 | 37 |

<부록2> 서울지역 고령 은퇴 노동실태조사 통계표

<부표 1> 응답자 특성

| | | 사례수 | % |
|--------|---------------------|-------|-------|
| ■ 전체 ■ | | (559)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51.9 |
| | 남성 | (269) | 48.1 |
| 연령대 | 55-59세 | (176) | 31.5 |
| | 60-64세 | (180) | 32.2 |
| | 65-69세 | (142) | 25.4 |
| | 70-74세 | (61) | 10.9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34.9 |
| | 무기계약직 | (35) | 6.3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13.1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6.4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5.2 |
| | 파견용역하청 | (2) | 0.4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6.1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2.9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16.3 |
| 기타 | (48) | 8.6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28.4 |
| | 아파트 | (339) | 60.6 |
| | 단독주택 | (50) | 8.9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0.7 |
| | 기타 | (7) | 1.3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75.7 |
| | 전세 | (95) | 17.0 |
| | 월세 | (33) | 5.9 |
| | 기타 | (8) | 1.4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8.6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32.4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54.2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2.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2.3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0.4 |
| | 기타 | (1) | 0.2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4.8 |
| | 고졸 | (232) | 41.5 |
| | 대졸 | (248) | 44.4 |
| | 대학원 | (52) | 9.3 |

<부표 2> 중장년 시기 주된 일자리 특성: 직종

| | | 사례수 | 사무직·전문직 | 판매직·서비스직 | 생산직·기능직 | 단순노무직 | 기타 | 계 |
|-----------|---------------------|-------|---------|----------|---------|-------|-------|-------|
| ■ 전체 ■ | | (559) | 52.4 | 27.7 | 9.3 | 6.6 | 3.9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43.1 | 38.3 | 6.2 | 7.6 | 4.8 | 100.0 |
| | 남성 | (269) | 62.5 | 16.4 | 12.6 | 5.6 | 3.0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56.3 | 22.2 | 11.9 | 4.5 | 5.1 | 100.0 |
| | 60-64세 | (180) | 57.2 | 30.6 | 5.0 | 4.4 | 2.8 | 100.0 |
| | 65-69세 | (142) | 43.7 | 32.4 | 9.9 | 9.9 | 4.2 | 100.0 |
| | 70-74세 | (61) | 47.5 | 24.6 | 13.1 | 11.5 | 3.3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65.6 | 20.0 | 9.7 | 2.6 | 2.1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37.1 | 25.7 | 22.9 | 14.3 | 0.0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35.6 | 41.1 | 12.3 | 6.8 | 4.1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41.7 | 36.1 | 5.6 | 8.3 | 8.3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31.0 | 20.7 | 20.7 | 24.1 | 3.4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44.1 | 41.2 | 2.9 | 5.9 | 5.9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37.5 | 25.0 | 18.8 | 18.8 | 0.0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61.5 | 29.7 | 3.3 | 3.3 | 2.2 | 100.0 |
| 기타 | (48) | 52.1 | 22.9 | 2.1 | 8.3 | 14.6 | 100.0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32.7 | 39.0 | 11.3 | 9.4 | 7.5 | 100.0 |
| | 아파트 | (339) | 63.7 | 22.4 | 7.1 | 4.1 | 2.7 | 100.0 |
| | 단독주택 | (50) | 30.0 | 34.0 | 20.0 | 14.0 | 2.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75.0 | 0.0 | 0.0 | 25.0 | 0.0 | 100.0 |
| | 기타 | (7)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53.7 | 27.0 | 9.0 | 6.6 | 3.8 | 100.0 |
| | 전세 | (95) | 47.4 | 30.5 | 10.5 | 6.3 | 5.3 | 100.0 |
| | 월세 | (33) | 45.5 | 33.3 | 12.1 | 6.1 | 3.0 | 100.0 |
| | 기타 | (8) | 75.0 | 12.5 | 0.0 | 12.5 | 0.0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41.7 | 31.3 | 8.3 | 8.3 | 10.4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46.4 | 32.0 | 9.4 | 9.9 | 2.2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 | (303) | 57.1 | 26.1 | 9.2 | 4.3 | 3.3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부모 | (11) | 54.5 | 0.0 | 9.1 | 9.1 | 27.3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부모 | (13) | 69.2 | 15.4 | 15.4 | 0.0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손자녀 | (2) | 50.0 | 0.0 | 0.0 | 50.0 | 0.0 | 100.0 |
| | 기타 | (1)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3.7 | 33.3 | 29.6 | 33.3 | 0.0 | 100.0 |
| | 고졸 | (232) | 25.4 | 48.7 | 14.2 | 8.6 | 3.0 | 100.0 |
| | 대졸 | (248) | 75.4 | 12.9 | 4.0 | 2.8 | 4.8 | 100.0 |
| | 대학원 | (52) | 88.5 | 1.9 | 1.9 | 1.9 | 5.8 | 100.0 |

<부표 3> 중장년 주된 일자리 특성: 사업체 업종

| | | 사례수 | 민간서비스업 | 공공부문 | 제조업 | 기타 | 계 |
|--------|----|-------|--------|------|------|------|-------|
| ■ 전체 ■ | | (559) | 50.3 | 17.2 | 14.1 | 18.4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52.8 | 15.9 | 9.3 | 22.1 | 100.0 |
| | 남성 | (269) | 47.6 | 18.6 | 19.3 | 14.5 | 100.0 |

| | | 사례수 | 민간서비스업 | 공공부문 | 제조업 | 기타 | 계 |
|-----------|------------------------|-------|--------|------|-------|-------|-------|
| 연령대 | 55-59세 | (176) | 51.7 | 13.6 | 13.1 | 21.6 | 100.0 |
| | 60-64세 | (180) | 45.0 | 21.1 | 15.0 | 18.9 | 100.0 |
| | 65-69세 | (142) | 55.6 | 16.2 | 11.3 | 16.9 | 100.0 |
| | 70-74세 | (61) | 49.2 | 18.0 | 21.3 | 11.5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48.2 | 15.9 | 19.0 | 16.9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65.7 | 14.3 | 11.4 | 8.6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54.8 | 19.2 | 9.6 | 16.4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61.1 | 16.7 | 8.3 | 13.9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48.3 | 13.8 | 13.8 | 24.1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100.0 | 0.0 | 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47.1 | 2.9 | 14.7 | 35.3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25.0 | 18.8 | 37.5 | 18.8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58.2 | 24.2 | 9.9 | 7.7 | 100.0 |
| 기타 | (48) | 27.1 | 20.8 | 8.3 | 43.8 | 100.0 | |
| 거주 형 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59.7 | 10.1 | 10.1 | 20.1 | 100.0 |
| | 아파트 | (339) | 46.6 | 19.8 | 15.9 | 17.7 | 100.0 |
| | 단독주택 | (50) | 46.0 | 20.0 | 14.0 | 20.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50.0 | 50.0 | 0.0 | 0.0 | 100.0 |
| | 기타 | (7) | 42.9 | 14.3 | 28.6 | 14.3 | 100.0 |
| 점유 형 태 | 자가 | (423) | 51.1 | 17.5 | 13.5 | 18.0 | 100.0 |
| | 전세 | (95) | 49.5 | 14.7 | 16.8 | 18.9 | 100.0 |
| | 월세 | (33) | 39.4 | 21.2 | 18.2 | 21.2 | 100.0 |
| | 기타 | (8) | 62.5 | 12.5 | 0.0 | 25.0 | 100.0 |
| 가구 형 태 | 1인가구(본인) | (48) | 52.1 | 18.8 | 14.6 | 14.6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58.0 | 17.7 | 8.8 | 15.5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47.2 | 16.2 | 16.5 | 20.1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18.2 | 27.3 | 9.1 | 45.5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38.5 | 15.4 | 30.8 | 15.4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50.0 | 50.0 | 0.0 | 0.0 | 100.0 |
| | 기타 | (1) | 0.0 | 0.0 | 100.0 | 0.0 | 100.0 |
| 교육 수 준 | 중졸 이하 | (27) | 48.1 | 7.4 | 25.9 | 18.5 | 100.0 |
| | 고졸 | (232) | 63.8 | 12.5 | 9.1 | 14.7 | 100.0 |
| | 대졸 | (248) | 39.5 | 19.4 | 19.0 | 22.2 | 100.0 |
| | 대학원 | (52) | 42.3 | 32.7 | 7.7 | 17.3 | 100.0 |

<부표 4> 중장년 주된 일자리 특성: 사업체 규모

| | | 사례수 | 1-29인 | 3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계 |
|--------|--------|-------|-------|--------|----------|---------|-------|
| ■ 전체 ■ | | (559) | 44.7 | 20.6 | 10.0 | 24.7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54.1 | 22.8 | 7.6 | 15.5 | 100.0 |
| | 남성 | (269) | 34.6 | 18.2 | 12.6 | 34.6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47.2 | 21.6 | 9.7 | 21.6 | 100.0 |
| | 60-64세 | (180) | 42.8 | 17.2 | 10.0 | 30.0 | 100.0 |
| | 65-69세 | (142) | 44.4 | 23.9 | 9.9 | 21.8 | 100.0 |
| | 70-74세 | (61) | 44.3 | 19.7 | 11.5 | 24.6 | 100.0 |

| | | 사례수 | 1-29인 | 3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계 |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42.6 | 17.4 | 11.3 | 28.7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40.0 | 25.7 | 8.6 | 25.7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49.3 | 24.7 | 9.6 | 16.4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55.6 | 19.4 | 8.3 | 16.7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55.2 | 31.0 | 6.9 | 6.9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100.0 | 0.0 | 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41.2 | 14.7 | 8.8 | 35.3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50.0 | 6.3 | 18.8 | 25.0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41.8 | 22.0 | 6.6 | 29.7 | 100.0 |
| | 기타 | (48) | 39.6 | 25.0 | 14.6 | 20.8 | 100.0 |
| 거주 형 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60.4 | 13.8 | 8.8 | 17.0 | 100.0 |
| | 아파트 | (339) | 36.9 | 23.0 | 11.2 | 28.9 | 100.0 |
| | 단독주택 | (50) | 50.0 | 26.0 | 8.0 | 16.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50.0 | 25.0 | 0.0 | 25.0 | 100.0 |
| | 기타 | (7) | 28.6 | 14.3 | 0.0 | 57.1 | 100.0 |
| 점유 형 태 | 자가 | (423) | 44.7 | 21.3 | 11.6 | 22.5 | 100.0 |
| | 전세 | (95) | 43.2 | 16.8 | 4.2 | 35.8 | 100.0 |
| | 월세 | (33) | 45.5 | 24.2 | 9.1 | 21.2 | 100.0 |
| | 기타 | (8) | 62.5 | 12.5 | 0.0 | 25.0 | 100.0 |
| 가구 형 태 | 1인가구(본인) | (48) | 58.3 | 20.8 | 2.1 | 18.8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48.1 | 22.7 | 9.9 | 19.3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39.9 | 20.1 | 11.2 | 28.7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63.6 | 0.0 | 18.2 | 18.2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46.2 | 15.4 | 0.0 | 38.5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50.0 | 0.0 | 50.0 | 0.0 | 100.0 |
| | 기타 | (1) | 0.0 | 100.0 | 0.0 | 0.0 | 100.0 |
| 교육 수 준 | 중졸 이하 | (27) | 81.5 | 7.4 | 7.4 | 3.7 | 100.0 |
| | 고졸 | (232) | 58.6 | 20.7 | 9.1 | 11.6 | 100.0 |
| | 대졸 | (248) | 31.9 | 21.0 | 10.5 | 36.7 | 100.0 |
| | 대학원 | (52) | 25.0 | 25.0 | 13.5 | 36.5 | 100.0 |

<부표 5> 중장년 주된 일자리 특성: 고용상태

| | | 사례수 | 정규직 | 비정규직(계약직) | 특수고용/프리랜서 | 무기계약직 | 비정규직(시간제) | 비정규직(일용직)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고용주 | 비정규직(파견용역) | 기타 | 계 |
|-----------|---------------------|-------|------|-----------|-----------|-------|-----------|-----------|------|---------|-----|------------|-------|-------|
| ■ 전체 ■ | | (559) | 64.8 | 8.8 | 5.7 | 5.4 | 5.4 | 4.3 | 3.2 | 0.5 | 0.5 | 0.4 | 1.1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51.0 | 14.1 | 8.3 | 5.9 | 10.3 | 3.8 | 3.1 | 1.0 | 0.3 | 0.7 | 1.4 | 100.0 |
| | 남성 | (269) | 79.6 | 3.0 | 3.0 | 4.8 | 0.0 | 4.8 | 3.3 | 0.0 | 0.7 | 0.0 | 0.7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68.8 | 6.3 | 6.8 | 4.5 | 8.0 | 2.8 | 2.3 | 0.0 | 0.0 | 0.6 | 0.0 | 100.0 |
| | 60-64세 | (180) | 65.0 | 11.1 | 4.4 | 7.2 | 2.2 | 5.0 | 2.2 | 0.6 | 0.0 | 0.0 | 2.2 | 100.0 |
| | 65-69세 | (142) | 64.1 | 4.9 | 7.0 | 4.9 | 7.0 | 4.2 | 6.3 | 0.0 | 0.7 | 0.0 | 0.7 | 100.0 |
| | 70-74세 | (61) | 54.1 | 18.0 | 3.3 | 3.3 | 3.3 | 6.6 | 1.6 | 3.3 | 3.3 | 1.6 | 1.6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97.4 | 0.0 | 0.0 | 0.5 | 0.0 | 0.0 | 2.1 | 0.0 | 0.0 | 0.0 | 0.0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31.4 | 0.0 | 0.0 | 65.7 | 0.0 | 0.0 | 2.9 | 0.0 | 0.0 | 0.0 | 0.0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57.5 | 31.5 | 1.4 | 1.4 | 1.4 | 1.4 | 4.1 | 0.0 | 1.4 | 0.0 | 0.0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27.8 | 11.1 | 0.0 | 0.0 | 50.0 | 2.8 | 5.6 | 0.0 | 0.0 | 2.8 | 0.0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24.1 | 10.3 | 0.0 | 3.4 | 0.0 | 58.6 | 3.4 | 0.0 | 0.0 | 0.0 | 0.0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29.4 | 2.9 | 64.7 | 0.0 | 0.0 | 0.0 | 2.9 | 0.0 | 0.0 | 0.0 | 0.0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37.5 | 12.5 | 6.3 | 6.3 | 12.5 | 6.3 | 0.0 | 18.8 | 0.0 | 0.0 | 0.0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70.3 | 11.0 | 5.5 | 2.2 | 3.3 | 2.2 | 2.2 | 0.0 | 2.2 | 1.1 | 0.0 | 100.0 |
| 기타 | (48) | 45.8 | 8.3 | 6.3 | 2.1 | 12.5 | 4.2 | 8.3 | 0.0 | 0.0 | 0.0 | 12.5 | 100.0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52.8 | 11.3 | 7.5 | 9.4 | 7.5 | 5.0 | 4.4 | 0.0 | 0.0 | 0.6 | 1.3 | 100.0 |
| | 아파트 | (339) | 71.1 | 8.0 | 5.3 | 4.1 | 4.1 | 3.2 | 2.1 | 0.3 | 0.9 | 0.3 | 0.6 | 100.0 |
| | 단독주택 | (50) | 60.0 | 6.0 | 4.0 | 2.0 | 6.0 | 8.0 | 6.0 | 4.0 | 0.0 | 0.0 | 4.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75.0 | 0.0 | 0.0 | 0.0 | 25.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기타 | (7) | 57.1 | 14.3 | 0.0 | 0.0 | 0.0 | 14.3 | 14.3 | 0.0 | 0.0 | 0.0 | 0.0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67.1 | 8.0 | 5.7 | 5.0 | 4.5 | 3.1 | 3.5 | 0.7 | 0.5 | 0.5 | 1.4 | 100.0 |
| | 전세 | (95) | 56.8 | 10.5 | 7.4 | 8.4 | 7.4 | 5.3 | 3.2 | 0.0 | 1.1 | 0.0 | 0.0 | 100.0 |
| | 월세 | (33) | 57.6 | 12.1 | 3.0 | 3.0 | 9.1 | 15.2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 사례수 | 정규직 | 비정규직(계약직) | 특수고용/프리랜서 | 무기계약직 | 비정규직(시간제) | 비정규직(일용직)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고용주 | 비정규직(피견용역) | 기타 | 계 |
|----------|-------------------|-------|------|-----------|-----------|-------|-----------|-----------|------|---------|-----|------------|-----|-------|
| | 기타 | (8) | 62.5 | 12.5 | 0.0 | 0.0 | 12.5 | 12.5 | 0.0 | 0.0 | 0.0 | 0.0 | 0.0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45.8 | 12.5 | 6.3 | 2.1 | 12.5 | 10.4 | 6.3 | 0.0 | 2.1 | 0.0 | 2.1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63.5 | 9.9 | 4.4 | 6.1 | 5.5 | 4.4 | 3.3 | 1.1 | 1.1 | 0.0 | 0.6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 | (303) | 68.0 | 7.6 | 5.9 | 5.6 | 4.3 | 3.6 | 2.6 | 0.3 | 0.0 | 0.7 | 1.3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부모 | (11) | 54.5 | 0.0 | 27.3 | 9.1 | 0.0 | 0.0 | 9.1 | 0.0 | 0.0 | 0.0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부모 | (13) | 92.3 | 7.7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손자녀 | (2) | 50.0 | 5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기타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22.2 | 22.2 | 3.7 | 11.1 | 7.4 | 22.2 | 3.7 | 3.7 | 0.0 | 3.7 | 0.0 | 100.0 |
| | 고졸 | (232) | 50.4 | 12.5 | 8.2 | 7.8 | 6.5 | 6.5 | 5.2 | 0.4 | 0.4 | 0.4 | 1.7 | 100.0 |
| | 대졸 | (248) | 78.2 | 5.6 | 3.2 | 3.6 | 4.4 | 1.2 | 1.6 | 0.4 | 0.8 | 0.0 | 0.8 | 100.0 |
| | 대학원 | (52) | 86.5 | 0.0 | 7.7 | 0.0 | 3.8 | 0.0 | 1.9 | 0.0 | 0.0 | 0.0 | 0.0 | 100.0 |

<부표 6> 중장년 주된 일자리 특성: 노동조합

| | | 사례수 | 있었고, 가입했다 | 있었으나, 가입하지 않았다 | 있었으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 없었다 | 계 |
|--------|---------------------|-------|-----------|----------------|------------------|-------|-------|
| ■ 전체 ■ | | (559) | 11.3 | 12.3 | 9.7 | 66.7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8.6 | 11.0 | 6.9 | 73.4 | 100.0 |
| | 남성 | (269) | 14.1 | 13.8 | 12.6 | 59.5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10.2 | 13.1 | 9.7 | 67.0 | 100.0 |
| | 60-64세 | (180) | 16.1 | 14.4 | 9.4 | 60.0 | 100.0 |
| | 65-69세 | (142) | 8.5 | 8.5 | 12.0 | 71.1 | 100.0 |
| | 70-74세 | (61) | 6.6 | 13.1 | 4.9 | 75.4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12.3 | 13.8 | 10.3 | 63.6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11.4 | 14.3 | 8.6 | 65.7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13.7 | 8.2 | 2.7 | 75.3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13.9 | 2.8 | 13.9 | 69.4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3.4 | 17.2 | 3.4 | 75.9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0.0 | 0.0 | 0.0 | 10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8.8 | 5.9 | 11.8 | 73.5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12.5 | 18.8 | 18.8 | 50.0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9.9 | 16.5 | 9.9 | 63.7 | 100.0 |
| 기타 | (48) | 10.4 | 10.4 | 14.6 | 64.6 | 100.0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6.9 | 8.2 | 6.3 | 78.6 | 100.0 |
| | 아파트 | (339) | 13.3 | 15.0 | 10.3 | 61.4 | 100.0 |
| | 단독주택 | (50) | 10.0 | 8.0 | 14.0 | 68.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25.0 | 25.0 | 0.0 | 50.0 | 100.0 |
| | 기타 | (7) | 14.3 | 0.0 | 28.6 | 57.1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10.6 | 11.6 | 8.5 | 69.3 | 100.0 |
| | 전세 | (95) | 9.5 | 14.7 | 12.6 | 63.2 | 100.0 |
| | 월세 | (33) | 21.2 | 15.2 | 15.2 | 48.5 | 100.0 |
| | 기타 | (8) | 25.0 | 12.5 | 12.5 | 50.0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10.4 | 6.3 | 8.3 | 75.0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10.5 | 12.2 | 4.4 | 72.9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12.2 | 13.9 | 12.2 | 61.7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9.1 | 0.0 | 18.2 | 72.7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0.0 | 15.4 | 15.4 | 69.2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50.0 | 0.0 | 50.0 | 0.0 | 100.0 |
| | 기타 | (1) | 0.0 | 0.0 | 0.0 | 10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0.0 | 7.4 | 3.7 | 88.9 | 100.0 |
| | 고졸 | (232) | 9.5 | 11.2 | 5.2 | 74.1 | 100.0 |
| | 대졸 | (248) | 14.9 | 13.3 | 12.9 | 58.9 | 100.0 |
| | 대학원 | (52) | 7.7 | 15.4 | 17.3 | 59.6 | 100.0 |

<부표 7> 중장년 시기 주된 일자리 은퇴 및 퇴직 여부

| | | 사례수 | 예,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음 | 아니요, 현재 계속 일하고 있음 | 계 |
|--------|---------------------|-------|------------------------|-------------------------|-------|
| ■ 전체 ■ | | (559) | 58.5 | 41.5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61.0 | 39.0 | 100.0 |
| | 남성 | (269) | 55.8 | 44.2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36.9 | 63.1 | 100.0 |
| | 60-64세 | (180) | 61.1 | 38.9 | 100.0 |
| | 65-69세 | (142) | 71.8 | 28.2 | 100.0 |
| | 70-74세 | (61) | 82.0 | 18.0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25.1 | 74.9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45.7 | 54.3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76.7 | 23.3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58.3 | 41.7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51.7 | 48.3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10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50.0 | 50.0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87.5 | 12.5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100.0 | 0.0 | 100.0 |
| 기타 | (48) | 95.8 | 4.2 | 100.0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53.5 | 46.5 | 100.0 |
| | 아파트 | (339) | 59.6 | 40.4 | 100.0 |
| | 단독주택 | (50) | 70.0 | 30.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25.0 | 75.0 | 100.0 |
| | 기타 | (7) | 57.1 | 42.9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58.4 | 41.6 | 100.0 |
| | 전세 | (95) | 57.9 | 42.1 | 100.0 |
| | 월세 | (33) | 57.6 | 42.4 | 100.0 |
| | 기타 | (8) | 75.0 | 25.0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56.3 | 43.8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72.4 | 27.6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51.5 | 48.5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36.4 | 63.6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46.2 | 53.8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100.0 | 0.0 | 100.0 |
| | 기타 | (1) | 100.0 | 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77.8 | 22.2 | 100.0 |
| | 고졸 | (232) | 56.5 | 43.5 | 100.0 |
| | 대졸 | (248) | 58.5 | 41.5 | 100.0 |
| | 대학원 | (52) | 57.7 | 42.3 | 100.0 |

<부표 8> 중장년 시기 주된 일자리 은퇴 및 퇴직 후 이직 횟수

| | | 사례수 | 0회 | 1-2회 | 3-4회 | 5회 이상 | 계 | [평균 : 회] |
|--------|---------------------|-------|------|------|-------|-------|-------|----------|
| ■ 전체 ■ | | (327) | 10.7 | 42.2 | 29.7 | 17.4 | 100.0 | 2.96 |
| 성별 | 여성 | (177) | 7.3 | 43.5 | 31.1 | 18.1 | 100.0 | 2.94 |
| | 남성 | (150) | 14.7 | 40.7 | 28.0 | 16.7 | 100.0 | 2.98 |
| 연령대 | 55-59세 | (65) | 6.2 | 38.5 | 36.9 | 18.5 | 100.0 | 3.72 |
| | 60-64세 | (110) | 11.8 | 42.7 | 26.4 | 19.1 | 100.0 | 2.66 |
| | 65-69세 | (102) | 13.7 | 49.0 | 22.5 | 14.7 | 100.0 | 2.84 |
| | 70-74세 | (50) | 8.0 | 32.0 | 42.0 | 18.0 | 100.0 | 2.84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49) | 4.1 | 36.7 | 32.7 | 26.5 | 100.0 | 4.45 |
| | 무기계약직 | (16) | 6.3 | 50.0 | 31.3 | 12.5 | 100.0 | 2.5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56) | 7.1 | 42.9 | 35.7 | 14.3 | 100.0 | 2.73 |
| | 시간제 파트타임 | (21) | 4.8 | 42.9 | 9.5 | 42.9 | 100.0 | 3.43 |
| | 비정규직(일용직) | (15) | 13.3 | 46.7 | 13.3 | 26.7 | 100.0 | 5.40 |
| | 파견용역하청 | (2) | 0.0 | 0.0 | 100.0 | 0.0 | 100.0 | 4.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17) | 17.6 | 29.4 | 23.5 | 29.4 | 100.0 | 3.47 |
| | 무급가족종사자 | (14) | 7.1 | 64.3 | 21.4 | 7.1 | 100.0 | 2.07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9.9 | 47.3 | 31.9 | 11.0 | 100.0 | 2.34 |
| 기타 | (46) | 26.1 | 32.6 | 30.4 | 10.9 | 100.0 | 2.04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85) | 2.4 | 38.8 | 36.5 | 22.4 | 100.0 | 3.56 |
| | 아파트 | (202) | 14.4 | 46.5 | 24.8 | 14.4 | 100.0 | 2.67 |
| | 단독주택 | (35) | 8.6 | 31.4 | 37.1 | 22.9 | 100.0 | 3.14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1) | 0.0 | 0.0 | 100.0 | 0.0 | 100.0 | 3.00 |
| | 기타 | (4) | 25.0 | 0.0 | 50.0 | 25.0 | 100.0 | 2.75 |
| 점유 형태 | 자가 | (247) | 11.7 | 46.6 | 29.6 | 12.1 | 100.0 | 2.74 |
| | 전세 | (55) | 7.3 | 30.9 | 32.7 | 29.1 | 100.0 | 3.53 |
| | 월세 | (19) | 0.0 | 26.3 | 31.6 | 42.1 | 100.0 | 4.00 |
| | 기타 | (6) | 33.3 | 16.7 | 0.0 | 50.0 | 100.0 | 3.17 |

| | | 사례수 | 0회 | 1-2회 | 3-4회 | 5회 이상 | 계 | [평균 : 회] |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27) | 7.4 | 18.5 | 33.3 | 40.7 | 100.0 | 3.96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31) | 10.7 | 48.9 | 27.5 | 13.0 | 100.0 | 2.74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156) | 11.5 | 41.7 | 30.8 | 16.0 | 100.0 | 2.95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4) | 0.0 | 50.0 | 0.0 | 50.0 | 100.0 | 3.25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6) | 16.7 | 16.7 | 50.0 | 16.7 | 100.0 | 3.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0.0 | 50.0 | 50.0 | 0.0 | 100.0 | 2.00 |
| | 기타 | (1) | 0.0 | 0.0 | 0.0 | 100.0 | 100.0 | 6.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1) | 0.0 | 47.6 | 38.1 | 14.3 | 100.0 | 2.81 |
| | 고졸 | (131) | 5.3 | 41.2 | 31.3 | 22.1 | 100.0 | 3.27 |
| | 대졸 | (145) | 12.4 | 42.8 | 31.7 | 13.1 | 100.0 | 2.83 |
| | 대학원 | (30) | 33.3 | 40.0 | 6.7 | 20.0 | 100.0 | 2.30 |

<부표 9> 중장년 시기 주된 일자리 은퇴 및 퇴직 방식

| | | 사례수 | 일반 퇴사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권고 사직 | 해고 | 기타 | 계 |
|--------|-----------|-------|-------|------|------|-------|-----|------|-------|
| ■ 전체 ■ | | (327) | 44.0 | 30.0 | 13.1 | 2.8 | 1.2 | 8.9 | 100.0 |
| 성별 | 여성 | (177) | 56.5 | 19.8 | 9.0 | 2.3 | 1.7 | 10.7 | 100.0 |
| | 남성 | (150) | 29.3 | 42.0 | 18.0 | 3.3 | 0.7 | 6.7 | 100.0 |
| 연령대 | 55-59세 | (65) | 52.3 | 6.2 | 18.5 | 6.2 | 3.1 | 13.8 | 100.0 |
| | 60-64세 | (110) | 40.9 | 30.9 | 16.4 | 2.7 | 0.9 | 8.2 | 100.0 |
| | 65-69세 | (102) | 41.2 | 39.2 | 7.8 | 1.0 | 1.0 | 9.8 | 100.0 |
| | 70-74세 | (50) | 46.0 | 40.0 | 10.0 | 2.0 | 0.0 | 2.0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49) | 36.7 | 30.6 | 20.4 | 2.0 | 2.0 | 8.2 | 100.0 |
| | 무기계약직 | (16) | 25.0 | 37.5 | 25.0 | 6.3 | 0.0 | 6.3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56) | 46.4 | 35.7 | 12.5 | 0.0 | 0.0 | 5.4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21) | 47.6 | 28.6 | 9.5 | 4.8 | 0.0 | 9.5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15) | 73.3 | 20.0 | 0.0 | 6.7 | 0.0 | 0.0 | 100.0 |

| | | 사례수 | 일반 퇴사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권고 사직 | 해고 | 기타 | 계 |
|-------|---------------------|-------|-------|-------|------|-------|------|------|-------|
| | 파견용역하청 | (2) | 10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17) | 41.2 | 5.9 | 23.5 | 0.0 | 17.6 | 11.8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4) | 71.4 | 7.1 | 0.0 | 14.3 | 0.0 | 7.1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41.8 | 35.2 | 13.2 | 3.3 | 0.0 | 6.6 | 100.0 |
| | 기타 | (46) | 39.1 | 30.4 | 8.7 | 0.0 | 0.0 | 21.7 | 100.0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85) | 48.2 | 27.1 | 5.9 | 1.2 | 2.4 | 15.3 | 100.0 |
| | 아파트 | (202) | 41.6 | 33.2 | 17.8 | 2.5 | 1.0 | 4.0 | 100.0 |
| | 단독주택 | (35) | 48.6 | 20.0 | 5.7 | 5.7 | 0.0 | 20.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 | 기타 | (4) | 50.0 | 25.0 | 0.0 | 0.0 | 0.0 | 25.0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247) | 41.7 | 33.6 | 13.8 | 2.4 | 1.2 | 7.3 | 100.0 |
| | 전세 | (55) | 50.9 | 21.8 | 9.1 | 0.0 | 1.8 | 16.4 | 100.0 |
| | 월세 | (19) | 52.6 | 15.8 | 10.5 | 15.8 | 0.0 | 5.3 | 100.0 |
| | 기타 | (6) | 50.0 | 0.0 | 33.3 | 0.0 | 0.0 | 16.7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27) | 55.6 | 7.4 | 3.7 | 11.1 | 0.0 | 22.2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31) | 44.3 | 40.5 | 9.9 | 0.8 | 0.8 | 3.8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156) | 42.9 | 23.7 | 17.9 | 3.2 | 1.9 | 10.3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4) | 25.0 | 25.0 | 0.0 | 0.0 | 0.0 | 5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6) | 33.3 | 50.0 | 16.7 | 0.0 | 0.0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0.0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 | 기타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1) | 61.9 | 28.6 | 0.0 | 4.8 | 0.0 | 4.8 | 100.0 |
| | 고졸 | (131) | 60.3 | 20.6 | 3.1 | 1.5 | 0.8 | 13.7 | 100.0 |
| | 대졸 | (145) | 31.0 | 35.2 | 22.8 | 4.1 | 1.4 | 5.5 | 100.0 |
| | 대학원 | (30) | 23.3 | 46.7 | 20.0 | 0.0 | 3.3 | 6.7 | 100.0 |

<부표 10> 중장년 시기 주된 일자리 은퇴 및 퇴직 후 재취업 여부

| | | 사례수 | 재취업 경험 있고, 현재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고 있음 | 재취업 경험 있고, 현재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고 있지 않음 | 재취업 경험 없고, 현재 일을 찾고 있거나 인생 이모작 등 모색을 생각하고 있음 | 계 |
|--------|---------------------|-------|-------------------------------------|--|---|-------|
| ■ 전체 ■ | | (327) | 41.9 | 27.2 | 30.9 | 100.0 |
| 성별 | 여성 | (177) | 32.8 | 28.8 | 38.4 | 100.0 |
| | 남성 | (150) | 52.7 | 25.3 | 22.0 | 100.0 |
| 연령대 | 55-59세 | (65) | 35.4 | 23.1 | 41.5 | 100.0 |
| | 60-64세 | (110) | 42.7 | 23.6 | 33.6 | 100.0 |
| | 65-69세 | (102) | 47.1 | 27.5 | 25.5 | 100.0 |
| | 70-74세 | (50) | 38.0 | 40.0 | 22.0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49) | 89.8 | 6.1 | 4.1 | 100.0 |
| | 무기계약직 | (16) | 87.5 | 12.5 | 0.0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56) | 75.0 | 12.5 | 12.5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21) | 76.2 | 14.3 | 9.5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15) | 60.0 | 13.3 | 26.7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100.0 | 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17) | 47.1 | 35.3 | 17.6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4) | 7.1 | 28.6 | 64.3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0.0 | 51.6 | 48.4 | 100.0 |
| | 기타 | (46) | 2.2 | 32.6 | 65.2 | 100.0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85) | 45.9 | 31.8 | 22.4 | 100.0 |
| | 아파트 | (202) | 39.1 | 25.7 | 35.1 | 100.0 |
| | 단독주택 | (35) | 45.7 | 25.7 | 28.6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1) | 0.0 | 0.0 | 100.0 | 100.0 |
| | 기타 | (4) | 75.0 | 25.0 | 0.0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247) | 41.3 | 27.1 | 31.6 | 100.0 |
| | 전세 | (55) | 50.9 | 25.5 | 23.6 | 100.0 |
| | 월세 | (19) | 26.3 | 31.6 | 42.1 | 100.0 |

| | | 사례수 | 재취업 경험 있고 현재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고 있음 | 재취업 경험 있고 현재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고 있지 않음 | 재취업 경험 없고, 현재 일을 찾고 있거나 인생 이모작 등 모색을 생각하고 있음 | 계 |
|-------|--------------------|-------|------------------------------------|---------------------------------------|---|-------|
| | 기타 | (6) | 33.3 | 33.3 | 33.3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27) | 22.2 | 33.3 | 44.4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31) | 41.2 | 30.5 | 28.2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156) | 43.6 | 23.7 | 32.7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4) | 50.0 | 50.0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6) | 83.3 | 0.0 | 16.7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50.0 | 50.0 | 0.0 | 100.0 |
| | 기타 | (1) | 100.0 | 0.0 | 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1) | 42.9 | 42.9 | 14.3 | 100.0 |
| | 고졸 | (131) | 41.2 | 29.0 | 29.8 | 100.0 |
| | 대졸 | (145) | 41.4 | 24.1 | 34.5 | 100.0 |
| | 대학원 | (30) | 46.7 | 23.3 | 30.0 | 100.0 |

<부표 11> 중장년 시기 주된 일자리 특성: 직종

| | | 사례수 | 사무직· 전문직 | 판매직· 서비스직 | 단순 노무직 | 생산직· 기능직 | 기타 | 계 |
|-----------|-----------------------|-------|-------------|--------------|-----------|-------------|-------|-------|
| ■ 전체 ■ | | (226) | 35.4 | 31.0 | 18.1 | 10.2 | 5.3 | 100.0 |
| 성별 | 여성 | (109) | 23.9 | 39.4 | 20.2 | 9.2 | 7.3 | 100.0 |
| | 남성 | (117) | 46.2 | 23.1 | 16.2 | 11.1 | 3.4 | 100.0 |
| 연령대 | 55-59세 | (38) | 42.1 | 31.6 | 7.9 | 15.8 | 2.6 | 100.0 |
| | 60-64세 | (73) | 46.6 | 34.2 | 8.2 | 4.1 | 6.8 | 100.0 |
| | 65-69세 | (76) | 31.6 | 26.3 | 27.6 | 7.9 | 6.6 | 100.0 |
| | 70-74세 | (39) | 15.4 | 33.3 | 28.2 | 20.5 | 2.6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47) | 59.6 | 23.4 | 2.1 | 10.6 | 4.3 | 100.0 |
| | 무기계약직 | (16) | 31.3 | 37.5 | 6.3 | 25.0 | 0.0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49) | 22.4 | 34.7 | 32.7 | 10.2 | 0.0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19) | 10.5 | 47.4 | 26.3 | 10.5 | 5.3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11) | 18.2 | 9.1 | 54.5 | 18.2 | 0.0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0.0 | 50.0 | 50.0 | 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14) | 57.1 | 21.4 | 0.0 | 0.0 | 21.4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5) | 20.0 | 40.0 | 40.0 | 0.0 | 0.0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47) | 38.3 | 34.0 | 12.8 | 8.5 | 6.4 | 100.0 |
| 기타 | (16) | 31.3 | 25.0 | 18.8 | 6.3 | 18.8 | 100.0 | |
| 거주 형 태 | 연립/다세대주택 | (66) | 27.3 | 37.9 | 16.7 | 9.1 | 9.1 | 100.0 |
| | 아파트 | (131) | 44.3 | 23.7 | 19.1 | 9.2 | 3.8 | 100.0 |
| | 단독주택 | (25) | 16.0 | 40.0 | 20.0 | 20.0 | 4.0 | 100.0 |
| | 기타 | (4)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 점유 형 태 | 자가 | (169) | 34.3 | 30.2 | 18.9 | 11.8 | 4.7 | 100.0 |
| | 전세 | (42) | 40.5 | 33.3 | 11.9 | 7.1 | 7.1 | 100.0 |
| | 월세 | (11) | 36.4 | 27.3 | 27.3 | 0.0 | 9.1 | 100.0 |
| | 기타 | (4) | 25.0 | 50.0 | 25.0 | 0.0 | 0.0 | 100.0 |
| 가구 형 태 | 1인가구(본인) | (15) | 33.3 | 33.3 | 20.0 | 6.7 | 6.7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94) | 25.5 | 29.8 | 28.7 | 12.8 | 3.2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105) | 42.9 | 33.3 | 9.5 | 8.6 | 5.7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4) | 50.0 | 0.0 | 0.0 | 0.0 | 5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5) | 60.0 | 20.0 | 0.0 | 20.0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50.0 | 0.0 | 50.0 | 0.0 | 0.0 | 100.0 |
| | 기타 | (1)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 교육 수 준 | 중졸 이하 | (18) | 0.0 | 27.8 | 50.0 | 22.2 | 0.0 | 100.0 |
| | 고졸 | (92) | 10.9 | 42.4 | 28.3 | 15.2 | 3.3 | 100.0 |
| | 대졸 | (95) | 57.9 | 25.3 | 4.2 | 4.2 | 8.4 | 100.0 |
| | 대학원 | (21) | 71.4 | 9.5 | 9.5 | 4.8 | 4.8 | 100.0 |

<부표 12> 중장년 시기 주된 일자리 특성: 사업체 업종

| | | 사례수 | 제조업 | 민간 서비스업 | 공공부문 | 기타 | 계 | |
|---------------------------|------------------------------|--------------|-------|------------|------|-------|-------|-------|
| ■ 전체 ■ | | (226) | 15.9 | 58.8 | 9.7 | 15.5 | 100.0 | |
| 성별 | 여성 | (109) | 8.3 | 62.4 | 10.1 | 19.3 | 100.0 | |
| | 남성 | (117) | 23.1 | 55.6 | 9.4 | 12.0 | 100.0 | |
| 연령대 | 55-59세 | (38) | 18.4 | 55.3 | 15.8 | 10.5 | 100.0 | |
| | 60-64세 | (73) | 16.4 | 53.4 | 6.8 | 23.3 | 100.0 | |
| | 65-69세 | (76) | 14.5 | 61.8 | 7.9 | 15.8 | 100.0 | |
| | 70-74세 | (39) | 15.4 | 66.7 | 12.8 | 5.1 | 100.0 |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47) | 36.2 | 48.9 | 4.3 | 10.6 | 100.0 | |
| | 무기계약직 | (16) | 18.8 | 56.3 | 12.5 | 12.5 | 100.0 | |
| | 기간제/임시 계약직 | (49) | 4.1 | 73.5 | 10.2 | 12.2 | 100.0 | |
| | 시간제 파트타임 | (19) | 15.8 | 63.2 | 15.8 | 5.3 | 100.0 | |
| | 비정규직(일 용직) | (11) | 0.0 | 63.6 | 0.0 | 36.4 | 100.0 | |
| | 파견/용역하 청 | (2) | 0.0 | 100.0 | 0.0 | 0.0 | 100.0 | |
| | 특수고용/프 리랜서 | (14) | 14.3 | 35.7 | 7.1 | 42.9 | 100.0 | |
| | 무급가족종 사자 | (5) | 20.0 | 60.0 | 0.0 | 20.0 | 100.0 | |
| | 실업/구직활 동상태(무직) | (47) | 14.9 | 70.2 | 10.6 | 4.3 | 100.0 | |
| | 기타 | (16) | 6.3 | 18.8 | 25.0 | 50.0 | 100.0 |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 주택 | (66) | 12.1 | 62.1 | 7.6 | 18.2 | 100.0 |
| | | 아파트 | (131) | 19.1 | 55.7 | 10.7 | 14.5 | 100.0 |
| 단독주택 | | (25) | 8.0 | 72.0 | 8.0 | 12.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 (0) | - | - | - | - | 100.0 | |
| 기타 | | (4) | 25.0 | 25.0 | 25.0 | 25.0 | 100.0 | |
| 점유 형태 | 자가 | (169) | 16.0 | 60.9 | 8.9 | 14.2 | 100.0 | |
| | 전세 | (42) | 19.0 | 52.4 | 14.3 | 14.3 | 100.0 | |
| | 월세 | (11) | 9.1 | 54.5 | 9.1 | 27.3 | 100.0 | |
| | 기타 | (4) | 0.0 | 50.0 | 0.0 | 50.0 | 100.0 |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15) | 13.3 | 53.3 | 13.3 | 20.0 | 100.0 | |
| | 부부가구(본 인+배우자) | (94) | 9.6 | 64.9 | 11.7 | 13.8 | 100.0 |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105) | 21.0 | 56.2 | 8.6 | 14.3 | 100.0 |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4) | 0.0 | 0.0 | 0.0 | 100.0 | 100.0 |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5) | 20.0 | 80.0 | 0.0 | 0.0 | 100.0 |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 녀 | (2) | 50.0 | 50.0 | 0.0 | 0.0 | 100.0 | |
| | 기타 | (1) | 100.0 | 0.0 | 0.0 | 0.0 | 100.0 |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18) | 16.7 | 50.0 | 11.1 | 22.2 | 100.0 | |
| | 고졸 | (92) | 8.7 | 76.1 | 5.4 | 9.8 | 100.0 | |
| | 대졸 | (95) | 25.3 | 47.4 | 11.6 | 15.8 | 100.0 | |
| | 대학원 | (21) | 4.8 | 42.9 | 19.0 | 33.3 | 100.0 | |

<부표 13> 중장년 시기 주된 일자리 특성: 사업체 규모

| | | 사례수 | 1-29인 | 3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계 |
|--------|------------------------------|-------|-------|--------|----------|---------|-------|
| 전체 | | (226) | 58.0 | 19.9 | 9.7 | 12.4 | 100.0 |
| 성별 | 여성 | (109) | 67.0 | 18.3 | 6.4 | 8.3 | 100.0 |
| | 남성 | 117 | 49.6 | 21.4 | 12.8 | 16.2 | 100.0 |
| 연령대 | 55-59세 | 38 | 52.6 | 18.4 | 13.2 | 15.8 | 100.0 |
| | 60-64세 | 73 | 49.3 | 26.0 | 11.0 | 13.7 | 100.0 |
| | 65-69세 | 76 | 65.8 | 15.8 | 7.9 | 10.5 | 100.0 |
| | 70-74세 | 39 | 64.1 | 17.9 | 7.7 | 10.3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47 | 42.6 | 29.8 | 12.8 | 14.9 | 100.0 |
| | 무기계약직 | 16 | 37.5 | 25.0 | 6.3 | 31.3 | 100.0 |
| | 기간제/임시 계약직 | 49 | 59.2 | 24.5 | 10.2 | 6.1 | 100.0 |
| | 기간제 파트타임 | 19 | 73.7 | 10.5 | 5.3 | 10.5 | 100.0 |
| | 비정규직(일 용직) | 11 | 81.8 | 9.1 | 9.1 | 0.0 | 100.0 |
| | 파견/용역하 청 | 2 | 100.0 | 0.0 | 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 리랜서 | 14 | 42.9 | 21.4 | 14.3 | 21.4 | 100.0 |
| | 무급가족종 사자 | 5 | 80.0 | 0.0 | 20.0 | 0.0 | 100.0 |
| | 실업/구직할 동상태(무직) | 47 | 63.8 | 17.0 | 6.4 | 12.8 | 100.0 |
| 기타 | 16 | 68.8 | 6.3 | 12.5 | 12.5 | 100.0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 주택 | 66 | 63.6 | 16.7 | 9.1 | 10.6 | 100.0 |
| | 아파트 | 131 | 53.4 | 21.4 | 10.7 | 14.5 | 100.0 |
| | 단독주택 | 25 | 72.0 | 20.0 | 4.0 | 4.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0 | - | - | - | - | - |
| | 기타 | 4 | 25.0 | 25.0 | 25.0 | 25.0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169 | 59.2 | 20.7 | 8.3 | 11.8 | 100.0 |
| | 전세 | 42 | 52.4 | 21.4 | 14.3 | 11.9 | 100.0 |
| | 월세 | 11 | 54.5 | 9.1 | 18.2 | 18.2 | 100.0 |
| | 기타 | 4 | 75.0 | 0.0 | 0.0 | 25.0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15 | 60.0 | 6.7 | 13.3 | 20.0 | 100.0 |
| | 부부가구(본 인+배우자) | 94 | 66.0 | 14.9 | 8.5 | 10.6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105 | 49.5 | 25.7 | 10.5 | 14.3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4 | 75.0 | 25.0 | 0.0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5 | 80.0 | 0.0 | 20.0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 녀 | 2 | 50.0 | 50.0 | 0.0 | 0.0 | 100.0 |
| | 기타 | 1 | 0.0 | 100.0 | 0.0 | 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18 | 83.3 | 5.6 | 5.6 | 5.6 | 100.0 |
| | 고졸 | 92 | 67.4 | 21.7 | 5.4 | 5.4 | 100.0 |
| | 대졸 | 95 | 48.4 | 18.9 | 14.7 | 17.9 | 100.0 |
| | 대학원 | 21 | 38.1 | 28.6 | 9.5 | 23.8 | 100.0 |

<부표 14> 중장년 시기 주된 일자리 특성: 고용상태

| | 사례수 | 비정규직(계약직) | 정규직 | 비정규직(시간제) | 무기계약직 | 특수고용/프리랜서 | 비정규직(일용직) | 고용주 | 비정규직(파견용역)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기타 | 계 |
|-----------|-----------------------|-----------|------|-----------|-------|-----------|-----------|------|------------|---------|------|------|-------|
| ■ 전체 ■ | 226 | 30.5 | 28.3 | 12.4 | 8.4 | 8.0 | 6.6 | 1.3 | 0.9 | 0.4 | 0.4 | 2.7 | 100.0 |
| 성별 | 여성 | 109 | 34.9 | 20.2 | 17.4 | 5.5 | 11.0 | 6.4 | 0.9 | 0.9 | 0.0 | 2.8 | 100.0 |
| | 남성 | 117 | 26.5 | 35.9 | 7.7 | 11.1 | 5.1 | 6.8 | 2.6 | 0.9 | 0.9 | 2.6 | 100.0 |
| 연령대 | 55-59세 | 38 | 34.2 | 36.8 | 7.9 | 13.2 | 2.6 | 5.3 | 0.0 | 0.0 | 0.0 | 0.0 | 100.0 |
| | 60-64세 | 73 | 23.3 | 37.0 | 11.0 | 8.2 | 11.0 | 4.1 | 0.0 | 2.7 | 0.0 | 2.7 | 100.0 |
| | 65-69세 | 76 | 31.6 | 22.4 | 13.2 | 7.9 | 7.9 | 7.9 | 1.3 | 0.0 | 1.3 | 5.3 | 100.0 |
| | 70-74세 | 39 | 38.5 | 15.4 | 17.9 | 5.1 | 7.7 | 10.3 | 5.1 | 0.0 | 0.0 | 0.0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47 | 2.1 | 97.9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무기계약 직 | 16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기간제/ 임시계약 직 | 49 | 95.9 | 2.0 | 0.0 | 2.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19 | 5.3 | 0.0 | 84.2 | 0.0 | 0.0 | 5.3 | 0.0 | 0.0 | 5.3 | 0.0 | 100.0 |
| | 비정규직 (일용직) | 11 | 0.0 | 9.1 | 0.0 | 0.0 | 0.0 | 90.9 | 0.0 | 0.0 | 0.0 | 0.0 | 100.0 |
| | 파견용역 하청 | 2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 | 특수고용 /프리랜 서 | 14 | 0.0 | 7.1 | 7.1 | 0.0 | 78.6 | 0.0 | 7.1 | 0.0 | 0.0 | 0.0 | 100.0 |
| | 무급가족 종사자 | 5 | 40.0 | 0.0 | 40.0 | 0.0 | 0.0 | 0.0 | 0.0 | 20.0 | 0.0 | 0.0 | 100.0 |
| | 실업/구 직활동상 태(무직) | 47 | 29.8 | 27.7 | 10.6 | 4.3 | 10.6 | 6.4 | 4.3 | 0.0 | 0.0 | 6.4 | 100.0 |
| | 기타 | 16 | 25.0 | 12.5 | 25.0 | 0.0 | 12.5 | 6.3 | 0.0 | 0.0 | 0.0 | 18.8 | 100.0 |
| 거주 형태 | 연립/다 세대주택 | 66 | 30.3 | 30.3 | 13.6 | 9.1 | 4.5 | 7.6 | 1.5 | 0.0 | 1.5 | 0.0 | 100.0 |
| | 아파트 | 131 | 30.5 | 28.2 | 9.2 | 8.4 | 10.7 | 6.1 | 1.5 | 0.8 | 0.0 | 3.8 | 100.0 |
| | 단독주택 | 25 | 32.0 | 24.0 | 24.0 | 8.0 | 0.0 | 8.0 | 0.0 | 4.0 | 0.0 | 0.0 | 100.0 |
| | 비주택(여관,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례수 | 비정규직(계약직) | 정규직 | 비정규직(시간제) | 무기계약직 | 특수고용/프리랜서 | 비정규직(일용직) | 고용주 | 비정규직(파견용역)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기타 | 계 |
|----------|-------------------|-----|-----------|------|-----------|-------|-----------|-----------|-----|------------|---------|------|-----|-------|
| | 고시원 찜질방 등) | | | | | | | | | | | | | |
| | 기타 | 4 | 25.0 | 25.0 | 25.0 | 0.0 | 25.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169 | 32.0 | 26.0 | 11.2 | 9.5 | 7.7 | 8.3 | 0.6 | 0.6 | 0.0 | 0.6 | 3.6 | 100.0 |
| | 전세 | 42 | 31.0 | 35.7 | 11.9 | 4.8 | 9.5 | 0.0 | 2.4 | 2.4 | 2.4 | 0.0 | 0.0 | 100.0 |
| | 월세 | 11 | 18.2 | 36.4 | 18.2 | 9.1 | 0.0 | 9.1 | 9.1 | 0.0 | 0.0 | 0.0 | 0.0 | 100.0 |
| | 기타 | 4 | 0.0 | 25.0 | 50.0 | 0.0 | 25.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15 | 26.7 | 20.0 | 20.0 | 0.0 | 20.0 | 13.3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94 | 38.3 | 22.3 | 10.6 | 6.4 | 7.4 | 8.5 | 1.1 | 1.1 | 1.1 | 1.1 | 2.1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 | 105 | 25.7 | 33.3 | 11.4 | 12.4 | 7.6 | 3.8 | 1.9 | 0.0 | 0.0 | 0.0 | 3.8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부모 | 4 | 25.0 | 25.0 | 5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부모 | 5 | 0.0 | 60.0 | 0.0 | 0.0 | 0.0 | 20.0 | 0.0 | 20.0 | 0.0 | 0.0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손자녀 | 2 | 50.0 | 5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기타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교육 수준 | 중졸이하 | 18 | 33.3 | 11.1 | 22.2 | 11.1 | 0.0 | 22.2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고졸 | 92 | 40.2 | 19.6 | 8.7 | 7.6 | 10.9 | 7.6 | 1.1 | 2.2 | 1.1 | 0.0 | 1.1 | 100.0 |
| | 대졸 | 95 | 22.1 | 38.9 | 12.6 | 10.5 | 7.4 | 2.1 | 2.1 | 0.0 | 0.0 | 1.1 | 3.2 | 100.0 |
| | 대학원 | 21 | 23.8 | 33.3 | 19.0 | 0.0 | 4.8 | 9.5 | 0.0 | 0.0 | 0.0 | 0.0 | 9.5 | 100.0 |

<부표 15> 최근 6개월 주당(1주일) 평균 근무 일수

| | | 사례수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계 | [평균 : 일] |
|-----------|---------------------|-------|-----|------|------|------|-------|-------|-------|-------|----------|
| ■ 전체 ■ | | (559) | 0.9 | 2.5 | 6.3 | 5.9 | 66.4 | 17.5 | 0.5 | 100.0 | 4.89 |
| 성별 | 여성 | (290) | 0.3 | 3.4 | 4.8 | 5.5 | 63.4 | 21.7 | 0.7 | 100.0 | 4.96 |
| | 남성 | (269) | 1.5 | 1.5 | 7.8 | 6.3 | 69.5 | 13.0 | 0.4 | 100.0 | 4.81 |
| 연령대 | 55-59세 | (176) | 0.6 | 2.3 | 6.3 | 4.0 | 69.3 | 17.0 | 0.6 | 100.0 | 4.93 |
| | 60-64세 | (180) | 0.6 | 1.7 | 5.0 | 7.8 | 68.9 | 15.6 | 0.6 | 100.0 | 4.92 |
| | 65-69세 | (142) | 2.1 | 4.2 | 7.7 | 6.3 | 62.7 | 16.2 | 0.7 | 100.0 | 4.75 |
| | 70-74세 | (61) | 0.0 | 1.6 | 6.6 | 4.9 | 59.0 | 27.9 | 0.0 | 100.0 | 5.05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0.0 | 0.0 | 2.6 | 5.6 | 73.8 | 17.9 | 0.0 | 100.0 | 5.07 |
| | 무기계약직 | (35) | 5.7 | 0.0 | 2.9 | 5.7 | 77.1 | 8.6 | 0.0 | 100.0 | 4.74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1.4 | 4.1 | 6.8 | 6.8 | 67.1 | 12.3 | 1.4 | 100.0 | 4.77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0.0 | 5.6 | 11.1 | 8.3 | 50.0 | 25.0 | 0.0 | 100.0 | 4.78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0.0 | 0.0 | 10.3 | 10.3 | 51.7 | 24.1 | 3.4 | 100.0 | 5.00 |
| | 파견용역하청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0.0 | 100.0 | 4.5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0.0 | 14.7 | 14.7 | 8.8 | 58.8 | 2.9 | 0.0 | 100.0 | 4.21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0.0 | 12.5 | 12.5 | 6.3 | 50.0 | 18.8 | 0.0 | 100.0 | 4.5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1.1 | 0.0 | 6.6 | 2.2 | 62.6 | 27.5 | 0.0 | 100.0 | 5.08 |
| 기타 | (48) | 2.1 | 4.2 | 8.3 | 4.2 | 66.7 | 12.5 | 2.1 | 100.0 | 4.75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0.0 | 1.3 | 7.5 | 5.0 | 62.3 | 23.3 | 0.6 | 100.0 | 5.01 |
| | 아파트 | (339) | 1.5 | 2.9 | 5.0 | 6.5 | 68.7 | 14.7 | 0.6 | 100.0 | 4.85 |
| | 단독주택 | (50) | 0.0 | 4.0 | 10.0 | 4.0 | 62.0 | 20.0 | 0.0 | 100.0 | 4.84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0.0 | 0.0 | 25.0 | 25.0 | 25.0 | 25.0 | 0.0 | 100.0 | 4.50 |
| | 기타 | (7)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5.00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1.2 | 2.4 | 5.2 | 5.2 | 69.5 | 16.1 | 0.5 | 100.0 | 4.90 |
| | 전세 | (95) | 0.0 | 3.2 | 7.4 | 6.3 | 58.9 | 24.2 | 0.0 | 100.0 | 4.94 |
| | 월세 | (33) | 0.0 | 3.0 | 18.2 | 12.1 | 48.5 | 15.2 | 3.0 | 100.0 | 4.64 |
| | 기타 | (8) | 0.0 | 0.0 | 0.0 | 12.5 | 62.5 | 25.0 | 0.0 | 100.0 | 5.13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0.0 | 2.1 | 8.3 | 6.3 | 62.5 | 18.8 | 2.1 | 100.0 | 4.94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0.6 | 3.3 | 6.1 | 5.0 | 63.0 | 21.5 | 0.6 | 100.0 | 4.93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 | (303) | 1.0 | 2.0 | 5.9 | 5.9 | 69.0 | 15.8 | 0.3 | 100.0 | 4.89 |
| | 본인(또는 배우자)+부모 | (11) | 9.1 | 9.1 | 18.2 | 9.1 | 54.5 | 0.0 | 0.0 | 100.0 | 3.91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부모 | (13) | 0.0 | 0.0 | 0.0 | 7.7 | 84.6 | 7.7 | 0.0 | 100.0 | 5.00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손자녀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0.0 | 100.0 | 4.50 |
| | 기타 | (1) | 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0.0 | 6.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0.0 | 0.0 | 7.4 | 3.7 | 48.1 | 37.0 | 3.7 | 100.0 | 5.26 |
| | 고졸 | (232) | 0.0 | 3.0 | 4.7 | 5.2 | 60.8 | 25.9 | 0.4 | 100.0 | 5.03 |

| | | 사례수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계 | [평균 : 일] |
|--|-----|-------|-----|-----|------|------|------|------|-----|-------|----------|
| | 대출 | (248) | 1.6 | 1.2 | 6.5 | 4.8 | 75.0 | 10.5 | 0.4 | 100.0 | 4.83 |
| | 대학원 | (52) | 1.9 | 7.7 | 11.5 | 15.4 | 59.6 | 3.8 | 0.0 | 100.0 | 4.35 |

<부표 16> 최근 6개월 하루 평균 노동시간

| | | 사례수 | 6시간 이하 | 7-8시간 | 9시간 이상 | 계 | [평균 : 시간] |
|-----------|------------------------|-------|--------|-------|--------|-------|-----------|
| ■ 전체 ■ | | (559) | 22.0 | 59.7 | 18.2 | 100.0 | 7.7 |
| 성별 | 여성 | (290) | 31.0 | 54.5 | 14.5 | 100.0 | 7.2 |
| | 남성 | (269) | 12.3 | 65.4 | 22.3 | 100.0 | 8.2 |
| 연령대 | 55-59세 | (176) | 21.6 | 58.0 | 20.5 | 100.0 | 7.6 |
| | 60-64세 | (180) | 20.6 | 63.3 | 16.1 | 100.0 | 7.6 |
| | 65-69세 | (142) | 19.0 | 62.7 | 18.3 | 100.0 | 8.1 |
| | 70-74세 | (61) | 34.4 | 47.5 | 18.0 | 100.0 | 7.2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4.6 | 73.8 | 21.5 | 100.0 | 8.3 |
| | 무기계약직 | (35) | 8.6 | 62.9 | 28.6 | 100.0 | 8.4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30.1 | 50.7 | 19.2 | 100.0 | 8.1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77.8 | 19.4 | 2.8 | 100.0 | 5.3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27.6 | 48.3 | 24.1 | 100.0 | 7.5 |
| | 파견용역하청 | (2) | 0.0 | 50.0 | 50.0 | 100.0 | 9.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47.1 | 44.1 | 8.8 | 100.0 | 6.3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37.5 | 43.8 | 18.8 | 100.0 | 6.6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9.9 | 71.4 | 18.7 | 100.0 | 8.0 |
| | 기타 | (48) | 45.8 | 45.8 | 8.3 | 100.0 | 6.5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27.7 | 51.6 | 20.8 | 100.0 | 7.5 |
| | 아파트 | (339) | 18.9 | 63.7 | 17.4 | 100.0 | 7.8 |
| | 단독주택 | (50) | 24.0 | 60.0 | 16.0 | 100.0 | 7.3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25.0 | 25.0 | 50.0 | 100.0 | 9.8 |
| | 기타 | (7) | 28.6 | 71.4 | 0.0 | 100.0 | 6.9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20.3 | 60.5 | 19.1 | 100.0 | 7.8 |
| | 전세 | (95) | 23.2 | 62.1 | 14.7 | 100.0 | 7.5 |
| | 월세 | (33) | 36.4 | 48.5 | 15.2 | 100.0 | 7.5 |
| | 기타 | (8) | 37.5 | 37.5 | 25.0 | 100.0 | 6.9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25.0 | 54.2 | 20.8 | 100.0 | 7.5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24.9 | 56.9 | 18.2 | 100.0 | 7.8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20.8 | 61.4 | 17.8 | 100.0 | 7.7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27.3 | 63.6 | 9.1 | 100.0 | 7.2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0.0 | 69.2 | 30.8 | 100.0 | 8.5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0.0 | 100.0 | 0.0 | 100.0 | 8.0 |
| 기타 | (1) | 0.0 | 100.0 | 0.0 | 100.0 | 7.0 | |

| | | 사례수 | 6시간 이하 | 7-8시간 | 9시간 이상 | 계 | [평균 : 시간] |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22.2 | 44.4 | 33.3 | 100.0 | 8.3 |
| | 고졸 | (232) | 20.3 | 57.8 | 22.0 | 100.0 | 7.9 |
| | 대졸 | (248) | 21.8 | 64.1 | 14.1 | 100.0 | 7.5 |
| | 대학원 | (52) | 30.8 | 55.8 | 13.5 | 100.0 | 7.3 |

<부표 17> 최근 6개월 동안 월평균 소득 [SUMMARY] [단위: 만원]

| | | 사례수 | 임금소득 | 연금소득 | 임금 외 별도 소득 | 합계 |
|--------|---------------------|-------|--------|--------|------------|--------|
| ■ 전체 ■ | | (559) | 199.43 | 60.03 | 39.33 | 298.79 |
| 성별 | 여성 | (290) | 142.30 | 34.15 | 26.93 | 203.38 |
| | 남성 | (269) | 261.03 | 87.94 | 52.70 | 401.66 |
| 연령대 | 55-59세 | (176) | 256.76 | 11.67 | 26.02 | 294.45 |
| | 60-64세 | (180) | 202.06 | 65.36 | 25.74 | 293.16 |
| | 65-69세 | (142) | 157.79 | 106.02 | 73.00 | 336.81 |
| | 70-74세 | (61) | 123.23 | 76.82 | 39.43 | 239.48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327.50 | 33.31 | 30.95 | 391.76 |
| | 무기계약직 | (35) | 219.31 | 40.69 | 21.14 | 281.14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184.89 | 58.30 | 19.18 | 262.37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122.22 | 59.11 | 19.22 | 200.56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179.48 | 105.38 | 13.45 | 298.31 |
| | 파견용역하청 | (2) | 160.00 | 0.00 | 0.00 | 16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191.26 | 23.85 | 11.91 | 227.03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54.38 | 44.06 | 53.13 | 151.56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59.21 | 98.30 | 58.15 | 215.66 |
| | 기타 | (48) | 78.33 | 119.56 | 128.77 | 326.67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183.60 | 24.70 | 24.82 | 233.13 |
| | 아파트 | (339) | 209.81 | 80.48 | 47.99 | 338.28 |
| | 단독주택 | (50) | 163.76 | 38.86 | 33.82 | 236.44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226.25 | 37.50 | 0.00 | 263.75 |
| | 기타 | (7) | 295.71 | 36.43 | 11.43 | 343.57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204.31 | 64.50 | 47.64 | 316.45 |
| | 전세 | (95) | 191.83 | 50.05 | 12.54 | 254.42 |
| | 월세 | (33) | 175.94 | 32.52 | 16.42 | 224.88 |
| | 기타 | (8) | 128.75 | 55.88 | 12.50 | 197.13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164.75 | 27.92 | 14.00 | 206.67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153.56 | 76.10 | 31.93 | 261.59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229.34 | 51.54 | 37.70 | 318.57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171.91 | 46.64 | 20.91 | 239.45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291.54 | 159.23 | 297.69 | 748.46 |

| | | 사례수 | 임금소득 | 연금소득 | 임금 외 별도 소득 | 합계 |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220.00 | 123.00 | 5.00 | 348.00 |
| | 기타 | (1) | 170.00 | 0.00 | 0.00 | 17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116.74 | 38.19 | 25.19 | 180.11 |
| | 고졸 | (232) | 169.12 | 33.24 | 17.20 | 219.56 |
| | 대졸 | (248) | 222.54 | 70.13 | 52.68 | 345.34 |
| | 대학원 | (52) | 267.40 | 142.77 | 81.73 | 491.90 |

<부표 18> 현재 연금소득/현재 생계비/은퇴 이후 생계비 [SUMMARY] [단위: 만원]

| | | 사례수 | 연금소득 | 현재 생계비 | 은퇴 이후 생계비 |
|--------|---------------------|-------|-------|--------|-----------|
| ■ 전체 ■ | | (559) | 107.4 | 189.8 | 204.4 |
| 성별 | 여성 | (290) | 73.1 | 167.2 | 183.0 |
| | 남성 | (269) | 144.4 | 214.2 | 227.5 |
| 연령대 | 55-59세 | (176) | 104.0 | 194.8 | 203.7 |
| | 60-64세 | (180) | 116.1 | 200.4 | 215.3 |
| | 65-69세 | (142) | 112.5 | 180.7 | 197.3 |
| | 70-74세 | (61) | 79.9 | 165.4 | 190.7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119.2 | 217.9 | 224.6 |
| | 무기계약직 | (35) | 103.4 | 201.4 | 226.3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94.7 | 165.5 | 184.7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84.6 | 177.2 | 185.6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64.3 | 149.0 | 177.9 |
| | 파견용역하청 | (2) | 48.5 | 260.0 | 185.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57.7 | 153.7 | 180.3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89.1 | 183.1 | 197.5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124.2 | 170.5 | 190.4 |
| 기타 | (48) | 136.6 | 199.9 | 212.9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72.5 | 160.7 | 170.6 |
| | 아파트 | (339) | 126.2 | 204.3 | 222.2 |
| | 단독주택 | (50) | 89.4 | 183.0 | 188.2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157.5 | 162.5 | 240.0 |
| | 기타 | (7) | 92.1 | 212.9 | 207.1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117.1 | 196.8 | 211.5 |
| | 전세 | (95) | 83.2 | 177.8 | 189.9 |
| | 월세 | (33) | 69.2 | 145.5 | 160.5 |
| | 기타 | (8) | 41.8 | 148.8 | 183.8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65.0 | 118.1 | 141.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92.9 | 169.7 | 187.6 |

| | | 사례수 | 연금소득 | 현재 생계비 | 은퇴 이후 생계비 |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118.5 | 211.4 | 222.3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87.7 | 170.9 | 222.7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221.5 | 246.9 | 233.1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145.0 | 185.0 | 225.0 |
| | 기타 | (1) | 60.0 | 200.0 | 25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48.1 | 149.3 | 163.3 |
| | 고졸 | (232) | 70.8 | 153.5 | 167.5 |
| | 대졸 | (248) | 131.9 | 218.4 | 233.2 |
| | 대학원 | (52) | 184.7 | 236.7 | 252.7 |

<부표 19> 사회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 | | 사례수 | 직장가입 | 미가입 | 지역가입 | 계 |
|-----------|---------------------|-------|------|------|------|-------|
| ■ 전체 ■ | | (559) | 53.8 | 31.8 | 14.3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47.9 | 34.8 | 17.2 | 100.0 |
| | 남성 | (269) | 60.2 | 28.6 | 11.2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75.0 | 10.8 | 14.2 | 100.0 |
| | 60-64세 | (180) | 51.7 | 29.4 | 18.9 | 100.0 |
| | 65-69세 | (142) | 38.0 | 50.0 | 12.0 | 100.0 |
| | 70-74세 | (61) | 36.1 | 57.4 | 6.6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73.3 | 22.1 | 4.6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74.3 | 20.0 | 5.7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47.9 | 41.1 | 11.0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33.3 | 44.4 | 22.2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17.2 | 51.7 | 31.0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50.0 | 5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17.6 | 32.4 | 50.0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31.3 | 56.3 | 12.5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59.3 | 27.5 | 13.2 | 100.0 |
| | 기타 | (48) | 29.2 | 43.8 | 27.1 | 100.0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45.9 | 37.1 | 17.0 | 100.0 |
| | 아파트 | (339) | 58.1 | 28.9 | 13.0 | 100.0 |
| | 단독주택 | (50) | 54.0 | 34.0 | 12.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50.0 | 25.0 | 25.0 | 100.0 |
| | 기타 | (7) | 28.6 | 42.9 | 28.6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54.1 | 31.9 | 13.9 | 100.0 |
| | 전세 | (95) | 54.7 | 30.5 | 14.7 | 100.0 |
| | 월세 | (33) | 54.5 | 30.3 | 15.2 | 100.0 |
| | 기타 | (8) | 25.0 | 50.0 | 25.0 | 100.0 |

| | | 사례수 | 직장가입 | 미가입 | 지역가입 | 계 |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47.9 | 35.4 | 16.7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45.9 | 46.4 | 7.7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 자녀 | (303) | 60.1 | 21.8 | 18.2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 부모 | (11) | 54.5 | 36.4 | 9.1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 자녀+부모 | (13) | 53.8 | 38.5 | 7.7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 자녀+손자녀 | (2) | 0.0 | 100.0 | 0.0 | 100.0 |
| | 기타 | (1) | 0.0 | 0.0 | 10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29.6 | 59.3 | 11.1 | 100.0 |
| | 고졸 | (232) | 47.8 | 36.2 | 15.9 | 100.0 |
| | 대졸 | (248) | 64.1 | 21.8 | 14.1 | 100.0 |
| | 대학원 | (52) | 44.2 | 46.2 | 9.6 | 100.0 |

<부표 20> 사회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

| | | 사례수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직장가입 피부양자 | 미가입 | 의료수급 권자 | 계 |
|-----------|------------------------|-------|-------|------|--------------|------|------------|-------|
| ■ 전체 ■ | | (559) | 68.7 | 18.8 | 8.2 | 3.2 | 1.1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62.4 | 19.7 | 11.4 | 5.5 | 1.0 | 100.0 |
| | 남성 | (269) | 75.5 | 17.8 | 4.8 | 0.7 | 1.1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79.5 | 13.1 | 5.7 | 1.1 | 0.6 | 100.0 |
| | 60-64세 | (180) | 66.7 | 19.4 | 9.4 | 3.3 | 1.1 | 100.0 |
| | 65-69세 | (142) | 66.9 | 20.4 | 7.7 | 3.5 | 1.4 | 100.0 |
| | 70-74세 | (61) | 47.5 | 29.5 | 13.1 | 8.2 | 1.6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91.8 | 6.2 | 1.5 | 0.0 | 0.5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97.1 | 2.9 | 0.0 | 0.0 | 0.0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75.3 | 15.1 | 6.8 | 1.4 | 1.4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63.9 | 22.2 | 5.6 | 2.8 | 5.6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24.1 | 48.3 | 24.1 | 0.0 | 3.4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23.5 | 52.9 | 17.6 | 5.9 | 0.0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43.8 | 25.0 | 12.5 | 18.8 | 0.0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59.3 | 19.8 | 13.2 | 6.6 | 1.1 | 100.0 |
| 기타 | (48) | 31.3 | 39.6 | 18.8 | 10.4 | 0.0 | 100.0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65.4 | 22.0 | 9.4 | 2.5 | 0.6 | 100.0 |
| | 아파트 | (339) | 71.7 | 15.9 | 8.0 | 2.9 | 1.5 | 100.0 |
| | 단독주택 | (50) | 60.0 | 26.0 | 8.0 | 6.0 | 0.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75.0 | 0.0 | 0.0 | 25.0 | 0.0 | 100.0 |
| | 기타 | (7) | 57.1 | 42.9 | 0.0 | 0.0 | 0.0 | 100.0 |

| | | 사례수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직장가입 피부양자 | 미가입 | 의료수급 권자 | 계 |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71.2 | 18.0 | 8.0 | 2.8 | 0.0 | 100.0 |
| | 전세 | (95) | 63.2 | 23.2 | 10.5 | 3.2 | 0.0 | 100.0 |
| | 월세 | (33) | 57.6 | 15.2 | 6.1 | 6.1 | 15.2 | 100.0 |
| | 기타 | (8) | 50.0 | 25.0 | 0.0 | 12.5 | 12.5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50.0 | 22.9 | 14.6 | 6.3 | 6.3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66.3 | 16.6 | 11.0 | 5.5 | 0.6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73.3 | 18.8 | 5.9 | 1.3 | 0.7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72.7 | 27.3 | 0.0 | 0.0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69.2 | 23.1 | 7.7 | 0.0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50.0 | 0.0 | 0.0 | 50.0 | 0.0 | 100.0 |
| | 기타 | (1)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37.0 | 40.7 | 18.5 | 3.7 | 0.0 | 100.0 |
| | 고졸 | (232) | 67.2 | 18.1 | 8.2 | 5.2 | 1.3 | 100.0 |
| | 대졸 | (248) | 74.2 | 14.5 | 8.5 | 1.6 | 1.2 | 100.0 |
| | 대학원 | (52) | 65.4 | 30.8 | 1.9 | 1.9 | 0.0 | 100.0 |

<부표 21> 사회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 | | 사례수 | 가입 | 미가입 | 계 |
|--------|---------------|-------|-------|------|-------|
| ■ 전체 ■ | | (559) | 62.8 | 37.2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54.5 | 45.5 | 100.0 |
| | 남성 | (269) | 71.7 | 28.3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75.6 | 24.4 | 100.0 |
| | 60-64세 | (180) | 66.1 | 33.9 | 100.0 |
| | 65-69세 | (142) | 54.2 | 45.8 | 100.0 |
| | 70-74세 | (61) | 36.1 | 63.9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86.7 | 13.3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85.7 | 14.3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74.0 | 26.0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50.0 | 50.0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24.1 | 75.9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10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29.4 | 70.6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25.0 | 75.0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49.5 | 50.5 | 100.0 |
| | 기타 | (48) | 25.0 | 75.0 | 100.0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65.4 | 34.6 | 100.0 |

| | | 사례수 | 가입 | 미가입 | 계 |
|-------|---------------------|-------|------|-------|-------|
| | 아파트 | (339) | 63.1 | 36.9 | 100.0 |
| | 단독주택 | (50) | 56.0 | 44.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50.0 | 50.0 | 100.0 |
| | 기타 | (7) | 42.9 | 57.1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62.9 | 37.1 | 100.0 |
| | 전세 | (95) | 67.4 | 32.6 | 100.0 |
| | 월세 | (33) | 57.6 | 42.4 | 100.0 |
| | 기타 | (8) | 25.0 | 75.0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50.0 | 50.0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56.9 | 43.1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67.7 | 32.3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63.6 | 36.4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84.6 | 15.4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50.0 | 50.0 | 100.0 |
| | 기타 | (1) | 0.0 | 10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29.6 | 70.4 | 100.0 |
| | 고졸 | (232) | 60.8 | 39.2 | 100.0 |
| | 대졸 | (248) | 71.0 | 29.0 | 100.0 |
| | 대학원 | (52) | 50.0 | 50.0 | 100.0 |

<부표 22> 사회보험 가입 여부: 산재보험

| | | 사례수 | 가입 | 미가입 | 잘 모름 | 계 |
|--------|---------------|-------|-------|------|-------|-------|
| ■ 전체 ■ | | (559) | 59.2 | 34.7 | 6.1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50.0 | 42.8 | 7.2 | 100.0 |
| | 남성 | (269) | 69.1 | 26.0 | 4.8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67.6 | 26.1 | 6.3 | 100.0 |
| | 60-64세 | (180) | 62.8 | 32.8 | 4.4 | 100.0 |
| | 65-69세 | (142) | 50.7 | 42.3 | 7.0 | 100.0 |
| | 70-74세 | (61) | 44.3 | 47.5 | 8.2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82.6 | 14.9 | 2.6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80.0 | 14.3 | 5.7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71.2 | 20.5 | 8.2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50.0 | 47.2 | 2.8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24.1 | 65.5 | 10.3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100.0 | 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20.6 | 67.6 | 11.8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25.0 | 50.0 | 25.0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45.1 | 46.2 | 8.8 | 100.0 |
| 기타 | (48) | 22.9 | 75.0 | 2.1 | 100.0 | |

| | | 사례수 | 가입 | 미가입 | 잘 모름 | 계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60.4 | 32.1 | 7.5 | 100.0 |
| | 아파트 | (339) | 60.5 | 33.9 | 5.6 | 100.0 |
| | 단독주택 | (50) | 50.0 | 44.0 | 6.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50.0 | 50.0 | 0.0 | 100.0 |
| | 기타 | (7) | 42.9 | 57.1 | 0.0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60.0 | 34.5 | 5.4 | 100.0 |
| | 전세 | (95) | 58.9 | 32.6 | 8.4 | 100.0 |
| | 월세 | (33) | 57.6 | 33.3 | 9.1 | 100.0 |
| | 기타 | (8) | 25.0 | 75.0 | 0.0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45.8 | 50.0 | 4.2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54.7 | 38.1 | 7.2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64.0 | 30.0 | 5.9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54.5 | 36.4 | 9.1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69.2 | 30.8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50.0 | 50.0 | 0.0 | 100.0 |
| | 기타 | (1) | 0.0 | 100.0 | 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33.3 | 51.9 | 14.8 | 100.0 |
| | 고졸 | (232) | 59.1 | 35.3 | 5.6 | 100.0 |
| | 대졸 | (248) | 65.3 | 30.2 | 4.4 | 100.0 |
| | 대학원 | (52) | 44.2 | 44.2 | 11.5 | 100.0 |

<부표 23> 지난 3년 사이 현재의 일(일감)로 인한 심리·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 여부

|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계 |
|--------|---------------|-------|-------|-------|-------|
| ■ 전체 ■ | | (559) | 2.3 | 97.7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2.4 | 97.6 | 100.0 |
| | 남성 | (269) | 2.2 | 97.8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3.4 | 96.6 | 100.0 |
| | 60-64세 | (180) | 3.9 | 96.1 | 100.0 |
| | 65-69세 | (142) | 0.0 | 100.0 | 100.0 |
| | 70-74세 | (61) | 0.0 | 100.0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2.1 | 97.9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0.0 | 100.0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2.7 | 97.3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5.6 | 94.4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6.9 | 93.1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0.0 | 10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2.9 | 97.1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6.3 | 93.8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1.1 | 98.9 | 100.0 |
| 기타 | (48) | 0.0 | 100.0 | 100.0 | |

|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계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1.3 | 98.7 | 100.0 |
| | 아파트 | (339) | 2.4 | 97.6 | 100.0 |
| | 단독주택 | (50) | 4.0 | 96.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25.0 | 75.0 | 100.0 |
| | 기타 | (7) | 0.0 | 100.0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2.1 | 97.9 | 100.0 |
| | 전세 | (95) | 2.1 | 97.9 | 100.0 |
| | 월세 | (33) | 6.1 | 93.9 | 100.0 |
| | 기타 | (8) | 0.0 | 100.0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4.2 | 95.8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1.1 | 98.9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2.0 | 98.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9.1 | 90.9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15.4 | 84.6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0.0 | 100.0 | 100.0 |
| | 기타 | (1) | 0.0 | 10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0.0 | 100.0 | 100.0 |
| | 고졸 | (232) | 1.3 | 98.7 | 100.0 |
| | 대졸 | (248) | 2.0 | 98.0 | 100.0 |
| | 대학원 | (52) | 9.6 | 90.4 | 100.0 |

<부표 24> 지난 3년 사이 현재의 일(일감)로 인한 신체적·육체적 질환으로 병원 치료 여부

|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계 |
|--------|---------------|-------|------|-------|-------|
| ■ 전체 ■ | | (559) | 13.1 | 86.9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13.8 | 86.2 | 100.0 |
| | 남성 | (269) | 12.3 | 87.7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11.4 | 88.6 | 100.0 |
| | 60-64세 | (180) | 16.7 | 83.3 | 100.0 |
| | 65-69세 | (142) | 10.6 | 89.4 | 100.0 |
| | 70-74세 | (61) | 13.1 | 86.9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10.3 | 89.7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5.7 | 94.3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12.3 | 87.7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11.1 | 88.9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37.9 | 62.1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0.0 | 10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17.6 | 82.4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6.3 | 93.8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14.3 | 85.7 | 100.0 |
| 기타 | (48) | 14.6 | 85.4 | 100.0 | |

|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계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13.8 | 86.2 | 100.0 |
| | 아파트 | (339) | 10.6 | 89.4 | 100.0 |
| | 단독주택 | (50) | 24.0 | 76.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25.0 | 75.0 | 100.0 |
| | 기타 | (7) | 28.6 | 71.4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10.9 | 89.1 | 100.0 |
| | 전세 | (95) | 16.8 | 83.2 | 100.0 |
| | 월세 | (33) | 21.2 | 78.8 | 100.0 |
| | 기타 | (8) | 50.0 | 50.0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25.0 | 75.0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10.5 | 89.5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 자녀 | (303) | 11.6 | 88.4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 부모 | (11) | 27.3 | 72.7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 자녀+부모 | (13) | 30.8 | 69.2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 자녀+손자녀 | (2) | 0.0 | 100.0 | 100.0 |
| | 기타 | (1) | 0.0 | 10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18.5 | 81.5 | 100.0 |
| | 고졸 | (232) | 12.5 | 87.5 | 100.0 |
| | 대졸 | (248) | 11.3 | 88.7 | 100.0 |
| | 대학원 | (52) | 21.2 | 78.8 | 100.0 |

<부표 25> 지난 지난 1년 동안 몸 상태에 따른 결근 여부 (코로나19 제외)

| | | 사례수 | 있음 | 없음 | 아프지 않았음 | 계 |
|--------|---------------|-------|------|-------|---------|-------|
| ■ 전체 ■ | | (559) | 17.0 | 68.0 | 15.0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20.3 | 66.2 | 13.4 | 100.0 |
| | 남성 | (269) | 13.4 | 69.9 | 16.7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19.3 | 67.6 | 13.1 | 100.0 |
| | 60-64세 | (180) | 16.7 | 68.9 | 14.4 | 100.0 |
| | 65-69세 | (142) | 17.6 | 64.1 | 18.3 | 100.0 |
| | 70-74세 | (61) | 9.8 | 75.4 | 14.8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19.0 | 64.1 | 16.9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14.3 | 62.9 | 22.9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8.2 | 75.3 | 16.4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19.4 | 72.2 | 8.3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20.7 | 69.0 | 10.3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0.0 | 10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26.5 | 67.6 | 5.9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12.5 | 68.8 | 18.8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9.9 | 76.9 | 13.2 | 100.0 |
| 기타 | (48) | 29.2 | 54.2 | 16.7 | 100.0 | |

| | | 사례수 | 있음 | 없음 | 아프지 않았음 | 계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15.7 | 67.3 | 17.0 | 100.0 |
| | 아파트 | (339) | 18.0 | 68.7 | 13.3 | 100.0 |
| | 단독주택 | (50) | 16.0 | 64.0 | 20.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0.0 | 75.0 | 25.0 | 100.0 |
| | 기타 | (7) | 14.3 | 71.4 | 14.3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16.3 | 68.1 | 15.6 | 100.0 |
| | 전세 | (95) | 16.8 | 67.4 | 15.8 | 100.0 |
| | 월세 | (33) | 18.2 | 72.7 | 9.1 | 100.0 |
| | 기타 | (8) | 50.0 | 50.0 | 0.0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25.0 | 62.5 | 12.5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12.7 | 69.6 | 17.7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17.2 | 67.7 | 15.2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45.5 | 54.5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23.1 | 76.9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0.0 | 100.0 | 0.0 | 100.0 |
| | 기타 | (1) | 0.0 | 100.0 | 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14.8 | 81.5 | 3.7 | 100.0 |
| | 고졸 | (232) | 17.7 | 65.9 | 16.4 | 100.0 |
| | 대졸 | (248) | 18.5 | 68.5 | 12.9 | 100.0 |
| | 대학원 | (52) | 7.7 | 67.3 | 25.0 | 100.0 |

<부표 26> 질병으로 인한 결근에 따른 생활 어려움

| | | 사례수 | 어려움을 겪었음 | 어려움이 없었음 | 계 |
|--------|---------------|-------|----------|----------|-------|
| ■ 전체 ■ | | (559) | 26.1 | 73.9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24.8 | 75.2 | 100.0 |
| | 남성 | (269) | 27.5 | 72.5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30.7 | 69.3 | 100.0 |
| | 60-64세 | (180) | 28.3 | 71.7 | 100.0 |
| | 65-69세 | (142) | 19.0 | 81.0 | 100.0 |
| | 70-74세 | (61) | 23.0 | 77.0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22.1 | 77.9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17.1 | 82.9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26.0 | 74.0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25.0 | 75.0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41.4 | 58.6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10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44.1 | 55.9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37.5 | 62.5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19.8 | 80.2 | 100.0 |
| 기타 | (48) | 33.3 | 66.7 | 100.0 | |

| | | 사례수 | 어려움을 겪었음 | 어려움이 없었음 | 계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25.2 | 74.8 | 100.0 |
| | 아파트 | (339) | 24.2 | 75.8 | 100.0 |
| | 단독주택 | (50) | 38.0 | 62.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75.0 | 25.0 | 100.0 |
| | 기타 | (7) | 28.6 | 71.4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21.0 | 79.0 | 100.0 |
| | 전세 | (95) | 34.7 | 65.3 | 100.0 |
| | 월세 | (33) | 54.5 | 45.5 | 100.0 |
| | 기타 | (8) | 75.0 | 25.0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39.6 | 60.4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17.7 | 82.3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27.7 | 72.3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45.5 | 54.5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30.8 | 69.2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50.0 | 50.0 | 100.0 |
| | 기타 | (1) | 100.0 | 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18.5 | 81.5 | 100.0 |
| | 고졸 | (232) | 25.4 | 74.6 | 100.0 |
| | 대졸 | (248) | 27.0 | 73.0 | 100.0 |
| | 대학원 | (52) | 28.8 | 71.2 | 100.0 |

<부표 27> 현 직장에서 ‘업무상 일하다가 다치거나 이플 경우’ 산재처리 여부

| | | 사례수 | 본인 자비로 처리한다. | 산재 처리 신청을 한다. | 산재처리 가 안 되는 특수고용 등이다. | 의료기관 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 별도 지원이나 산재 처리 없이 공가 처리한다. | 관련 지정병원 을 통해 치료 등을 지원한다. | 직장에서 개별 상해보입 에 가입되어 있다 | 공제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 없음 | 모름 | 계 |
|-----------|---------------|-------|--------------------|---------------------|-----------------------------------|------------------------------|---------------------------------------|--------------------------------------|---------------------------------------|-------------------------|-----|-----|-------|
| ■ 전체 ■ | | (559) | 37.7 | 36.9 | 7.0 | 5.2 | 5.2 | 4.7 | 0.4 | 0.2 | 0.2 | 2.7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44.1 | 29.3 | 10.7 | 5.5 | 4.8 | 1.7 | 0.0 | 0.3 | 0.0 | 3.4 | 100.0 |
| | 남성 | (269) | 30.9 | 45.0 | 3.0 | 4.8 | 5.6 | 7.8 | 0.7 | 0.0 | 0.4 | 1.9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33.0 | 40.3 | 6.3 | 6.3 | 7.4 | 4.0 | 0.0 | 0.6 | 0.0 | 2.3 | 100.0 |
| | 60-64세 | (180) | 35.6 | 36.1 | 8.3 | 4.4 | 5.6 | 5.0 | 0.6 | 0.0 | 0.0 | 4.4 | 100.0 |
| | 65-69세 | (142) | 41.5 | 35.2 | 7.7 | 4.9 | 2.8 | 5.6 | 0.7 | 0.0 | 0.0 | 1.4 | 100.0 |
| | 70-74세 | (61) | 49.2 | 32.8 | 3.3 | 4.9 | 3.3 | 3.3 | 0.0 | 0.0 | 1.6 | 1.6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27.7 | 45.6 | 1.5 | 8.2 | 6.2 | 6.7 | 0.5 | 0.5 | 0.0 | 3.1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34.3 | 45.7 | 2.9 | 2.9 | 5.7 | 5.7 | 2.9 | 0.0 | 0.0 | 0.0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35.6 | 47.9 | 4.1 | 4.1 | 2.7 | 2.7 | 0.0 | 0.0 | 0.0 | 2.7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47.2 | 30.6 | 11.1 | 2.8 | 0.0 | 5.6 | 0.0 | 0.0 | 0.0 | 2.8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55.2 | 17.2 | 10.3 | 6.9 | 3.4 | 6.9 | 0.0 | 0.0 | 0.0 | 0.0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47.1 | 8.8 | 32.4 | 0.0 | 5.9 | 5.9 | 0.0 | 0.0 | 0.0 | 0.0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68.8 | 6.3 | 18.8 | 0.0 | 6.3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39.6 | 40.7 | 3.3 | 3.3 | 7.7 | 2.2 | 0.0 | 0.0 | 0.0 | 3.3 | 100.0 |
| | 기타 | (48) | 47.9 | 14.6 | 16.7 | 6.3 | 4.2 | 2.1 | 0.0 | 0.0 | 2.1 | 6.3 | 100.0 |
| 거주 형 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42.1 | 37.1 | 5.7 | 3.1 | 5.0 | 5.0 | 0.0 | 0.0 | 0.0 | 1.9 | 100.0 |
| | 아파트 | (339) | 34.8 | 38.9 | 7.1 | 5.6 | 5.3 | 4.4 | 0.6 | 0.3 | 0.3 | 2.7 | 100.0 |

| | | 사례수 | 본인 자비로 처리한다. | 산재 처리 신청을 한다. | 산재처리 가 안 되는 특수고용 등이다. | 의료기관 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 별도 지원이나 산재 처리 없이 공가 처리한다. | 관련 지정병원 을 통해 치료를 지원한다. | 직장에서 개별 상해보입 에 가입되어 있다 | 공제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 없음 | 모름 | 계 |
|-----------|------------------------|-------|--------------------|---------------------|-----------------------------------|------------------------------|---------------------------------------|------------------------------------|---------------------------------------|-------------------------|-----|------|-------|
| | 단독주택 | (50) | 46.0 | 24.0 | 8.0 | 10.0 | 4.0 | 4.0 | 0.0 | 0.0 | 0.0 | 4.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50.0 | 25.0 | 0.0 | 0.0 | 0.0 | 25.0 | 0.0 | 0.0 | 0.0 | 0.0 | 100.0 |
| | 기타 | (7) | 14.3 | 28.6 | 28.6 | 0.0 | 14.3 | 0.0 | 0.0 | 0.0 | 0.0 | 14.3 | 100.0 |
| 점유 형 태 | 자가 | (423) | 38.8 | 38.1 | 7.1 | 4.3 | 4.5 | 4.3 | 0.2 | 0.2 | 0.2 | 2.4 | 100.0 |
| | 전세 | (95) | 35.8 | 35.8 | 5.3 | 6.3 | 6.3 | 5.3 | 1.1 | 0.0 | 0.0 | 4.2 | 100.0 |
| | 월세 | (33) | 27.3 | 27.3 | 12.1 | 12.1 | 9.1 | 9.1 | 0.0 | 0.0 | 0.0 | 3.0 | 100.0 |
| | 기타 | (8) | 50.0 | 25.0 | 0.0 | 12.5 | 12.5 | 0.0 | 0.0 | 0.0 | 0.0 | 0.0 | 100.0 |
| 가구 형 태 | 1인가구(본인) | (48) | 41.7 | 29.2 | 8.3 | 6.3 | 8.3 | 4.2 | 0.0 | 0.0 | 0.0 | 2.1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45.3 | 37.0 | 4.4 | 5.0 | 2.8 | 3.9 | 0.0 | 0.0 | 0.0 | 1.7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33.3 | 38.3 | 7.9 | 5.0 | 6.3 | 5.0 | 0.7 | 0.3 | 0.3 | 3.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36.4 | 18.2 | 18.2 | 0.0 | 9.1 | 0.0 | 0.0 | 0.0 | 0.0 | 18.2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23.1 | 46.2 | 0.0 | 15.4 | 0.0 | 15.4 | 0.0 | 0.0 | 0.0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50.0 | 5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기타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교육 수 준 | 중졸 이하 | (27) | 63.0 | 18.5 | 3.7 | 3.7 | 3.7 | 7.4 | 0.0 | 0.0 | 0.0 | 0.0 | 100.0 |
| | 고졸 | (232) | 44.8 | 34.9 | 6.9 | 4.3 | 3.9 | 3.0 | 0.0 | 0.0 | 0.0 | 2.2 | 100.0 |
| | 대졸 | (248) | 25.8 | 43.1 | 6.9 | 6.5 | 6.5 | 6.0 | 0.8 | 0.0 | 0.4 | 4.0 | 100.0 |
| | 대학원 | (52) | 50.0 | 25.0 | 9.6 | 3.8 | 5.8 | 3.8 | 0.0 | 1.9 | 0.0 | 0.0 | 100.0 |

<부표 28> 은퇴 이후 가장 힘든 점이나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 것(1순위)

| | | 사례수 | 낮은 소득 수준(경제적 빈곤) | 건강 문제 및 의료비 문제 | 고령/은퇴자 일감(일자리) 부족 | 미래(노후) 불안정 | 고용불안정 | 경제생활이 없어 다양한 사회생활, 대인 관계 단절 |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싶지만 기회 및 정보 부족 | 고령 일자리의 노동환경 열악한 조건 | 주거 생활 및 주택문제 | 자녀들과의 소통이나 관계 점진적 단절 | 구인구직 등 일자리 재취업 교육훈련 부족 | 휴가/휴일 등 여가시간 부족 | 계 |
|-----------|---------------|-------|------------------|----------------|-------------------|------------|-------|-----------------------------|-----------------------------|---------------------|--------------|----------------------|------------------------|-----------------|-------|
| ■ 전체 ■ | | (559) | 31.5 | 25.6 | 15.9 | 6.1 | 4.3 | 4.1 | 3.6 | 3.0 | 3.0 | 1.6 | 0.7 | 0.5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30.3 | 30.0 | 14.5 | 4.8 | 4.8 | 3.1 | 2.8 | 3.4 | 3.1 | 1.7 | 0.7 | 0.7 | 100.0 |
| | 남성 | (269) | 32.7 | 20.8 | 17.5 | 7.4 | 3.7 | 5.2 | 4.5 | 2.6 | 3.0 | 1.5 | 0.7 | 0.4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36.9 | 26.1 | 8.5 | 7.4 | 5.1 | 2.8 | 3.4 | 2.8 | 3.4 | 1.7 | 1.7 | 0.0 | 100.0 |
| | 60-64세 | (180) | 27.2 | 25.0 | 20.6 | 3.9 | 3.9 | 6.1 | 4.4 | 3.3 | 3.9 | 0.0 | 0.6 | 1.1 | 100.0 |
| | 65-69세 | (142) | 28.9 | 28.2 | 19.0 | 5.6 | 4.2 | 2.8 | 2.8 | 3.5 | 1.4 | 2.8 | 0.0 | 0.7 | 100.0 |
| | 70-74세 | (61) | 34.4 | 19.7 | 16.4 | 9.8 | 3.3 | 4.9 | 3.3 | 1.6 | 3.3 | 3.3 | 0.0 | 0.0 | 100.0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31.8 | 20.0 | 17.4 | 6.2 | 4.6 | 6.2 | 3.6 | 3.6 | 3.1 | 1.5 | 1.5 | 0.5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25.7 | 34.3 | 17.1 | 5.7 | 0.0 | 2.9 | 8.6 | 0.0 | 2.9 | 2.9 | 0.0 | 0.0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31.5 | 23.3 | 19.2 | 5.5 | 8.2 | 1.4 | 1.4 | 2.7 | 5.5 | 1.4 | 0.0 | 0.0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36.1 | 27.8 | 11.1 | 0.0 | 13.9 | 2.8 | 0.0 | 2.8 | 2.8 | 0.0 | 2.8 | 0.0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44.8 | 17.2 | 20.7 | 0.0 | 3.4 | 0.0 | 3.4 | 6.9 | 0.0 | 3.4 | 0.0 | 0.0 | 100.0 |
| | 파견용역하청 | (2)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41.2 | 23.5 | 5.9 | 8.8 | 5.9 | 2.9 | 2.9 | 2.9 | 2.9 | 2.9 | 0.0 | 0.0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18.8 | 43.8 | 12.5 | 6.3 | 6.3 | 0.0 | 6.3 | 6.3 | 0.0 | 0.0 | 0.0 | 0.0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26.4 | 35.2 | 14.3 | 4.4 | 0.0 | 6.6 | 4.4 | 2.2 | 3.3 | 1.1 | 0.0 | 2.2 | 100.0 |
| 기타 | (48) | 27.1 | 27.1 | 16.7 | 16.7 | 0.0 | 2.1 | 4.2 | 2.1 | 2.1 | 2.1 | 0.0 | 0.0 | 100.0 |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35.2 | 22.0 | 15.7 | 6.3 | 7.5 | 1.3 | 2.5 | 3.8 | 3.8 | 1.3 | 0.6 | 0.0 | 100.0 |
| | 아파트 | (339) | 27.7 | 29.2 | 16.5 | 4.4 | 3.2 | 5.9 | 3.8 | 2.7 | 2.9 | 1.8 | 0.9 | 0.9 | 100.0 |

| | | 사례수 | 낮은 소득 수준(경제적 빈곤) | 건강 문제 및 의료비 문제 | 고령/은퇴자 일감(일자리) 부족 | 미래(노후) 불안정 | 고용불안정 | 경제생활이 없어 다양한 사회생활, 대인 관계 단절 |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싶지만 기회 및 정보 부족 | 고령 일자리의 노동환경 열악한 조건 | 주거 생활 및 주택문제 | 자녀들과의 소통이나 관계 점진적 단절 | 구인구직 등 일자리 재취업 교육훈련 부족 | 휴가/휴일 등 여가시간 부족 | 계 |
|-------|---------------------|-------|------------------|----------------|-------------------|------------|-------|-----------------------------|-----------------------------|---------------------|--------------|----------------------|------------------------|-----------------|-------|
| | 단독주택 | (50) | 40.0 | 14.0 | 12.0 | 18.0 | 0.0 | 2.0 | 6.0 | 4.0 | 2.0 | 2.0 | 0.0 | 0.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50.0 | 25.0 | 0.0 | 0.0 | 25.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기타 | (7) | 57.1 | 14.3 | 28.6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27.0 | 29.3 | 18.2 | 5.0 | 4.5 | 4.3 | 4.5 | 3.1 | 0.7 | 1.9 | 0.9 | 0.7 | 100.0 |
| | 전세 | (95) | 47.4 | 14.7 | 7.4 | 9.5 | 4.2 | 4.2 | 1.1 | 2.1 | 8.4 | 1.1 | 0.0 | 0.0 | 100.0 |
| | 월세 | (33) | 45.5 | 9.1 | 9.1 | 9.1 | 3.0 | 3.0 | 0.0 | 6.1 | 15.2 | 0.0 | 0.0 | 0.0 | 100.0 |
| | 기타 | (8) | 25.0 | 25.0 | 25.0 | 12.5 | 0.0 | 0.0 | 0.0 | 0.0 | 12.5 | 0.0 | 0.0 | 0.0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39.6 | 20.8 | 16.7 | 4.2 | 2.1 | 0.0 | 0.0 | 4.2 | 10.4 | 2.1 | 0.0 | 0.0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32.6 | 26.0 | 18.2 | 5.0 | 5.0 | 2.8 | 2.2 | 2.8 | 1.7 | 2.8 | 0.0 | 1.1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 | (303) | 29.4 | 27.7 | 13.9 | 6.6 | 4.0 | 5.6 | 4.3 | 3.0 | 3.0 | 1.0 | 1.3 | 0.3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부모 | (11) | 27.3 | 9.1 | 9.1 | 9.1 | 18.2 | 9.1 | 18.2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부모 | (13) | 30.8 | 7.7 | 30.8 | 15.4 | 0.0 | 0.0 | 7.7 | 7.7 | 0.0 | 0.0 | 0.0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손자녀 | (2) | 50.0 | 0.0 | 5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기타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51.9 | 18.5 | 18.5 | 3.7 | 0.0 | 0.0 | 3.7 | 0.0 | 0.0 | 3.7 | 0.0 | 0.0 | 100.0 |
| | 고졸 | (232) | 34.1 | 22.4 | 16.4 | 4.3 | 6.5 | 1.7 | 3.4 | 4.7 | 3.4 | 2.2 | 0.0 | 0.9 | 100.0 |
| | 대졸 | (248) | 28.2 | 27.8 | 15.3 | 6.9 | 2.8 | 6.9 | 4.0 | 2.4 | 3.2 | 1.2 | 1.2 | 0.0 | 100.0 |
| | 대학원 | (52) | 25.0 | 32.7 | 15.4 | 11.5 | 3.8 | 3.8 | 1.9 | 0.0 | 1.9 | 0.0 | 1.9 | 1.9 | 100.0 |

<부표 29> 은퇴 이후 가장 힘든 점이나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 것(1순위+2순위, 복수응답)

| | | 사례수 | 건강 문제 및 의료비 문제 | 낮은 소득 수준 (경제적 빈곤) | 고령/은퇴자 일감 (일자리) 부족 | 미래(노후) 불안정 | 경제생활이 없어 다양한 사회생활, 대인 관계 단절 | 고령 일자의 노동환경 열악한 조건 | 고용불안정 |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싶지만, 기회 및 정보 부족 | 주거 생활 및 주택문제 | 자녀들과의 소통이나 관계 점진적 단절 | 구인구직 등 일자리 재취업 교육 훈련 부족 | 휴가/휴일 등 여가시간 부족 |
|-----------|---------------|-------|----------------|-------------------|--------------------|------------|-----------------------------|--------------------|-------|------------------------------|--------------|----------------------|-------------------------|-----------------|
| ■ 전체 ■ | | (559) | 49.2 | 39.4 | 29.3 | 21.8 | 14.7 | 11.3 | 8.1 | 7.9 | 7.7 | 6.4 | 2.3 | 2.0 |
| 성별 | 여성 | (290) | 53.1 | 39.0 | 25.2 | 21.4 | 13.4 | 11.0 | 9.0 | 6.6 | 8.6 | 7.2 | 2.4 | 3.1 |
| | 남성 | (269) | 45.0 | 39.8 | 33.8 | 22.3 | 16.0 | 11.5 | 7.1 | 9.3 | 6.7 | 5.6 | 2.2 | 0.7 |
| 연령대 | 55-59세 | (176) | 48.9 | 46.0 | 22.7 | 22.7 | 12.5 | 10.2 | 8.5 | 7.4 | 9.1 | 8.0 | 3.4 | 0.6 |
| | 60-64세 | (180) | 47.2 | 36.7 | 30.6 | 21.1 | 17.2 | 13.3 | 8.9 | 7.2 | 8.9 | 3.3 | 2.2 | 3.3 |
| | 65-69세 | (142) | 51.4 | 34.5 | 32.4 | 20.4 | 15.5 | 11.3 | 8.5 | 8.5 | 5.6 | 8.5 | 1.4 | 2.1 |
| | 70-74세 | (61) | 50.8 | 39.3 | 37.7 | 24.6 | 11.5 | 8.2 | 3.3 | 9.8 | 4.9 | 6.6 | 1.6 | 1.6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 (195) | 46.2 | 38.5 | 31.8 | 24.6 | 14.9 | 10.8 | 9.2 | 6.2 | 6.2 | 7.7 | 3.6 | 0.5 |
| | 무기계약직 | (35) | 57.1 | 40.0 | 34.3 | 14.3 | 17.1 | 11.4 | 2.9 | 11.4 | 5.7 | 5.7 | 0.0 | 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45.2 | 39.7 | 31.5 | 20.5 | 13.7 | 16.4 | 13.7 | 4.1 | 11.0 | 2.7 | 1.4 | 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55.6 | 36.1 | 19.4 | 22.2 | 11.1 | 2.8 | 13.9 | 16.7 | 5.6 | 5.6 | 5.6 | 5.6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51.7 | 62.1 | 41.4 | 10.3 | 3.4 | 13.8 | 6.9 | 3.4 | 3.4 | 3.4 | 0.0 | 0.0 |
| | 파견용역하청 | (2) | 0.0 | 100.0 | 50.0 | 0.0 | 0.0 | 0.0 | 50.0 | 0.0 | 0.0 | 0.0 | 0.0 | 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55.9 | 52.9 | 11.8 | 23.5 | 5.9 | 5.9 | 11.8 | 5.9 | 17.6 | 2.9 | 2.9 | 2.9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68.8 | 18.8 | 12.5 | 25.0 | 18.8 | 25.0 | 6.3 | 6.3 | 12.5 | 0.0 | 0.0 | 6.3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47.3 | 37.4 | 31.9 | 16.5 | 20.9 | 8.8 | 1.1 | 12.1 | 9.9 | 7.7 | 1.1 | 5.5 |
| 기타 | (48) | 50.0 | 29.2 | 25.0 | 33.3 | 16.7 | 14.6 | 4.2 | 8.3 | 2.1 | 12.5 | 2.1 | 2.1 | |
| 거주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49.1 | 42.1 | 27.7 | 23.3 | 12.6 | 13.2 | 12.6 | 5.0 | 8.8 | 3.8 | 1.3 | 0.6 |

| | | 사례수 | 건강 문제 및 의료비 문제 | 낮은 소득 수준 (경제적 빈곤) | 고령/은퇴자 일감 (일자리) 부족 | 미래(노후) 불안정 | 경제생활이 없어 다양한 사회생활, 대인 관계 단절 | 고령 일자리의 노동환경 열악한 조건 | 고용불안정 |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싶지만, 기회 및 정보 부족 | 주거 생활 및 주택문제 | 자녀들과의 소통이나 관계 점진적 단절 | 구인구직 등 일자리 재취업 교육 훈련 부족 | 휴가/휴일 등 여가시간 부족 | |
|-------|---------------------|-------|----------------|-------------------|--------------------|------------|-----------------------------|---------------------|-------|------------------------------|--------------|----------------------|-------------------------|-----------------|-----|
| 형태 | 아파트 | (339) | 51.3 | 36.3 | 31.9 | 21.2 | 15.9 | 9.7 | 6.5 | 8.0 | 5.9 | 7.4 | 3.2 | 2.7 | |
| | 단독주택 | (50) | 38.0 | 48.0 | 20.0 | 26.0 | 16.0 | 16.0 | 2.0 | 14.0 | 8.0 | 10.0 | 0.0 | 2.0 |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50.0 | 50.0 | 0.0 | 0.0 | 0.0 | 25.0 | 25.0 | 25.0 | 25.0 | 0.0 | 0.0 | 0.0 | |
| | 기타 | (7) | 28.6 | 57.1 | 28.6 | 0.0 | 0.0 | 0.0 | 14.3 | 14.3 | 57.1 | 0.0 | 0.0 | 0.0 | |
| | 자가 | (423) | 51.8 | 34.5 | 32.2 | 21.3 | 17.0 | 11.3 | 8.3 | 9.0 | 1.4 | 8.0 | 2.6 | 2.6 | |
| 점유 형태 | 전세 | (95) | 43.2 | 56.8 | 22.1 | 24.2 | 7.4 | 11.6 | 5.3 | 3.2 | 22.1 | 2.1 | 2.1 | 0.0 | |
| | 월세 | (33) | 33.3 | 54.5 | 12.1 | 21.2 | 9.1 | 12.1 | 12.1 | 6.1 | 39.4 | 0.0 | 0.0 | 0.0 | |
| | 기타 | (8) | 50.0 | 25.0 | 37.5 | 25.0 | 0.0 | 0.0 | 12.5 | 12.5 | 37.5 | 0.0 | 0.0 | 0.0 | |
| | 1인가구(본인) | (48) | 47.9 | 54.2 | 25.0 | 20.8 | 0.0 | 14.6 | 8.3 | 4.2 | 18.8 | 6.3 | 0.0 | 0.0 | |
| 가구 형태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53.0 | 38.7 | 33.1 | 17.7 | 11.0 | 9.9 | 9.9 | 7.7 | 5.5 | 8.8 | 1.1 | 3.3 |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 | (303) | 49.2 | 37.6 | 27.1 | 24.8 | 19.8 | 10.2 | 6.3 | 7.9 | 7.3 | 4.6 | 3.6 | 1.7 | |
| | 본인(또는 배우자)+부모 | (11) | 18.2 | 27.3 | 27.3 | 9.1 | 9.1 | 45.5 | 27.3 | 18.2 | 18.2 | 0.0 | 0.0 | 0.0 |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부모 | (13) | 23.1 | 38.5 | 46.2 | 23.1 | 7.7 | 15.4 | 7.7 | 15.4 | 0.0 | 23.1 | 0.0 | 0.0 |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손자녀 | (2) | 100.0 | 50.0 | 5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기타 | (1) | 0.0 | 10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44.4 | 55.6 | 37.0 | 22.2 | 14.8 | 0.0 | 3.7 | 11.1 | 3.7 | 3.7 | 3.7 | 0.0 |
| | 고졸 | (232) | 45.3 | 43.5 | 30.6 | 16.4 | 13.4 | 15.1 | 11.6 | 6.9 | 6.9 | 6.5 | 1.3 | 2.6 | |

| | 사례수 | 건강 문제 및 의료비 문제 | 낮은 소득 수준 (경제적 빈곤) | 고령/은퇴자 일감 (일자리) 부족 | 미래(노후) 불안정 | 경제생활이 없어 다양한 사회생활, 대인 관계 단절 | 고령 일자리의 노동환경 열악한 조건 | 고용불안정 |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싶지만, 기회 및 정보 부족 | 주거 생활 및 주택문제 | 자녀들과의 소통이나 관계 점진적 단절 | 구인구직 등 일자리 재취업 교육 훈련 부족 | 휴가/휴일 등 여가시간 부족 |
|-----|-------|----------------|-------------------|--------------------|------------|-----------------------------|---------------------|-------|------------------------------|--------------|----------------------|-------------------------|-----------------|
| 대졸 | (248) | 50.8 | 36.3 | 27.4 | 26.6 | 15.3 | 10.5 | 5.2 | 8.5 | 8.9 | 6.9 | 2.4 | 1.2 |
| 대학원 | (52) | 61.5 | 26.9 | 28.8 | 23.1 | 17.3 | 3.8 | 7.7 | 7.7 | 7.7 | 5.8 | 5.8 | 3.8 |

<부표 30> 은퇴 이후 현재 서울시나 구청 등 지자체에서 고령·은퇴자들에게 일자리 이외의 지원 정책으로 필요한 항목(1순위)

| | | 사례수 | 건강의료비 | 식료품 | 자기개발(교육훈련) | 월세/관리비 | 수도/광열(냉난방) | 문화생활 비용 | 통신/인터넷 | 교통비 | 부채상환/이자 | 월저축액(적금/예금) | 민간보험금 | 경조사 비용 | 의류/미용 | 계 |
|--------|-----------|-------|-------|------|------------|--------|------------|---------|--------|-----|---------|-------------|-------|--------|-------|-------|
| ■ 전체 ■ | | (559) | 42.6 | 10.7 | 10.6 | 9.3 | 7.0 | 4.7 | 3.6 | 2.7 | 2.7 | 2.5 | 2.5 | 0.7 | 0.5 | 100.0 |
| 성별 | 여성 | (290) | 43.4 | 9.7 | 9.7 | 10.0 | 7.9 | 5.5 | 3.8 | 1.7 | 1.7 | 2.1 | 3.4 | 0.3 | 0.7 | 100.0 |
| | 남성 | (269) | 41.6 | 11.9 | 11.5 | 8.6 | 5.9 | 3.7 | 3.3 | 3.7 | 3.7 | 3.0 | 1.5 | 1.1 | 0.4 | 10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41.5 | 10.8 | 10.2 | 10.2 | 6.3 | 3.4 | 5.1 | 2.3 | 3.4 | 2.3 | 3.4 | 1.1 | 0.0 | 100.0 |
| | 60-64세 | (180) | 43.9 | 10.0 | 12.2 | 9.4 | 6.1 | 3.9 | 1.7 | 3.3 | 2.8 | 2.8 | 2.2 | 1.1 | 0.6 | 100.0 |
| | 65-69세 | (142) | 42.3 | 11.3 | 10.6 | 9.2 | 7.7 | 6.3 | 4.2 | 2.8 | 0.7 | 2.1 | 1.4 | 0.0 | 1.4 | 100.0 |
| | 70-74세 | (61) | 42.6 | 11.5 | 6.6 | 6.6 | 9.8 | 6.6 | 3.3 | 1.6 | 4.9 | 3.3 | 3.3 | 0.0 | 0.0 | 100.0 |
| 종사상지위 | 정규직 | (195) | 44.6 | 13.3 | 10.3 | 7.7 | 5.6 | 3.1 | 3.1 | 3.1 | 1.5 | 2.6 | 3.1 | 1.0 | 1.0 | 100.0 |
| | 무기계약직 | (35) | 22.9 | 11.4 | 8.6 | 8.6 | 28.6 | 2.9 | 2.9 | 2.9 | 5.7 | 5.7 | 0.0 | 0.0 | 0.0 | 100.0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41.1 | 6.8 | 9.6 | 9.6 | 11.0 | 5.5 | 5.5 | 5.5 | 5.5 | 0.0 | 0.0 | 0.0 | 0.0 | 10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38.9 | 19.4 | 13.9 | 8.3 | 0.0 | 2.8 | 8.3 | 2.8 | 2.8 | 0.0 | 2.8 | 0.0 | 0.0 | 10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44.8 | 10.3 | 10.3 | 17.2 | 0.0 | 0.0 | 0.0 | 6.9 | 0.0 | 3.4 | 3.4 | 3.4 | 0.0 | 100.0 |

| | | 사례수 | 건강의 료비 | 식료품 | 자기계 발(교육 훈련) | 월세/관 리비 | 수도/광 열(냉난 방) | 문화생 활 비용 | 통신/인 터넷 | 교통비 | 부채상 환/이자 | 월 저축액(적금/예 금) | 민간보 험금 | 경조사 비용 | 의류/미 용 | 계 |
|----------|-----------------------|-------|-----------|------|--------------------|------------|--------------------|-------------|------------|-----|-------------|-------------------------|-----------|-----------|-----------|-------|
| | 파견용역하청 | (2) | 5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50.0 | 0.0 | 0.0 | 0.0 | 10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35.3 | 11.8 | 11.8 | 8.8 | 2.9 | 14.7 | 2.9 | 2.9 | 5.9 | 0.0 | 2.9 | 0.0 | 0.0 | 10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56.3 | 12.5 | 6.3 | 12.5 | 6.3 | 6.3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39.6 | 8.8 | 9.9 | 12.1 | 7.7 | 6.6 | 4.4 | 0.0 | 1.1 | 4.4 | 4.4 | 1.1 | 0.0 | 100.0 |
| | 기타 | (48) | 58.3 | 2.1 | 14.6 | 6.3 | 2.1 | 4.2 | 2.1 | 0.0 | 4.2 | 2.1 | 2.1 | 0.0 | 2.1 | 100.0 |
| 거주 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37.1 | 15.1 | 8.2 | 9.4 | 11.3 | 4.4 | 3.1 | 1.9 | 1.9 | 3.8 | 3.1 | 0.6 | 0.0 | 100.0 |
| | 아파트 | (339) | 46.0 | 8.8 | 11.8 | 8.0 | 4.1 | 5.3 | 4.4 | 2.7 | 3.2 | 1.8 | 2.4 | 0.9 | 0.6 | 100.0 |
| | 단독주택 | (50) | 36.0 | 8.0 | 12.0 | 18.0 | 14.0 | 2.0 | 0.0 | 6.0 | 2.0 | 2.0 | 0.0 | 0.0 | 0.0 | 10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0.0 | 25.0 | 0.0 | 25.0 | 0.0 | 0.0 | 0.0 | 0.0 | 0.0 | 25.0 | 0.0 | 0.0 | 25.0 | 100.0 |
| | 기타 | (7) | 71.4 | 14.3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4.3 | 0.0 | 0.0 | 100.0 |
| 점유 형태 | 자가 | (423) | 45.2 | 8.7 | 13.2 | 4.7 | 8.3 | 5.7 | 4.0 | 2.6 | 2.1 | 1.4 | 2.6 | 0.7 | 0.7 | 100.0 |
| | 전세 | (95) | 36.8 | 18.9 | 2.1 | 16.8 | 4.2 | 2.1 | 3.2 | 2.1 | 3.2 | 7.4 | 2.1 | 1.1 | 0.0 | 100.0 |
| | 월세 | (33) | 27.3 | 15.2 | 3.0 | 39.4 | 0.0 | 0.0 | 0.0 | 6.1 | 6.1 | 3.0 | 0.0 | 0.0 | 0.0 | 100.0 |
| | 기타 | (8) | 37.5 | 0.0 | 0.0 | 37.5 | 0.0 | 0.0 | 0.0 | 0.0 | 12.5 | 0.0 | 12.5 | 0.0 | 0.0 | 100.0 |
| 가구 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37.5 | 12.5 | 4.2 | 29.2 | 4.2 | 2.1 | 2.1 | 0.0 | 0.0 | 6.3 | 2.1 | 0.0 | 0.0 | 10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 자) | (181) | 44.8 | 11.6 | 8.3 | 8.8 | 7.7 | 4.4 | 2.2 | 4.4 | 1.7 | 2.2 | 2.2 | 0.6 | 1.1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 | (303) | 42.9 | 9.6 | 13.2 | 6.6 | 6.6 | 5.0 | 5.0 | 2.0 | 3.3 | 2.0 | 3.0 | 0.7 | 0.3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9.1 | 9.1 | 9.1 | 9.1 | 18.2 | 9.1 | 0.0 | 0.0 | 18.2 | 9.1 | 0.0 | 9.1 | 0.0 | 100.0 |
| | 본인(또는 배우자) | (13) | 46.2 | 15.4 | 7.7 | 7.7 | 7.7 | 7.7 | 0.0 | 7.7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 사례수 | 건강의료비 | 식료품 | 자기계발(교육훈련) | 월세/관리비 | 수도/광열(냉난방) | 문화생활비용 | 통신/인터넷 | 교통비 | 부채상환/이자 | 월저축액(적금/예금) | 민간보험금 | 경조사비용 | 의류/미용 | 계 |
|-------|-------------------|-------|-------|-------|------------|--------|------------|--------|--------|-----|---------|-------------|-------|-------|-------|-------|
| | +자녀+부모 | | | | | | | | | | | | | | | |
| | 본인(또는 배우자)+자녀+손자녀 | (2)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기타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51.9 | 3.7 | 7.4 | 7.4 | 14.8 | 3.7 | 0.0 | 3.7 | 0.0 | 0.0 | 7.4 | 0.0 | 0.0 | 100.0 |
| | 고졸 | (232) | 40.9 | 10.8 | 7.8 | 11.2 | 10.3 | 4.3 | 3.4 | 2.6 | 0.9 | 3.4 | 2.6 | 0.9 | 0.9 | 100.0 |
| | 대졸 | (248) | 42.7 | 10.9 | 12.9 | 8.5 | 3.6 | 5.6 | 4.4 | 2.0 | 4.4 | 2.0 | 2.0 | 0.8 | 0.0 | 100.0 |
| | 대학원 | (52) | 44.2 | 13.5 | 13.5 | 5.8 | 3.8 | 1.9 | 1.9 | 5.8 | 3.8 | 1.9 | 1.9 | 0.0 | 1.9 | 100.0 |

<부표 31> 은퇴 이후 현재 서울시나 구청 등 지자체에서 고령·은퇴자들에게 일자리 이외의 지원 정책으로 필요한 항목(1순위+2순위, 복수응답)

| | | 사례수 | 건강의료비 | 식료품 | 문화생활비용 | 월세/관리비 | 수도/광열(냉난방) | 자기계발(교육훈련) | 통신/인터넷 | 부채상환/이자 | 민간보험금 | 교통비 | 경조사비용 | 월저축액(적금/예금) | 의류/미용 | 자녀교육 | 기타 |
|--------|--------|-------|-------|------|--------|--------|------------|------------|--------|---------|-------|-----|-------|-------------|-------|------|-----|
| ■ 전체 ■ | | (559) | 62.6 | 24.5 | 19.7 | 19.1 | 17.5 | 17.5 | 10.4 | 6.6 | 6.3 | 5.2 | 4.5 | 3.8 | 1.6 | 0.4 | 0.4 |
| 성별 | 여성 | (290) | 64.1 | 22.4 | 20.7 | 18.6 | 19.0 | 18.6 | 10.3 | 5.2 | 7.9 | 2.8 | 4.8 | 2.8 | 1.7 | 0.3 | 0.7 |
| | 남성 | (269) | 61.0 | 26.8 | 18.6 | 19.7 | 16.0 | 16.4 | 10.4 | 8.2 | 4.5 | 7.8 | 4.1 | 4.8 | 1.5 | 0.4 | 0.0 |
| 연령대 | 55-59세 | (176) | 61.9 | 28.4 | 14.8 | 22.7 | 15.9 | 17.6 | 11.4 | 6.8 | 7.4 | 2.8 | 4.5 | 3.4 | 1.7 | 0.6 | 0.0 |
| | 60-64세 | (180) | 60.0 | 23.3 | 16.7 | 20.6 | 16.1 | 19.4 | 8.3 | 7.8 | 9.4 | 8.3 | 4.4 | 3.3 | 1.1 | 0.6 | 0.6 |
| | 65-69세 | (142) | 64.8 | 22.5 | 27.5 | 14.8 | 18.3 | 17.6 | 12.7 | 5.6 | 2.1 | 4.2 | 4.2 | 3.5 | 2.1 | 0.0 | 0.0 |
| | 70-74세 | (61) | 67.2 | 21.3 | 24.6 | 14.8 | 24.6 | 11.5 | 8.2 | 4.9 | 3.3 | 4.9 | 4.9 | 6.6 | 1.6 | 0.0 | 1.6 |
| 종사상지위 | 정규직 | (195) | 61.0 | 29.2 | 21.0 | 20.0 | 15.4 | 15.9 | 10.3 | 5.1 | 7.2 | 5.1 | 4.6 | 3.1 | 1.0 | 0.5 | 0.5 |
| | 무기계약직 | (35) | 54.3 | 17.1 | 11.4 | 22.9 | 37.1 | 25.7 | 8.6 | 5.7 | 2.9 | 2.9 | 0.0 | 8.6 | 2.9 | 0.0 | 0.0 |

| | | 사례수 | 건강의료비 | 식료품 | 문화생활비용 | 월세/관리비 | 수도/광열(냉난방) | 자기계발(교육훈련) | 통신/인터넷 | 부채상환/이자 | 민간보험금 | 교통비 | 경조사비용 | 월저축액(적금/예금) | 의료/미용 | 자녀교육 | 기타 |
|------|---------------------|-------|-------|------|--------|--------|------------|------------|--------|---------|-------|------|-------|-------------|-------|------|-----|
| | 기간제/임시계약직 | (73) | 64.4 | 21.9 | 15.1 | 19.2 | 19.2 | 15.1 | 13.7 | 12.3 | 5.5 | 6.8 | 2.7 | 2.7 | 1.4 | 0.0 | 0.0 |
| | 시간제 파트타임 | (36) | 58.3 | 30.6 | 22.2 | 19.4 | 5.6 | 19.4 | 19.4 | 11.1 | 2.8 | 2.8 | 2.8 | 2.8 | 0.0 | 2.8 | 0.0 |
| | 비정규직(일용직) | (29) | 75.9 | 20.7 | 6.9 | 27.6 | 20.7 | 13.8 | 6.9 | 3.4 | 10.3 | 6.9 | 3.4 | 3.4 | 0.0 | 0.0 | 0.0 |
| | 파견용역하청 | (2) | 50.0 | 50.0 | 0.0 | 5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50.0 | 0.0 | 0.0 | 0.0 |
| | 특수고용/프리랜서 | (34) | 61.8 | 23.5 | 35.3 | 17.6 | 8.8 | 11.8 | 11.8 | 8.8 | 2.9 | 5.9 | 5.9 | 2.9 | 2.9 | 0.0 | 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68.8 | 31.3 | 18.8 | 18.8 | 25.0 | 12.5 | 6.3 | 0.0 | 12.5 | 0.0 | 6.3 | 0.0 | 0.0 | 0.0 | 0.0 |
| | 실업/구직활동상태(무직) | (91) | 57.1 | 24.2 | 19.8 | 17.6 | 22.0 | 16.5 | 8.8 | 5.5 | 7.7 | 5.5 | 6.6 | 5.5 | 3.3 | 0.0 | 0.0 |
| | 기타 | (48) | 77.1 | 10.4 | 22.9 | 10.4 | 12.5 | 31.3 | 6.3 | 6.3 | 4.2 | 6.3 | 6.3 | 2.1 | 2.1 | 0.0 | 2.1 |
| 거주형태 | 연립/다세대주택 | (159) | 56.6 | 29.6 | 20.1 | 20.1 | 25.2 | 17.0 | 8.8 | 5.0 | 3.8 | 3.1 | 2.5 | 5.0 | 0.6 | 1.3 | 1.3 |
| | 아파트 | (339) | 66.1 | 22.4 | 21.2 | 17.4 | 12.1 | 18.3 | 11.5 | 7.1 | 7.4 | 5.9 | 5.6 | 2.9 | 2.1 | 0.0 | 0.0 |
| | 단독주택 | (50) | 60.0 | 22.0 | 12.0 | 20.0 | 34.0 | 16.0 | 10.0 | 6.0 | 6.0 | 6.0 | 4.0 | 4.0 | 0.0 | 0.0 | 0.0 |
| | 비주택(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 (4) | 25.0 | 50.0 | 0.0 | 25.0 | 0.0 | 25.0 | 0.0 | 25.0 | 0.0 | 0.0 | 0.0 | 25.0 | 25.0 | 0.0 | 0.0 |
| | 기타 | (7) | 71.4 | 14.3 | 0.0 | 71.4 | 0.0 | 0.0 | 0.0 | 14.3 | 14.3 | 14.3 | 0.0 | 0.0 | 0.0 | 0.0 | 0.0 |
| 점유형태 | 자가 | (423) | 65.0 | 22.2 | 22.0 | 12.5 | 20.1 | 20.8 | 9.9 | 5.4 | 6.4 | 5.2 | 5.2 | 2.8 | 1.9 | 0.2 | 0.2 |
| | 전세 | (95) | 60.0 | 33.7 | 11.6 | 30.5 | 10.5 | 7.4 | 14.7 | 7.4 | 6.3 | 5.3 | 2.1 | 7.4 | 1.1 | 1.1 | 1.1 |
| | 월세 | (33) | 42.4 | 33.3 | 15.2 | 60.6 | 6.1 | 9.1 | 6.1 | 12.1 | 3.0 | 6.1 | 0.0 | 6.1 | 0.0 | 0.0 | 0.0 |
| | 기타 | (8) | 50.0 | 0.0 | 12.5 | 62.5 | 12.5 | 0.0 | 0.0 | 37.5 | 12.5 | 0.0 | 12.5 | 0.0 | 0.0 | 0.0 | 0.0 |
| 가구형태 | 1인가구(본인) | (48) | 58.3 | 29.2 | 18.8 | 37.5 | 14.6 | 12.5 | 6.3 | 8.3 | 2.1 | 0.0 | 4.2 | 8.3 | 0.0 | 0.0 | 0.0 |
| | 부부가구(본인+배우자) | (181) | 66.9 | 24.9 | 22.1 | 17.1 | 19.3 | 13.8 | 8.8 | 4.4 | 3.9 | 7.7 | 5.0 | 3.3 | 2.8 | 0.0 | 0.0 |
| | 본인(또는 배우자) | (303) | 61.1 | 24.1 | 19.5 | 16.8 | 15.5 | 20.5 | 12.5 | 7.3 | 8.6 | 4.3 | 4.3 | 3.3 | 1.3 | 0.3 | 0.7 |

| | | 사례수 | 건강의 료비 | 식료품 | 문화생 활 비용 | 월세/관 리비 | 수도/광 열(냉난 방) | 자기계 발(교육 훈련) | 통신/인 터넷 | 부채상 환/이자 | 민간보 험금 | 교통비 | 경조사 비용 | 월 저축액(적금/예 금) | 의류/ 미용 | 자녀 교육 | 기타 |
|----------|-----------------------|-------|-----------|-------|----------------|------------|--------------------|--------------------|------------|-------------|-----------|------|-----------|-------------------------|-----------|----------|-----|
| | +자녀 | | | | | | | | | | | | | | | | |
| | 본인(또는 배우자) +부모 | (11) | 45.5 | 9.1 | 9.1 | 54.5 | 18.2 | 18.2 | 9.1 | 18.2 | 0.0 | 0.0 | 9.1 | 9.1 | 0.0 | 0.0 | 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부모 | (13) | 69.2 | 23.1 | 7.7 | 7.7 | 38.5 | 15.4 | 0.0 | 7.7 | 7.7 | 15.4 | 0.0 | 0.0 | 0.0 | 7.7 | 0.0 |
| | 본인(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 (2) | 100.0 | 0.0 | 0.0 | 0.0 | 50.0 | 5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기타 | (1) | 0.0 | 10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27) | 66.7 | 18.5 | 18.5 | 11.1 | 44.4 | 14.8 | 0.0 | 3.7 | 7.4 | 7.4 | 3.7 | 0.0 | 3.7 | 0.0 | 0.0 |
| | 고졸 | (232) | 58.2 | 28.9 | 19.0 | 19.8 | 20.7 | 15.9 | 12.9 | 2.6 | 6.0 | 3.9 | 5.2 | 4.3 | 1.7 | 0.9 | 0.0 |
| | 대졸 | (248) | 64.5 | 22.2 | 21.8 | 19.4 | 12.9 | 19.4 | 8.9 | 9.7 | 6.5 | 4.8 | 4.4 | 4.0 | 0.8 | 0.0 | 0.8 |
| | 대학원 | (52) | 71.2 | 19.2 | 13.5 | 19.2 | 11.5 | 17.3 | 11.5 | 11.5 | 5.8 | 11.5 | 1.9 | 1.9 | 3.8 | 0.0 | 0.0 |

<부표 32> 고령자·은퇴자로서 일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 [SUMMARY]¹⁸⁾

1) 일하고 싶으나 나이 제한 때문에 일자리 얻거나 취업하기 어렵다.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0.7% | 4.5% | 13.2% | 53.5% | 28.1% | 75.9 |
| 성별 | 여성 | 290 | 0.3% | 4.5% | 10.7% | 58.3% | 26.2% | 76.4 |
| | 남성 | 269 | 1.1% | 4.5% | 16.0% | 48.3% | 30.1% | 75.5 |
| 연령대 | 55-59세 | 176 | 1.1% | 6.8% | 12.5% | 51.1% | 28.4% | 74.7 |
| | 60-64세 | 180 | 1.1% | 2.2% | 16.7% | 50.0% | 30.0% | 76.4 |
| | 65-69세 | 142 | 0.0% | 4.9% | 9.9% | 57.0% | 28.2% | 77.1 |
| | 70-74세 | 61 | 0.0% | 3.3% | 13.1% | 62.3% | 21.3% | 75.4 |

2) 나이로 인해 일자리 또는 직장에서 차별받았다. (예: 보수, 업무, 직책 등)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3.6% | 21.1% | 27.7% | 33.1% | 14.5% | 58.5 |
| 성별 | 여성 | 290 | 3.1% | 25.5% | 25.5% | 32.4% | 13.4% | 56.9 |
| | 남성 | 269 | 4.1% | 16.4% | 30.1% | 33.8% | 15.6% | 60.1 |
| 연령대 | 55-59세 | 176 | 6.3% | 18.8% | 25.6% | 34.1% | 15.3% | 58.4 |
| | 60-64세 | 180 | 2.2% | 25.0% | 27.8% | 32.8% | 12.2% | 56.9 |
| | 65-69세 | 142 | 2.8% | 20.4% | 30.3% | 33.1% | 13.4% | 58.5 |
| | 70-74세 | 61 | 1.6% | 18.0% | 27.9% | 31.1% | 21.3% | 63.1 |

3) 나이에 적합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없었다. (예: 직무성격, 근로시간 등)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4.3% | 14.1% | 25.9% | 39.5% | 16.1% | 62.3 |
| 성별 | 여성 | 290 | 3.8% | 16.6% | 25.5% | 37.6% | 16.6% | 61.6 |
| | 남성 | 269 | 4.8% | 11.5% | 26.4% | 41.6% | 15.6% | 62.9 |
| 연령대 | 55-59세 | 176 | 6.8% | 13.1% | 26.1% | 36.4% | 17.6% | 61.2 |
| | 60-64세 | 180 | 2.8% | 18.3% | 26.7% | 36.1% | 16.1% | 61.1 |
| | 65-69세 | 142 | 4.2% | 12.7% | 23.9% | 46.5% | 12.7% | 62.7 |
| | 70-74세 | 61 | 1.6% | 8.2% | 27.9% | 42.6% | 19.7% | 67.6 |

4) 고령자를 위한 취업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1.3% | 8.6% | 22.9% | 46.2% | 21.1% | 69.3 |
| 성별 | 여성 | 290 | 1.0% | 10.0% | 21.7% | 44.8% | 22.4% | 69.4 |
| | 남성 | 269 | 1.5% | 7.1% | 24.2% | 47.6% | 19.7% | 69.2 |
| 연령대 | 55-59세 | 176 | 2.8% | 10.8% | 25.6% | 40.9% | 19.9% | 66.1 |
| | 60-64세 | 180 | 0.6% | 10.6% | 21.1% | 49.4% | 18.3% | 68.6 |
| | 65-69세 | 142 | 0.0% | 5.6% | 21.8% | 43.7% | 28.9% | 73.9 |
| | 70-74세 | 61 | 1.6% | 3.3% | 23.0% | 57.4% | 14.8% | 70.1 |

18) 1=전혀 그렇지 않음(0점), 2=별로 그렇지 않음(25점), 3=그저 그런편(보통)(50점), 4=약간 그러함(75점), 5=매우 그러함(100점)

5)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1.4% | 9.3% | 15.9% | 48.5% | 24.9% | 71.5 |
| 성별 | 여성 | 290 | 0.7% | 10.3% | 17.6% | 49.3% | 22.1% | 70.4 |
| | 남성 | 269 | 2.2% | 8.2% | 14.1% | 47.6% | 27.9% | 72.7 |
| 연령대 | 55-59세 | 176 | 2.3% | 12.5% | 17.6% | 44.9% | 22.7% | 68.3 |
| | 60-64세 | 180 | 1.1% | 8.9% | 17.2% | 50.0% | 22.8% | 71.1 |
| | 65-69세 | 142 | 0.7% | 7.0% | 13.4% | 48.6% | 30.3% | 75.2 |
| | 70-74세 | 61 | 1.6% | 6.6% | 13.1% | 54.1% | 24.6% | 73.4 |

6) 노년기에 새 일자리 찾는데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기 힘들었다.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1.6% | 9.1% | 28.1% | 44.2% | 17.0% | 66.5 |
| 성별 | 여성 | 290 | 1.4% | 10.7% | 30.0% | 40.7% | 17.2% | 65.4 |
| | 남성 | 269 | 1.9% | 7.4% | 26.0% | 48.0% | 16.7% | 67.6 |
| 연령대 | 55-59세 | 176 | 2.3% | 11.4% | 26.1% | 43.8% | 16.5% | 65.2 |
| | 60-64세 | 180 | 1.7% | 10.0% | 27.2% | 43.3% | 17.8% | 66.4 |
| | 65-69세 | 142 | 0.0% | 6.3% | 30.3% | 46.5% | 16.9% | 68.5 |
| | 70-74세 | 61 | 3.3% | 6.6% | 31.1% | 42.6% | 16.4% | 65.6 |

7)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은퇴해야 했다.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3.8% | 11.8% | 20.4% | 38.3% | 25.8% | 67.6 |
| 성별 | 여성 | 290 | 3.8% | 13.1% | 20.0% | 39.3% | 23.8% | 66.6 |
| | 남성 | 269 | 3.7% | 10.4% | 20.8% | 37.2% | 27.9% | 68.8 |
| 연령대 | 55-59세 | 176 | 8.5% | 13.1% | 19.3% | 38.1% | 21.0% | 62.5 |
| | 60-64세 | 180 | 1.7% | 14.4% | 20.6% | 37.8% | 25.6% | 67.8 |
| | 65-69세 | 142 | 2.1% | 8.5% | 21.8% | 35.9% | 31.7% | 71.7 |
| | 70-74세 | 61 | 0.0% | 8.2% | 19.7% | 45.9% | 26.2% | 72.5 |

8) 취업 가능한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낮다. (예: 저임금, 기피하는 업무 등)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1.6% | 8.1% | 20.9% | 44.2% | 25.2% | 70.8 |
| 성별 | 여성 | 290 | 1.4% | 9.0% | 23.8% | 41.4% | 24.5% | 69.7 |
| | 남성 | 269 | 1.9% | 7.1% | 17.8% | 47.2% | 26.0% | 72.1 |
| 연령대 | 55-59세 | 176 | 2.8% | 9.1% | 22.2% | 42.0% | 23.9% | 68.8 |
| | 60-64세 | 180 | 1.7% | 8.3% | 20.6% | 43.9% | 25.6% | 70.8 |
| | 65-69세 | 142 | 0.7% | 6.3% | 21.8% | 44.4% | 26.8% | 72.5 |
| | 70-74세 | 61 | 0.0% | 8.2% | 16.4% | 50.8% | 24.6% | 73.0 |

9) 나이 때문에 일자리에서 무시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9.7% | 29.5% | 32.4% | 22.7% | 5.7% | 46.3 |
| 성별 | 여성 | 290 | 9.0% | 33.8% | 31.0% | 20.0% | 6.2% | 45.2 |
| | 남성 | 269 | 10.4% | 24.9% | 33.8% | 25.7% | 5.2% | 47.6 |
| 연령대 | 55-59세 | 176 | 10.8% | 25.6% | 35.8% | 22.7% | 5.1% | 46.4 |
| | 60-64세 | 180 | 9.4% | 33.3% | 31.1% | 20.6% | 5.6% | 44.9 |
| | 65-69세 | 142 | 9.2% | 33.8% | 28.9% | 21.8% | 6.3% | 45.6 |
| | 70-74세 | 61 | 8.2% | 19.7% | 34.4% | 31.1% | 6.6% | 52.0 |

<부표 33> 고령·은퇴자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기되는 정책 [SUMMARY]¹⁹⁾

1)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정책 지원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0.4% | 0.7% | 8.6% | 58.1% | 32.2% | 80.3 |
| 성별 | 여성 | 290 | 0.3% | 0.7% | 10.7% | 61.0% | 27.2% | 78.5 |
| | 남성 | 269 | 0.4% | 0.7% | 6.3% | 55.0% | 37.5% | 82.2 |
| 연령대 | 55-59세 | 176 | 0.6% | 1.1% | 9.7% | 54.5% | 34.1% | 80.1 |
| | 60-64세 | 180 | 0.0% | 0.6% | 8.9% | 57.2% | 33.3% | 80.8 |
| | 65-69세 | 142 | 0.0% | 0.7% | 7.0% | 61.3% | 31.0% | 80.6 |
| | 70-74세 | 61 | 1.6% | 0.0% | 8.2% | 63.9% | 26.2% | 78.3 |

2) 저임금, 비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0.2% | 1.8% | 13.2% | 47.4% | 37.4% | 80.0 |
| 성별 | 여성 | 290 | 0.0% | 1.7% | 13.8% | 48.6% | 35.9% | 79.7 |
| | 남성 | 269 | 0.4% | 1.9% | 12.6% | 46.1% | 39.0% | 80.4 |
| 연령대 | 55-59세 | 176 | 0.6% | 1.1% | 13.6% | 48.3% | 36.4% | 79.7 |
| | 60-64세 | 180 | 0.0% | 1.7% | 12.8% | 47.8% | 37.8% | 80.4 |
| | 65-69세 | 142 | 0.0% | 1.4% | 13.4% | 48.6% | 36.6% | 80.1 |
| | 70-74세 | 61 | 0.0% | 4.9% | 13.1% | 41.0% | 41.0% | 79.5 |

3) 은퇴노동자 소득안정 지원 정책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4.3% | 14.1% | 25.9% | 39.5% | 16.1% | 62.3 |
| 성별 | 여성 | 290 | 0.0% | 0.7% | 14.1% | 46.9% | 38.3% | 61.6 |
| | 남성 | 269 | 0.4% | 1.5% | 7.8% | 51.7% | 38.7% | 62.9 |
| 연령대 | 55-59세 | 176 | 0.6% | 0.6% | 11.4% | 50.6% | 36.9% | 61.2 |
| | 60-64세 | 180 | 0.0% | 1.7% | 12.8% | 47.8% | 37.8% | 61.1 |
| | 65-69세 | 142 | 0.0% | 0.7% | 10.6% | 49.3% | 39.4% | 62.7 |
| | 70-74세 | 61 | 0.0% | 1.6% | 6.6% | 49.2% | 42.6% | 67.6 |

19) 1=전혀 필요하지 않음(0점), 2=별로 필요하지 않음(25점), 3=보통(50점), 4=어느 정도 필요함(75점), 5=매우 필요함(100점)

4) 경력단절 예방 및 구직 상담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0.0% | 2.3% | 15.7% | 57.8% | 24.2% | 75.9 |
| 성별 | 여성 | 290 | 0.0% | 1.7% | 14.5% | 60.0% | 23.8% | 76.5 |
| | 남성 | 269 | 0.0% | 3.0% | 17.1% | 55.4% | 24.5% | 75.4 |
| 연령대 | 55-59세 | 176 | 0.0% | 2.8% | 15.9% | 52.8% | 28.4% | 76.7 |
| | 60-64세 | 180 | 0.0% | 2.2% | 16.7% | 61.1% | 20.0% | 74.7 |
| | 65-69세 | 142 | 0.0% | 2.1% | 13.4% | 58.5% | 26.1% | 77.1 |
| | 70-74세 | 61 | 0.0% | 1.6% | 18.0% | 60.7% | 19.7% | 74.6 |

5) 재취업 노동자 대상 기업 지원 유도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0.2% | 2.0% | 14.7% | 57.2% | 25.9% | 76.7 |
| 성별 | 여성 | 290 | 0.0% | 1.7% | 16.2% | 57.2% | 24.8% | 76.3 |
| | 남성 | 269 | 0.4% | 2.2% | 13.0% | 57.2% | 27.1% | 77.1 |
| 연령대 | 55-59세 | 176 | 0.0% | 1.7% | 15.9% | 58.0% | 24.4% | 76.3 |
| | 60-64세 | 180 | 0.6% | 2.2% | 16.7% | 57.8% | 22.8% | 75.0 |
| | 65-69세 | 142 | 0.0% | 1.4% | 9.2% | 58.5% | 31.0% | 79.8 |
| | 70-74세 | 61 | 0.0% | 3.3% | 18.0% | 50.8% | 27.9% | 75.8 |

6) 은퇴 노동자 교육훈련 및 지원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0.0% | 1.4% | 14.8% | 56.2% | 27.5% | 77.5 |
| 성별 | 여성 | 290 | 0.0% | 1.0% | 14.5% | 59.0% | 25.5% | 77.2 |
| | 남성 | 269 | 0.0% | 1.9% | 15.2% | 53.2% | 29.7% | 77.7 |
| 연령대 | 55-59세 | 176 | 0.0% | 1.1% | 13.6% | 55.1% | 30.1% | 78.6 |
| | 60-64세 | 180 | 0.0% | 2.2% | 18.3% | 51.7% | 27.8% | 76.3 |
| | 65-69세 | 142 | 0.0% | 1.4% | 15.5% | 57.7% | 25.4% | 76.8 |
| | 70-74세 | 61 | 0.0% | 0.0% | 6.6% | 68.9% | 24.6% | 79.5 |

7) 은퇴노동자 모임 형성 및 정보교환 사업 지원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0.5% | 3.6% | 22.4% | 52.8% | 20.8% | 72.4 |
| 성별 | 여성 | 290 | 0.3% | 2.8% | 19.3% | 59.0% | 18.6% | 73.2 |
| | 남성 | 269 | 0.7% | 4.5% | 25.7% | 46.1% | 23.0% | 71.6 |
| 연령대 | 55-59세 | 176 | 0.6% | 4.0% | 23.3% | 48.9% | 23.3% | 72.6 |
| | 60-64세 | 180 | 1.1% | 3.3% | 25.0% | 52.2% | 18.3% | 70.8 |
| | 65-69세 | 142 | 0.0% | 3.5% | 19.0% | 56.3% | 21.1% | 73.8 |
| | 70-74세 | 61 | 0.0% | 3.3% | 19.7% | 57.4% | 19.7% | 73.4 |

8) 건강진단 지원 및 산업재해 치료비 지원 사업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0.2% | 1.4% | 12.3% | 50.3% | 35.8% | 80.0 |
| 성별 | 여성 | 290 | 0.0% | 0.7% | 13.8% | 50.0% | 35.5% | 80.1 |
| | 남성 | 269 | 0.4% | 2.2% | 10.8% | 50.6% | 36.1% | 79.9 |
| 연령대 | 55-59세 | 176 | 0.0% | 2.3% | 10.2% | 46.6% | 40.9% | 81.5 |
| | 60-64세 | 180 | 0.0% | 1.7% | 13.3% | 55.0% | 30.0% | 78.3 |
| | 65-69세 | 142 | 0.0% | 0.7% | 15.5% | 50.0% | 33.8% | 79.2 |
| | 70-74세 | 61 | 1.6% | 0.0% | 8.2% | 47.5% | 42.6% | 82.4 |

9) 나이를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기업문화 개선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0.0% | 3.6% | 19.7% | 46.5% | 30.2% | 75.8 |
| 성별 | 여성 | 290 | 0.0% | 3.8% | 20.0% | 46.9% | 29.3% | 75.4 |
| | 남성 | 269 | 0.0% | 3.3% | 19.3% | 46.1% | 31.2% | 76.3 |
| 연령대 | 55-59세 | 176 | 0.0% | 4.5% | 20.5% | 42.0% | 33.0% | 75.9 |
| | 60-64세 | 180 | 0.0% | 4.4% | 16.7% | 51.7% | 27.2% | 75.4 |
| | 65-69세 | 142 | 0.0% | 0.7% | 23.9% | 45.8% | 29.6% | 76.1 |
| | 70-74세 | 61 | 0.0% | 4.9% | 16.4% | 45.9% | 32.8% | 76.6 |

10)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0.4% | 0.7% | 10.2% | 52.8% | 36.0% | 80.8 |
| 성별 | 여성 | 290 | 0.0% | 0.7% | 10.0% | 50.7% | 38.6% | 81.8 |
| | 남성 | 269 | 0.7% | 0.7% | 10.4% | 55.0% | 33.1% | 79.7 |
| 연령대 | 55-59세 | 176 | 0.6% | 1.1% | 11.4% | 51.1% | 35.8% | 80.1 |
| | 60-64세 | 180 | 0.6% | 0.6% | 8.9% | 56.1% | 33.9% | 80.6 |
| | 65-69세 | 142 | 0.0% | 0.0% | 9.9% | 52.8% | 37.3% | 81.9 |
| | 70-74세 | 61 | 0.0% | 1.6% | 11.5% | 47.5% | 39.3% | 81.1 |

11) 노동조건이 낮은 일자리라도 고령자 취업 기회 확대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0.4% | 2.9% | 14.3% | 53.1% | 29.3% | 77.1 |
| 성별 | 여성 | 290 | 0.0% | 1.7% | 14.5% | 54.5% | 29.3% | 77.8 |
| | 남성 | 269 | 0.7% | 4.1% | 14.1% | 51.7% | 29.4% | 76.2 |
| 연령대 | 55-59세 | 176 | 1.1% | 2.3% | 15.3% | 49.4% | 31.8% | 77.1 |
| | 60-64세 | 180 | 0.0% | 2.8% | 15.6% | 52.8% | 28.9% | 76.9 |
| | 65-69세 | 142 | 0.0% | 2.1% | 14.1% | 56.3% | 27.5% | 77.3 |
| | 70-74세 | 61 | 0.0% | 6.6% | 8.2% | 57.4% | 27.9% | 76.6 |

12) 고령/은퇴자 협의체 운영 및 지원 사업

|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평균점수 |
|--------|--------|-----|------|------|-------|-------|-------|------|
| ■ 전체 ■ | | 559 | 0.7% | 2.0% | 18.2% | 57.6% | 21.5% | 74.3 |
| 성별 | 여성 | 290 | 0.3% | 1.4% | 15.2% | 62.8% | 20.3% | 75.3 |
| | 남성 | 269 | 1.1% | 2.6% | 21.6% | 52.0% | 22.7% | 73.1 |
| 연령대 | 55-59세 | 176 | 1.1% | 1.1% | 19.9% | 60.2% | 17.6% | 73.0 |
| | 60-64세 | 180 | 0.6% | 2.2% | 21.1% | 52.8% | 23.3% | 74.0 |
| | 65-69세 | 142 | 0.0% | 2.1% | 14.8% | 61.3% | 21.8% | 75.7 |
| | 70-74세 | 61 | 1.6% | 3.3% | 13.1% | 55.7% | 26.2% | 75.4 |

